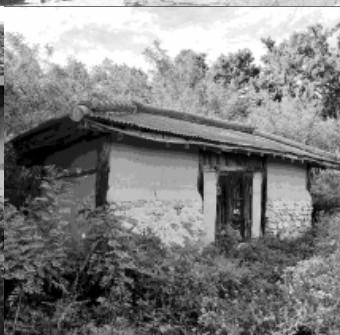


경기마을기록사업 ⑩
안성시 도기동, 공도읍 잔사리 증복리

수공업 창인도시
도농복합도시

안성의 전통과 미래



표지설명

안성구포동 성당은 정면에서 바라보면 건축역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한식과 양식이 절충된 성당의 모습을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고, 측면방향에서 그 신기한 구조를 한 장의 사진에 담는 것도 넓은 가로 폭 때문에 쉽지가 않다.

안성 역사의 깊이와 내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시선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를 상징함과 동시에 안성의 옛 읍치 구도심과 근대 도시에 남아있는 시간의 층들이 구포동 성당처럼 옆으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안성의 진면목을 알게 되고, 안성다운 모습으로 도시발전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램을 담고자 했다.

CONTENTS

- 05 안성장의 번영과 쇠퇴에 따른
안성 지역의 변모 양상

김준기_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 21 도구머리마을을 통해 본
안성의 어제와 오늘

김준기_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 53 도기동과 구 안성장의
문화자원 활용

강호정_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 79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의
현대적 급변과 경계면적 면모

김은희_경기대학교

- 129 안성천이 흐르는
중복리의 근대화와 마을의 현재

시지은_경기대학교

- 175 안성시, 도시공간의 변화와
역사적 정체성

장수아_도시건축연구소 디트拉斯

- 276 안성지역 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가고찰

2019
경기도 현대지역사회 기록화사업
경기마을기록사업 ⑯

안성장의
번영과 쇠퇴에 따른
안성 지역의
변모 양상

김준기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 머리말

안성시를 상징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안성맞춤’이다. 안성시에 진입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문구가 ‘안성맞춤의 고장(The city of masters)’이기도 하고, 안성의 특산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브랜드 명칭이 ‘안성맞춤’이기도 한 것이다. 안성맞춤은 조건이나 상황이 어떤 일에 딱 들어맞아 떨어지게 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안성에서 유기를 주문하면 규격이나 품질을 신뢰할 만하다는 데서 유래된 말이다. 요즘의 KS마크와 같은 위상이 있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렇듯 안성은 상업과 수공업의 도시였고, 아직까지도 안성의 정체성은 이러한 이미지로 굳어 있다.

인접해 있는 용인시, 평택시, 천안시에 비해 도시화, 산업화가 급속하지 않다뿐이지 안성시 또한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도시화, 산업화 외에도 안성은 인근 도시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발전 방향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안성의 정체성으로 남아 있는 상공업 도시로서의 역사 문화적 유산이고, 그 중심축은 안성장이다.

안성장은 전성 시기와는 비교조차 하지 못할 만큼 위축되었다고 하지만 경기 남부의 시장으로서는 현재도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수원의 팔달문시장이 ‘왕이 만든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시장 내에 홍보관과 유상박물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문화 마케팅을 펼치는 것과 비교하면 안성장은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물론 안성에도 안성맞춤박물관이 있고, 안성장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 역시 적지 않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시회 등이 개최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과 동떨어져 있는 안성맞춤박물관을 시장 인근으로 이동시키고¹⁾, 안성장에 대한 새로운 자료의 축적과 이를 이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생산 등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글에서는 안성장의 성립, 발전, 쇠퇴 과정에 따른 안성 지역의 변모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이 작업을 통하여 안성장이 안성의 역사적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밀접한 연동관계를 가지고 현재 안성시의 성립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안성장의 형성과 번영 과정

1) 안성장의 입지 조건

조선시대의 장시는 15세기 후반부터 개설되기 시작하였고, 16세기에 접어들면서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 장시가 자리잡으며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장시가 늦게 개설되었는데, 이는 최대의 소비도시인 한양으로 공급되는 물자를 최대한 확보하고, 한양의 시전상인들이 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의 장시 설립이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산물의 증가, 화폐 경제의 발달 등으로 말미암아 17세기~18세기 이후 이러한 금제가 해제되고 신해통공으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이 폐지되면서 경기도의 도처에도 시장이 활발하게 개설되었다.²⁾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은 해당지역만의 생산과 소비의 경제활동을 위주로 하는 소시장이 있는 반면 이들 소시장에 물품을 공급하고 매집하는 대시장이 있다. 이들 대시장은 소매뿐만 아니라 도매를 하는 사상도고들이 자리 잡으며 상업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경제적 흐름의 변화 속에서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상업도시로 선택받은 곳이 바로 안성이었다.

안성장은 경기 지역 중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장시가 개설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안성은 지리적으로 경기도의 가장 남부 지역에 위치하여 경기도에서는 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한양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또한 안성은 충청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으므로³⁾ 충청도를 거쳐 올라오는 영남과 호남 물화의 집산이 용이하였다.

안성장은 흔히 삼남의 물류가 집산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 안성장이 이러한 위상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시대의 6대로 중 한양에서 삼남으로 통하는 해남로(삼남대로)와 동래로(영남대로)가 안성의 좌우로 지나갔기 때문이다.



<대동여지도>의 안성 부근. 진위를 통과하는 길이 해남로이고, 죽산을 통과하는 길이 영남로이다. 안성은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이 두 대로가 안성을 직접 통과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대신 안성은 이 두 대로 사이에서 이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때 대로상에 위치하면서 두 대로를 안성과 연결시켜 주던 지역이 바로 양성과 죽산이었다. 한양에서 호남 지역으로 이어지던 해남로는 진위⁴⁾의 칠산주막에서 양성으로 향하는 길이 갈라지며 안성으로 연결되었고, 한양에서 동래로 이어지는 영남로는 죽산에서 길이

갈라지며 안성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으로 안성장은 인근의 소시장만이 아니라 삼남의 물화를 수집하고 공급 할 수 있는 물류의 중간기착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중부 지역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2) 안성장의 번영 양상

안성에 장터가 들어선 것은 1700년을 전후한 시기로 보인다. 숙종 때인 1703년 “경기에는 도적 근심이 없는 곳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안성의 일로는 삼남의 요충지로서 공장이들과 장사꾼들이 모여 들어 도적의 소굴이 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안성군수는 무신으로서 병수사(兵水使)를 임명했다.”는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⁵⁾ 영조 때인 1747년의 기록에는 안성의 장시가 서소문 외 시장 중에는 가장 크고 물화가 집산되는 곳이므로 도적들이 들끓는다고 하였다.⁶⁾ 또한 이즈음의 책자인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안성은 경기도와 호서지방 협협 사이에 위치하여 화물이 수용되고 공인과 상인이 모여 들어 한남의 도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헌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18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안성장은 상업도시로 발전 하였으며, 조선 전국을 통틀어 가장 번영했던 장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성장이 전국 3대 장시의 하나로 꼽히며 성황을 누렸던 정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포착된다.

첫째, 안성장에서는 풍부한 상품들이 거래되었다. 흔히들 ‘안성장에는 서울보다 두 가지 물건이 더 많다.’는 말을 한다.⁷⁾ 어느 정도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안성장에서 다양한 물품들이 거래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안성장은 우시장이 크기로도 정평이 나 있었다. 1902년 『각사동록』 자료에 의하면 안성장과 파주의 봉일천장 두 곳의 푸줏간 비용을 기로소의 운영경비로 사용한다⁸⁾고 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큰 가축시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현재도 창전동에 싸전거리, 성남동에 쇠전거리 등의 지명이 남아 있음은 안성장의 미곡시장과 우시장이 지녔던 전통과 위상을 짐작케 해준다.

둘째, 안성장은 다수의 소시장을 거느린 지역의 대시장이었다. 흔히들 장시라고 하면 평상시 공터나 골목에 불과했던 장소가 장날이 되면 장터로 변하여 직접 생산한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주민들이나 장터를 돌아다니며 생필품을 공급하는 행상조직인 장돌뱅이들이 몰려들어 좌판을 펼쳐놓고 판매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된다. 물론 안성장에도 이러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양성장·일죽장·죽산장 등지에서 출시된 생산물을 집산하고, 그 시장들에 생필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의 경제를 주도하는 대시장이었다.

셋째, 안성장은 삼남의 물류가 집산되고 재분배되는 중간기착지였다. 안성은 충청도와의 경계 선상에 위치한 경기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인데다가 좌우로는 삼남대로와 영남대로가 지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이 두 대로를 통해 운송되는 경상, 전라, 충청도 삼남의 물화가 안성장으로 모여

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연암의 <허생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허생은 매점매석을 통하여 경제적 궁핍을 단번에 반전시킨다. 이때 그가 선택한 장소가 안성인데, 이는 안성이 당시 매점매석이 가능할 만큼 물류가 집산되는 고장이었다는 방증인 것이다.

넷째, 안성장은 다수의 객주가 상주하고, 창고가 즐비한 곳으로 요즘의 도매시장의 역할을 하였다. 객주는 상품 집산지에서 상품을 위탁받아 팔아주거나 매매를 주선하며, 그에 부수되는 창고업·화물수송업·금융업 등 여러 기능을 겸하는 중간상인을 말한다. 둘째, 셋째의 특성이 가능했던 것도 이러한 객주의 활약에 따른 것으로 객주는 상품의 원활한 집산과 공급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상회와 창고를 가지고 있었다. 이외에 판매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주선하고 구전(口錢)을 받는 거간과 쌀시장에서 쌀을 말로 되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말감고(斗監考)와 같은 중간상인도 있었다.⁹⁾

다섯째, 안성이 상인들 뿐만 아니라 수공업자들의 본고장이었다는 것이다. 다들 안성이 '안성맞춤'이라는 말을 유래시킨 유기의 고장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안성은 유기 이외도 꽃신, 담뱃대, 한지, 갓 등 다양한 수공예품의 생산지였고, 당연히 이를 생산하는 공장이들이 거주하는 고장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정조가 수원시장을 번영시키기 위해 안성의 공장이들을 수원으로 집단 이주를 시켰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성의 특산품들은 전국적으로 유통된 인기품목이었기에 안성에는 이들 공장이 의 생산품을 집산 출하할 수 있는 일종의 도매상점인 도가(都家)가 발달해 있었다.

3. 상업도시 형성에 따른 안성 행정구역의 변천 양상

1) 안성장의 성립 이전 안성 지역의 상황

안성은 유구한 역사가 깃든 지역이다.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역사는 문헌자료를 통해서 정립이 되어 있지만, 그 이전 선사시대, 마한의 성읍국가시대, 한성백제시대 등의 고대 안성의 역사를 도처에서 발견되는 유물과 유적을 통해 점차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글의 관심사가 안성장이 안성 지역에 미친 영향이므로 안성장이 성립되기 이전의 안성 지역은 어떠한 영역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모습이었겠는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마한의 성읍국가시대와 한성백제시대 안성의 중심지는 안성천 이남 지역이었다가 고구려의 내혜홀, 통일신라의 백성군을 거쳐 고려 때 안성현으로 자리를 잡는 동안 안성의 중심지가 안성천의 남쪽 지역에서 북쪽 지역으로 서서히 이동하여 갔다고 판단된다.¹⁰⁾ 고려 1018년(현종 9)에 안성현은 현재의 수원인 수주(水州)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관할하던 임내(任內)였으므로 당시 임내를 지배 하던 토착세력이 안성천 북쪽에 세거하고 있었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초기까지 안성의 중심지는 비봉산 서쪽 골짜기에 위치한 현재의 사곡동(沙谷洞), 곧 '삿골'로 추정된다. 삿골은 내혜홀과 백성현의 옛터로 전해오며 어원 역시 '고을(縣)을 살았다'는 의미로 옛 고을을 뜻한다. 이와 달리 중심지가 이동하면서 마을이 황폐해졌다고 해서 사골(死-)이 되

었다는 설도 전한다.¹¹⁾ 마을 주변에서 발견된 무수한 와편(瓦片)들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이후 안성이 현에서 군으로 승격하며 안성의 중심 지역은 비봉산의 남쪽 자락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당시 안성의 읍내에 해당하는 읍치 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는가 하는 점이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방의 행정구역이었던 주·군·현의 읍치 선정은 풍수적 관념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안성군의 읍치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북쪽의 비봉산을 진산으로 하여 이 산을 등지고 있으며, 남쪽의 영봉천(안성천의 옛 이름)을 객수(客水)로 하여 이 하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읍치 지역은 비봉산과 안성천 사이에 있는 협장에 해당하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현재의 구포동이 이 협장에 해당하는 읍치였다. 읍치의 중심은 당연히 아사(衙舍)와 객사(客舍)가 위치한 곳인데, 현재 아사의 자취는 없고, 객사는 보개면 양복리로 이전되어 있지만¹²⁾ 안성교육지원청 자리에 아사가 안성초등학교 자리에 객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포동을 예전에 ‘객사 앞’이라고 불렀다는 토박이의 증언은 지금도 들을 수 있다. 구포동 동북쪽에 있는 명륜동에는 안성향교가 아직도 자리하고 있어 이곳이 교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근의 승인동은 아사에 들어가기 전 말이나 가마에 서 내려 예를 갖추고 걸어가라는 하마비의 동쪽에 있었던 마을이라 한다.¹³⁾

▶ 구포동 안성초등학교에 있는 관아터 유적비



▶ 명륜동의 안성향교



따라서 안성장이 번성하기 전 안성의 중심지는 비봉산의 남쪽 자락에 위치한 구포동, 명륜동이었고, 나중에 안성장이 들어서는 안성천 주변은 이렇다 할 마을이 형성되기 전인 벌판지역이었을 터이다. 전통사회의 지역시장은 상설시장이 아닌 정기시장이었기 때문에 장날에 행상인들이 들어설 널찍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데, 안성천 주변이 미발전 지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장이 들어서기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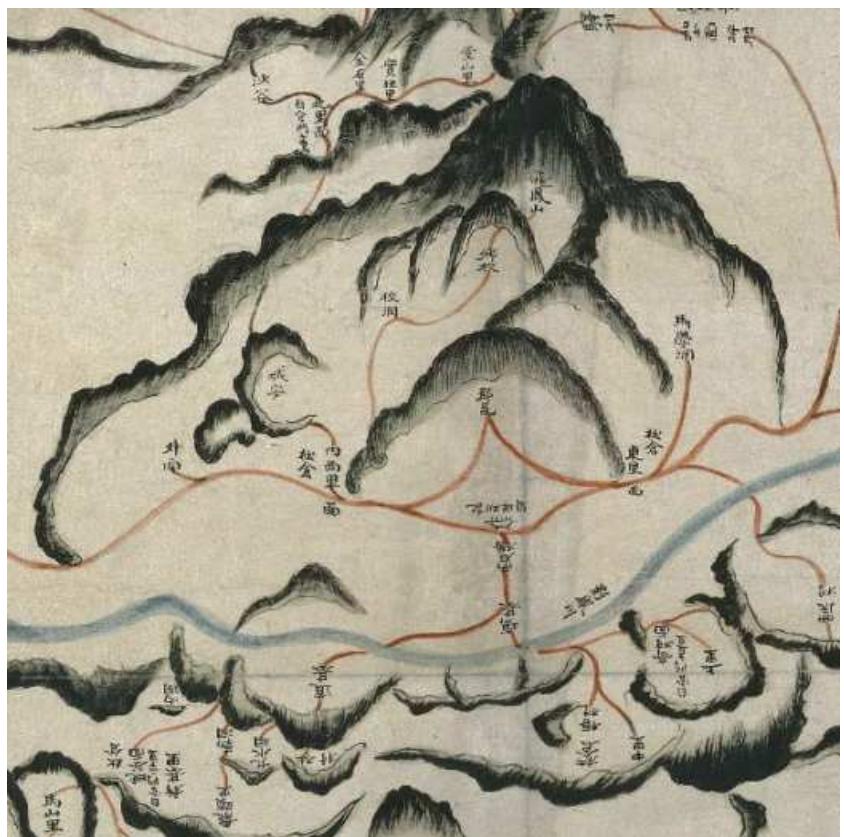
2) 안성읍내의 확장 과정

안성장의 번영은 안성의 성격을 상업도시로 변화시켰고, 안성의 중심지 역시 관아, 객사, 향교가 있던 비봉산의 남쪽 자락에서 안성시장이 있었던 안성천변으로 점차 이동하였다.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에 의하면 당시 안성은 25개 면, 84개 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중 읍내동리면과 읍내서리면이라 기록된 곳이 읍내로 인식되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읍내동리면에 속한 서어피리(鋤魚皮里) 외에는 마을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읍내의 상황을 현재와 비교할 길이 없다. 『호구총수』가 간행될 당시에는 안성장이 성황을 이룰 때이지만 이 문헌은 당시 전국의 인구를 조사하여 기록한 것이므로 주민과 행상인의 이동에 의해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장터가 언급되었을 리도 없고, 장터가 하나의 마을로 인식되지도 않았던 듯하다.

1872년경의 안성군 지도에는 조선후기 안성 지역의 모습이 비교적 상세히 나타나 있다. 비봉산 서쪽의 옛 고을인 사곡리는 북리면이 되어 중심지역에서 이탈되었고, 비봉산 남쪽에 읍치가 형성되었다. 군읍이라고 표시된 곳이 당시

1872년 안성군 지도



관아터이고 『호구총수』의 기록을 감안하면 동리면과 서리면이 읍내로 인식되던 지역이다. 이 지도에는 당시 안성장이 섰던 장터(場基)가 명기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기공비각을 사이에 두고 관아와 대청을 이루는 안성천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 시기 장터가 있던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발달되며 고정된 상설점포인 객주집이 들어서고 상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시장마을이 형성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읍치와 장터 사이에 기공비각과 남석교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중간 지역에 이렇다 할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읍치와 장터가 연결된 공간이 아닌 분리된 공간이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안성장은 이 시기 상업도시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읍내에는 포함되지 않는 독립된 상업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 장터마을은 1910년 초 총독부에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장기리라는 행정구역 명칭으로 확인된다.

장기리가 안성을 대표하는 상업지역으로 자리를 잡으며 이곳에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안성 읍내면의 중심지는 옛 관아터였던 구포동에서 장기리로 이동하였고, 중심지의 이동은 읍내지역의 확장을 가져왔다. 확장의 방향과 범위는 당연히 안성장을 둘러싸고 있는 인접지역일 터인데, 예로부터 읍치 지역이었던 관아 지역은 물론이고, 동·서·남쪽 지역이 모두 포함되었다.

1912년에 간행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 의하면 군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동리면은 본리, 마곡, 장기, 교동의 4개 리였고, 서리면은 본리, 묘동, 옥산평, 수용촌, 석정리, 계촌, 도기의 7개 리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일제강점기에 군청 소재지가 조선 시대의 읍치였던 구포동이 아니라 영동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의 안성1동 주민센터는 1928년에 신축된 일제강점기의 안성군청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이다.¹⁴⁾ 물론 구포동이나 영동이나 당시에는 모두 동리면 본리(본말)에 해당되는 지역이었지만 행정관서가 영동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은 당시 안성의 중심축이 본리가 아니라 안성장이 있었던 장기리였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와 더불어 구읍치 지역에 천주교 성당이 들어서는 것도 참조할 만한 사항이다. 1900년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인 공안국(안토니오 콩베르 Antonio Combert) 신부는 구포동의 민가를 매입하여 입주한 후 이듬해 정식으로 안성천주교회 본당을 창설한다.¹⁵⁾ 천주교 탄압의 상징이었던 옛 관아터 바로 옆에 성당이 들어서는 것이다. 이와

기공비각(記功碑閣). 이인좌의 난을 진압한 도순무사(都巡武士) 오명항(吳命恒)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지금은 비각은 없어지고 비석만 남아 있으며, 낙원공원 안으로 옮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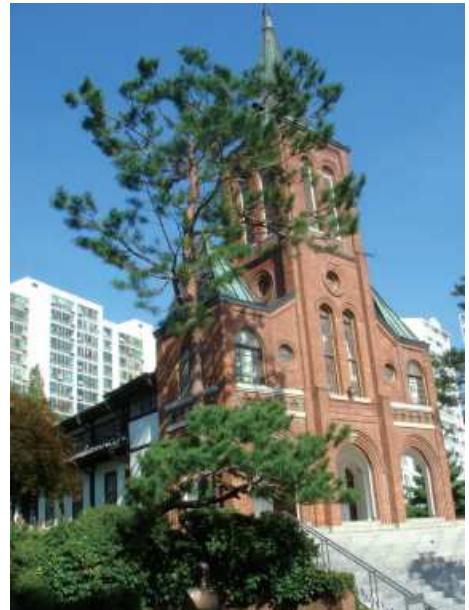


대조를 이루는 장면은 1920년대 장터거리와 안성군청 사이에 안성공원이 조성되고 신사(神社)가 들어선다는 것이다. 이 공원이 지금의 낙원역사공원이며, 현재 낙원동인 이곳의 일제강점기 동명은 대화정(大和町)이었다.

이렇듯 안성군의 행정중심지조차도 안성장터 쪽으로 이동되었다는 사실은 상업도시로서의 안성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특징이다.

▼ 구안성군청(문화재청)

▶ 구포동 성당



이와 더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안성장의 중심 배후지역 역시 읍내면으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이다. 『호구총수』에서 도기리면이라는 독립된 면을 이루었던 도기리와 계촌리가 읍내 서리면에 포함된 것이다. 이 두 마을은 안성천을 사이에 두고 안성장과 마주보고 있던 마을이었다. 이렇듯 안성천 너머까지 읍내가 팽창되었던 이유는 도기리가 수공업과 상인들의 마을로 발전하며 안성장의 주요 배후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 당시 도기리에는 대장간이 두 곳이 있었고, 갓 수선점들이 밀집해 있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러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는 동리면과 서리면 뿐만 아니라 북리면¹⁶⁾까지 포함하여 읍내면으로 통칭되며 다음과 같은 총 10개의 법정리로 구획된다.

※ 1914년 안성 읍내면의 법정리

옛 동리면 지역	동리, 장기리
옛 서리면 지역	서리, 석정리, 옥산리, 도기리, 계촌리
옛 북리면 지역	당왕리, 금석리, 사곡리

이후로 이 읍내 지역은 약간의 변동과정은 있었으나 ‘안성읍 -> 안성동’의 명칭 변화를 거치며 현재의 안성1동, 2동, 3동이 되는 것이다.¹⁷⁾

3) 안성군의 확장 과정

안성장의 번영에 따른 안성 지역의 변화는 읍내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고, 안성군의 전체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금의 안성시는 조선시대의 안성군 지역에 양성현, 죽산부의 일부 면이 편입되어 확장된 지역이다.¹⁸⁾ 조선시대의 안성군은 현재 면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영역이었다. 읍내면이었던 안성 1·2·3동을 중심에 두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보개면, 금광면, 미양면, 대덕면, 서운면¹⁹⁾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안성시의 서부인 양성면, 원곡면, 공도읍은 조선시대에는 양성현에 속해 있었고, 시의 동부인 삼죽면, 죽산면, 일죽면은 조선시대 죽산부에 속해 있었다.

사실 안성장의 형성 이전에는 이 세 고장이 인접해 있던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그리 긴밀한 연결 고리가 없었던 곳이다. 역사상 행정구역 단위가 처음 설정되는 시기부터 이 세 지역은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안성의 본래 지역은 고구려 때는 내혜홀, 통일신라 때는 백성군이었다가 고려시대 안성이라는 지명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²⁰⁾ 안성현을 거쳐 안성군으로 격상되며 조선시대로 이어진다. 지금도 안성시내에는 내혜홀초등학교와 백성초등학교가 있고, 안성객사²¹⁾의 현판이 백성관으로 되어 있어 옛 명칭이 기억되고 있다.

옛 양성 지역은 고구려 때는 사복홀(沙伏忽), 통일신라 때는 적성(赤城)이었다가 고려시대 적성현을 거쳐 양성현이라 개칭된 후²²⁾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옛 죽산 지역은 고구려 때는 개차산군(皆次山郡), 통일신라 때는 개산군(介山郡)이라 하였다가 고려시대 죽주(竹州)를 거쳐²³⁾ 조선시대 죽산현이 되었다. 죽산의 명칭이 ‘죽주 -> 죽산현 - 죽산도 호부’로 개칭되는 과정은 죽산이 역사적으로 부침이 많았던 고장임을 시사해준다. 고려 때 주(州)라는 명칭은 군이나 현보다 위상이 높은 고을을 의미하였는데, 조선 태종 때 주·군·현이 재편되며 군현으로 격하된 주(州)자로 끝나는 지명은 모두 산(山)과 천(川)으로 대신하게 되면서 죽산현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또한 죽산은 안성과 양성이 조선 태종 때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이관되었을 때 여전히 충청도에 속해 있다가 세종 때에서야 비로소 경기도로 관할이 바뀐다. 이는 당시까지 죽산이 안성과 전혀 별개의 문화권이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더욱이 죽산은 중종 때 도호부로 승격되어 군이었던 안성보다도 위상이 높은 곳이었다. 이는 죽산이 당시 영남대로의 거점 도시이자 교통의 요지로서 번영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안성군이 양성현과 죽산부를 병합한 것은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부터이다. 일제가 행정 구역을 통폐합한 주목적은 지방의 행정과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만, 안성군을 중심

에 두고 동서에 위치해 있던 두 지역을 편입시키는 방향을 택한 것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터이다. 즉 안성 서쪽에 접해있는 양성현 지역과 동쪽에 접해있는 죽산부 지역이 안성에 병합될 당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여도 이질감이 없는 동일한 지역권이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이 동일 지역권의 기반으로 작용한 것이 바로 안성장의 전성시기 때에 형성된 교통망과 이를 통한 경제적, 문화적 교류관계일 것이다.

안성장의 입지 조건에서 언급했듯이 정작 삼남대로와 영남대로가 통과하지 않고 두 대로의 사이에 위치했던 안성이 삼남의 물류가 집산되는 대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삼남대로 상에 있던 양성과 영남대로 상에 있던 죽산 덕분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지역들은 상호간의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류만을 유통하는 곳이 아니라 정보가 제공되고, 오락의 장소가 되고,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지역 시장권은 동일 문화권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 가장 번영했던 안성을 중심으로 양성과 죽산이 통합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행정구역상의 확장 과정이 도대체 안성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안성시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는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지금도 양성현과 죽산부 지역에 사는 토박이들은 자신의 출신지나 거주지를 묻는 질문에 대개 양성 혹은 죽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안성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

이는 아직껏 안성시가 한 지붕 세 고을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사실 1914년 당시만 해도 안성장은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고, 확장된 안성군의 영역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의 시기는 안성장이 쇠퇴하는 시기와 맞물린다. 이에 안성군은 확장된 영역을 추스를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하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까지 이어진다.

4. 안성장의 쇠퇴에 따른 안성 지역의 변화양상

1) 안성장의 쇠퇴 과정

안성장의 쇠퇴시기는 19세기로 잡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²⁴⁾ 하지만 안성장의 쇠퇴는 급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중엽까지 서서히 진행된 것이고, 그 이유 또한 어느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었다.

안성장을 쇠퇴시키는 첫 번째 이유는 안성장의 경쟁상대인 수원시장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정조가 수원에 화성을 축조하고 시장을 개설하는 것이 그 발단이다.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타지역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켰고, 그들의 원활한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 시장을 개설해야 했다. 이에 화성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상인과 수공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다수의 안성 수공업자들

도 수원으로 이주하게 된다. 이때 안성장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을 터이지만, 장세가 급격히 꺾일 만큼의 변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발단에 불과했고, 이후로도 수원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안성장의 장세를 흡수해간다.

둘째는 인천 등 개항장을 통하여 물류가 서울로 이송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해운은 육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류의 대량운송이 가능하다. 이에 호남과 호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류들이 해운을 통해 이송되었고, 안성장을 통해 집산되던 삼남 특히 호남에서 올라오는 물류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셋째는 안성의 특산물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필요가 없어지거나 수입품과 근대 신제품에 밀리며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안성을 대표하는 특산물은 유기, 갓, 갖신, 담뱃대(백동연죽), 종이(한지)였다.²⁵⁾ 유기는 개항 이후 수입된 일본이나 중국의 도자기, 그릇 등으로 대체되었고, 갓은 의복의 변화에 따라 사라져갔다. 갖신 또한 고무신이나 서양신발이 들어오면서 수요자가 급감하였고, 엽연초를 피우지 않게 되면서 담뱃대 또한 수요가 극감했으며, 한지도 양지에 자리를 내주었던 것이다.

넷째는 경부철도의 노선이 안성이 아니라 평택으로 변경되며 타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안성 사람들이 꼽는 안성장의 쇠퇴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경부철도의 문제인 듯하다. 처음 경부철도의 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안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안성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평택으로 대체되었고, 이러한 기로에서 평택이 발전하고 안성은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안성의 북부지역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철도가 가설되기에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노선에서 배제되었을 뿐이다. 조선시대의 영남대로나 삼남대로도 안성을 직접 통과하지는 않았다. 아무튼 경부철도가 평택-수원의 노선을 취하면서 안성장이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 영남에서 올라오는 물류조차 더 이상 안성을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안성은 삼남에서 올라오는 물류의 집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안성기략(1925)』을 통해서 확인된다.

“경부철도 개통 이전에는 포목, 어물, 과일, 기타 각종 물건을 취급하는 객주가 있어 위탁매매, 수표인수, 할인, 대금과 화폐의 교환 등을 행하는 동시에 고용의 숙박, 기타 상업상 알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 지방의 물화를 직접 기차로 운반하게 된 후로는 물화의 집산이 점차 감소하고, 상인의 판로가 축소됨에 따라 객주는 거의 전부 폐지되고 지금은 몇 개소만 남아 있을 뿐이다.”²⁶⁾

그런데 경부철도의 개설로 반사 이득을 얻은 장은 평택이 아니라 수원이었다. 그리고 보면 안성장에 가장 피해를 미친 시장은 정조 때로부터 악연을 이어온 수원장이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안성장은 사양길을 걷게 되며 가장 변동이 심한 시기는 경부철도가 개설되는 1905년 직후였다. 하지만 안성장의 쇠퇴는 서서히 진행되었다. 조선총독부 『경기도안내(1915)』에는 안성시장에 대하여 ‘도내굴지의 시장으로 매월 음력 2, 7일 개시하며 미곡, 어채, 잡화, 소 등을 취급하며, 1개년간의 판매액은 70만 원 이상이다. 인구는 약 7천명으로 주민은 반농업에 종사하며 기타 상업을 하거나 노동에 종사하며, 공예품으로는 유기식기, 연관(煙管) 등으로 유명하며, 1개년

약 1만 원의 생산을 한다.'고 하였다.²⁷⁾ 이와 유사한 내용이 『안성기략(1925)』에도 실려 있는데, 안성장의 판매액이 60만 원이고, 공예품이 1만 5000여 원이라고 개정된 정도이다.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체 판매액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사항이 될 것이다.

1910년대 초 점포가 밀집했던 안성군 읍내면 장기리의 시장일대와 상설점포에 대한 기록(국가기록원).



2) 부활을 꿈꾸던 안성장의 대응 양상

물론 안성에서 군의 활력과 장세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보인다. 1925년 사설 군지의 성격을 보이는 『안성기략』의 출간에는 이러한 노력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안성장은 읍내시장이라 불리며 2, 7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장세를 회복하지는 못한 듯하고 대신 물상객주가 밀집되어 있었던 상업지역에는 상설점포가 자리를 잡아 상설시장의 양상을 보였다. 읍내시장에는 조선인 점포 102호, 일본인 점포 6호, 중국인 점포 9호가 있었다. 상설점포는 포목점이 가장 많고, 잡화점, 도자기점, 식료품점, 금은점, 재목점, 해산물점, 유기점, 건재약국, 미곡점 등이 있고, 경남철도(안성선) 개통 후에는 운송점도 생겨났다.²⁸⁾

천안~안성까지의 안성선²⁹⁾은 1925년에 개통되었고, 1927년까지는 안성~장호원까지 노선이 연장된다. 하지만 1944년 안성~장호원 구간은 폐지되는데, 유사한 성격을 지닌 수원~여주간의 수려선이 1930년에 개통하여 1972년에 폐지되는 것을 보면 이는 단순히 선로공출령에 따른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 안성선의 부설 목적이 경기 남부의 농산물을 서해안 항구로 반출하기 위한 것이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만큼의 경제성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데서 기인하였을 터이다. 천안~안성

노선도 물류의 유통보다는 여객 수송에 치중하다가 1985년에 폐지되었다.

또한 안성시장 상인들은 상업협의소나 안성상사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활로를 개척하려고 하였다. 1919년 11월에 창립된 안성상사주식회사는 외래품 면사포(광목), 주단(명주와 비단), 비료, 소금, 만주조, 외국쌀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대금업을 운영하였으며 조선에서 생산된 곡물, 해산물, 모시 종류, 지물, 기타 잡품의 위탁판매를 겸하였다.³⁰⁾

읍내에 여관이 조선인 46호, 일본인 1호가 있었으며 요리점으로 조선인 5호, 일본인 3호, 중국인 4호가 있었고, 음식점으로 조선인 75호가 있었다는 사례 역시 당시 안성을 출입하는 여객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나타내준다.³¹⁾

1925년경의 이러한 정황들은 안성이 비록 수공업의 도시로서의 면모는 사라졌어도 상업도시로서의 성격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특히 상사, 상회 등은 예전 객주의 변화된 모습이고 이들 상인들이 발기하여 창립한 안성상사주식회사는 근대적 상업도시로의 변신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지만 결국 성공을 거두지는 못 한다. 안성장은 다른 지역시장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편이었지만 예전처럼 삼남의 물류를 집산시키고, 지역에서 생산된 수공예품을 전국에 출시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3) 안성장의 이동에 따른 안성 시가지의 변화 양상

안성장의 쇠퇴는 당연히 안성 지역의 변화와 직결되었다. “읍내면 동리, 서리, 장기리, 석정리를 안성읍내 또는 안성시장이라 널리 일컫는다.”³²⁾는 기록은 실제적인 행정구역의 변경과는 무관 하지만, 읍내에 대한 인식이 관공서, 장터,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 정도로 제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은 실제 시가지의 축소로 나타났고, 안성장의 배후지로 있었던 나머지 행정구역상 읍내에 포함된 지역들은 발전을 멈추고 다시 농촌사회로 환원되었다. 안성은 상업도시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안성평야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이들 농촌지역은 1980년대까지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해외농축산물의 개방을 맞이하면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며 안성이 낙후되고 고령화된 도농복합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현재 옛 안성장터는 구시가지로 불린다. 장터로 진입하던 창전동 입구에 ‘추억의 거리’라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을 뿐 정작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건물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물론 안성장은 사라지지 않고 서인동으로 자리리를 옮겨 지금도 서고 있다. 안성맞춤대로를 사이에 두고 상설시장인 안성맞춤시장과 안성중앙시장



지금은 추억의 거리가 된 옛 장터거리. 왼쪽이 싸전거리인 창전동이고, 오른쪽이 우전거리인 성남동이다.

이 마주보고 있다. 더욱이 안성 중앙시장 주변으로는 2, 7일로 끝나는 날 여전히 오일장이 서며 옛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안성장이 더 이상 경기 남부 지역을 이끌어갈 만한 대시장은 아니지만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듯이 안성장은 아직도 경기도에 있는 전통시장 중에서는 큰 편에 속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현재 안성장의 이동 역시 안성시가지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안성은 예로부터 서면과 동면 지역으로 구분되었고, 그 기준점은 안성초등학교 앞으로 나 있는 중앙로 399와 400번 길이다. 그 길의 북단에는 관아가 있었고, 남단에는 옛 안성장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 중 동면이 전통적으로 안성읍내의 중심가이며 변화가였고, 서면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안성장이 서인동으로 이동하면서 안성시내의 중심 변화가 역시 서면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신시가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서인동에 시장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 일대는 미개발 지역에 머물고 있었다. 현재의 내혜홀 초등학교 자리는 6·25 동란 직후 피난촌이 들어서며 빈민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고, 현 시장터 역시 아홉 마지기, 1800평의 논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성시장이 옮겨온 후 전통적인 동면과 서면의 역사가 뒤바뀌게 된 것이다. 물론 이곳이 미개발 지역이었기 때문에 구시가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겠지만 안성장의 이동은 서인동을 상업지구로 변화시켰고, 이 상업지구가 서면 지역에 아파트 단지와 중소기업이 들어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현재도 서면 지역인 아양동에 대규모의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어 이러한 안성시내의 위상 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인동으로 이전된 안성장

5. 마무리

조선후기를 거쳐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상업도시의 위용을 자랑했던 안성은 교통의 중심에서 빗겨나며 정체의 길을 걸어왔다. 도농복합도시라고는 하지만 시내를 제

외한 지역은 대부분 고령화된 농촌이다. 안성과 이웃해 있는 용인, 평택, 천안과 비교해보면 어쩐지 산업화와 도시화가 안성만을 빗겨 지나간 듯한 인상이다.

대내외적으로 사람들이 현재 안성과 가장 많이 비교하는 도시가 평택이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은 평택의 발전상과 상반되는 안성의 정체상이며, 가장 먼저 거론되는 대목이 1905년 개통된 경부 철도 이야기다. 당시 안성을 지나갈 예정이었던 노선이 안성군민들의 반대에 봉착해 평택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³³⁾ 물론 이 경부선 때문에 삼남에서 올라오던 물류를 집산하던 안성의 육로교통상의 이점이 철도를 통한 물류 운송으로 평택 - 수원 - 서울로 이어지며 약화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물류의 유통과 집산지로서 반사 이익을 얻었던 곳은 수원이었지 평택은 아니었다.

정작 평택이 급부상하며 발전하게 되는 시기는 6·25 동란 이후 미공군이 주둔하면서부터였다고 보아진다. 평택에서 군포로 시집갔던 한 할머니³⁴⁾의 제보에 의하면 당시 군포는 전기가 안 들어왔었지만 평택은 전기가 들어왔던 지역이었고, 군포에서 양잿물에 쌀겨로 만든 겨비누를 쓸 때 평택에서는 가루비누와 빨랫비누를 쓸 정도였다고 했다. 미군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과 세탁소, 상점들도 상당하여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얻어진 지역 활성화는 대단한 것이었다.

최근에도 평택은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인 항만도시를 꿈꾸고 있고, 삼성전자나 LG 전자 등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용산에서 이전하는 주한미군의 평택시대 등을 통해 또 한번의 비약적인 발전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동안 평택에는 인구의 유입도 급증하여 아파트 단지로 뒤덮히고 있다.

이런 평택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소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그간 안성의 선택과 행정을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평택의 발전은 안성의 뜻을 뺏어간 것이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다. 또한 안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 역시 평택과는 다른 방향이어야 한다고 본다.

산업화, 도시화만이 지역 발전의 바로미터가 되지는 않는다. 공단이나 기업의 유치,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의 건설 등으로 안성의 발전을 모색한다면 안성은 인근 평택, 용인, 천안과 비교할 때 후발주자에 불과할 뿐이다.

현대는 문화관광의 시대이다. 현재의 안성이 더 이상 상업도시로서의 위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전 상업도시였을 때의 잔영은 곳곳에 남아 있고, 이러한 잔영은 안성이 물려받은 중요한 문화유산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안성맞춤의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은 문화관광형 상업도시로 육성하는 방안도 안성시가 모색해나가야 할 중요한 방안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안성장의 성립, 발전, 쇠퇴 과정에 따른 안성 지역의 변모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의 안성 지역은 안성장의 변천에 따라 형성된 것이며 촘촘히 밀집되어 있는 시내의 공간 곳곳에 그 흥망성쇠의 역사가 서려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고 본다. 미진하나마 이 고찰이 상업도시로서의 안성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9
경기도 현대지역사회 기록화사업
경기마을기록사업 ⑯



도구머리마을을 통해 본 안성의 어제와 오늘



◆
김준기
경희대 민속학연구소

1. 머리맡

안성은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도농복합형 도시이다. 하지만 도시보다는 농촌의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농촌형 고령 도시로 전락하였고, 이제는 도시소멸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¹⁾ 시내의 중심가라 할지라도 안성읍 시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안성동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체된 농촌마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허다하다. 어찌 보면 경기도 지역 중에서는 서울과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전의 속도가 느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인접해 있는 평택, 용인, 천안이 무수한 신도시형 아파트와 빌딩들로 가득 차고 대기업이 유치되어 있어 유입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딱히 위치상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수치상으로 확인되는 안성의 인구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하니 안성의 정체 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²⁾

따라서 이 시점에서 도대체 왜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이 안성을 빗겨 지나가게 되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은 정체상태에 빠져 있는 안성이 이 굴레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해법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안성은 만만치 않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고장이다. 특히 조선 후기의 상업도시를 대표하던 안성의 위상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물론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웬지 지난 시절에 대한 자긍심과 자기 안주에서 나오는 보수성도 안성의 발목을 잡은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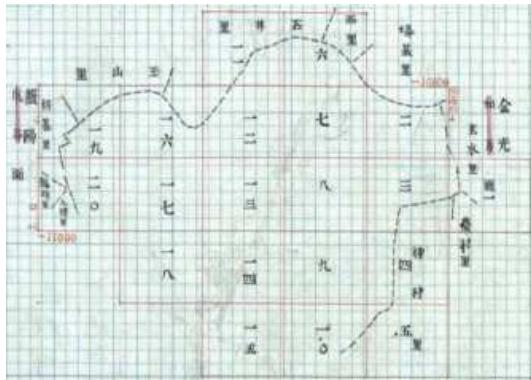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계기는 최근 도구머리마을을 조사하면서부터이다. 도구머리마을은 한때 “텃세 심했던 동네”, 심지어 “셋방도 안 들어오던 동네”로 알려져 있었다. 이는 도구머리마을이 잘 나가던 부촌이었고, 배타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마을이었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도구머리마을의 성향이 그간의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정체상태에 빠트리는 계기가 되었을 터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글에서는 도구머리마을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살펴보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시도해보고자 한다. 도구머리마을이 비록 향교나 관아가 있었던 읍치도, 번영했던 장터의 중심지도 아니었지만 안성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는, 사농공상이 혼합되어 있던, 읍내면 지역으로 안성의 흥망성쇠를 잘 나타내는 지역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2. 도기동 마을의 개관

도기동의 북쪽으로는 안성천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계촌천이 동의 동북면을 가르며 안성천으로 합류한다. 동의 서부는 구릉성 산지가 발달되어 있고 동부는 안성천과 계촌천 유역을 따라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어 전답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도기동의 영역과 주변의 자연환경은 1910년대 읍내면 도기리 시절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안성천의 물줄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동의 북부 지역이 안성천 너머에 위치하게 되었고, 도기동 주변의 행정구역과 마을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이다.³⁾



▲ 1910년대 도기리(국가기록원). 주거지는 7, 8, 12, 13지역 뿐이고 나머지는 전답이었다.

▶ 현재의 도기리(네이버 지도). 안성천의 물길이 정비된 것을 제외하고 별로 변화가 없다.



도기동은 현재 행정동인 안성2동에 속하는 법정동이다. 안성동은 옛 읍내면 시절부터 안성의 중심지였고, 이후 읍을 거쳐 안성이 시로 승격될 때 동이 되어 1·2·3동으로 분동된 지역이다. 하지만 시내라 하여도 신시가지라고 불리는 현재의 시장거리 주변을 제외하고는 예전 읍소재지 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농촌마을로 남아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는 도기동 역시 마찬가지여서 안성2동주민센터,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 각종 공공기관이 들어서 있는 안성2동의 중심지역이라고는 하지만 도로변에 위치한 도기1통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농촌마을이라는 인상이 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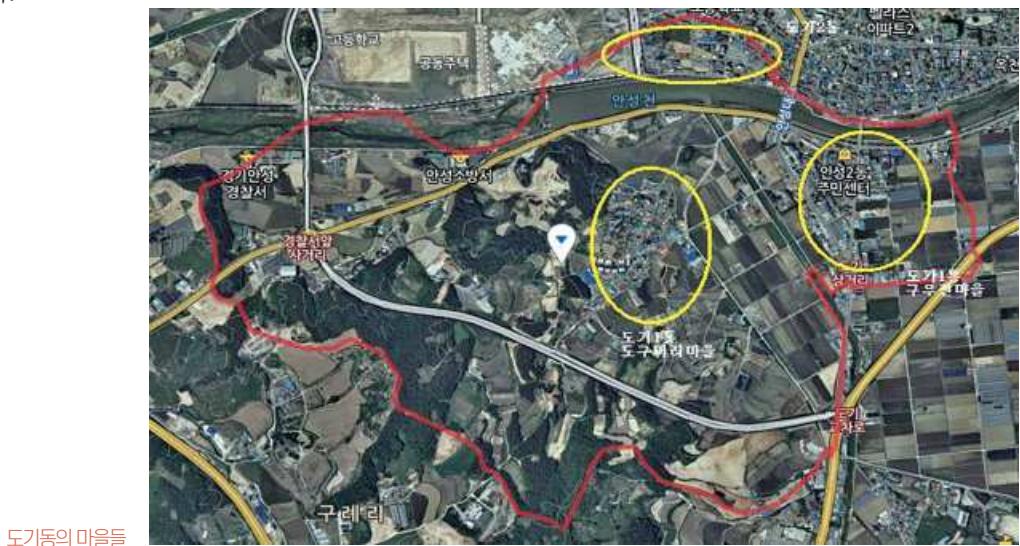
물론 해방 이후 도기동 역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어온 것은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100여 호에 불과하던 도기동은 이제 세대수 617호에 인구수 1,261명(남 689명, 여 572명)⁴⁾의 마을이 되었다. 또한 마을 곳곳에는 빌라와 원룸촌, 중소기업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전체 인구수의 증가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는 현상은 이와 관련된 지표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변화들이 도기동의 정체성을 바꿀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는다.

현재의 도기동은 안성천을 경계로 하여 도기1통과 도기2통으로 나뉘어져 있다. 6·25 동란 이전까지 도기동 전체 지역은 안성천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안성천을 경계로 하여 안성의 중심이었던 구시가지, 곧 옛 장

기리 지역과 마주하고 있는 마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6·25 직후 안성천의 직강공사와 제방공사가 이루어지며 도기동 북쪽의 하천지역 일대가 안성천 건너편이 되어 버린 후 도기2통으로 분동이 된다.

안성천 남쪽의 도기1통 역시 현재 하나의 행정리로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한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기1통의 서부로는 계촌천이 비스듬히 흐르다 안성천에 합류하는데, 이 계촌천과 그 주변의 전답을 경계로 하여 양쪽에 마을이 들어서 있는 것이다. 계촌천 서쪽에 들어선 마을은 도기동의 원조가 되는 도구머리마을이고, 동쪽에 있는 마을은 1970년대 초에 가축시장이 옮겨오면서 새롭게 형성된 마을이다. 또한 이 두 마을은 마을의 역사성은 물론이고 주민의 구성이나 마을 성격도 전혀 별개이다. 새 마을의 경우 역사도 워낙 짧아서 그런지 도기동이라는 일반적인 행정구역상의 명칭 외에는 자연마을에 해당하는 명칭은 없다. 하지만 도구머리마을의 어른들은 이곳을 흔히 우전거리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편의상 구우전마을이라 부르기로 하겠다.

이 글의 관심사는 도기동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해 안성의 변화 현상을 엿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 대상은 유서 깊은 도구머리마을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도기동 전체의 현황을 기술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의 마을 현황을 도기1통 도구머리마을과 구우전마을, 도기2통으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1) 도기1통 도구머리마을

도기1통의 도구머리마을은 도기동의 원조마을이자 으뜸마을이다. 6·25 동란 이전만 하더라도 도기동 지역에서 마을이란 이 도구머리마을밖에는 없었다. 도기동이라는 지명도 애초 '도구머리'에서 유래된 것이다.

안성대교를 건너 안성맞춤대로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도구머리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초입에 도기동 마을 표석이 나온다. 이 표석 뒤쪽에는 돌거북이 눈에 띄는데, 비석의 귀부(龜趺) 부분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가져다 놓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돌+거북+머리’ 즉 도구머리야말로 이 마을을 표상하므로 적절한 상징물임은 분명하다.

도구머리마을 마을입구 표석. 뒤쪽에 도구머리를 상징하는 거북이와 오른쪽의 콜라공장의 표지판이 대조를 이룬다.



도구머리마을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은 안성천을 따라 나있는 미양로에서 갈라지는 길이다. 이 길에서 마을로 진입하기 직전에는 들판에 솟아 있는 야산이 있다. 현재는 이 산 위에 도기동 삼층석탑이 있기 때문에 탑산이라고 부르지만, 산의 형상이 거북의 머리 모양이므로 옛날의 명칭은 ‘도구머리’였고, 이 산이 마을의 랜드마크로 여겨지면서 마을명도 도구머리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애초에 이 산 위에 삼층석탑을 세운 이유도 안성의 비봉산이 봉황의 형상이고 탑산은 거북의 형상인데, 거북이 강을 건너가면 주민들에게 재앙이 따른다고 하여 거북이 자리를 뜨지 못하도록 탑을 세워 머리를 눌러 놓은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진다.⁵⁾

도구머리마을 입구의 탑산과 마을길



지금은 도구머리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안성맞춤대로 쪽과 미양로 쪽 두 곳이 있지만, 이 중 옛날부터 있었던 원래의 마을길은 미양로에서 탑산을 거쳐 들어가는 길이었다. 안성맞춤대로 쪽으로 나 있는 도로는 자로 잰 듯이 직선으로 나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2018년 마을에 소방도로를 가설하면서 정비된 길이다. 안성대교가 놓이기 전에는 안성2동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지금의 안성교 자리에 쇠전다리가 있어서, 이 다리를 건너서 안성천을 따라 내려온 후 탑산을 거쳐 마을로 들어오곤 했다. 하지만 너무 우회하는 길이었으므로 아예 탑산 인근인 계촌천이 안성천에 합류하는 지점에 ‘아나방다리’라고 부르는 다리를 놓아 바로 안성천을 건너 시내로 건너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아나방’은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쇠철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식으로 가설된 다리가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임시로 가설한 다리였고 큰물이 지면 떠내려가곤 했으므로 그때그때 다시 놓고는 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예전부터 쇠전다리를 이용하기보다는 이곳에 징검다리나 섭다리 정도의 다리를 놓아 안성천을 건너다니지 않았나 추정해본다.

계촌천과 안성천이 합류하는 곳. 예전 이곳에 안성천을 건너는 아나방다리가 놓여 있었다.



탑산을 지나면 들판 너머로 성안산 동편 자락에 감싸인 도구머리마을이 보인다. 성안산 기슭에는 마을을 굽어보는 자리에 산제당이 있고, 그 아래의 완경사 지대에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마을 주변 산자락 곳곳에는 밭이 자리하고, 마을 앞의 별판 지역에는 논이 펼쳐져 있는데, 반듯하게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편은 아니다. 안성맞춤대로가 뚫리며 농경지가 반토막이 난 상태이지만 예전에는 도구머리마을 동편 끝까지 별판지역이 이어졌고, 그 별판을 가로지르며 계촌천이 흐른다. 그리고 보면 도구머리마을은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전형적인 마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도구머리마을도 예전에는 서원말, 남촌, 막뱅이, 사당골 등의 여러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중 현재 남아 있는 자연마을은 서원말과 남촌으로

마을 중앙에 있는 공동우물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이 서원마을이고 아래쪽이 남촌이다. 서원 말은 옛날 사계서원(혹은 도기서원)이 있었던 마을일 터이고, 남촌은 현재 빌라가 들어선 곳이다. 예전에는 두 마을 사이에 어느 정도 경계가 될 만한 공간이 있었겠지만 현재는 그 사이에도 집들이 들어서 있어서 이러한 구분이 사라졌고, 나머지 마을들은 사라진지 오래여서 토박이 어른을 제외하고는 자연마을의 명칭과 위치를 기억하는 주민들도 없다.

현재 도구머리마을에는 200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한때 120가구를 상회하던 토박이 주민은 현재 80~90가구 정도 남아 있을 뿐이고, 이 중 60가구 정도가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외지에서 들어온 가구는 100가구 정도 있다. 이중 빌라에만 80가구 이상이 살고 있다. 현재 도기리 산성의 사적지정 문제로 건설이 중단되어 있는 빌라단지가 완성되면 150가구 정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을의 중앙 우물

도구머리마을은 여전히 적지 않은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상한 점은 시설농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밭뿐만 아니라 논까지도 비닐하우스로 채워지는 다른 농촌마을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는 마을에 젊은 세대의 영농후계자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기인하겠지만, 당분간 근교농업으로 마을의 활로를 개척해야 하는 마을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새로운 농법에의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2) 도기1통 구우전마을

안성 시내에서 ‘추억의 거리’라는 이름이 붙은 옛 장터길을 지나면 안성교가 나오고, 이 다리를 건너면 안성2동주민센터가 보인다. 길 주변으로는 중소기업체와 식당, 카페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한눈에 보아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건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면 허름한 민가도 간혹 눈에 띄지만 농촌마을에서 볼 수 있는 집들은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허허벌판지역이었던 것이다.

지금의 안성교 자리에는 예전 쇠전다리라고 부르는 다리가 놓여 있었다. 이 다리 바로 건너 안성천 북쪽 성남동에 안성우시장이 섰기 때문이다. 그러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사이 안성우시장이 성남동에서 이 쇠전다리를 건너 안성천 남쪽인 도기동으로 이사를 오게 된다. 흔히 우시장이라고 하지만 소뿐만이 아니라 닭, 돼지 등의 가축들이 모두 거래된 가축 시장으로 닭전이 먼저 이사를 오고, 우시장은 가장 나중에 이사를 왔다. 현재의 안성2동주민

센터와 보건소 인근이 가축시장 자리인데, ‘구우전길’이라는 도로명에도 그 잔재가 남아 있다. 당시 이곳은 모래사장과 밭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다. 하천변으로 ‘하꼬방’이라고 부르던 판자집이 들어서 빈민들과 거지들이 살고는 있었지만 마을이라고 부를 만한 규모는 아니었고 모두 국유지에 해당했다. 어쩌면 이러한 연유로 우시장이 쉽게 이사올 수 있었을 터이다.

안성의 가축시장은 1970년대까지는 옛 전통이 남아 있어서 경기 남부에서도 규모가 상당히 크기로 유명하였다. 그래서 이곳에 우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우시장을 찾는 사람들로 상당히 붐비게 되었다. 이에 우시장 주변으로 주막거리가 형성되어 술집, 국밥집 등의 가게들이 마치 출행랑의 모양으로 시장 주변에 자리잡았다. 이렇듯 우시장이 번성하면서 우전거리 주위로 한두 집씩 주민들이 들어와 살며 마을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 이 구우전마을은 도기동에서 가장 늦게 형성된 마을이다. 하지만 지금도 주택이 많은 편은 아니며 중소기업체와 공장, 식당과 상점들이 주를 이룬다. 현재 주민들은 30가구 정도 살고 있는데 마을이 형성될 당시부터 살던 주민은 3가구 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최근에 들어온 외지인들이다.



도기2동 동사무소 뒤의 구우전길, 출지어 늘어서 있는 집이 예전의 술집과 음식점들이었다.

3) 도기2동

‘안성 시내에 있는 변두리’ 도기2동은 주민들의 말마따나 안성 시내에 숨어 있는 한적한 마을이다. 인근 아양동에 들어서기 시작한 고층 아파트와 인지동의 빼빼한 주택가와 대비가 되어서 도시도 시골도 아닌 어중간한 모습이 더욱 두드러진다. 넓은 주택 사이사이로 3~4층의 나지막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마을길 주변에는 텃밭이 자리 잡고 있으며, 군데군데에는 다행이 논도 눈에 띈다.

도기2동은 6·25 이전까지만 해도 안성천 남쪽에 위치한 하천변 모래사장과 밭지역에 불과했다. 당시 이곳은 안성천이 곡류하는 지점이어서 장마철에는 상습 침수 지역이었고, 모래사장 주변에 밭이 드문드문 자리하고 있었을 뿐 인가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었다.

그러다 1954년 경기도지사이자 안성군 초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영기 씨가 안성천의 정비 공사를 지시하게 된다. 이때 안성천의 직강공사가 이루어지며 신흥동과 아양동 사이의 500m 구간에 제방을 쌓음으로써 현재의 도기2동 위로 흐르던 안성천이 아래쪽으로 흐르게 되어 출지에 도기2동은 안성천 남쪽에서 북쪽 지역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곳이 상습 침수지역에서 벗어남에 따라 집들이 하나 둘씩 자리 잡게 됨으로써 점차 마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50cm만

땅을 파도 모래흙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1990년대에 있었던 홍수 때 내혜홀 초등학교로 대피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 침수 피해는 없었다.

파란선표시가 1954년
이전 안성천의 경로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도기2동의 마을 역사는 1954년부터 시작된다. 예전부터 도기동에 속한 하천부지여서 지금도 번지가 도기동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이곳에 자리 잡은 주민들이 도구머리마을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으므로 마을의 주민 구성이나 성격 등에 있어서 도기2동은 도기1동과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별개의 마을인 셈이다. 도기2동이라는 명칭 역시 마을의 정체성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이 안성천 북쪽 지역이 되었을 당시에는 예전 안성천을 경계로 마주하던 인지동과 인접하게 되어 버려 아예 인지동으로 편입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번이 계속 도기동으로 남아 있었던 관계로 다시 도기동으로 원상 복귀되었고 도기2동으로 분동되어 독립된 행정동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 ▶ 도기2동 진입도로 도기1길
- ▶▶ 도기2동 마을회관



도기2동의 마을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현재도 이 마을에 생존해 계시는 이광희 씨이다.⁶⁾ 초대 이장으로 선출되어 30년 이상 이장(통장)을

역임했던 이광희 씨는 재임 당시 안성읍내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이었던 이곳을 눈부시게 발전시켰다. 마을길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도로 하나 나있지 않던 이곳에 현재의 도기1길에 해당하는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관통하는 750m의 포장도로를 내었고, 3~4년에 걸쳐 진행된 법정 소송에서 승소하여 36년간 하천부지로 뮤여 있던 1만 5천 평에 달하는 땅을 주민들의 소유가 되게 하였으며, 시설녹지를 주거지로 변경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마을회관부지 63평을 증여와 매입을 통하여 확보한 다음 1993년에 이곳에 노인정을 건축하여 마을 어르신들의 안식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현재 도기2통 마을 가운데에는 이광희 씨의 송덕비가 세워져 마을을 위한 그의 헌신과 노력을 기념하고 있다. 어쩐지 조선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영세불망비를 현재의 시점에 보는 듯하여 흥미롭다. 더욱이 이광희 씨는 지금도 생존해서 도기2통에 거주하고 있는 인물인 것이다. 송덕비문에 쓰여진 글은 다음과 같다.

※ 이광희송덕비문

도기2리는 안성읍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차령산맥에서 물이 흘러 역사적인 안성천을 이루며 유유히 서해바다로 흐르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러나 1954년도 안성읍 3만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군 초대 국회의원이며 경기도지사인 김영기지사의 명에 의하여 당시 안성읍 유광준씨가 안성천 수선공사(신흥동-아양동제방) 500m를 함으로써 농민들의 논과 밭을 하천으로 만들고 물이 흐르는 하천을 교환하여 주므로 영세농민들이 거주하면서 모래 자갈 논 밭을 옥토로 만들어 농사를 지으며 한두 집이 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도 도기동에서 도기2리로 분동되어 현재 347세 주민 1236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고장에서 낳고 이 고장에서 자란 이광희씨가 초대동장으로 선출되어 36년간 주민들의 숙원인 하천부지 1만 5천평을 3~4년에 걸쳐 법적 해결을 하였으며 안성읍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 진입로 750m을 포장하고 마을회관부지 63평을 증여 및 매입하여 시설녹지를 주거지로 변경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1993년도 마을회관 32평을 건축하여 노인들의 안식처인 노인정을 만들었으며 한 농민으로서 동장으로서 마을발전에 노고가 지대함으로 마을회관 건립 3주년을 맞이하여 노인들의 뜻을 모아 후세에 그 공적을 기리고자 노인회 및 동민이 공덕비를 마을 회관 앞뜰에 건립합니다.

도기2리 노인회일동 주민일동

1997년 월 일 건립

정재춘, 최동기, 이창식, 홍용철, 김원재, 이준희, 방종산, 양용기, 유주현⁷⁾



도기2동 전 이광희씨 송덕비

현재 도기2통에는 240가구 정도가 살고 있다. 최근 마을에 원룸이나 빌라 등의 신형 주택이 들어서며 유입인구가 많아지는데, 이 중에는 외국인근로자도 다수가 포함된다. 이들은 일시적인 인구로 이출입이 잦은 편인데, 요즘은 전출입신고를 통장을 통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되므로 정확한 거주관계와 인원수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도기2통의 경우 워낙 마을의 역사가 짧아 토박이라고 부를 만한 주민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큼 마을에 산 지 오래된 주민들의 경우는 120가구 정도가 된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이나 김홍재 도기2통 통장의 제보에 의하면 현재의 마을 상황에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왜 이웃 마을에 비해 이곳만 개발이 빛나가는 것 같냐?’는 질문이 무색하게 주민들은 마을의 개발과 도시화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사실 도기2통은 지금껏 개발 지역에 포함된 적이 없었다. 2005년도에 안성뉴타운 개발예정지에 도기1통이 포함되었을 때도 도기2통은 제외되어 있었다. 그래서 도기1통이 대책 없는 개발을 반대하며 한창 시끄러울 때도 이곳 주민들은 강 건너 볼 보듯 하는 처지일 수밖에 없었고, 도기1통이 개발예정지역으로서 겪었던 제약이나 개발이 무산된 다음의 허탈감을 간접적으로 체험해서인지 지금의 이 상태에 지극히 만족하고 있었다. 스스로 시내의 변두리라고는 하지만 코앞이 시내이니 수도나 가스도 일찍이 들어온 편이었고 교통이나 물품구입 등 생활의 불편은 전혀 느낄 수 없으니 사실 개발에 대한 보상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상태가 연령층이 높은 주민들에게는 최상이 될 수도 있다.

도기2통에서는 외지인을 제외한 주민이라 부를 만한 마을 구성원들 간의 사이도 상당히 돈독한 편이다. 마을에는 예전 대동계에 해당하는 마을총회가 구성되어 있고, 마을에서 공동관리하는 마을 기금도 있어 매년 한 번씩 모여 활동과 결산보고를 하는데 2019년에는 2월 25일에 진행되었고, 마을총회에는 현재 7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한다. 노인회도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운영되며 5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회비를 내기도 하지만 시에서 운영자금도 지원을 받는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을 제외하면 일 년 내내 마을회관에서 밥을 해 먹으며 부녀회에서는 복날이나 설날 등에는 특식을 마련하여 마을회관에서 어른들을 대접하기도 한다. 마을에서 거행하는 공동체 행사는 없지만 2년마다 격년제로 시와 동에서 체육대회를 거행한다.

3. 도구머리마을의 역사적 전개 양상

도기동의 도구머리마을은 유구한 전통이 깃들어 있는 마을이다. 삼한시대의 마한이나 삼국시대 초기 한성백제 때의 역사를 감안하면 안성천 북부의 읍치 지역보다 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일 것이다. 도구머리마을은 이후로도 안성 지역의 흥망성쇠를 대변하며 지금껏 마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본 장에서 살펴보는 도구머리마을의 역사적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마을의 변화 모습은 비단 도구머리마을만이 아닌 안성 지역 전체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1) 삼국시대 안성의 중심이었던 도구머리마을

도구머리마을은 북쪽으로 안성천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계촌천이 마을의 동북쪽 경계를 흐르다 안성천으로 합류한다. 마을은 도기동 전체 지역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데, 마을 동쪽의 안성천과 계촌천 유역에는 농경지로 적합한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고, 서쪽과 남쪽으로는 구릉성 산지⁸⁾가 발달되어 있어 마을이 들어서기에 알맞은 형세이다.

안성천과 구릉성 산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드넓은 평야지역 등 도구머리마을이 지닌 지리적 이점은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족하기에 도구머리마을은 선사시대부터 주거 공간으로 이용되었을 터이다. 비단 도구머리마을 뿐이 아니라 안성 지역 도처에서 발견되는 구석기와 신석기 유적들은 선사시대부터 안성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주므로 이러한 추정은 별 문제가 없을 듯하다.

이후 삼한시대에 안성 지역은 마한의 54개국의 하나인 성읍국가를 거쳐 백제의 영토에 편입된다. 『삼국사기』<백제본기>에 의하면 온조왕 13년에 왕이 한산 아래 성책을 세우고 위례성으로 민호를 옮겼는데, 영역이 북으로 패수, 남으로 웅천, 서쪽으로 대해, 동쪽으로 주양에 이르렀다고 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웅천이다. 학계에서는 이 웅천을 공주로 보기도 하고, 안성천의 옛 이름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던 안성 지역이 백제의 영토에 편입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⁹⁾ 삼국시대 초기 백제의 중심 지역 중의 하나가 바로 도구머리마을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굴, 출토되는 유구와 유물이 4세기 경 백제시대의 것이라는 점을 통해 뒷받침된다.

도구머리마을의 유적발굴은 2004년 서운~안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계획하며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하여 그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발굴된 백제시대의 유물, 유적은 토기와 철기, 석곽묘와 토광묘, 주거지 등 실로 다양하다. 특히 ‘환두대도(環頭大刀)’의 경우 백제의 지배세력이 이 지방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유물로 이곳이 삼국시대 초기 백제의 중심지역 중 한곳이었음을 확인케 해준다.

또한 2015년 창고부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발굴된 목책성 유적에서는 백제의 유물뿐 아니라 고구려와 가야계 토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에 학계에서는 이 목책성을 4~6세기 사이에 백제가 축조했고,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고구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듯 도기동산성 유적은 삼국시대 성곽 연구에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안성 지역의 고대사 연구에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자료이므로 2016년 국가중요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도기동산성은 성안산의 안성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천 남쪽에서 북쪽을 경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산성의 위치와 구조는 애초 이 산성이 백제가 북쪽에서 남하하는 고구려

도기산성. 안성시청 제공



를 견제하기 위하여 쌓은 것이다. 이는 당시 안성 지역의 읍치에 해당하는 마을은 안성천 남쪽, 산성 인근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도구머리마을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적 등을 감안하면 백제 시절 옛 읍치 지역이 바로 도구머리마을 지역이었음을 비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도구머리마을은 백제 이전 마한의 성읍국가였다가, 백제에 병합된 후 안성천을 경계로 고구려를 견제하던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고려시대 도구머리마을의 모습을 알려주는 삼층석탑

이렇듯 삼국시대 도구머리마을은 안성천 유역 백제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도구머리마을에서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주거지와 유물들도 많이 발굴, 출토되므로 이 지역이 삼국시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주거지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음을도 확인할 수 있다.

안성 지역은 고려시대 ‘안성’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현을 거쳐 군으로 승격을 하며 조선시대로 이어진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전기까지 도구머리마을의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 고증을 할 길이 없지만 도구머리마을은 이 시기 안성천 유역의 넓은 농경지를 배경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을 이루고 있었을 터이다. 더 이상 안성천 유역이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의 농촌마을은 봉건사회의 체제 하에서 운용되었기 때문에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와 그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농의 관계로 마을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는 도구머리마을을 지배하는 호족이 있어 예전의 성읍국가와 다를

바 없이 마을을 통치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도구머리마을의 문화유적 중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탑산에 있는 도기동 삼층석탑이다. 탑이 있었다는 것은 이곳이 절터였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도구머리의 유래담에서 절터와는 관계없는 비보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안성의 비봉산은 봉황의 형상이고, 이곳 탑산은 거북의 형상이다. 풍수 설에 의하면 거북이 봉황의 곁을 떠나면 주민들에게 재앙이 따른다고 하여 도구머리산에 탑을 세운 것이라 한다.¹⁰⁾

도선에 의하면, 지기(地氣)는 왕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데, 쇠퇴하는 곳에 자리 잡은 인간이나 국가는 쇠망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산천의 역처(逆處)나 배처(背處)에 인위적으로 사탑을 건립해서 지기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보풍수는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관념이므로 이 석탑이 고려 중기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도구머리라 불렸던 탑산과
도기동 삼층석탑



풍수에 일천한 필자가 보아도 도구머리마을이 배산임수의 지형임은 맞지만 마을이 입지한 좌향(坐向)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마을의 서쪽에 산지가 위치하며 동쪽에 평야가 펼쳐져 있는 것이다. 또한 동쪽 평야 지역으로 계촌천이 흐르기는 하지만 마을 북쪽을 흐르는 안성천에 합류한다. 따라서 도구머리마을은 지기(地氣)가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는 형세를 보이기 때문에 안성천이 내려다보이는 탑산에 지기를 모으기 위해 비보탑이 세워진 것이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에도 도구머리마을에는 비보풍수를 통해서 지역 세력을 보호해야 하는 대상, 즉 상당한 규모의 전답을 소유하고 소작농을 거느린 마을의 지배세력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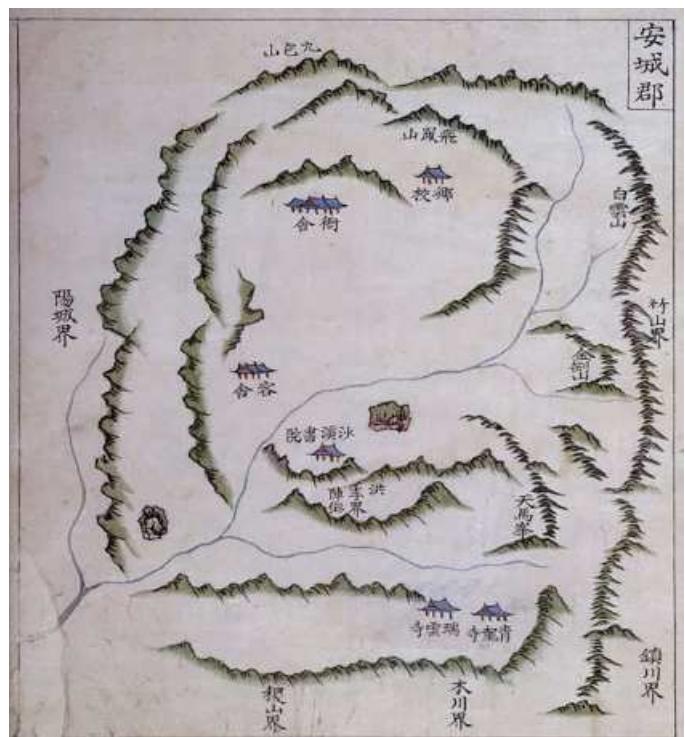
이와 더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고려 때에는 안성천 북쪽에 안성현의 읍치가 들어섰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시 안성현의 읍치 지역이 어느 곳일까 하는 점인데, 고려의 수도인 개성은 안성의 북쪽이므로 안성의 읍치 역시 안성천의 북쪽이 되었을 것이다. 상기했듯이 고려는 풍수지리적 관념이 주도했던 사회이므로 이때 비봉산을 주산으로 하고, 안성천을 객수로 하는 지역에 읍치를 형성했을 터이다. 고려의 관아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확정지어 수는 없어도 고구려 때의 읍치인 사곡동이나 조선시대의 읍치인 구포동일 것이라 추정할 수는 있다. 아무튼 고려 때는 안성을 대표하는 중심지가 안성천 남쪽인 도구머리마을에서 안성천 북쪽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도구머리마을의 탑산전설은 안성천 북쪽으로 중심지가 옮겨지면서 기세를 빼앗기게 된 도구머리마을의 호족세력들이 그 기세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심리적 보상행위에 의해 형성된 전설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소개된 전설과는 달리 거북이가 안성천을 건너면 마을이 쇠하므로 거북의 머리를 눌러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탑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전하는데, 이 유형의 전설은 필자의 견해와 부합하므로 주목된다.

3) 도기서원과 서원말의 형성

조선 태종 때 안성은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이관되며 안성천 북쪽의 읍치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었을 터이다. 이에 쇠락해 가던 안성천 남쪽의 도구머리마을이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이곳에 도기서원이 들어서면서부터이다.

<광여도>는 19세기에 나온 전국군현지도로 추정되는데, 산과 하천, 주요 건물 정도만 표기되어 있는 간략한 지도이다. 길이나 장터와 같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없는 것으로 보아 관에서 개략적인 행정구역의 개요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간행되지 않았나 추정된다. 안성군

광여도-안성군. 사계서원(도기서원) 옆으로 탑산이 그려져 있다.



지도 역시 대략적인 지형적 정보 외에 읍치 지역은 주산인 비봉산과 향교, 아사(관아), 객사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성천 남쪽의 도구머리마을 지역에 탑산과

사계서원이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계서원은 일명 도기서원이라고도 하며 도구머리마을에 있었던 서원이다. 도기서원은 1599년부터 1601년까지 안성군수를 지낸 김장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그를 제향하는 동시에 지역 유생들을 교육시키는 사설 교육기관이었다. 1663년(현종 4) 김장생의 제자였던 송준길 등 지방 유림들의 공의로 임금께 주창해 설립되었고, 1669년에 사액된다.

사계서원 옆에 그려진 야산이 바로 ‘도구머리’라는 이 마을의 이름을 유래시킨 탑산이다. 이 정도의 야산은 보통 고지도에서는 생략되는 범인데도, 이 지도에 과장된 크기로 표시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시대에 이미 탑산이 도구머리마을의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획득하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아무튼 도기서원이 마을에 들어서며 도구머리마을은 서원촌으로 자리를 잡는다. 서원촌은 서원의 재정적·인적 기반이 되던 마을을 뜻한다. 도구머리마을의 자연마을 중에 서원말이 있었다는 점이 이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데, 이 서원말은 이때 형성된 것일 터이다. 이는 도구머리마을 앞으로 펼쳐진 드넓은 농지가 서원전으로 이용되었고, 마을에는 이를 소작하는 소작농뿐만 아니라 서원에 예속된 원속(院屬)과 노비들도 다수 거주하였다는 의미이다.¹¹⁾

조선시대 서원은 그 지역 학문과 학매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향촌의 지배기구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조선시대 읍치에는 향청(鄉廳)이 있었는데, 이 향청의 중심이 되는 토착세력은 아무래도 관학인 향교보다는 사학인 서원과 관계가 깊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청은 향소 혹은 유향소(留鄉所)라고도 하며 수령 다음가는 관아라 하여 이아(貳衙)라고 한다. 고을의 수령은 외지 출신이었으므로 고을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밝고 학식과 경제력을 가진 양반을 지방 정치의 동반자로 인정하였고 고을을 움직이는 유력 가문이나 양반들을 향촌의 구성원으로 삼아 수령을 돋도록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향청은 수령에게 예속되어 있는 단체는 아니었고, 향회라는 자치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었으며, 향약·동계 등의 규약을 만들어 지방을 통제하는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서원촌으로 변모한 도구머리마을은 안성 토착 유림의 세력기반이 되기도 했는데, 한때 도구머리마을의 세거성씨로 자리 잡았던 전주 이씨나 경주 정씨 등이 이러한 토착 세력의 주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이곳은 예전 전주이씨 견성공파의 집성촌이었다고 하는데, 견성공은 성종의 일곱째 아들로 그의 후손 중 하나가 약 300년 전 도구머리마을에 들어와 정착했다고 한다. 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도구머리마을의 80여 호 중 20호쯤이 전주이씨 견성공파 집안이었다고 하므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라 하겠다. 그렇다면 전주이씨 집성촌이 성립된 시기는 도기서원이 들어서고 서원말의 형성되는 시기와 맞물리며 안성의 행정을 원격 조정하는 실세인 안성 유림과 양반들도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다고 보아진다.

안성에서는 ‘도기머리에서 왔군.’, 혹은 ‘도기머리 친구다.’라는 말이 있다. 『안성기략』에는 옛 날 도기리 주민이 흰쟁(喧爭 떠들며 다투는 일)을 잘하여 대단치도 않은 일로 트집을 잡았기 때문에 트집 잘 잡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²⁾ 이와 달리 이 말이 도기리의 갓수선공이 트집을 잘 잡았다는 데에서 유래되어 말싸움에서도 지지 않았다는 의미로까지 확대된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옛말에 ‘안동에서는 논쟁을 하지 말라.’라는 유사한 말이 있었다. 경북 안동에는 퇴계 이황의 도산서원이 있어 말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도기머리 친구’도 원래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4) 사농공상이 혼재했던 도구머리마을

이후 도구머리마을이 서원촌의 성격을 탈피하고 큰 변화를 겪은 시기는 조선 후기 안성장의 번영과 맞물리면서부터이다. 물론 도기서원이 훼철된 것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한 것으로 1871년(고종 8)의 일이지만, 영·정조 이후로 전국의 서원이 정비에 들어가는 통에 서원의 전성시기는 진즉에 저물어 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원말로 기세를 떨치던 도구머리마을도 향촌의 질서가 무너지며 새로운 모색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모색이 바로 사농공상이 혼재하는 마을의 형태로 나타난다. 안성에서는 출신성분에 상관없이 상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성에는 본래 양반도 없고 상놈도 없다.”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는 마을이 바로 도구머리마을이다.

도구머리마을에서 안성천을 건너면 옛 안성장이 서던 장기리 지역이다. 현재는 장기리가 분리되어 여러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장터가 형성되어 있던 중심지는 안성1동의 창전동과 성남동이었다. 1970년을 전후한 시기에 장터가 서인동으로 옮겨 간 후 옛 시장터는 예전의 면모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지금도 연배 많은 지역민들은 싸전거리니 쇠전거리니 하며 옛 시장터 곳곳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

이 시기 도구머리마을은 그야말로 사농공상이 어우러진 마을로 재편되며 전성기를 구가한다. 서원촌에서 성격이 변하였다고는 해도 도기서원은 염연히 서원이 철폐될 때까지 마을에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지역의 유림들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었음은 당연했다. 조선 후기 농업 생산량의 증대는 전국적으로 부농을 탄생시키는데, 마을 동쪽으로 안성천과 계촌천 유역의 넓은 전답을 보유하고 있었던 도구머리마을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은 서원전이 새롭게 대두된 부농의 소유로 전환되고 서원에 소속되었던 외거노비들의 신분이나 위상이 상향되는 등 기존 지주와 소작농, 서원과 노비들 사이의 관계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안성장의 번영은 도구머리마을을 안성장 인근에 위치한 수공업 마을로 변모시켜 다수의 공장이들이 도구머리마을에 자리 잡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시기 도구머리마을에는 대장간이 들어서고 갓 수선을 하는 집들도 모여 있었다. 특히 갓 수선은 ‘트집 잡다’라는 말을 유래시킬 정도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바 있었다.

도구머리마을에 살던 전주이씨 견성공파의 인물 중 이근태라는 분은 양반 구실을 안 하고 갓 수선으로 재산을 모아 백만장자 소리를 들었다. 당시 40리 안에서 남의 땅을 안 밟고 다닌다고 소문 날 정도로 부자였다고 하니 위에서 언급한 신흥지주로 그야말로 사농공상의 화신 그 자체였던 셈이다.¹³⁾

또한 『안성기략(1925)』에 의하면 당시 안성에 총 5곳의 대장간이 있었는데, 도구머리마을에만 2곳이 있었다.¹⁴⁾ 그 중 안성에서 가장 큰 대장간은 도구머리 마을의 탑산 부근에 있었고, 이 대장간을 경영하던 사람은 정태윤¹⁵⁾이었다. 그는 안성은 물론이고 인근 천안부터 멀리는 만주까지 사람을 보내서 이 대장간에서 생산한 농기구를 팔았으며, 인지동에는 그가 운영하던 안성방앗간도 있었다.

옛 시장터에 재현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장간



도구머리마을에는 상인들도 다수 거주하였다. 도구머리마을에 무연분묘 (無緣墳墓)가 많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안성장이 번창했을 때는 통영에서 온 갓장수를 비롯하여 멀리 제주도에서까지 장사꾼이 몰려들었다. 이들 중에는 장을 오고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므로 아예 집을 떠나와 도구머리마을에 놀러앉아 장사를 하다가 종국에는 이곳에서 늙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도구머리마을에는 이름 모를 무덤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이를 무연분묘라 불렀다.

한편 안성장이 설 때면 도구머리마을에 나무전이 서고, 해장국집과 숙박 시설이 많아 북새통을 이루었다고도 하는데, 이는 안성의 남쪽 지역에서 장터로 가려면 도구머리마을을 거쳐 안성천을 건너야 하므로 도구머리마을이 장으로 진입하는 길목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5) 안성의 선도적 농촌 마을이었던 도구머리마을

경부선 철도노선에서 안성이 배제되고 평택을 지나면서 안성장이 쇠퇴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물론 전국의 물화가 몰려들던 예전의 위상을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겠지만 일제강점기의 여러 자료를 참고하건대 안성장은 경기 남부의 대시장으로서의 면모는 한동안 유지하고 있었다.

도구머리마을도 예전만은 못하지만 안성장의 배후지로서의 역할은 지속되었고, 잘 나가는 농촌 마을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도구머리마을은 안성 읍내에 위치한 마을이고, 당시 농촌마을치고는 인구수도 많았고 경작지도 넓은 편이었다.

당시 도구머리마을의 두레는 안성에서 제일이었다고 정평이 나 있었다. 1918년 7월 24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농기를 능욕하였다 두 동리가 큰 싸움을 하여”라는 기사를 통해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안성군 읍내면 도기리와 계촌리의 농민 각 수십명의 두레째는 지나간 십팔일 오후 네 시경부터 서로 쟁투가 일어나 중상자가 두 명이오 경상자 수명을 나게 하여 안성 경찰서에서 순사가 출장하여 진정케하고 피해자를 가호하며 관계자 중 혐의자를 인치취조 중인데 그 원인은 목하 지방에서는 논김을 매는데 두레째를 모아 농기를 세우고 각각 단체로 일을 하는 터이라 당일 계촌리의 농민 십팔명은 전례와 같이 농기를 세우고 작업을 하는 중 도기리의 농민 이십여 명도 또한 그 근처에 농기를 세웠는데 도기리째는 계촌리째에 대하여 계촌리의 농기는 신출인즉 오래된 도기리 농기에 대하여 경례를 행하라 한즉 이에 대하여 계촌리에서도 추후하여 상당히 경례하겠다 대답할 즈음에 서로 문답 중 시비가 일어나 도기리 농민은 계촌리 농기에 능욕을 더함으로 계촌리 농민도 크게 분격하여 복수로 도기리 농기에 대하여 또한 능욕을 더한즉 쟁투는 이에 격렬하게 되어 농구를 가지고 서로 구타하다가 계촌리편이 약하여 쫓겨가는 것을 추격하여 그 같은 부상자를 나게 한 것이며 영등포 경찰서에서도 급보를 듣고 경관이 출장하여 엄중히 금지하며 장래를 경계하는 중이라더라.

중상자 2명에 경상자도 여러 명에 달했다는 이 사건은 안성 제일이라고 자부하는 도기리 두레째의 일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통 농경사회에서는 마을마다 두레째가 있었고, 이 두레째는 마을들 간에 형님마을, 아우마을 식으로 서열이 있었다. 두레째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깃발을 매단 두레기 혹은 농기라고 불리는 기를 앞세우고 다녔다. 두레째들이 길을 가다 서로 마주치면 아우마을에서 기를 숙여 형님 마을에 절을 하고 가는 것이 예의였다. 만약 서열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마을의 명예를 걸고 기싸움이 펼쳐지는데, 서로들 달려들어 깃대를 쓰러뜨리고 두레기 꼭대기에 달려있는 꽁장목이라고 불리는 장식물을 빼앗으면 이기는 것이었다. 도구머리마을의 두레째는 안성에서 유명했었고,¹⁶⁾ 장사들도 많았던 마을이어서 두레기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았다고 한다.

도기리와 계촌리는 서로 이웃하고 있는 마을인데, 위와 같은 갈등도 있었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동아일보 1926년 2월 18일자 기사인 ‘특지(特志)와 자선(慈善)’에서 ‘빈민에 식료분급 안성군 읍내면 도기리 이익훈 씨는 금반 음력세말을 당하여 도기리, 계촌리민 오십호에 대하여 매호에 백미일두, 현금 오십전씩을 나누어주었다더라.’라는 기사도 보인다. 이익훈씨의 기부 기사는

동아일보 1927년 4월 14일자 기사에도 등장하는데, 궁춘에 도기리와 계촌리 궁민에게 매호 이 원내지 삼 원씩 백오십 원을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이익훈은 앞서 소개했던 양반 공장으로 백만장자 소리를 들은 이근태의 5남이다. 『매일신보』 1912년 10월 3일 기사에는 ‘이씨의 출천효(出天孝)’라고 하여 이익훈이 14세 때 행한 효행이 소개되어 있기도 하고, 1926년 『동아일보』에는 이근태의 손자인 이구영이 안성유치원건물을 위해 3천 여 원을 기부한 기사가 실려 있다. 이는 이근태의 가문이 안성에서는 나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부호의 가문이었고, 주요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말해 준다.¹⁷⁾

1943년 매일신보 6월 17일자 ‘농은 천하지대본, 권농기념일, 각지서 관민이 이앙’이라는 기사에서는 그해 6월 14일 안성군읍 권농기념일 행사가 도구머리마을 논에서 5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기념 이앙을 했다고 한다. 이는 일제강점기 말에도 안성에서 도구머리마을이 가장 잘 나가는 농촌마을이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기사이다. 당시 도구머리마을에는 ‘청년단가’도 있었다고 한다. 1933년 도기리 주민인 조호성이 작곡하고, 농촌진흥회장인 이옹구가 작사하였다는 이 노래의 1절은 다음과 같다.¹⁸⁾

활발하고 씩씩한 도기 청년들 / 절대 같은 팔을 모아 단을 지으니
지난 꿈 생각 말고 분발하여서 / 하루바삐 자력갱생 열매를 보세

이는 당시 도구머리마을에서 두레파의 위상을 물려받아 새로운 청년단체를 결성하였다는 의미이다. 이 단체의 성격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힘들지만, 도구머리마을의 공동노동조직의 성격을 유지하는 동시에 의용소방대와 같이 마을의 자치 방법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개 농촌사회에서 두레공동체가 사라지는 것은 해방 이후에서 6·25 동란을 전후한 시기이니, 전통적인 농촌사회에서 근대적인 농촌사회로의 변화가 도구머리마을에서는 조금 앞서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기리 청년단체의 활동은 해방 이후에도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정치적, 사회적 조직으로 확장되었던 듯하다. 특히 좌우익의 이념 갈등이 심했던 해방정국에서 도구머리마을은 안성에서도 우익청년단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동네로 소위 ‘반공부락’으로 유명하였던 것이다.¹⁹⁾ 안성에서의 해방 정국 당시의 혼란상과 좌우익의 이념 갈등에 대한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계급혁명운동을 주도하였던 안막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죽지서 습격사건과 같은 좌익 진영의 테러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보아 좌우익의 이념 갈등이 만만치 않게 존재했던 곳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당시를 살았던 제보자의 기억들 속에서는 더욱 생생하게 살아 있어 마을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곳 주민의 70~80%는 빨갱이였다는 식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이런 와중에 도구머리마을이 우익진영의 보루가 되었던 것은 도구머리마을이 보수적이며 지주와 소작농, 자본가와 노동자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설정되어 큰 갈등이 없었던 마을이었음을 말해준다.²⁰⁾ 물론 마을에는 좌익운동을 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은 전향한 후 속죄의 의미로 마을에 전기가 들어올 수 있게 하였

고, 방앗간(도기정미소)을 짓는 등 마을의 편의를 위해 힘썼다 한다.



▶ 도구머리마을의 정미소

◀◀
추곡수매가 행해졌던
마을 창고

또한 『안성군지(1990)』에는 도구머리마을의 4H가 1949년 4월에 안성 최초로 조직되었다고 소개되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된 4H운동²¹⁾은 1947년 경기도 군정관이던 찰스 앤더슨(Charles A. Anderson) 중령과 구자옥 경기도지사가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었던 농촌계몽운동이다. 기존의 농촌계몽운동이 깨우침에 중점을 두었다면, 4H운동은 지역 발전을 위한 실천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각 시군에서는 마을의 청년들로 구성된 4H클럽이라는 조직체를 결성하였고, 클럽마다 남녀 지도자를 한 명씩 두어 회원들의 개인적인 계획과 실천기록을 점검하고, 농촌 및 가정생활에 관한 연구를 지휘하도록 하였다. 이장우 씨가 4H클럽 회장을 맡았을 때는 도구머리마을이 우수 클럽으로 선정되어 소 한 마리를 부상으로 타기도 했다.

6) 도구머리마을의 쇠퇴 양상

농촌마을의 선두주자로서 도구머리마을의 위상은 적어도 새마을운동의 끝물인 1980년대까지는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을에는 정미소와 커다란 미곡창고가 있었으며, 구멍가게도 세 군데나 되었다. 안성장이 걸어서 30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감안하면 마을 자체의 살림을 짐작할 수 있다. 마을에는 100가구가 훨씬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권영태 통장²²⁾이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해도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동기들이 마을에 32명이 있을 정도였다. 마을에 청년단은 1970~80년대 사이에 없어졌지만, 1982년경까지 마을에는 야경조직이 가동되고 있었다. 집집마다 순번을 정해서 야경을 돌았는데, 야경꾼은 밤새 나무때기 두 개를 딱딱 치면서 도둑도 방지하고 마을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했다.

마을에 있던 커다란 창고에서는 추곡수매가 행해졌다. 수매시기가 되면 인근 마을에서 가지고 온 쌀가마가 방앗간과 창고 사이에 있는 널찍한 공터에 산더미처럼 쌓이곤 했다. 좋은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들뜬 마음에 술 한 잔씩 걸치기 마련이므로 마을에는 술집도 대여섯 집이 있었다. 색시들이 있는 술집이어서 밤늦도록 젓가락 장

단을 두드리며 노래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외부인들이 보았을 때 도구머리마을은 상당히 드세고 어울리기 힘든 동네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도구머리마을은 한때 “텃세가 심했던 동네”로 알려지기도 했다. 주민들은 그때를 회상하며 “지금은 순한 양이 되었다.”며 정체 상태에 빠진 현실에 대해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나름의 원인들이 있었다고 보아진다.

해방 이후 도구머리마을에서 대토지를 소유했던 지주들은 외지로 이주를 했고, 토지분배를 통해 그들이 소유했던 땅의 일부는 주민들에게 배분되었다. 하지만 쉽게 얻은 재산은 쉽게 사라지는 법이다. 다수의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들어온 재산을 주체를 못하고 술과 도박으로 탕진하는 바람에 많은 농경지들이 다시 외지인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외지인 소유의 농경지를 계속 소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물결은 도구머리마을의 청년들을 도시로 빼앗아 갔다. 권영태 통장의 32명의 동기들도 현재 2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만큼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마을을 떠났고, 한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도구머리마을은 고령화 농촌마을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농산물의 수입이 점차적으로 개방되면서 전국의 농촌사회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니 농촌마을의 정체 현상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필연적 현상일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이유로 도구머리마을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구머리마을의 주민들은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으면서 근근이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

4. 개발과 보존의 사이에서 혼란을 겪은 도구머리마을

1) 안성뉴타운지구의 지정과 해제

도구머리마을이 현재 정체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시대적, 사회적 현상 외에도 안성의 보수적인 역사문화와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도구머리마을에는 그간 마을 전체의 위상을 뒤바꿀 만한 변화의 모멘트들이 있었다.

2005년 도구머리마을이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 예정 지구에 포함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안성 뉴타운 계획은 안성시 옥산동, 석정동, 아양동, 도기동, 미양면 신기리, 대덕면 건지리 일대에 3,984천㎡(120만5000평) 규모로 1만9730가구의 주택이 들어서는 대규모의 신도신 건설 계획이었다. 당시 건교부의 설명으로는 이들 지역이 안성시청에서 2km 정도에 있어 시내와 가깝고 국도 38호선이 지구를 통과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또한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 남부의 균형발전에도 적합한 성장 거점지역으로서 적합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에 대한 공사는 2008년 착공해서 2011년 말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고, 이 신도시의 교통을 위해서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천안~분당간 국지도 23호선의 우회도로 역시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개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택지예정지구에 사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그 중 가장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곳이 도구머리마을이었다. 당시 ‘안성뉴타운 택지개발 반대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옥산동은 40가구, 아양동은 30가구에 불과한 반면 도구머리마을은 320가구가 참여하였으며, 위원장도 도기1통의 통장이 맡았다.²³⁾ 추진위원회 측에서 제기한 택지개발을 반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는 우리의 고향을 잊어버리는 것 때문이다. 아무리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살던 고향은 보상받을 수 없지 않는가. 여기 사는 사람들은 거의 3~4대가 걸쳐서 사는 사람들이며 이관우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선 성종대왕 때부터 살아온 터전이기도 하다.

둘째는 우리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잊어버리는 것 때문이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노인들이다. 농사짓는 사람이 농토가 없으면 죽으라는 말인가. 시청에서 우리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설령 먹여 살려 준다고 해도 나이가 들수록 내가 평생 배워 내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잊어버리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지 않는가. 그리고 100년 이상을 같이 살아온 이웃들 간의 정을 바탕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셋째는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진행하는 시청의 행위에 분노하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비밀리에 추진해 진행을 다 시켜놓고 올해 5월 27일에 와서야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발표하는 시청의 처사는 분개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또한 절대농지인 농지들을 3~4년 전부터 개발 가능한 시설녹지로 변경시켜놓은 것은 정말 분노할 일이다. 일설에 의하면 안성시장이 개발을 하게 해달라고 정부에다가 사정사정 했다고 하니 민선시장인 이동희 시장이 우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우리의 생존을 담보로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냐.²⁴⁾

당시 뉴타운 개발을 반대한 이유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마을에 대한 애착심에서 기인한 것이다. 도구머리마을은 수 세대에 걸쳐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토박이들이 대다수였고, 이들이 함께 다져온 지역 공동체와 생활 터전에 대한 자긍심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구머리마을에는 무허가 건물을 국유지에 짓고 살거나 도지세를 주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수였는데, 이 경우에는 보상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걱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동안 도구머리마을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지자체에 대한 불신감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렇다고 도구머리마을 주민들이 무조건 개발을 반대를 한 것은 아니었다. 단계적이고 부분적인 개발, 즉 최대한 마을을 보존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 개발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개발은 잘 포장된 파괴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도구머리마을 일대의 역사와 문화가 일시에 사라질 것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²⁵⁾

하지만 정작 도구머리마을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은 개발은 되지 않고 지연만 되는 통에 그동안 제약에 묶여 오히려 아무런 개발행위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내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못하며 강한 불만이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은 시공사인 한국LH공사의 자금유동성 악화와 수도권 내 택지수급 여건의 변화 등으로 6차에 걸친 개발계획변경과 4차에 걸친 실시계획변경 끝에 개발계획 면적이 820천㎡로 변경되었고, 결국 아양택지개발지구란 이름으로 축소되어 진행되었다. 이에 개발계획에 포함되었던 도구머리마을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이 2010년 4월 개발지구에서 해제되었다.²⁶⁾ 이는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공사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도구머리마을 주민들이 원하던 대로 된 셈이지만, 사실 도구머리마을의 입장에서는 그간 개발예정지역에 빌이 묶인 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 허송세월만 보냈던 것이다. 지금도 도구머리마을에는 당시 반대시위를 할 때 사용했던 깃발들이 마을창고에 남아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는 가물가물해지고 있다. 주민들 중에는 차라리 그때 마을이 뉴타운으로 개발되었으면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안성천 건너 아양동에 건설된 고층아파트를 가리키는 분도 있었다.

뉴타운으로 개발된 아양동과 개발지구에서 해제된 도기동 (도구머리마을)이 안성천을 가운데 두고 마주하고 있다.



2) 도기산성의 사적 지정과 도구머리마을이 처한 현실

도구머리마을은 안성시내인 안성2동에 속해 있는 마을인 동시에 수많은 역사문화 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다. 이러한 두 측면으로 말미암아 도구

머리마을은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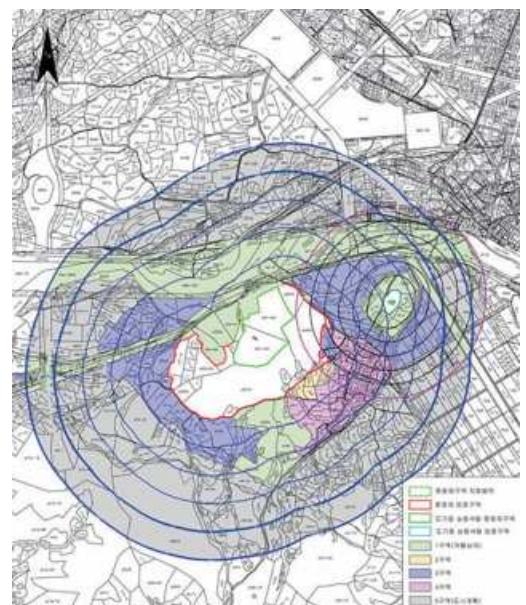
뉴타운 개발예정지구에 묶여 있던 십여 년 동안 도구머리마을은 오히려 침체의 일로를 걸어왔다. 대부분의 개발예정지구가 그렇듯이 도구머리마을 역시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개발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개발이 올 스톱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기인한 주민들의 불만은 안성시의 불합리한 행정과 안일한 국가정책에 쏠리게 마련이다. 당시 도기동은 시내 지역임에도 마을을 지나는 버스의 배차간격이 너무 커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불편했고,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으며, 소방도로도 정비가 안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²⁷⁾ 마을의 주민들 역시 어차피 개발되면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마을길, 공동시설, 주택 등을 수리·보수하는 것을 꺼렸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도구머리마을은 점차 도심 속의 낙후된 농촌마을로 변하며 정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도구머리마을이 개발예정지구에서 벗어나자마자 이번에는 개발제한지구로 묶이는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5년 도구머리마을을 감싸고 있는 성안산 정상에서 4~6세기경 한성백제가 축성했던 목책산성이 발굴되었고, 2016년에는 이 산성이 '안성 도기동 산성'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536호로 지정됨으로써 도구머리마을이 문화재 보존 지역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도구머리마을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각종 제약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규제는 주민들에게 재산권 침해로 인식되었다.



▲
도기산성

도구머리마을 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도면 2016.8.18 안성자치시문



도구머리마을 주민들은 도구머리마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재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대환영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도구머리마을 산성이 사적으로 지정된 것도 환영하다. 그러나 도구머리마을 산총선탑의 사례에서 보듯 문화재로 지정했

으면 뭐하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풀이 무성할 때가 더 많고, 삼층석탑으로 통하는 도로 하나 제대로 없어 버스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문화재로 지정만 하고 문화재는 물론이고 주변을 방치해 재산권만 침해한 것이 안성시와 정부의 행정이다. 더 이상 안성시와 정부의 행정을 믿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도기동이 받아온 각종 불이익에 대해 보상하고 이번 사적 지정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²⁸⁾

위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도구머리마을 주민들은 도기산성이 사적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사적지정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받는 재산권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산성이 성안산 정상에서 서쪽을 향해 위치하는 반면 도구머리마을은 성안산 동쪽자락에 위치하므로 산정 근처에 있는 빌라단지의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산성의 발굴이나 복원 작업에 포함될 만한 지역은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에 주민들은 대책회의를 열어 당시의 도기1동 통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안성시장과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경기도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를 방문하여 주민들이 처한 현실과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규제 완화가 힘들면 마을 부지를 모두 정부에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안성시청 관계자의 답변은 “최대한 주민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결정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었고, 문화재청 관계자의 답변은 “사적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가 주민들의 재산권과 충돌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 현상변경 구역을 지정할 때 현장을 방문 조사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이었다.

재산권 침해 부분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이었다. 안성시가 공고한 <도구머리마을 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에 의하면 도구머리마을 대부분이 도기산성으로부터 500m안에 포함되어 있어 높이 17m 이상의 건축물을 짓을 수 없게 된다. 이에 해당 구역의 주민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이용해서 건축물을 짓는데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주민들은 높이 32m, 10층 정도의 건물을 짓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도기산성은 해발고도가 70m이므로 설령 마을에 그 이상인 15층 건물을 짓는다 하여도 산성의 경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었다. 이렇듯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도구머리마을에 모닝빌리지라는 빌라가 이미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 빌라는 공교롭게도 도구머리마을이 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되었을 때 건설되기 시작하였는데, 개발제한지구로 지정된 후부터는 완공된 빌라 외에 새로 짓는 빌라는 공사가 보류될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의 증축도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관련 국가법 여러 개를 바꿔야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실현되기 힘들었고,

시청의 소관도 아니었다. 그래서 시청측은 17m의 고도제한은 지키되 여유 있는 4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현상변경기준안을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주민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진행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도구머리마을 주민과 안성시청 및 문화재청과의 협의는 이후 지부진해지면서 결국 공통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결국 건축이 필요한 일부 주민들은 개인이 비용을 들여가며 허가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고, 이러한 와중에 도구머리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면서 제대로 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도구머리마을 전경. 뒤에 있는 산이 성안산이고 산 뒤편으로 도기산성이 자리하고 있다. 마을 원편으로 빌리단지가 보인다.



대외적인 시각에서 보면 도구머리마을 주민들이 개발예정지구였을 때 개발을 반대하던 입장과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개발제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정반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두 상황에 따른 주민들의 대응이 마을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상충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뉴타운 건설은 도구머리마을의 전통, 자연환경, 생활터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획일화된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계획이었으니, 주민들은 고향이며 삶의 터전인 마을을 잃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또한 문화재보호 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제한에 반대한 이유는 마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문화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개발까지 규제하지 말라는 것이다.

뉴타운의 경우는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개발 지역이 축소되며 자연스럽게 상황이 종료되었지만, 문화재보존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제한의 문제는 현재 까지 완결된 상황은 아닌 듯하다.

물론 안성시 역시 곤란한 입장이기는 마찬가지다. 안성시가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적지정에 관련된 개발제한의 법적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적어도 지자체의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

는,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상쇄해줄 만한 보상책 정도는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이왕이면 그 보상책은 쇠락해 가는 도구머리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역사문화마을로서의 발전 계획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도구머리마을 주민들이 뉴타운건설을 반대할 때 내세웠던 바람인 동시에 현재의 도기1통장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5. 농촌체험마을과 역사문화마을로서의 도구머리마을의 미래

1) 농촌마을로서의 도구머리마을 가꾸기

도구머리마을도 조금씩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간 주민들이 원하던 소방도로도 2018년에 가설이 되었고, 도시가스는 안성2동주민센터가 있는 구우전마을까지는 들어와 있고, 2020년경에는 도구머리마을에 들어올 예정이라 한다. 도구머리마을을 통과하여 아양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도 조만간 건설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시내버스도 마을을 통과하는 등 불편했던 교통문제도 해소될 것이다.

이런 기반시설이 도구머리마을의 생활을 개선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을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와 더불어 마을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주고, 이에 따른 적정 수준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구머리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의 미래상은 어떤 것일지 궁금해진다. 이왕이면 주민들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최대한 수용되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한때 개발에 반대하며 도구머리마을 주민들은 “서양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마을을 살리려고 야단들인데 우리는 무조건 없애고 그 위에 건설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도구머리마을은 시내에 근접해 있는 안성의 곡창지대에 해당한다. 주택이 밀집한 지역과 산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농경지인 것이다. 더욱이 도구머리마을은 뉴타운 개발지구에서 해제되는 동시에 문화재 보존지역에 묶이게 되어 이제 원하던 원치 않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한동안 도심 속의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도구머리마을은 농촌마을로서 마을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은 떨칠 수가 없다.

현재 도구머리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층에 접어들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 농사를 이어갈 후속 세대가 절대 부족한 것이다. 그러니 이 농촌마을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예측하기 힘들다.

이에 주민들이 진정으로 현대화된 농촌마을 가꾸기를 원한다면 몇 가지 개선책을 통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방안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시설 재배를 통한 근교농업의 활성화가 절실해 보인다. 이상하게도 도구머리마을에는

하우스 시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젊은 영농 후계자들이 마을에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경지의 소유자가 농사에는 관심이 없는 외지인 투자자들이라는 측면도 있는 듯하다. 이에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농경지를 정부나 자체가 최대한 매입하여 시설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영농 후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모색할 만하다.

도구머리마을의 농경지



농촌체험마을의 조성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조성 운용된 농촌체험마을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그리 많지 않지만, 도구머리마을은 지속적인 지원과 운영의 문제가 관건이 될 뿐 농촌체험마을로서의 최적의 조건을 간직하고 있다. 새마을회관, 마을의 공동우물들, 방앗간, 미곡창고, 구멍가게, 산제당 등이 남아 있어 일부러 재현하지 않아도 근대 농촌의 생활 모습을 느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농경지와 프로그램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안성을 대표했던 두레마을, 안성 최초로 4H클럽이 형성되었던 마을, 추곡수매가 행해졌던 마을 등 근대 농촌마을을 선도했던 역사가 깃들어 있는 마을이므로, 이러한 역사를 재현하거나 전시하는 농촌문화콘텐츠도 개발할 수 있다.

2) 역사문화마을로서의 도구머리마을 가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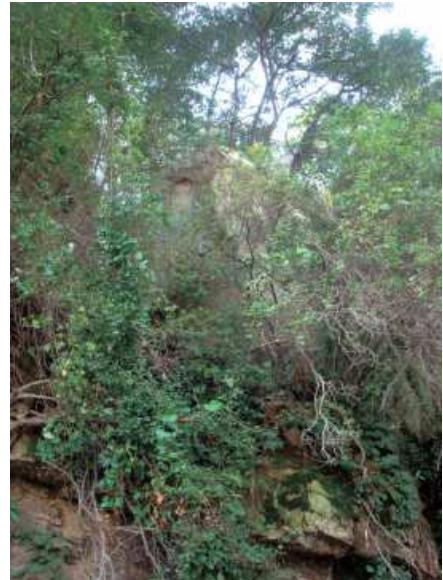
도구머리마을의 농촌체험마을 조성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다른또 하나의 방안은 도구머리마을을 역사문화마을로 가꾸는 것이다. 도기산성이 사적으로 지정된 후부터 도구머리마을 대부분의 지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묶이게 되었다.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개발에는 제한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므로 역사문화마을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것이다. 이는 앞에 언급한 농촌체험마을로서의 자생력 확보의 부족한 부분을 상호 채워줄 수 있는 측면이 강하므로 서로 배치되는 방안이 아닌 상보적 관계를 맺게 된다.

도구머리마을은 안성의 다양한 역사가 깃든 곳이다. 마한의 성읍국가시대와 한성백제시대의 유적과 유물들, 삼국시대의 목책성인 도기산성, 고려시대의 석탑, 조선시

대의 도기서원과 공장이의 마을 등 도구머리마을의 역사는 안성의 시대적 변천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 도기동삼층석탑
▶ 우대비위



이러한 점에서 도구머리마을은 안성의 역사문화박물관이 들어설 최적지라 판단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미 1996년에 도기동에 '안성맞춤박물관'의 건립이 추진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²⁹⁾ 당시의 계획으로는 안성군이 7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안성읍 도기리 67-4에 1,800여 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지하1층 지상3층인 박물관을 1999년까지 건립하여 유기, 갖신, 한지 등 안성을 대표하는 수공예품을 전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무산되었고, 현재 '안성맞춤박물관'은 대덕면에 있는 중앙대 안성캠퍼스 안에 건립되었다.³⁰⁾

이후 2006년부터 발굴되기 시작하는 도구머리마을의 유물과 유적은 이곳이 안성의 역사문화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살아있는 박물관마을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도구머리마을에 안성역사문화박물관을 건립하여 이전 도구머리마을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구머리마을에는 유물만이 아니라 유적들도 문화관광의 요소가 되므로 이를 연계할 수 있는 도구머리마을 역사문화 탐방로의 조성도 고려해볼 만하다. 도구머리마을은 도기서원이 있던 마을이고 산제당, 기우제를 지내던 우대와 고려시대에 건립된 도기동삼층석탑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있으므로 이들을 활용한 역사탐방로는 새로운 시설의 추가 없이 당장이라도 조성이 가능하다.

더욱이 도기산성이 복원되면 다수의 관광객들이 산성을 방문하게 될 것이지만 도기산성은 한 시간 정도면 둘러볼 정도의 규모밖에는 안 된다. 하지만 산성 입구 쪽으로는 안성경찰서와 안성 119구조대 등의 공공건물 밖에는 없으므로 도기산성만으로 관광지를 조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도구머리마을 산제당. 뒤쪽으로 산성과 연결되는 길이 있다.

러한 문제는 도기산성의 출구를 도구머리마을의 산제당 쪽으로 낸다면 자연스럽게 도구머리마을의 역사문화 텁방로와 연계되어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도구머리마을의 농촌체험마을 및 역사문화마을 가꾸기는 개발이 아닌 보존을 택해야 하는 현재의 도구머리마을의 입장에서는 가장 타당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계획이 될 것이다.

6. 마무리

지금까지 도구머리마을의 역사적 변천 양상을 살펴보고, 고령농촌사회로 환원된 도구머리마을의 현황을 진단하여 바람직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흔히들 안성은 '역사와 문화의 활용만으로도 지자체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문화관광의 시대를 맞이하여 다수의 지자체들이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안성은 기존에 알려진 역사와 문화만 해도 차고 넘칠 정도로 문화상품거리가 풍부한 것이 사실이다.

외지인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안성은 이미 문화관광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정작 관광객의 입장에서 안성을 방문하면, 관광 인프라의 구축이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한 안성이 밀고 있는 문화상품이 안성장과 바우덕이의 남사당패 문화에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을 할 만하다. 이러한 상태로 과연 안성이 문화산업으로 지자체를 운영할 만한 경제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안성 시내에 위치한 도구머리마을은 안성의 정체된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문화관광 사업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도구머리마을은 안성 뉴타운 택지조성지구로 지정되었던 2005년 이후 문화재지표조사와 수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들을 통해 삼한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어온 안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실체가 규명된 마을이다. 특히 그간 발견된 유적 중 하나인 도기산성이 사적으로 지정됨으로써 도기동은 안성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었다. 도기산성은 목책성이라는 유적의 성격이나 규모에 있어서 산성 하나만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광지로 육성하는 데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도구머리마을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와 도기석탑, 그리고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 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여 산성 유적과 연계한다면 불리한 조건을 상쇄하고도 남는 안성을 대표 하는 역사문화관광마을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기술한 이 글이 부디 도구머리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성의 문화관광자원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및 제보자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
- 『승정원일기』
- 『호구총서』
- 『안성군지』, 안성군지편찬위원회, 1990.
- 『안성시지』, 안성시지편찬위원회, 안성문화원, 2011.
- 『편역 안성기략』 안상정편역, 김태영원저, 새로운사람들, 2007.
- 『안성장의 발전과 쇠퇴』, 흥원의, 전조선 3대시장 안성시장, 안성맞춤박물관, 2009.
- 『안성 역사의 이해』, 흥원의, 안성시, 2017.
- 『조선후기 시장연구』, 김대길, 국학자료원, 1997.

<제보자>

- 조세형 (남, 90세, 조건제한약방)
- 권영태 (남, 1963년 생, 도기1통 통장)
- 김종안 (남, 1952년 생, 안성장터국밥 사장)
- 임상철 (남, 전 안성문화원 사무국장)
- 김홍재 (남, 도기2통 통장)
- 이정석 (남, 1935년 생, 도구머리마을 거주)
- 김영찬 (남, 1934년 생, 도구머리마을 거주)
- 이영화 (남, 1941년 생, 도구머리마을 거주)
- 김현호 (남, 1939년 생, 도구머리마을 거주)
- 정지한 (남, 1941년 생, 도구머리마을 거주)
- 최동기 (남, 도기1통, 노인회장)
- 김태원 (남, 1939년 생, 전 안성문화원장)
- 김태인 (남, 전 안성문화원 사무국장)
- 흥원의 (남, 안성맞춤박물관)

2019
경기도 현대지역사회 기록화사업
경기마을기록사업 ⑯

도기동과
구 안성장의
문화자원 활용

◆
강호정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도기동은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법정동으로, 행정은 안성2동이 관할한다. 동쪽으로 현수동·신흥동, 서쪽으로 미양면, 남쪽으로 계동, 북쪽으로 아양동과 접한다. 동쪽에 계촌천, 북쪽에 안성천이 흐른다. 통일신라 때는 한주·백성군, 고려시대에는 안성현·수주에 속하였다. 1413년(태종 13)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편입된 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안성군 읍내면 도기리가 되었다. 1931년 안성면 관할을 거쳐, 1937년 안성읍 관할이 되었다. 1998년 안성군이 도농복합형 안성시로 승격하면서 행정동인 안성2동의 법정동이 되었다. 도기동에는 자연마을로 서원말·중앙·남촌말이라는 3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 마을의 확장으로 인해 이 3개 마을이 하나의 마을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에 현재 도기동의 자연마을을 편의상 도구머리마을로 서술토록 하겠다.

현재, 안성천 너머 다른 동들과는 달리 도농복합도시 지정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도기동은 개발에 소외된 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농촌 지역으로 유지된 특성 때문에 도기동은 안성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자원들을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며 현재까지 왔다. 그러나 현재 도기동은 농촌 마을의 공통적인 문제인 마을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소멸 가능성이 높은 마을이 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주민 유입, 마을 생존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절실한 현재 시점에서 도기동 마을의 미래상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도기동 마을의 역사문화자원과 생활문화자원에 대해 조사하고, 인근 안성의 문화자원과 연계해 이를 활용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1. 도기동의 역사문화자원

1) 유형문화자원

○ 도기동 산성

안성 도기동 산성(安城 道基洞 山城, Fortress in Dogi-dong, Anseong)은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삼국시대의 산성이다. 2016년 10월 24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536호로 지정되었다.

기남문화재연구원이 2015년 9월부터 발굴조사 중인 '안성 도기동 유적'에서 백제의 한성 도읍기부터 고구려가 남쪽으로 진출한 시기에 사용된 목책성(木柵城)이 확인되었다.

『안성 도기동 유적』은 안성천과 잇닿은 나지막한 구릉지에 위치한다. 목책성은 산줄기의 지형을 따라 분포하며,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일부 단절되었으나 모두 4개 구간에 걸쳐 130m 정도의 길이로 확인되었다. 목책성은 토루(土壘)를 쌓고 목책을 세운 구조로, 토루는 기반암 풍화토를 층이 지게 비스듬히 깎은 후 토루 바깥면에 깬돌을 활용하거나, 토제(土堤)[4]를 두고 훑다짐하여 조성하였다.

특이한 점은 토루 바깥면을 직각으로 깎아낸 후, 신라 석성의 구조적 특징 중 하나인 보축성

벽과 유사한 보강벽을 조성한 것이다. 단면이 직각 삼각형 모양인 보강벽은 갠돌을 3~4단 정도 쌓고 벽면에 점토를 두텁게 바른 후 점토덩어리를 겹겹이 쌓고 불탄 흙을 다져 올려 마무리한 구조로, 고구려 목책성인 세종시 부강면의 남성골산성과 축조방법이 매우 흡사하다.

목책은 토루의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목책열은 돌린 이중구조로, 바깥쪽의 목책은 2열로 나타나며, 안쪽과 바깥쪽 목책의 간격은 4.5~5m 정도이다. 이를 통해 목책의 배치현황과 함께 목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유물로는 토루의 흙다짐층과 목책구덩 등에서 세발토기(삼족기), 굽다리 접시(고배), 시루 등 백제 한성도읍기의 토기를 비롯하여 뚜껑, 손잡이 달린 항아리(파수부 호), 짧은 목 항아리(단경호), 사발(완) 등의 고구려 토기와 컵 모양의 가야계 토기도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로 보아 목책성의 중심연대는 4~6세기로, 백제에 의해 축조되어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고구려가 일부 고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기동 유적에서 확인된 목책성의 구조와 출토유물로 볼 때, 이번 발굴조사는 사료로만 전하는 삼국시대 책(柵)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경기 남부지역에서 고구려가 활용한 목책성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진천 대모산성》(충청북도 기념물 제83호), 《세종 부강리 남성골산성》(세종특별자치시도 기념물 제9호), 《대전 월평동산성》(대전광역시 기념물 제7호) 등과 연계하여 고구려의 남진 경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이다.

안성 도기동 산성은 한강이남 지역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산성으로 고구려의 영역 확장 과정과 남진 경로를 보여주는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목책구조가 잘 남아있어 고대 토목·건축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안성 도기동 산성 입구



현재 도기동 산성이 위치한 성안산 부지를 시에서 매입 중에 있으며, 매입이 끝난 다음에 도기산성 복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도구머리 마을과 반대편에 입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도기동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인 역사자원으로 활용할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안성 도기동 삼층석탑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마을 입구의 작은 언덕에 있는 삼층석탑이다.

탑의 주재료는 화강암이며 기단(基壇)·탑신(塔身)·옥개(屋蓋)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대석(址臺石)은 장대석(長大石) 여러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기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 장의 판석(板石)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개의 우주(隅柱)가 있다. 갑석(甲石)은 1장으로 된 판석(板石)이며 부연(副椽)이 있다. 옥개는 평평하고 얇으며 추녀는 수평을 이룬다. 고려 후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1989년 6월 21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76호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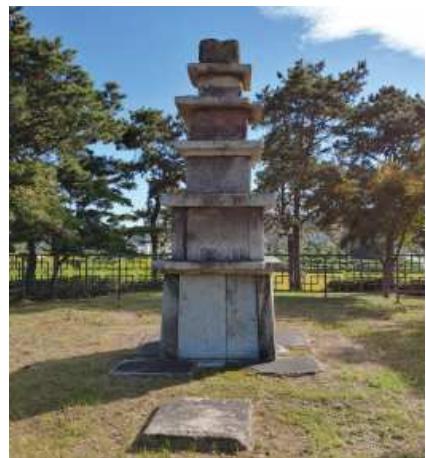
삼층석탑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로 ‘탑을 세워 마을을 지킨 도구머리’라는 비보(裨補) 풍수탑이 있다. 안성천변에 있으며 안성의 장이 서기도 했던 곳 가까이에 있는 도기동(道基洞)은 원래 ‘도구머리’로 알려진 곳이다. 마을 뒷산이 거북이 머리처럼 생기고, 여기에 큰 돌이 박혀 있어 ‘독머리’, ‘석수’, ‘도기’ 등이라고도 불렸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거북이가 봉황 곁을 떠나면 안성시 주민들에게 큰 재앙이 따른다고 하여 거북이가 떠나지 못하도록 도구머리 산에 탑을 세웠다고 한다.

현재에도 도기동 삼층석탑이 위치한 곳을 살펴보면 거북이 머리로 보이는 언덕 위에 삼층석탑을 올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도구머리 마을에서 바라 본 탑산 - 거북머리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 도기동 삼층석탑



○ 도기서원과 영귀정터

도기서원은 경기도 안성시 안성을 도기리에 있었던 서원으로 사계 김장생을 배향하였다. 김장생은 조선중기의 학자이자 문신이다. 송익필, 이이, 성훈의 학풍에 영향을 받았고 송시열 등에

의해 그의 학풍이 계승되었다. 김장생은 1599년(선조 32) 안성군수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고 안성의 사회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한 바 있다.

1663년(현종 4) 지방유림의 공의로 김장생(金長生)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김장생의 제자였던 우암 송시열이 왕에게 상주(上奏)하여 1669년 '도기(道基)'라고 사액되어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으며, 1712년(숙종 38) 복액(復額)되었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오던 중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71년(고종 8)에 훼철된 뒤 복원되지 못하였으며, 위패는 땅에 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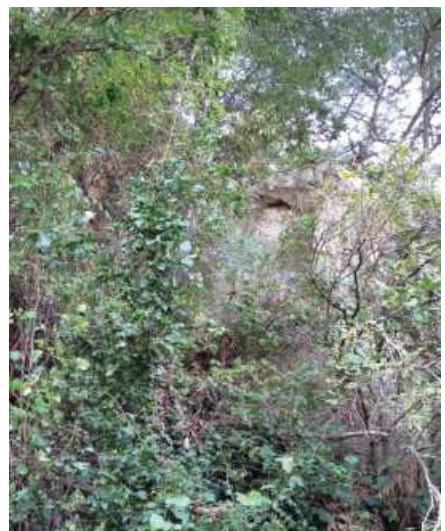


도기 서원터(추정) 파노라마

도기서원의 옛자리였던 도기동 서원 뒷산에 '영귀정'이 있고, 부근 암석에 우암 송시열이 쓴 '운대(雲臺)'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안성기략』(1925년)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운대(雲臺)'는 '우대(雩臺)'의 오기로 현재에도 암석에 '우대(雩臺)'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영귀정 터는 '우대(雩臺)'라는 글자가 새겨진 바위로만 짐작할 뿐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다. 다만 이 바위가 영귀정의 모퉁이였다는 것으로 보아 영귀정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 도기서원 연못 터 ▶ 암석에 새겨진 우대(雩臺)



일제강점기 때 관료를 지낸 영가인(永嘉人)¹⁾ 포산(苞山) 권중환(權重煥)²⁾이 쓴 ‘영귀정(詠歸亭) 명월(明月)’이라는 시가가 『안성기략(1925년)』에 남아있다.

정자는 오래되어 낡고 사람은 없어 단지 흔적뿐이네
 꽃 떨어지고 쓸쓸히 풀 흩어지는데
 가장 가련한 것은
 공산에 달 밝은데 관동(冠童)이 시가를 읊조리는 것만 하리오.

도기서원에 모신 김장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김장생의 자(字)는 희원(希元)이고, 호(號)는 사계(沙溪) 유일(遺逸)로서 관직은 참판에 이르고 영상(領相 : 영의정)을 중직받고, 문원(文元)이란 휘호를 받았으며 문묘에 배향되었다.

율곡 이이에게 수학하고 우계 성흔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그는 덕기순후(德器純厚)³⁾하며 학업이 순수(諄粹)⁴⁾하였으며 예학(禮學)에 정통하였다. 저서로는 『의례문해(疑禮問解)』,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 『경서변의(經書辨疑)』, 『상례비요(喪禮備要)』, 『가례집람(家禮集覽)』을 비롯하여 유고(遺稿)와 문집이 있다. 향수 84세를 누렸던 인물이다.

서원에서 배출된 명사로는 숙종 때 인현왕후의 폐위에 대한 부당성을 극간한 양곡 오두인이 있는데, 양성면 덕봉리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덕봉서원은 그를 배향한 서원이다.

○ 도기동 쇠전거리

안성2동주민센터와 안성시 보건소 뒤에는 구우전길이라는 작은 도로가 있다. 안성시장이 있던 성남동에 1960년대 말까지 우시장이 서다가, 이곳으로 우시장을 이전하여 소전거리·쇠전거리라 불렸던 역사에서 출발한다. 이에 더불어 도기동과 안성 시내를 잇는 안성교를 과거에는 쇠전다리라 불렸던 것과도 관련이 깊다. 성남동에 있던 안성시장이 시내의 확장과 더불어 현재의 안성맞춤시장으로 이전한 것이 68년에서 70년 사이로⁵⁾ 이 시기에 우시장 역시 도기동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 우시장은 계동축협 자리로 한번 더 이전하게 되면서, 우시장이 서던 자리에 안성2동주민센터와 안성시 보건소가 들어서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개발과정에서 다행히도 주민센터와 보건소 뒷골목 부분 일부는 옛 우전거리의 모습을 보존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의 구우전길이다. 현재에도 구우전길 마지막 집은 외양간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서너마리의 소를 아직도 기르고 있다.



안성 도기동 산성 입구

2) 무형문화자원

○ 도구머리 산신제

도구머리 산신제에 대한 가장 오래된 조사기록으로 1967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조사된 '도구머리마을 제사'⁶⁾를 들 수 있다. 조사자는 김준구(남, 안성읍 백성국민학교근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간략히 조사되었다.

1. 당이름 : 삼신당
2. 당위치 : 부락 서쪽 산정에서 동향으로
3. 당형태 : 당집 외형 - 초가집 대지 건평 9평 / 당집 내부 - 내부에는 아무 것도 없음
/ 서낭대에 제사를 지냄
4. 제신 : 신격 - 골매기 / 효험, 전설 - 삼신당에 제사 지내면 동리가 무사하고 태평하다함
5. 제관 : 수효, 명칭 : 1명, 당산주 1명/ 선출방법 - 동리 사람 중에서 불결하지 않은 남자
/ 기타 참석자 - 기타 유지 많이 참석함
6. 제의절차 : 제전 - 동리를 깨끗이 하고 살생을 금함 / 제의순차 - 야간에 삼신당에 제사 지냄
/ 제후 - 제물은 동리 사람들이 나누어 먹음
7. 제일 시간 : 가을에 택하고(밤 11~12시)
8. 제수 상차림 : 고기, 실과, 술
9. 제비 - 동리 사람이 부담함

이 조사내용으로 살펴보면 삼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외형은 초가집으로 되어 있으며 당집 내부에 아무 것도 없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후 2011년 발간된 『안성시지』에 따르면,⁷⁾

도기동 두구머리마을에서는 산신제가 전승되고 있다. 2002년까지 산신제와 정제가 결합되어 전승되었다. 제당은 성안산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성안산을 흔히 '탑산'이라 부른다. 가로 617cm, 세로 260cm 가량의 흙벽 형태이며, 방과 제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붕은 기와 위에 슬레이트를 덮어 놓았다. 주변에는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내부에는 위폐와 신체(身體)를 봉안하는 나무 제단(가로 171cm, 세로 31cm)이 있으며, 아래쪽에는 제물을 진설하는 시멘트 제단(폭 165cm, 높이 45cm)이 있다. 제단 왼쪽에는 '성주대'가 놓여 있으며, 산신을 모시는 용마(龍馬)가 양쪽에 위치하고 있다. 제일은 마을에 부정이 없는 한 음력 정월 초하루 자시(子時)로 고정하고 있다. 마을에 초상이나 출산 등 부정한 일이 발생하면 제일을 봄까지 연기한다. 제관은 제의 당일 아침에 대동회에서 일진과 사주를 가려 당주, 제관(초현, 아현, 삼현), 심부름꾼 등을 선출한다. 제관은 당일 금기를 준수한다. 제의 당일 새벽에 당우물에서 찬물로 목욕재계하고 내려오는데, 이때 부정한 것을 보지 않기 위해 고깔을 쓴다. 제물은 돼지머리, 삼색 실과, 통북어 10마리, 술 등이다. 제관은 오후 4시에 재장으로 올라 근신하고 있다가 자정을 기해 제의를 올린다. 제의는 유교식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고축한 뒤 당주는 마을 개개인의 소원을 적은 종이를 성주대에 붙인다. 제비는 20만원 가량 소요되며, 걸립(乞粒)으로 추렴한다. 산신의 영험담이 자자한

데, “○○○이 산신에게 제물로 바친 돼지고기를 적게 나눠 준다고 불평을 하자 그 자리에서 입이 불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가 ‘미련한 인간이 뭐 압니까?’하면서 빌었더니 비로소 입이 열어졌다”고 한다.⁸⁾

1960년대 조사내용과 달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산신제와 우물 제사가 결합된 형태로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을에 있던 산제사가 음력 정월 초하루 자시(子時)로 변경된 점, 초가집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내부에 위폐와 신체를 봉안하는 나무 제단을 설치했고, 제물을 진설하는 시멘트 제단과 ‘성주대’와 산신을 모시는 용마(龍馬)를 마련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 당집

▶▶ 당집내부 - 용마 한쌍



2019년 현재 거행되고 있는 산신제는,

현재 도구머리 마을에서는 정초에 산신당 혹은 서낭당이라 불리는 제당에서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올린다. 도기동의 서낭제는 수백년 전부터 지내기 시작했으며 일제시대 때 한 30여년 지내지 못한 것 외에는 마을이 형성된 이래로 계속 지내왔다는 역사성을 자랑한다.

300년에서 400년 전부터 지내온 것으로 예전에는 음력 정월 보름날 첫 새벽 자정에 지내던 것이었으나 마을에 초상이 났다든가 아이의 출산으로 피부정⁹⁾이 있을 경우 등 부정한 일이 생기면 정해놓은 날짜에 제를 지내지 못하고 계속 연기하게 됨으로 제물 준비도 새로 하고 하는 등 번거로워 최근에는 아예 정초에 날짜를 잡아 지내게 되었다. 제례 시간도 아침 10시경으로 옮겨서 지내게 되었다.

도기동의 서낭제는 제관 2명과 주당(主堂 : 제를 주관해 관리하는 사람) 1인을 중심으로 하여 마을의 어른들 몇몇이 참관하는 가운데 진행한다.

먼저 돼지머리와 제물을 진설하고 제관이 술을 따르고 절을 한 후 축관을 겸한 주당이 축문을 읽었다. 축문의 내용은 산신님에게 마을의 온갖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재앙을 물리쳐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평안, 가축의 번성을 비는 내용이다. 축문을 읽고 다시 제관들이 절을 한 후 제물 중 돼지머리의 피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접시에 조금 덜어 삼베에 싸서 제단 위의 일정 장소에 묻는다. 그 위에다 제

주를 부은 후 다시 제관이 상에 술을 따르고 절을 한 후 제단 주변의 사방에 술과 안주를 뿌린다. 마을 어른들에 따르면 이는 날짐승들이 먹으라고 주는 것이라 한다.

예전에는 돼지를 잡아 지냈으나 지금은 돼지머리로 대신하고 있다. 돼지머리는 원래 검은 돼지를 산채로 제단에 가지고 가서 잡아서 올리던 것이었고, 접시에 담는 것은 돼지의 피였다.

산신제가 끝나고 서낭당으로 내려와서 다시 제물을 진설하고 제를 지낸다. 서낭당에는 하얀 백지로 싼 위패가 넷이 존재하고 그 양 옆으로는 백마와 적마가 있는데, 이 말들은 산신을 태우고 다니는 말 용마(龍馬)라고 한다.

서낭당에서는 마을을 지켜주는 산신님에게 제를 지내고 마을 전체를 대표하는 소지를 올린 후에는 개별적으로 제의에 참가한 마을 어른들이 집안의 복을 비는 소지를 올린다. 또 제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제당 앞에서 제물을 음복하고, 음복이 끝나고는 마을 노인정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예전에는 도기동에 마을 공동우물은 서원 말 우물과 중앙의 우물, 남촌 말 우물 등 세 군데가 있었으며 우물제도 함께 지냈는데 지금은 중앙의 큰 우물과 서원말 우물만이 남아있고, 특별히 우물제는 드리지 않았다.

제례 후에도 제례음식을 마을 사람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마을 노인들에게 서낭제를 무사히 지낸 것을 알리고 음식도 노인정에만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서낭제를 위해서 마을에는 당계가 존재했었는데, 이는 마을의 가구들 거의 모두가 참가하는 것이었고, 당계에서는 제비마련을 위해 서낭당 앞의 밭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당계가 없어지고 주당 한 사람이 제를 관리하며, 당계의 자금을 마을로 이관하여 마을기금으로 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예전의 마을 제의에서는 제례에 따른 금기 또한 엄격하여 한번 제관으로 선정되어 제를 치를 사람은 다시 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마을입구와 제의 장소 등에는 금줄을 쳐서 부정한 사람의 접근을 막고,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이 선출되면 그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고깔을 쓰고 다녀야 하며, 제관들은 마을의 우물에서 찬물로 목욕을 하고 제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마을 어른들은 서낭제를 지내서 그런지 그 동안 일제 때 징병에 가거나 하더라도 이 마을에서는 사상자가 없었으며 마을이 편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¹⁰⁾



◀ 마을 중앙우물
◀◀ 서원말 우물

2011년 조사내용에서 정제(우물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으며, 제례시간이 자시(子時: 자정)에서 아침 10시경으로 변경된 점, 제물 중 돼지 피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조사되어 있다. 실제 답사 때에도 제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용마(龍馬)의 경우 60년대에 존재하지 않았다가 최초로 기록된 것이 2011년 『안성시지』이다.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용마(龍馬)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량생산된 기성품을 제당에 모시고 있었다. 용마를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유래와 연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나, 제보자인 통장 권영태(57)씨 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용마의 유래와 연원에 대한 재구(再構)가 필요하다.

○ 갓장인

안성 도기동은 예로부터 갓 장인들이 모여 갓 수선집이 즐비한 거리를 이루었다 한다. 특히 안성의 도구머리에는 이모씨(李某氏)를 비롯하여 서너 가구에서 갓 수선을 가업으로 삼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전국에서도 그 기술과 섬세함이 제일로 입소문이 자자했다고 한다. 그 소문이 한양을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게 되어 헌갓을 가지고 많은 선비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었고 이 때문에 도기서원을 두게 되었다는 설(說)도 전해진다. 때문에, 도기동에서는 갓 장인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구머리에서 왔군.’과 ‘트집 잡다’라는 말의 어원이 도기동 갓 장인과 관련이 깊다는 것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이다.

‘안성맞춤’은 ‘안성’에서 생겨난 말이다. 안성에서 생산되던 유기를 궁중에 진상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트집 잡는다’라는 말이 안성의 ‘도기머리’와 ‘갓’을 중심으로 생겨난 말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조선 시대에 갓이란 선비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었다. 갓은 통영갓이 유명하였지만 안성의 도구머리도 갓 소산지였다. 통영갓이 말총이나 명주실로 싸개를 하여 만들었던 반면, 안성에서는 주로 댁가지를 쪼개서 만들었는데, ‘트집잡는다’라는 말은 안성에서 갓 만드는 것과 연관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예전에 만들어진 갓은 마지막에 칠을 한 후, 100여개 정도를 포개어 놓고 거기다 물을 흡뻑 뿐은 후 밑에서 불을 때어 말린다. 그 김에 의해 칠이 마르면 이를 밤을 재워 그것을 꺼낸다. 그런데 갓은 원래 풀칠을 하여 만들기 때문에 간혹 누습하여 떨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시 붙여야 했다. 이처럼 갓 붙이는 것을 ‘트집잡는다’라고 했는데, 갓을 꺼낸 후에는 거의 여럿이서 트집을 잡았다.

또한 갓 수선과 관련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다. ‘트집 잡는다’는 말은 안성의 도구머리에서 행했던 갓 수선에서 생긴 말이라는 것이다. 갓은 쓰다가 보면 구멍이 나거나 넓게 되는데, 이럴 경우 값비싼갓을 일일이 살 수 없어 수선을 해서 썼다. 그런 만큼 갓 제작 못지않게 섬세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갓 수선이었다.

조선 후기 안성장은 기호 지방 일대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이름난 큰 장이었다. 안성 고을을 통과하여 흐르는 안성천은 옛날에는 아주 큰 강이어서 배가 화물을 싣고 다녔던 교통로이기도 했고, 멀리 중국의 상인들이 이곳 안성까지 교역을 다녀가는 통로이기도 했다.¹¹⁾ 사람들이 안성장을 보러 올 때면 누구나 이 안성천을 건너 다녀야 했는데, 안성천을 건너기 전에 다다르

는 곳이 바로 도구머리[道基洞]라는 마을이었다. 그러므로 이곳은 항시 장을 보러 올라오는 장꾼들과 잡상인들로 인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갓은 만드는 데도 능숙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수선하는데도 그에 못지않은 기술이 필요하다. 갓 수선은 전국 여러 곳에서 행해지지만, 그중은 안성 도구머리에서 갓 수선을 업으로 삼던 사람들의 기술이 뛰어나다고 소문이 났다.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갓을 가지고 이곳에 와 고쳐 갔다. 이때 갓 수선법은 주로 조그맣게 뚫어진 구멍을 크게 흡집을 낸 후 감쪽같이 수선을 해 놓는 방식이었는데, 그 기술이 얼마나 좋았던지 한양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다. 그 결과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선비들이 헌 갓을 가지고 이 도구머리에 와 갓을 고쳐가게 되어 자연 이곳에는 많은 인재들이 모이게 되었다.

감쪽같이 수선을 해내기는 하지만 갓을 고칠 때 원래는 조그맣게 뚫어져 있던 구멍을 크게 흡집을 내어 고치다 보니, 갓 수선 시 값을 치룰 때는 간혹 갓 주인과 갓 수선쟁이가 서로 다툴 때가 많았다. 갓 임자는 조그마한 흡집밖에 없는 멀쩡한 갓을 크게 흡집을 내놓고 값을 비싸게 받는다고 값을 깎거나 주지 않으려 하고, 수선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완전하게 고칠 수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 하며 수선비 전액을 다 받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갓 수선쟁이는 이때 한 푼도 양보 없이 거의 다 받아냈다고 한다. 수선 시 멀쩡한 작은 구멍을 일부러 크게 만들어 고치는 데서, 그리고 이 일로 해서 서로 다투기 때문에 여기에서 ‘트집 잡는다’라는 말이 생겼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서 기원하여 안성시에서는 경우나 이치에 어긋나거나 억지를 쓰는 사람을 보면 “도구머리에서 왔군!”이라고 말한다.^{12) 13)}

고을 남쪽 외곽을 흐르는 안성천은 장을 보러 올라오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건너야 하는 큰 내였다. 그 내를 건너면 소시장이 있었으므로 다리를 쇠전다리라 하였고, 다리를 건너기 전에는 도기동인 도구머리라는 마을이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러 올라오는 장꾼들은 이 마을에 이르러 해장국으로 아침 요기를 하고, 해장술 한 잔쯤 기울이고 물을 건너 고을로 들어오는 것이 상례였으므로 도구머리는 잡상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었다. 이 쇠전다리를 기준으로 다리를 건너기 전인 도기동에 갓 장인들의 갓 수선집이 들어서 있었다고 한다. 안성장의 배후지로서 도기동에 수선하는 수선집이 들어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고, 조선시대 도기동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으로는 갓 장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갓수선집 거리를 재구(再構)해 문화자원화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 직하다.

3) 생활문화자원

도기동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도기동의 문화자원을 활용할 방안에 생활문화자원의 확보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기동의 생활문화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인근 안성 시내의 문화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구머리 마을에서는 현재 생활문화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 안성장터국밥

경기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60(지번 도기동 20-5)에 있는 역사가 있는 음식점이다. 안성장터국밥은 안일옥과 역사와 그 뿌리를 같이한다. 안성장터국밥과 안일옥의 시작은 1920년대 초 안성 우전거리에서 가마솥을 걸고 장사하던 이성례 할머니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 우전(牛塵)은 난전(亂塵)으로 그날그날 구할 수 있는 고기 부위에 따라 설렁탕, 곰탕, 소머리국밥 등을 팔다보니 안성 우탕이라 통칭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안성 우탕의 시작이다. 이성례 할머님 작고 후, 6·25전쟁을 겪은 뒤 피란 다녀온 며느리 이양귀비 할머니로부터 안성 구사거리에 안일옥이라는 이름을 걸고 국밥집을 시작하였다. 이양귀비 할머니는 9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중 이양귀비 할머니를 도와 국밥집을 운영하던 장남은 이른 나이에 요절하게 된다. 이 때문에 큰며느리가 분가하여 송탄에 안일옥을 개업하게 되고 차남인 김종안 어르신이 안일옥을 물려받게 되었다. 그러나, 김종안의 조카 한 명이 회사를 차리는데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안일옥을 지키기 위해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평택의 안일옥은 여동생이, 안성 안일옥 본점은 제약회사를 다녔던 삼남 김종열이 맡게 된다.

빈털터리가 된 김종안은 친한 후배가 선의로 공터를 제공한 것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다지게 된다. 그는 공장이나 고물상을 다니며 공터에 건물 지을 재료를 모으기 시작해 스스로 지은 것이 지금의 안성장터국밥이다. 이때가 2005년 1월로 현재 안성장터국밥의 건물 중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건물 한 채부터 장사를 시작하게 된다.

- ▶ 안성장터국밥 전경
- ▶▶ 안성장터국밥



안일옥과의 차별을 두기 위해 안성장터국밥은 토속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장작으로 가마솥에 사골잡뼈를 넣고 육수를 우린 다음 소머리와 양지, 그다음 우거지·대파·토란·콩나물·양념을 넣고 무청도 많이 넣는 것이 안일옥의 우탕과 다른 안성장터국밥만의 특징이다. 장터국밥 입구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있으며 5,000명이 먹을 만한 큰 용량을 자랑한다. 이 가마솥은 바우덕이 축제에 참

가하여, 이 솔을 걸고 장사했던 사진이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는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 축제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안성장터국밥을 전국에 알리겠다는 노력은 멈추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안성맞춤(평택)휴게소와 계약하여 안성장터국밥을 팔게 되었고, <전지적 참견 시점>의 이영자의 전국 휴게소 추천 메뉴로 널리 알려졌다. 안성장터국밥은 김종안이 3대째 운영하는 대물림 향토 음식점으로 현재 안성시 유일의 향토음식 1호점으로 지정되어 있고, 안성 8미(味) 중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도기동 마을공동체

90년대 지방자치의 시작으로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마을 공동체가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도기동은 지역 내 문제인 고령화로 인한 마을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自救策)으로 ‘도기동 마을공동체’를 구상하게 되었다. 통장 권영태(57)씨를 중심으로 2019년부터 마을공동체 구성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첫 작업으로 빈 창고에 도기동 마을공동체 결성을 알리는 벽화를 칠하면서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의 첫발을 떼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도기동 마을공동체 사업은 도기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마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측면에서 도기동 마을공동체의 원활한 유지·운영을 위해서는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 사무장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첫째, 마을과 외부를 연결하는 마을 운영 인력으로 마을 주민과 도시민이 서로 수월하게 연결될 수 있는 대화의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마을 공동체 사업 수행에 있어 마을 사무장과 같은 운영인력은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보화마을’, ‘평화생태마을’, ‘체험휴양마을’, ‘마을기업’, ‘희망마을’과 같은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하는데도 사무장과 같

안성 도기동 산성 입구



은 운영인력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별 특색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민과 외부인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데 중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기대된다.

‘도기동 마을공동체’의 결성은 앞으로 도기동의 생활문화자원으로 훌륭히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도기동의 발전이 기대된다.

4) 역사문화탐방로 제안

현재 안성 도기리는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 도구머리마을이 뉴타운 개발지구에서 해제되어 농촌의 모습을 잃을 위험에서는 벗어났다 할지라도 도심 속의 농촌으로 고령화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동화(空洞化)되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도구머리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층으로 기계화 농법에 의존해 농산물 생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재 마지막 영농후계자가 50대로 다음 세대인 젊은 세대들이 농사일을 이어받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젊은 세대들은 도시로 유출되고 있고, 귀농과 같은 전입하는 젊은 청년 후계자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재 도기동의 문제이다.

이런 과정이 지속되다 보면, 근래에 인구 유출로 인한 마을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도기동 내에 모닝빌리지라는 빌라촌이 형성되어 안성 시내나 인근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인구의 유입은 꾸준히 있으나, 빌라촌 주민의 경우 마을 토박이들이 보기에는 뜨내기 주민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술했던 마을 공동체 활동을 바탕으로 한 정보화마을’, ‘평화생태마을’, ‘체험휴양마을’, ‘마을기업’, ‘희망마을’과 같은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는 마을 사무장 프로그램은 도구머리 마을이 직면한 문제를 극복할 주요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현재 도구머리 마을 주민들의 경우 통장 권영태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준비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에, 마을공동체 구성을 통한 도구머리마을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추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은 도구머리마을을 역사문화마을로 가꾸는 것이다. 어차피 도기산성이 사적으로 지정된 후 도구머리마을 대부분의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이게 되었다.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개발에는 제한이 따르는 것이 사실 이므로 역사문화마을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것이다. 특히 도기산성부터 70~80년대 근대 건축물으로 이어지는 마을의 역사성은 역사문화마을로서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과거부터 근대 현재를 아우르는 도구머리 마을은 역사의 연속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는 앞에 언급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마을기업으로서의 자생력 확보와 더불어 부족한 부분을 상호 채워줄 수 있는 측면이 강하므로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서 도구머리마을의 역사문화유적은 도구머리마을에 긍정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주민들에게는 팽배해 있는 듯하다. 도구머리마을은 1989년에 탑산에 위치한 고려시대의 삼층석탑이 경기도문화재자료로 지정되면서 오히려 피해만 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때 삼층석탑의 문화재 지정으로 말미암아 반경 300m가 건축행위 등의 제한을 받았을 뿐 마을에 별다른 혜택을 주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탑산은 원래 학생들의 소풍코스 등 봄, 가을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으나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에 의한 제약으로 오히려 찾기 힘든 곳이 되었다. 그렇다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도구머리 마을에서 요청해 별초작업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깎아낸 풀을 그대로 방치하여 둔 상황이다.

2016년 사적지정된 도기산성의 유적과 유물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안성장의 배후공동체로서 도기동의 유구한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도구머리마을 박물관이 자리잡아야 하는 것에는 큰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실제 2000년 이후에 발굴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1996년부터 도구머리마을에 '안성맞춤박물관'의 건립이 추진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전부터 도구머리마을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지역내 공감대가 형성되어 움음이 짐작된다. 비록 안성맞춤박물관이 중대 안성캠퍼스로 확정되었으나, 도기산성의 발굴성과나 안성장의 배후공동체로서 주요성과 안성을 대변하는 도기동의 역사성을 지역적 차원에서 알리고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도기동 주변조사를 통해 도구머리마을에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은 예전보다 더 큰 당위성을 갖게 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안성에는 안성포도박물관(서운면 인리), 이경순소리박물관(금광면)과 향토사료관(보개면 양복리), 3·1운동기념관(원곡면 칠곡리) 등의 다양한 전시시설이 있지만, 안성의 역사문화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선 '도구머리마을 박물관' 만한 것이 없을 것 같다.

도구머리마을에는 유물만이 아니라 유적들도 문화관광의 요소가 되므로 이를 연계할 수 있는 도기동 역사문화 탐방로의 조성도 고려해볼 만하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길 콘텐츠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길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손꼽는 것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다. 이러한 다른 지역의 탐방로와 비교하여 차별성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가 도구머리마을의 서원말이었을 때의 전통이다. 물론 도기서원과 영구정 등 이와 관련된 부속 건물의 복원을 통한 차별성 확보는 장기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대목이지만 '서원터 - 영구정터 - 우대'로 이어지는 1코스는 '성안산 둘레길(가칭)'로 현재 활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도기산성 - 산제당 - 마을 탐방'으로 이어지는 2코스 '도구머리 마을 탐방길(가칭)'의 탐방로 조성 역시 고려해 볼 만하다. 현재 도기산성 입구는 사실상 도구머리 마을의 반대쪽에 입구를 내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다. 즉, 도기산성이 도구머리 마을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도구머리 산성에서 마을 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도구머리 마을 산제당이 나온다. 산제당에서는 마을 쪽으로 돌아 나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기산성에 찾아오는 방문객을 마을 탐방로로 끌어오는 2코스는 충분히 조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덧붙여 2코스의 경우는 산제당을 활용한 산신제로 대표할 수 있는 마을의 전통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요소가 된다. 2코스를 이용한 산신제 콘텐츠는 축제로도 활용 가능한 특성을 지니기에 도구머리 마을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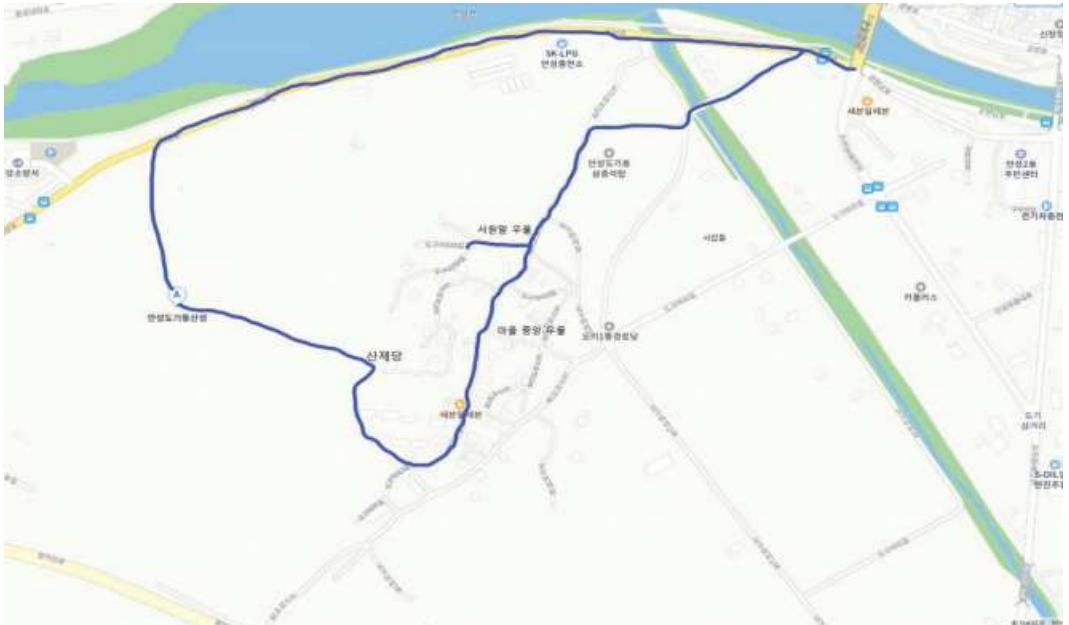
산제당에서 바라본 도구머리 마을 파노라마

더불어 도기동에서 쇠전다리만 건너면 안성시에서 조성한 추억의 거리가 나온다. 안성향교에서 시작하여 구포동 성당 - 안성 1동 주민센터와 같은 근대문화유산과 안성 5일장과 같은 무형문화자원을 연결하여 안성 추억의 거리로 이어지는 ‘안성 역사문화탐방로’로 조성하는 것도 도기동의 문화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이다.

위에서 제시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농촌체험마을, 도구머리마을 박물관, 역사문화탐방로 2개 코스 조성, 안성 역사문화탐방로와의 연계 등을 통한 역사문화마을 가꾸기는 개발이 아닌 보존을 택해야 하는 현재의 도구머리마을의 입장에서는 가장 타당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계획이 될 것이다.



1코스 성안산 둘레길



2코스 도구머리 마을탐방길

2. 도기동 인근 안성시의 문화자원

안성시는 도보 탐방로 구성이 가능할 정도로 시내 문화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도기동은 안성시내와 쇠전다리로 연결되어 접근성이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도기동 문화자원과 인근 문화자원인 안성 시내의 문화자원과 연계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활문화자원과 편의시설이 부족한 도기동이 독립적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해결함과 동시에 안성장의 배후지역으로 도기동이 지니는 역사성을 자연스럽게 결합시켜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안성시내 동북단의 안성향교에서 남쪽 도기동 방향으로 문화관광코스는 다음과 같이 활용이 가능하다.

○ 안성향교

경기도 안성시 명륜동 118번지에 있는 향교이다. 1983년 9월 19일 경기도문화재자료 제27호로 지정되었다. 1532년(중종 27)에 창건되었고 최근 몇 차례 중수되어 곳곳에 균대식 보수의 흔적이 남아 있다. 명륜당과 동·서재, 풍화루가 강학공간이고, 대성전 앞에 동·서무가 늘어선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규모는 대성전 26.54평, 명륜당 17.18평, 풍화루 51.36평이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2칸 밖의 익공계 맞배지붕 집인데, 전면에는 개방된 퉁가(워카살 밖에

안성향교 풍화루 파노라마



다 딴 기둥을 세워 만든 조붓한 칸살)이 있고 내부에는 공자 등 5성, 공문 10철, 송(宋) 6현과 한국 18현의 위폐가 봉안되어 있다. 동·서무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집으로 형태와 구조가 서로 유사하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집인데 중앙의 3칸 대청 좌우에 1칸의 온돌방이 있다. 동·서재는 앞뒤에 뒷간을 갖춘 특이한 형식으로 평면만 약간 다르다. 풍화루는 정면 11칸, 측면 1칸의 2층 누각인데 수평성이 매우 강조되어 외관이 장엄하다. 하층에는 통로가 나 있고 상층에는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누마루(다락같이 한 층 높게 만든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연대가 오래 되지 않았으나, 독특한 건축 형식과 짜임새 있는 공간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경기 지역의 대표적 향교이다. 비봉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어 생태문화자원과 조화를 이루어 경관자원으로도 가치가 높다.

○ 안성 구포동 성당



안성 구포동 성당 파노라마

안성 구포동 성당의 전면과
후면 - 서양식 석조건물과 한
국식 목조건물이 결합 된 절
충식 건물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경기도 안성시 구포동 80-1번지에 있는 근대문화유산으로 1985년 6월 28일 경
기도기념물 제82호로 지정되었다. 안성시의 진산인 비봉산(飛鳳山)의 지맥인 구포
동 동산에 남서향으로 건립되어 안성시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대지 1,124평
에 건평 97평으로 한옥의 부재를 이용하여 1922년 건립하였다.

성당의 기원은 1866년 천주교 박해가 있을 때 안성, 죽산, 미리내 등지에서
많은 신자들이 순교한 데서 연유된다. 그후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 안토니
오 콩베르(Antonio Combert:한국명 공안국) 신부가 1900년 10월 19일 이곳에
도착하여 민가를 매입 입주한 후 1901년 2월경 정식으로 안성천주교회 본당을 창
설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1922년에 건립된 것으로 안성군 보개면 신안리에 있던 동안강당
을 매입하여 그 건물의 목재와 기와 등으로 지었다. 그러나 건물의 평면이나 내부
공간의 구성은 가톨릭 성당의 기능에 맞추었다. 따라서 한옥의 재료인 목조 기둥·
서까래·기와 등을 가지고 서양식의 성당건축을 지은 것으로, 한국에 가톨릭 성당
이 건립되는 초기단계의 한식과 양식의 절충식 건축의 한 예가 된다.

건물 전면의 입구와 종탑은 1955년에 로마네스크풍의 벽돌조로 개조하였는
데, 당초의 정문을 헐고 새로 부착하여 지은 것이며, 내부는 좌·우로 마루를 얹어
서 2층의 공간형태를 이루고 있다. 근대 한국천주교 성당 건축양식의 특징인 한국
과 서양의 절충식 성당으로서 초기의 성당건축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
료가 된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구포동 성당은 서양식 석조건물과 한국식 목조건물이 결
합 된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서양과 동양의 절충형 성당이라는 특성은 마카오의 성
바울성당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 안성군 관아 터

안성초등학교 유적비를 기준으로 안성 교육지원청 자리에 자리 잡았던 안성군 관아 터이다. 현재 관아 터를 지키고 있는 느티나무와 유적비만이 관아 터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관아 부속 건물 중 안성 객사는 일제강점기 명륜 여자중학교로 이전되었다가, 1995년에 해체 수리되어 안성문화원 자리로 옮겨져 있다. 경기유형문화재 제154호로 1995년에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또 다른 부속 건물인 극적루는 구포동 성당 본당 일대에 있었다고 하나, 현 위치인 경기도 안성시 봉산동 8-6번지에 2013년 복원하여 건립하였다 한다.

- ▶ 안성 초등학교 내 유적비
- ▶▶ 안성군 관아터
- 안성 교육지원청



○ 안일옥

1920년대부터 3대째 내려오는 노포(老鋪)로 전국에서는 5번째로 오래된 노포(老鋪) 이자 경기도에서는 가장 오래된 식당이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한 33곳의 가게 중 하나이다. 40년이 넘은 메뉴판과 소금 볶을 때 사용하는 주걱 등이 백년 역사를 가늠케 한다.

1920년대 초에 이성례 할머니가 안성우시장거리에서 장날마다 가마솥을 걸어놓고 국밥을 팔던 시기를 시초로 안성장터국밥과 그 뿌리를 같이 한다. 그날 그날 구할 수 있는 고기 부위에 따라 설렁탕, 곰탕, 소머리국밥 등을 팔다보니 우탕이라 통칭하게 되었다. 이런 뾰얀 국물이 안성장터국밥과 차별성을 지니는 안일

- ▶ 안일옥
- ▶▶ 안성맞춤 우탕



옥만의 특징이다. 현재 가게 터를 잡고 장사를 시작한 건 2대째인 이양귀비 할머니가 대를 이어 안일옥 간판을 달고 정식 식당으로 번창시켰다. 현재는 삼남인 김종열 사장 님이 3대째 이어받아서 벌써 30년 가까이 운영 중이다.

1920년대 초 그 시절 방식 그대로 만드는 진하고 담백한 옛날 장터 국밥, 과거와 달라진 점은 기계로 뼈와 고기를 썰어낸다는 점과 장작을 쓰던 방식에서 가스로 바뀐 점 정도이다.

365일 끓고 있는 가마솥 사골국물 핏기를 제거한 사골잡뼈와 소머리고기, 양지머리고기 등을 넣고 처음에는 센불로 끓여주어 사골육수를 만든다. 부위별로 나눈 소고기에 사골육수를 더하면 100년 전통의 안성 장터국밥이다. 10개 우탕 중에서 '안성맞춤우탕'이 있는데 일명 '소 한 마리 탕'이다. 모든 재료를 한 뚝배기에 담아낸 것으로 족, 꼬리, 도가니, 갈비, 머리고기가 들어간다. 이런 '안성맞춤우탕'은 과거 우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고기 부위에 따라 음식이 달라지던 우시장 시절의 전통을 현대적인 가치에 맞게 재탄생시킨 안일옥만의 방식이다.

향후, 고등학교 때부터 요리를 전공해 온 아들 김형우가 물려받을 예정으로, 가족들이 대를 이어 역사성을 가지는 일본의 장인문화처럼 안성을 대표하는 4대를 이어 온 노포(老鋪)가 될 예정이다.

○ 안성 5일장

안성장은 안성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으로 조선 후기 18세기 이후 번성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생활문화자원이다. 현재에는 2, 7일장으로 안성 구터미널 뒤편 중앙시장과 안성맞춤시장 사이의 대로변에 펼쳐진다.

과거 조선시대 대구장, 전주장과 함께 3대 장으로 불리었을 만큼, 현재의 5일장도 경기도에서 손꼽을 만한 규모를 자랑한다. 다양한 공산품을 비롯해 돼지감자, 각종 채소, 나물, 건과류, 어패류와 같은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조사가 진행된 9월은 포도철이라 안성포도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포도 좌판이 안성장에 나와

안성 5일장



있었다. 원래 안성의 특산물이 포도와 유기그릇인 만큼, 제철을 맞은 포도의 단내가 진동하는 인심 좋은 전통장의 모습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안성1동주민센터

일제강점기인 1928년에 지어진 근대문화유산으로 안성시 최초의 ‘등록문화재’이다. 건축 후에는 1966년까지 안성군청 건물에서 안성읍사무소를 거쳐 현재 안성1동주민센터로 쓰이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일제강점기 관공서 건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2004년 일제강점기 잔재를 없애자는 주장에 헐릴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아픈 역사도 보전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에 힘입어 실려 살아남게 되었다. 주변 건축물 개발제한에 대한 반발로 지정문화재가 아닌 ‘구 안성군청’ 이름으로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안성1동주민센터

○ 영동 중앙정미소

안성1동사무소 옆에는 1952년에 지어진 중앙정미소가 관리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특히, 제13호 태풍 링링이 왔을 때 지붕이 많이 파손되었다고 한다. 거대한 규모의 외관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수준의 정미소는 아니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어, 농업, 상업도시로서 당시 안성의 위세를 가늠하기 적합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서 손색이 없다. 현재 개인소유로 안성시가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존활용에 대한 합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근대 문화자원으로서 최소한의 관리라도 이루어지길 바란다.



영동 중앙정미소

○ 낙원역사공원

낙원역사공원은 경기도 안성시 낙원동 609-5번지에 위치한 문화자원으로 과거 대한제국말에 조성된 공원으로 원 이름은 안성공원이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신사가 설치되었던 곳이기도 하며, 해방 이후 신사를 헐고 공원으로 조성하여 안성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는 낙원역사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원내에 모두 46기의 공덕비 선정비, 문인석, 송

덕비가 있고, 소설가 이봉구 문학비가 있다. 고려시대의 삼층석탑, 훌어져 있던 좌대 불상 광배들을 모아 만든 석불좌상, 석남사에서 출토되었다는 광배와 좌대 등이 남아 있어 많은 볼거리와 이야기거리를 전해준다.

안성 각지에 훌어져 있는 다수의 비석과 석탑 등 다양한 문화재들을 모아 공원에 이전 복원하여 설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역사성을 강조해 낙원역사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다양한 문화재 중 오명항선생(1673~1728) 송공비는 원래 동본동에 있던 것으로 1969년에 이곳으로 이전, 복원하였다. 선생은 1728년(영조 4)에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4도 도순무사로 분무1등 공신이 되었으며 송공비는 이를 기리기 위하여 1744년(영조 20)에 만들어진 것이다. 문학비의 주인인 소설가 이봉구는 안성출신으로 일제하에서는 농촌계몽운동을 펼치기도 하였으며 작품으로는 실명소설 <명동 에레지>, <방가로> 등이 있으며, 안성을 무대로 한 <안성장날>이 있다.

낙원역사공원 내에는 안성의 역사성을 알리는 기능과 더불어 무더위를 식히는 팔각정과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어 안성 시민의 휴식처의 기능 역시 담당하고 있다.



낙원역사공원 내 공덕비 군(群)

○ 안성 백남이용원

경기 안성시 영동 545번지에는 안성에서 제일 오래된 백남이용원이 있다. 백남이용원의 주인이자 역사인 백남식(75) 이발사는 국민학교를 갓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의 권유에 바리깡을 잡게 되었다. 그때가 1940년대로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먹고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빨리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어린 나이에 그의 스승인 송기동 어르신을 만나 이발 기술을 13년간 배웠고, 남들과 다른 뾰얀 가운을 입는다는 점에서 이발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손님중에는 4대에 걸친 가족의 머리모양을 책임



백남이용원

지고 있을 정도로 안성 전담이발사가 되었다. 현재 안성시에서 활동하는 이발사들은 평균연령이 모두 50대를 넘어섰고, 백남식 이발사는 이런 이발사들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용업의 역사는 이용업이라는 생활문화자원으로 안성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손색이 없다.

○ 조건재 한약방

▶ 조건재 한약방

▶▶ 조세형 어르신과 약장



안성 추억의 거리 내 조건재 한약방을 운영하는 조세형(90) 어르신은 증조부 때부터 의원 생활을 해 온 양반 출신 의원집안 태생이다. 기묘사화 때 화를 입은 조광조 집안으로 증조부는 생원시에 합격하여 생원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변 지인들을 치료해 주는 정도의 가벼운 의술을 펼치셨을뿐 적극적으로 의원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도 양반 출신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의원 생활을 본업으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선친인 조병하 어르신 대에 온양에서 안성으로 이주했던 일제강점기 즈음 의술 활동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출판된 『안성기략(1925년)』을 살펴보면 ‘제약자 조 선인 1명’이라는 기록과 ‘시장 점포 중에 건재약국이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는 조세형의 선친인 조병하 어르신 대에 대한 기록이다. 1981년에 이르러서는 『안성의 맥』에 기록될 정도로 애향심을 지니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안성의 유지 집안이 되기에 이른다. 아버님은 20~30년 정도 의원생활을 하셨지만, 아버님을 돋기 위해 시작된 어깨너머 조기수련이 현재 조세형 어르신의 의술의 시작이자 완성지점이 되었다. 안성에 ‘조건재 한약방’은 조세형 어르신 대 낙원 공원 앞 영동 동사자리에 자리 잡았다가 1·4후퇴 이후 현재 자리로 옮겨 운영하게 된다. 6·25 전쟁 중에는 인민군이 진지를 칠 정도로 안성장터에서 두 번째로 큰 자리였다.

조세형 어르신이 약방을 열게 된 후 안성 장날마다 병자들이 찾아왔는데, 만성은 한재(10일치) 급성은 한첩(반나절치)씩 처방하여 보냈다. 가장 자신 있는 분야로는 아이 경풍(신경쇠약)이라고 하며, 지금까지 아이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키며 오롯이 한자리에서 70년째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한약방의 역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물로는 작은장과 큰장으로 불리는 ‘약장’이 있다. 그중 작은 장은 고종 때 윤고영이라는 혜민서 태의가 증조부에게 선사한 혜민서 약장이라는 유래가 있고, 큰 장은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맞춘 장으로 3대째 전해지고 있다. 의술에 종사하던 가계의 스토리와 신념, 유물이 시간의 위협을 견디며 100년 이상 전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성시장과 안성의 힘을 대변하는 상징성을 지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매길 수 있다.

○ 신창 정미소

안성 추억의 거리 내 신창 정미소는 1955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살펴본 영동 중앙정미소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안쪽으로 직사각형의 큰 살림집이 딸린 구조이다. 추억의 거리 조성 때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현대식 간판을 내걸어 외관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내부는 50년대 지어질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 규모 때문에 더 이상 가동하지 못하고 멈춰선 영동 중앙정미소와 달리 지금도 도정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정미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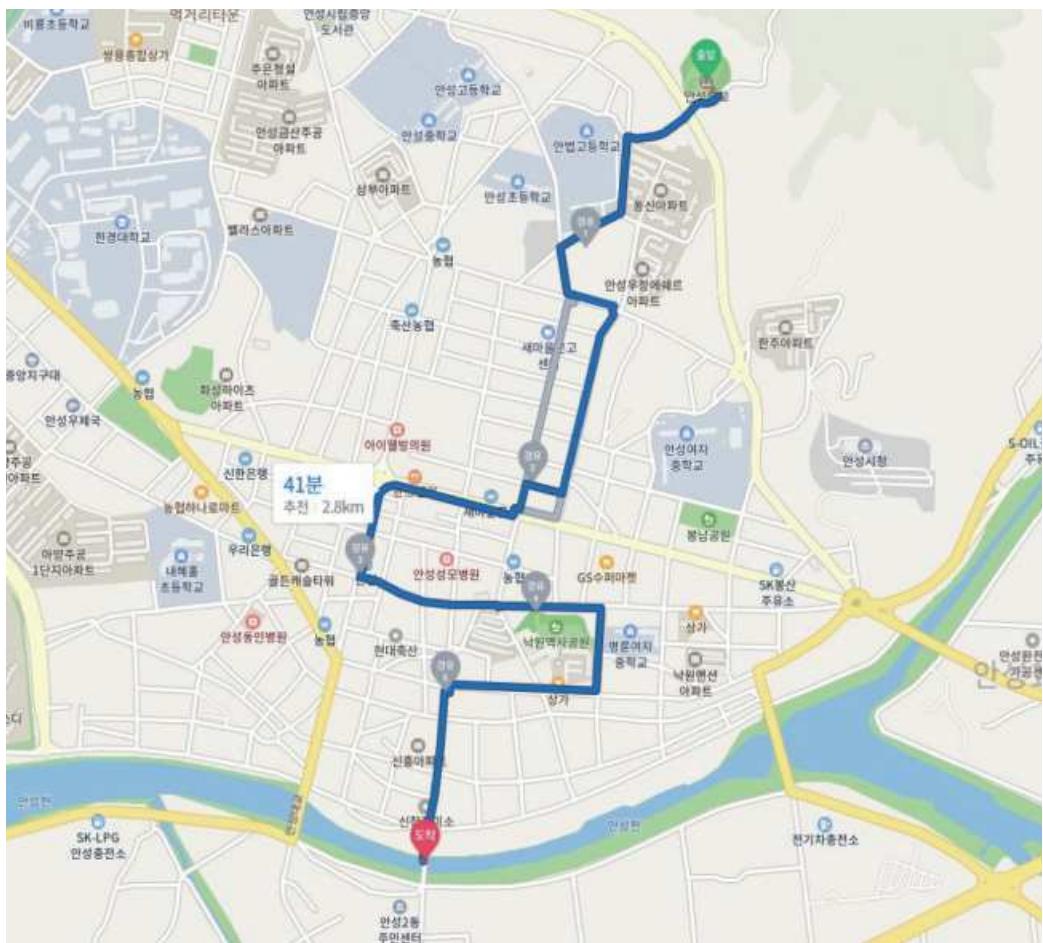
- ▶ 신창 정미소
- ▶▶ 신창 정미소 내부
- 도정기계



○ 우전 대장간

안성 추억의 거리 끝 쇠전다리 앞에는 19세기 말 지어졌다라는 우전대장간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야점(冶店), 일제강점기에는 흑철점으로 불리었다. 지금 주인 김필오 씨가 196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건물 외관은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지만 그 안의 대장간 도구는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주된 생산품으로 조선낫과 호미, 무쇠 칼 등 현재에도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활발히 농기구를 생산하고 있다.

우전 대장간



안성역사문화탐방로 코스

2019
경기도 현대지역사회 기록화사업
경기마을기록사업 ⑯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의
현대적 급변과
경계면적 면모

•
김은희
경기대학교

1. 진사리 지역 개관

1) 역사와 위치

한 마을의 현재는 지금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그들이 살아온 과거가 쌓여있는 흔적이다. 그리고 그 흔적에는 사람들의 모습을 포함해서, 사회문화적 흔적과 정치경제적 흔적, 지역 교류의 흔적 등 다양한 면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흔적에 대해 현재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잘 알고 해명할 수도 있으나, 그 흔적이 너무 미미해서 잘 확인하기 어렵거나, 흔적이 너무 산재해 있어서 그것을 엮어내지 않는다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진사리(珍沙里, Jinsa-ri)는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행정리 중의 하나이다. 진사리만의 역사만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우므로 안성시와 공도읍과 관련된 몇 가지를 정리함으로써 이를 가름하고자 한다.

안성은 역사서에는 고구려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하지만, 10여 곳에 이르는 구석기, 청동기 고고유적을 통해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아왔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용두리, 승두리, 만정리, 진사리, 마정리 일대 유적은¹⁾ 낮은 산을 끼고 형성된 넓은 구릉 지대로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지형적 특징을 보이며, 진사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역사서에 안성시 일대는 고구려시대 내혜홀이라 불리었고, 신라 경덕왕 때에 백성군으로 개칭되었다가 고려초에 본격적으로 안성현이라 지칭되어 현재에 이른다. 고려 후기인 공민왕 11년에 안성군으로 승격되었다. 고려시대까지는 충청도였지만 조선시대 군현제 이후 안성과 양성은 1413년(태종 13), 죽산은 1434년(세종 16) 경기도 관할로 편입되는 등 충청도와 경기도 경계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안성군에 편입된 당시의
『양성군』지도 중 공도면 일대²⁾



죽산군 5개면을 뺀 3개 지역이 안성군으로 합쳐진 것은 1914년 일제강점기 부군면 통폐합 때문이다. 이후 1963년에 행정구역 개편 때 용인군 고삼면이 안성군으로 편입되면서 1읍 12개면이 된다.

양성군 공도읍 진사리 일대(확대) :
지도를 통해 진사리의 원지명인 진촌(珍村), 독사곡(獨沙谷)을 비롯하여
인근의 중복리, 건천리 등의 지명이
확인된다.



1983년은 지금의 안성시 행정구역을 결정했던 중요한 시점이다. 이때는 현대화를 거치며, 경기도의 여러 지역이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을 겪던 시기이다. 특히 안성과 평택군과의 경계지역이었던 당시의 원곡면과 공도면 지역의 변화가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1983년 2월 15일에 대통령령 제 11027호에 의해 군 경계가 조정될 때 당시 안성군 원곡면이었던 용이리, 죽백리, 월곡리, 청룡리와 공도면이었던 소사리 등이 평택군 평택읍으로 편입되면서 양쪽 도시가 현재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확정했다.

이후 1998년에는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되면서 도농복합시(법률5458호)가 되어 2019년 현재 2읍(안성읍·공도읍), 3동(안성 1·2·3동), 11개 면(보개면·금광면·서운면·미양면·대덕면·양성면·원곡면·일죽면·죽산면·삼죽면·고삼면)을 유지하고 있다.

안성시의 행정구역 중 서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공도읍은 평택과의 경계 지역으로 원래 양성군의 일부였다. 그러나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당시 공도면, 도일면, 덕산면, 전부와 구룡동면, 구철리면, 영룡면의 일부를 병합하여 공도면으로 개칭하고 안성군에 이속되었다. 이후 2001년 6월 1일에 공도면이 공도읍으로 승격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도읍은 안성의 서쪽 관문에 해당한다. 공도읍은 평택과 안성을 잇는 역할을 하며 동쪽으로는 안성시 미양면, 서쪽으로 평택시 유천동, 서북쪽으로 안성시 원곡면, 남쪽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북쪽으로 안성시 양성면과 맞닿아 있다.

안성천을 따라서 펼쳐진 넓은 평야지역인 공도읍에는 양기리, 불당리, 건천리, 중복리, 진사리 등이 속해 있다. 공도읍 가운데 대략 50m 높이의 낮은 구릉지에 해당되는 지역에 마정리(대림동산)와 만정리, 용두리, 승두리, 진사리, 신두리, 웅교리 등이 속했다. 공도지역은 양성면의 고성산(高城山, 298m)과 용두리 뒷산에 해당하는 백운산 정도를 빼면 매우 평탄한 지역이다. 이러한 지형에 남쪽에는 안성천이 지나고, 그 지류인 한천(漢川)과 함께 농업용수를 제공하면서 농경생활의 기본 조건이 갖춰졌고, 곡창지대로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³⁾ 게다가 안성천이 서해와 동쪽내륙을 연결하는 수운교통으로 활용되다보니 과거에는 농사를 통한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지역이다. 현재 공도읍은 안성시 전체 면적 55.40km²의 5.77%를 점유하는데 그치는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66개 행정리가 속해 있는 복잡한 구성을 보인다. 또한 느리게 변화되어 가는 안성시 관내 타지역과 비교해 공도읍은 최근 20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 진사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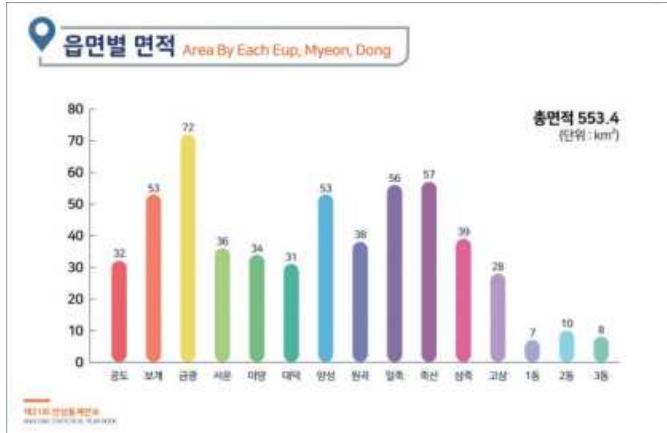
안성시의 전체면적과 공도읍의 면적 (2016. 12. 31. 기준)⁴⁾

지역	면적(km ²)	구성비(%)	읍	면	동		리		반
					행정	법정	행정리	법정리	
안성시	553.40	100%	1	11	3	33	420	158	59통 1487반
공도읍	31.94	5.77	1	-	-	-	66	11	286



『안성시 통계연보-2000년도』 중 안성시 행정지도

『안성시 통계연보 2018년』



『안성시 통계연보 2015』
안성시 관내지도
공도읍 일대



2) 진사리의 현황⁵⁾

안성천의 풍부한 물줄기에 혜택받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던 진사리의 변화상은 공도읍의 현재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으며, 이는 공도읍과 안성시의 미래에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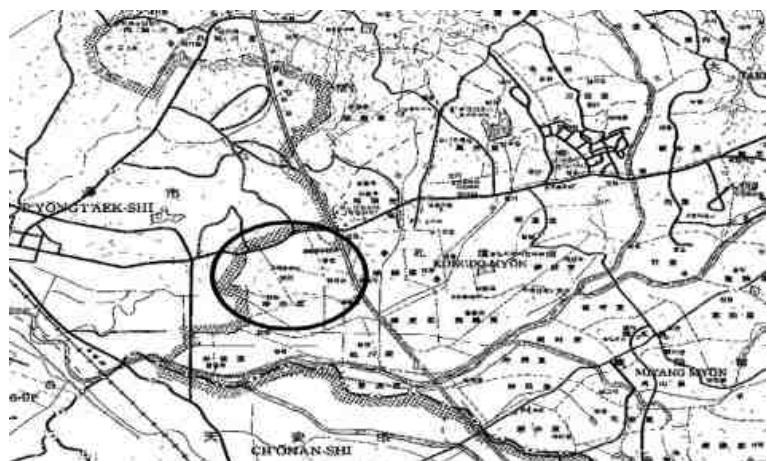
전통적으로 유지되던 진사리(珍沙理)는 양성군 구룡동면에 속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공도면에 편입되었다. 진사리(珍沙理)라는 지명은 구룡동면에 속해 있던 진촌(珍村)과 독사곡(獨沙谷)에서 한 글자씩 딴 것이다. 예전부터 진사리에는 대구 서씨, 전주 이씨, 밀양 박씨, 양진 허씨, 해주 오씨, 평택 임씨 등이 거주했다.

현재 진사리는 법정리명으로 10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10개의 행정리는 전통적인 마을의 형태로 유지하고 있었던 진촌, 양진, 용천, 합성촌을 포함하여,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형성된 안평1·2·3·4리, 삼성마을, 쌍용마을 10개 행정리가 포함된다.

이전부터 지속되었던 자연마을 중 진촌과 양진, 옹천 등 세 개 마을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농촌마을을 유지하기 때문에 관련된 마을의례나 행사를 지속해왔다. 이와달리 합성촌은 해방 직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만들어진 마을로 역사가 70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사리에 전통적인 마을 형태를 유지하며 살아온 네 개의 마을은 1980년 이전까지는 하나의 행정구역이어서 이장이 한 명이었을 정도로 소규모였지만 이후 1~6반으로만 나뉘어 존재하던 마을들이 각각 독립적인 마을로 변화하였다. 진사리의 노인회는 세 마을이 독립한 후에도 한동안 구심역할을 하다가, 2010년쯤 각 마을별로 독립한다. 전통적인 공동체성의 분리의식이 자리잡은 시점이 비교적 최근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와 그 일대

진사리의 위치를 다시 지도를 통해 살펴보자. 지도에서 진사리를 중심에 두었을 때 동쪽은 공도읍 불당리, 승두리, 서쪽은 구 공도읍 이었으나 현재 평택으로 편입된 소사동, 북쪽은 현재 평택으로 편입된 용이동, 남쪽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건천리와 중복리가 위치해 있다. 그 남쪽으로 안성천이 서쪽에서 동쪽을 가로지르며 충청도 천안시 성환읍 안궁리와 양령리 등과 인접해 있다.

『안성시 통계연보 2000년』 중
진사리 일대

진사리는 중복리, 건천리 등과 함께 안성과 평택 또는 천안과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치는 현대 이후 진사리의 변화에 큰 원인이 된다. 1960년대 안성나들목처럼 교통망을 이어주는 진출입로가 생겼고, 38번 국도변을 따라 아파트들이 들어섰다. 1983년대 평택과 안성간의 행정구역 조정도 경계지역이었던 진사리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진사리의 현재적인 모습은 거주 인구와 관련된 통계수치를 통해서도 더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안성시에서 정리한 '2018년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_안성시'의 인구통계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면,⁶⁾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진사리의 거주 인구는 총 12,277명으로 공도읍 전체 인구의 약 21.4%에 해당한다. 이는 공도읍이나 안성시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중의 인구 수이다. 공도읍의 법정동리의 인구 수는 불당리 270명(0.47%), 응교리 478명(0.83%), 신두리 376명(0.66%), 용두리 11,550명(20.1%), 승두리 1,757명(3.1%), 양기리 2,931명(5.1%), 마정리 6,634명(11.6%), 만정리 20,599명(35.9%), 건천리 257명(0.45%), 중복리 255명(0.44%)이다. 이렇게 볼 때 진사리는 공도읍에서 만정리 20,599명(35.9%)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는 최근인 2019년 9월 26일을 기준으로 정리한 인구수 현황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진사리의 거주세대와 인구수는 소폭으로 감소되어 총 인구수 12,054명(21.0%)으로 확인되지만, 공도읍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수는 여전히 상위 랭크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신 토박이의 비중보다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외지인의 유입으로 인한 진사리의 변화는 안성시와 공도읍의 연령별 인구현황을 볼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안성시의 인구통계자료 중 '연령별 인구현황'을 통해 공도읍의 인구를 세대별로 나누어 살펴볼 때 공도읍의 상황이 안성시 인구구성비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0-7세, 8-13세, 14-19세, 30-39세, 40-49세에 해당하는 젊은 부모세대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이 안성시에 비해 공도읍이 현격하게 높다. 특히 안성시에 살고 있는 0~19세 인구 34,351명 중 14,202명이 공도읍에 거주하며, 이는 안성시 전체의 41.34%에 해당된다.

연령별(만) 인구현황⁷⁾

통계년월 : 2019. 07 현재

연령	안성시		공도읍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합계	184,464	100.00	57,587	100.00
0세 - 7세	11,688	6.33	5,008	8.69
8세 - 13세	10,789	5.86	4,839	8.41
14세 - 16세	5,097	2.76	2,108	3.67
17세 - 19세	6,777	3.67	2,247	3.9
20세 - 29세	21,560	11.68	6,276	10.91
30세 - 39세	24,307	13.17	8,934	15.51
40세 - 49세	30,064	16.29	11,694	20.31

50세 - 59세	30,784	16.69	7,940	13.78
60세 - 69세	22,318	12.09	4,626	8.02
70세 - 79세	13,159	7.14	2,602	4.52
80세 - 89세	7,002	3.8	1,170	2.04
90세 - 99세	868	0.48	138	0.24
100세 이상	51	0.02	5	0

진사리의 세대 및 인구수 현황 (2019.09.26일 기준, 외국인 제외)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공도읍 전체	22,982	57,292	28,755	28,537
진사리	4,905	12,054	5,945	6,109

진사리 또한 외지인과 젊은 세대 거주가 늘어나면서 공도읍 인구구조의 전반적인 현상을 이끌고 있다. 공도읍에 만정리와 진사리 인구가 집중된 까닭은 신규아파트 건축으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진사리에 전통마을인 진촌, 양진, 옹천, 합성촌 인근에 삼성, 쌍용, 안평리에 우림, 주은청설아파트, 만정리에는 부영, 신기, 참아름, 스위첸, 불루밍, 한일, 어울림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그리하여 진사리의 현재 모습은 전통적인 농촌마을에 90년 후반부터 2000년 초반 이후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됨으로서 다양한 기반시설들이 확충되어온 지난 20여 년간 변화 속에서 만들어졌다. 또한, 진사리는 사실상 평택시와 생활문화 인프라를 공유하는 공동체이고 도시가 주는 편의성에 따라 새로운 이주민들에게 각광받은 장소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결국 행정구역상 경계 도시인 진사리의 도시정체성은 이러한 복합성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에 2020년 완공되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는 향후 주민들의 생활과 정서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진사리의 아파트 숲



2. 공도읍 진사리 전통마을의 흔적

진사리는 성장하는 평택과 이웃한 도시로서, 혹은 스타필드라는 핫 이슈 때문에 주목받는 동네이지만, 정작 경계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정서와 문화는 크게 관심 받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진사리의 선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만들고 영위하면서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지켜왔다. 진사리의 지역성은 안성시 또는 주변지역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확보되지만, 주민들의 삶은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소박하고 진솔하게 만들어져 왔다. 그들이 살아왔던 모습을 정리함으로써 도시화의 거센 요구 속에서도 묵묵하게 유지되고 있는 진사리 주민들의 소박한 삶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

1) 진사리 전통마을의 변화상⁸⁾

법정리인 진사리는 진촌, 양진, 웅천, 합성촌 등 전통적인 색채를 띤 행정리 4개 마을과 안평1·2·3·4리, 삼성마을, 쌍용마을 등 1990년대 새로 생긴 아파트 이름을 반영한 10개 행정리가 신설된 특징이 있다. 각 마을별로 그들의 모습을 개관하면서 몇몇의 증언을 통해 그들의 삶을 엿보고자 한다.

(1) 진촌

진촌은 진사리의 행정리 중 가장 큰마을에 속한다. 진촌은 약 150여 년 전쯤 양천 허씨 허욱(許旭)이 정착해서 형성된 마을로 『안성군지(1990)』에 기록되었다. 하지만 마을에 거주하는 대구 서씨 후손들은 자신들의 9대조가 이곳에 입향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감안하면, 마을의 역사 는 최소한 300년을 넘어선다.

진촌은 달리 ‘진말’(진마을)이라고도 하는데, 비가 오면 흙이 적황색을 띠면서 질고 찰지게 변해 ‘진말[珍村]’이라 불렸다고 한다. 진촌 사람들은 예전에 “진말에서 여자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할 정도로 물의 범람이 많고 땅이 질었다고 한다. 또한 미양면의 ‘진말’과 구별하기 위해 ‘동지진말’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동지’가 붙은 이유는 옛날에 이 마을에 ‘동지’ 벼슬을 지낸 ‘김 동지’가 살았는데 그가 신두리에서 진말까지 낸 수로가 마을을 풍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공적을 기린 것이라고 한다. 이후 마을은 흉년과 풍년이 따로 없는 동네 즉 흉풍지지(凶豐之地)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 ‘동지’ 벼슬을 한 사람이 언제 사람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한다.

진말은 진사리의 자연마을 중 가장 규모가 큰 마을일뿐만 아니라, 구석기 시대의 유물과 백제 시대에 축성된 산성의 흔적이 남아 있을 만큼 역사가 오래된 마을이다. 진촌(珍村), 양진(陽進)은 한자로 陳村, 陽陳으로도 표기하는데 이때의 진(陳)은 성터의 진을 친다는 뜻이다. 『안성시의 문화와 역사 유적(1999)』에 의하면 구 쌍용자동차물류센터가 있는 장소에 가면, 그 흔적은 거의 사라졌지만 전체 둘레 300m 정도의 테뫼식 토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조선시대까지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토성에서는 백제 타날문 토기류 등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곳에 성터[陳]가 있어서 진말이 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주민들은 산성의 흔적이 약화된 이 토성을 해발 40~50m 정도의 퇴미산 또는 퇴비산으로 인식했고, 그 정상을 ‘퇴미봉’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퇴미봉이 마치 문화구처럼 생겨서, 이곳에서 밭을 구르면 속이 빈 듯한 쇳소리가 났다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옛날에 쓰던 무기가 묻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진촌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현재 진촌의 지명으로만 남아 있는 ‘비석거리’에는 해주 오씨 문중의 묘역이 있었다고 한다. 또 ‘솔밭’은 ‘이승만 대통령 조립지’로 6·25전쟁이 끝난 뒤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만든 숲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선 시대의 지지류에도 ‘송전(松田)’이라는 지명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소규모 소나무밭이 형성된 장소를 6·25 이후 대규모로 확장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을 남쪽에는 ‘기룡앞숲’ 또는 ‘왜가리숲’으로 불리던 버드나무와 참나무 숲이 있어 마을주민들이 그네를 걸고 놀았다고도 하는데 이미 사라져버려 확인할 길이 없어졌다.

진말에는 ‘여우굴’이라고 부르던 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제강점기에는 이곳이 ‘측량기점’이었다고 전한다. 이외에 ‘마루뜰(높은 곳에 있던 들)’, ‘목개(안성천변에 물을 가두어 둔 조그만 용덩이)’, ‘진등떼(마을 앞뜰)’, ‘옻나무골’, ‘내건너’, ‘덕개비’, ‘애장골’(어린아이 무덤이 많았던 곳), ‘아랫모퉁이(아랫마을)’, ‘윗모퉁이(윗마을)’ 등의 지명이 진말 지역에서 확인된다.

진촌은 2017년 말 기준 165가구 419명(남자 211명, 여자 208명)이 살고 있다. 예전에는 진사리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마을이었다. 현재 마을에는 양천 허씨, 대구 서씨 등이 다수 거주하지만 각성받아마을로 주민들은 증언한다. 마을에는 우물이 2개 있었고, 웅교리와 진사리를 잇는 농수로(진촌수로)에 있던 물레방아는 1960년대에 진행된 농경지 정리 당시에 유실되었고, 마을 하천공사를 할 때 연자방아가 발견되었던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진촌은 산제사와 같은 공동체 의례를 별도로 지내지 않았고, 두 군데에 있던 우물에서 매년 정월 우물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우물이 경지정리 때 모두 메워졌고 우물고사도 중단되었다. 예전에는 진촌마을의 아랫모퉁이와 윗모퉁이로 나뉘어 출다리기도 했지만 6·25전쟁 이후 중단되었다. 또한 건천리 사람들은 개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상대방 개천에 불을 지르는 쥐불싸움을 했다고 주민들은 증언한다. 정월대보름이나 여름 복달음 할 때나 추석 때는 마을주민들이 모이면 농악을 치며 노는 날도 많았다고 한다. 정월대보름에는 지신밟기 놀이를 했고, 두레도 잘 놀았다고 하는데 농악기가 현재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다. 마을 남쪽의 ‘기룡앞숲(왜가리숲)’에는 큰 버드나무가 있어서 단옷날 같은 때에 이 나무에 그네를 매고 놀기도 했다고 한다.

진촌에는 1912년에 운영된 양진학당(陽進學堂)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설립자는 이용구(李容九)이며, 당시 교장은 이정구(李鼎九), 두 명의 교사, 95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다. 이후 그 이름은 1958년 양진초등학교, 2008년 양진중학교로 이어진다.

진촌의 주민생활 중심지인 마을회관은 건평 55평, 대지 150평, 규모로 약 6,000만원을 지원받아 2001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건립되었다. 진촌의 마을노인회에서는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로 야유회를 간다. 마을회관에서는 여름에 모여 복달음을 하는데, 대개 중복날에 진행한다. 예전에 복달음을 할 때는 마을회관에 모여서 함께 복날 음식을 끓여서 같이 나누어 먹었으나, 2019년에는 젊은 세대의 제안으로 인근 식당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진촌에서 젊은 세대들 중 진말에서 나고 자라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한다. 토박이는 대부분 노인층이 대부분이며, 그 외 주민들의 대다수는 외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토박이의 자제들은 부모들과 같이 동네에서 잘 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동네에 가장 젊은 토박이는 50세라고 한다.

진촌의 옛마을 지명은 다음과 같다.

- 덕대개비 : 어린아이 무덤이 많았던 곳(애장골)
- 마루뜰 : 높은 곳에 있던 들
- 목개 : 안성천변에 물을 가두어 둔 조그만 웅덩이
- 비석거리 : 해주 오씨들의 묘역이 있던 지역
- 아랫모퉁이, 윗모퉁이 : 아랫마을, 윗마을
- 왜가리숲, 기릉앞숲 : 마을 앞. 굽고 속이 텅 빈 벼드나무, 참나무가 있었음.
- 진등메 : 마을 앞들
- 기타 지명 : 내건너, 여우굴, 옻나무골 등

진촌 경로당, 마을회관



(2) 양진

양진말은 고려시대 말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해서 ‘고려말’, ‘고령말’, ‘고령말’이라 불렸다고 한다. 『1872년 지방지도』를 비롯한 조선시대 지지 자료에서 고려촌(古麗村)이라는 지명이 등장했던 것도 확인된다. 지금은 없어진 옛 마을 우물에는 ‘고려촌’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용천과 한마을이었다가 1945년에 독립했고, 양진학당의 이름을 딴 1958년 양진초등학교 개교 이후 ‘양진말’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니 마을의 명칭이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은 듯 하다.

양진말은 2017년 말 기준 261가구 461명(남자 255명, 여자 206명)이 거주하고 있다. 양진말에는 신천 강씨, 의성 김씨, 해주 오씨 등이 주로 거주했으나 각성받이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예전에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던 소나무밭에는 주은청설아파트와 우림아파트 등이 입주해 마을이 커지면서 별도의 행정리로 독립하게 된다.

양진말에는 과거 우물 두 개가 있었는데, 매년 3월경 두레농악을 하고 우물고사도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우물고사가 40년 전쯤 중단되면서 대다수의 마을주민들의 기억에 희미하게만 남아 있다. 『공도읍 발전사』에는 마을 주민인 박은희씨가 우물고사 때 부르던 가락이 기록되어 있다. “물 주시오, 물 주시오, 용왕님, 물 주시오, 뚫어라, 뚫어라, 샘구녕 뚫어라”라는 구체적인 사설을 구송한 것도 확인된다. 우물이 메워진 자리는 밭이 되었다.

양진말의 경로당이 있는 마을회관은 대지 100평에 건평 50평 규모로, 1977년에 건립되었는데, 마을에서는 일년에 2회 정도 마을주민들끼지 야유회를 간다.

양진말의 옛마을 지명은 다음과 같다.

- 미나울 : 삼성아파트 쪽, 38도로 옆
- 성언답 : 장뚝 밑

(3) 용천

용천(甕泉)은 ‘독샘골’ 혹은 ‘독새골[獨沙谷]’로도 불리는 마을이다. 구전에 따르면 용천은 옛날에 이 일대에 정착한 노부부가 샘터에 독을 묻고 우울물을 먹고 살아서 ‘독샘골’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1800년경 길주목사(吉州牧使)와 관북어사(關北御史)를 지낸 해주 오씨 오영선(吳永善)이 정착해 살면서 한자음인 용천(甕泉)이라 불리게 되었다. 용천이라는 지명이 때로는 옹촌으로 불리기도 한다. 마을의 샘은 200년이 넘는 기간동안 마을의 간이 식수원으로 사용되었다. 『1872년 지방지도』를 비롯한 조선시대 지지 자료에 독사곡(獨沙谷)과 ‘독새골’ 등의 지명이 확인된다.

용천에는 과거 세 개의 우물이 있었고, 해마다 우물고사를 지냈으나 1970년대쯤 중단되어

그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기억은 선명하지 못하다.

옹천은 2017년 말 기준 94가구 194명(남자 108명, 여자 86명)이 살고 있다. 예전에는 마을에 해주 오씨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마을의 중심지 노릇을 하는 경로당은 대지 100평에 30평 규모의 건물로 건립당시 비용을 이해구 전 내무부 장관의 지원금(3000만 원)과 양진, 옹천, 합성촌을 돌며 농악으로 마련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경로당의 명칭은 ‘진사3동 경로당’이었다가 2012년에 ‘옹천 경로당’으로 바뀌었다. 옹천 경로당은 2010년까지 양진, 옹천, 합성촌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마을 공동으로 노인회를 운영했고 여행도 함께 다녔다고 한다.

옹천의 옛마을 지명은 다음과 같다.

- **붓들** : 옹교리의 안성천을 막아 만든 진사보에서 물을 대던 마을 앞의 논.
- **자월** : 원승두 쪽 논 골짜기.
- **퇴미산** : 구 쌍용자동차 출하장 자리로 토성(퇴뫼성)이 있었던 자리.
- **기타 지명** : 고래울 등

(4) 합성촌

합성촌은 전통적인 자연마을이 아니라 역사가 70년을 넘지 않는다. 1946년 장마 때 건천리 부성촌과 용정(벼락수) 등지에 살던 사람들이 물난리를 피해 원승두로 갔다가 그해 다시 이주해 오면서 생긴 마을이다. 1946년(병술년)의 물난리는 매우 심각해서 차돌배기(합성촌)와 매봉재(옹교리)를 제외하고 공도면 대부분이 물에 잠겼다고 한다. 당시 건천리 용정(벼락수)과 부성촌 등의 주민들은 팔머리(승두리)로 피난을 갔다가 그해 다시 이곳으로 이주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마을에서 온 여러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는 의미에서 ‘합성촌(차돌배기)’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당시, 합성촌 일대는 풀밭이어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면서 처음에는 다들 옮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합성촌은 2017년 말 현재 32가구 75명(남자 39명, 여자 36명)이 살고 있다. 합성촌이 전통적인 자연마을이 아니라는 점에서 마을의 형성시점부터 특별한 마을 의례는 없었다. 그러나 약 15년 전쯤부터 정월 대보름날 마을의 우물을 청소하고, 우물과 물탱크에서 고사를 지내는 의례가 생겼다고 한다. 매년 한 번씩 마을 야유회를 가며, 마을회관에 모여 복달음을 하고, 연말에는 마을총회를 열어 한 해를 결산하는 공동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합성촌 마을회관은 2004년경에 40평 규모의 2층 건물을 건립했는데, 이때 4,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합성촌의 옛마을 지명은 다음과 같다.

- 부성뜰 : 남쪽 앞뜰
- 차돌배기 : 광산이 있던 곳. 차돌이 많아 일본에도 수출했음.

(5) 안평1리

진사리의 아파트 봄이 시작되어 공도읍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우림아파트 일대를 칭하는 행정리이다. 우림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은 자유당시절 지역민들이 식재한 왜송 숲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데. 양진말 오창석씨 소유 임야였다. 우림아파트는 처음 임대아파트로 분양되었다가 지금은 모두 일반아파트로 전환되었다. 2017년 말 현재 845가구 2,129명(남자 1,007명, 여자 1,122명)이 거주한다.

사용 검사일	: 1997년 12월 10일
단지 규모	동수 : 9동
세대수	: 940세대
최고층	: 20층
층수	: 13~20층
면적	: 59m ² (2동 279세대, 75m ² (5동 453세대), 86m ² (2동 208세대)
조직	: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주요시설	: 노인정(149m ²), 상가 1동, 어린이집 5개소, 관리 사무소(162m ²)

네이버블로그

<사진으로 보는 안성[안성인포]>

<https://blog.naver.com/fame7777/50069258116>



(6) 안평2·3리

2000년에 주은청설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이다. 이곳 역시 양진말의 해주 오씨 백천당 소종파의 종산이었던 양진말의 왜송 숲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건립한 지역이다. 2,295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독립 행정리가 되었다. 2017년 말 현재 1,974세대 4,370명(남자 2,106명, 여자 2,264명)이 거주한다. 주은청설아파트는 9,000여 권의 책을 소장한 아파트 문고

에 자부심이 강하다. 아파트의 문고는 알뜰장터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사서를 고용해 운영된다. 주은청설아파트 역시 임대아파트로 분양되었다가 일반아파트로 전환되었다.

사용 검사일	: 2000년 1월 31일
단지 규모 동수	: 17동
세대수	: 안평2리(101~108동, 1,175세대), 안평3리(201~209동, 1,120세대), 총 2,295세대
최고층	: 20층
총수	: 14~20층
면적	: 40m ² (7동 1,184세대), 50m ² (4동 551세대), 60m ² (6동 560세대)
조직	: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주요시설	: 노인정(132.23m ² , 안평2리), 노인정(323.96m ² , 안평3리), 송호문고(55.53m ²), 상가 2동, 어린이집 10개소, 관리 사무소(132.23m ²)

네이버블로그

<사진으로 보는 안성[안성인포]>

<https://blog.naver.com/fame7777/50069258116>



(7) 안평4리

2004년 5개 동 550세대 규모의 우림루미아트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이다. 우림루미아트아파트 역시 인근의 아파트와 유사하게 인근의 숲을 개발하여 지은 것으로,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던 애총 숲이었다. 아파트 건축시 조경이 잘 되어 있어서 봄이면 연산홍과 철쭉꽃이 아름답게 피어 난다고 한다. 2017년 말 기준 530세대 1,854명(남자 912명, 여자 942명)이 거주한다.

사용 검사일	: 2004년 7월 12일
단지 규모 동수	: 5동
세대수	: 550세대
최고층	: 20층
총수	: 20층
면적	: 85m ² (536세대)
조직	: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주요시설	: 노인정(97.2m ²), 상가 1동, 어린이집 5개소, 관리 사무소(93.6m ²)

(8) 삼성마을

삼성아파트가 양진말 뒤편의 외지인 소유 왜송 숲을 개발하여 생긴 마을이다. 2017년 말 기준 331세대 978명(남자 504명, 여자 474명)이 거주한다.

사용 검사일	: 2002년 10월 21일
단지 규모 동수	: 5동
세대수	: 348세대
최고층	: 20층
층수	: 5~20층
면적	: 60m ² (2동 180세대), 85m ² (2동 148세대), 129m ² (1동 20세대)
조직	: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주요시설	: 노인정(1층 104.3m ²), 헬스장(3층, 104.3m ²), 관리사무소(2층, 104.3m ²)

(9) 쌍용마을

옹천 뒷산 권홍수씨 소유의 경관이 수려한 100여년 된 조선소나무가 있었던 지역에 쌍용스 윗단홈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이다. 2017년 말 기준 761세대 2,567명(남자 1,290명, 여자 1,277명)이 거주한다.

사용 검사일	: 2005년 5월 19일
단지 규모 동수	: 12동
세대수	: 776세대
최고층	: 20층
층수	: 11~20층
면적	: 73.08m ² (3동 226세대), 84.89m ² (8동 492세대), 122.38m ² (1동 58세대)
조직	: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주요시설	: 노인정(132.3925m ²), 헬스장(748m ²), 상가 1동, 어린이집 2개소, 관리사무소(53.41m ²)

진사리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⁹⁾ 진사리의 주민들의 삶은 최근 20여 년 사이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끼리 합심해서 논농사 두레를 하기도 했을 정도로 전통적인 마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살아왔었다고 한다. 1950년대 이후 중복리, 건천리와 함께 진사리의 농경지 정리가 진행되고 1970년대 초에 마무리 되면서 일대의 하천부지 등으로 봇물 대기가 편해졌고, 이로 인해서 농사짓기가 더 좋아져 많은 농산물을 수확하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다고 한다.

2) 진사리의 급변과 안성나들목, 아파트

진사리는 안성시와 공도읍 가운데에서도 최근 20년간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은 지역이다.

진사리의 모습은 이제 과거 30여 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다. 진사리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IC)과 아파트 신축이다.

안성나들목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진길 37(승두리 산73-4)에 위치한다. 안성나들목은 1969년 9월 29일에 경부고속도로 오산-천안 구간 개통과 함께 들어섰다. 안성나들목이 생기자 진사리는 안성시 권역 서남쪽 외곽지역에서 교통의 요충지로 주목 받게 되었고, 인근의 너른 평지는 다양한 활용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더욱이 1980년대 이후 평택 동부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되자 안성나들목은 안성뿐만 아니라 평택시의 입장에서도 동쪽 개발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돋는 주요 거점이 된다.

경부고속도로는 수도권 등 대도시로 생산 및 서비스 시설이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함과 동시에 부산까지의 이동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산업구조를 중화학 위주로 재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안산나들목이 포함된 공도 구간은 건설 당시 오산에서 대전에 이르는 제2공구에 속했다. 진위천, 안성천, 병천에 네 개의 교량을 건설한 뒤 노반 공사가 진행되었고, 오산-천안 구간이 1969년 9월 개통되면서 안성나들목이 본격적인 역할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성나들목과 만나는 38번 국도는 한반도의 허리를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로, 안성나들목의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38번 국도는 충남 서산시-당진시-아산시를 거쳐 경기도의 평택시-안성시-이천시로 이어진 도로인데, 동쪽으로 충북 음성군-제천시를 거쳐 강원도 영월군-정선군-태백시-동해시로 이어지며 시민들의 거주지나 생활권역 그리고 생산시설 입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더욱이 기차가 다니지 않아 버스가 그 대안이 될 수 밖에 없는 안성지역의 특성상 38번 국도와 안성나들목 진출입로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교통은 안성지역 거주민들의 지역이탈을 촉진했고, 반대로 외부인들의 안성 유입을 돋는 이중적인 결과를 낳았다.

한편, 교통의 편의를 돋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안성나들목의 명성 이면에는 안성으로 진출입하려는 직행버스, 고속버스 수요와 출근길 러시아워를 감당하며 생긴 심각한 교통체증이라는 불필요한 비용지불이 뒤따르게 된다. 최근 안성나들목 진출입로 확장재정비 도로개량공사로 지하차도가 생기기 전에는 정체구간이 10km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고 한다.

안성나들목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은 초기 부지매입과 건설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시세의 80% 수준에서 부지가 수용되고, 이주를 거부하는 주민들을 보상 없이 강제로 철거시키거나, 벼가 자라고 있던 논을 파헤치면서 1년 농사를 허사로 만드는 등의 갈등이 지속된 적이 있다.

더욱이 안성나들목의 건설이 실제 안성시 공도읍에 도움이 되기보다 평택방향 출퇴근 수요를 위한 것 아니냐는 공도읍 주민들의 불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때 안성나들목의 이름을 ‘안성평택나들목(IC)’으로 바꾸자 안성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져 다시 안성나들목으로 변경했다는 일화는

평택과 이웃지역으로 살아가는 접경지 공도읍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안성나들목 안성진출로



안성나들목과 함께 진사리 지역문화에 영향을 준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신축아파트의 증가이다. 신축아파트들은 진사리의 물리적 경관과 인구구조를 달라지게 했고, 안성시의 전반적인 문화를 재편시키는 주요 조건이 되었다.

진사리에 6개 행정리에 아파트 신축은 대규모 택지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소규모 개발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림아파트, 주은청설아파트, 우림루미아파트, 삼성아파트, 쌍용스윗닷홈아파트가 들어선 곳은 원래 야산이거나 소나무밭이 넓게 분포하는 미개발지였다. 이는 지자체나 주택공사가 주도하는 전면개발 방식을 취하기 어려운 민간 개발의 특성이 반영된 결정이었다고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공도읍 진사리에서 이루어진 작은단위 개발은 기존에 전통적인 마을구성소를 심각하게 건드리지 않았다는 장점과 도로정비, 행정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라면 필수적이었을 편의시설의 부족때문에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는 단점을 동시에 갖게 된다.

공도읍 진사리의 인구변화는 이러한 소규모 아파트의 성장과 동반된 현상이다. 인구변화는 그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자 인구변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환경의 변화를 파악하면 지역사회 발전방향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진사리의 인구 반영비가 높은 공도읍의 인구 추이는 안성시 전체와의 비교를 통해 안성지역 현대 문화상을 이해하기 좋은 자료이다. 1961년~2019년 안성시와 공도읍의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안성시 전반의 인구 누수를 공도읍이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90년대 중반까지는 공도읍 인구가 안성시보다 적었고, 양쪽 지역모두 비슷하게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산업화시대 이촌향도라는 사회적 현상이 반영된 때문이거나, 안성나들목이라는 교통환경 변화가 이러한 현상을 촉진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공도면/읍의 인구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9년 7월에는 6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이는 안성시 전체 인구의 31.22%를 차지하는 높은 수치이다. 특히, 1997년 우림아파트 1,000명, 1999년 주은청설아파트 3,000명 등 신규아파트들의 입주와 인구증가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2019년 57,587명이 되면서 1961년 말 기준 5배 넘는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61년~2019년도 안성시와 공도읍의 인구변화 추이¹⁰⁾

(단위 명)

기준년도(연말)	안성시 인구수	공도면/읍 인구수 (비율)
1962년도(1961)	130,185	11,249 (0.86%)
1975년도(1974)	132,213	11,787 (0.89%)
1985년도(1984)	125,231	11,633 (9.29%)
1995년도(1994)	122,448	11,426 (9.33%)
1998년도(1997)	128,874	12,600 (9.78%)
2000년도(1999)	132,832(전입 21,023 전출 19,683)	15,779 (11.88%)
2005년도(2004)	155,849	36,201 (23.23%)
2010년도(2009)	177,007	47,989 (27.11%)
2015년도(2014)	190,952	58,964 (30.88%)
2018년도(2017)	193,442	58,546 (30.27%)
2019년 7월	184,464	57,587 (31.22%)

지난 20여 년간 변화된 진사리의 모습에서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젊은 세대의 증가이다. 제시된 표에 따르면 기존의 토박이 주민들이 거주하던 향촌, 진촌과 달리 안평1리, 안평2리, 안평3리, 안평4리, 쌍용, 삼성 등의 아파트 집중지역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 확인된다.

행정리별 주요연령별 인구(외국인 제외)¹¹⁾

2018. 12. 31 현재

(단위 : 세대, 명)

행정리별	성별 인구			연령별 인구수							
	소계	남	여	소계	0-14세	15-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 이상	
안성시	183,579	94,095	89,484	183,579	24,590	31,587	24,849	30,269	42,965	29,319	
공도읍	57,321	28,699	28,622	57,321	10,828	9,843	9,263	11,586	10,177	5,624	
향정	63	31	32	63	2	5	5	7	22	22	
진촌	430	218	212	430	38	78	52	65	118	79	
양진	405	233	172	405	47	114	72	67	61	44	
안평1리	1,915	901	1,014	1,915	367	326	321	415	314	172	
안평2리	2,069	958	1,111	2,069	320	373	388	400	392	196	
안평3리	1,949	956	993	1,949	307	325	371	403	365	178	
안평4리	1,807	889	918	1,807	442	349	226	439	268	83	
옹천	188	107	81	188	14	24	16	22	59	53	
합성촌	71	36	35	71	7	4	7	7	30	16	
삼성	931	486	445	931	209	148	154	224	130	66	
쌍용	2,449	1,222	1,227	2,449	517	541	272	620	385	114	
진사리소계	12,277	6,037	6,240	12,277	2,270	2,287	1,884	2,669	2,144	1,023	

또한 이러한 노년층 거주자 수의 비중이 낮은 것과 반비례해 중년 이하 세대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재적 상황을 반영하듯이 진사리에는 어린이집 총 30여 곳,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공공도서관 1곳이 운영 중이다. 진사리에 젊은 세대와 유아, 학령인구가 지금보다 증가한다면 공공·교육시설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진사리의 어린이집¹²⁾

어린이집 시설	주소
하랑지역아동센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17
바나나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사1길 51
예그린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53-3
예자람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건중길 86-33
성모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건중길 86-18
사과나무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건중길 101
썸머힐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15
해피맘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32
그림나라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83
키즈스쿨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건중길 15-10
방글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36-1
아츄랑두두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27
생각키우기 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27 107동 108호(안성공도우림아파트)
아이랑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27 (안성공도우림아파트)
텔레토비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27 106동 101호(안성공도우림아파트)
민들레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27 우림아파트 관리동
아기천사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32 202동 103호(주은청설아파트)
아이사랑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32 203동 105호(주은청설아파트)
피가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32 201동 101호(주은청설아파트)
예쁜꿈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32 (주은청설아파트)
꿈나래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건중길 15-13 쌍용스윗닷홈아파트 관리동1층
이솝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644 105동102호 (쌍용스윗닷홈아파트)
비버스쿨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건중리 14 101동 102호 (삼성아파트)
해사랑숲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32
클나무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36-1 108동 101호
진사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진사2길 60

어린이집 시설 증가는 곧 상위 교육시설의 확충으로 연결된다. 이로 인하여 진사리의 양진초등학교와 양진중학교는 물론 공도읍에 여러 학교가 확장되거나 확충되는 과정을 이미 겪어 왔다.

공도읍 소재 : 교육기관 통계(2019.09. 현재)¹³⁾

교육기관	학교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초등학교	양진초등학교	39(유치원 8)	1,020	67
	공도초등학교	51	1,322	67
	문기초등학교	22(유치원 1)	536	32
	용머리초등학교	26(유치원 1)	638	39
	만정초등학교	47(유치원 3)	1,264	57
	공도읍 총계	138	4,780	205
중학교	공도중학교	27	846	48
	만정중학교	25	824	48
	양진중학교	19	539	33
고등학교	경기창조고등학교	34	933	77
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	10(학과수)	998	33

공도읍에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1곳, 대학교 1곳이 있다. 이 중 진사리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양진초등학교와 양진중학교이다. 이 두 학교는 진사리에 새로운 세대가 유입되면서 2000년대 이후에 규모가 확장되거나 신설되었다.

양진초등학교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 1길 14, 진사리의 아파트 뒷 사이에 위치해 있다. 양진초등학교는 1950년 5월 8일에 공도초등학교 양진분교로 설립되어, 1960년 3월 25일에 양진국민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양진초등학교는 개교 이래로 큰 변화없이 유지되다가, 진사리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면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초등학교 규모를 증설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6년 2월에 양진관(제2캠퍼스, 36학급 규모)을 준공하였고, 2008년도에도 병설유치원 2학급 증설되어 총 4학급으로 확장되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학교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 2017년 제57회 208명, 2018년 제58회 168명, 2019년 제59회 195명의 졸업생이 배출할 정도로 큰 규모의 학교로 성장하였다.

- ▶ 양진초등학교
조회 모습(1970년대)
- ▶▶ 양진초등학교
식목 행사(1970년대)
(『안성시지』, 729쪽)



- ▶ 진사리 양진초등학교 운동장 정비 모습(연대 미상, 자치안 성신문 제공)
(『안성시지』, 729쪽)
- ▶▶ 양진초등학교 17회 졸업사진
(1979년, 진사리 응천 한순애 제공)
(『안성시지』, 730쪽)



- ▶ 양진초등학교 보이스카우트 행사 사진 (1979년, 진사리 응천 한순애 제공)
(『안성시지』, 730쪽)



양진초등학교의 증설과 함께 새로운 교육시설로 진사리에 등장한 것이 양진중학교이다. 양진중학교는 공도읍에 있는 공립중학교로, 안성시 공도읍 진사 1길 27에 위치해 있으며, 2008년 3월 1일에 개교했다. 진사리 인근에는 공도중학교만 있었으나, 진사리에 아파트가 다수 들어서고 젊은 세대가 유입되면서 교육기관의 추가 신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사리의 양진초등학교가 확장되면서 졸업생들이 진학할 중학교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에 양진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공사가 착공되었다.

양진초등학교
(네이버 블로그<민트나무작업실>
<https://blog.naver.com/kshw1956/166325493>)



양진중학교 홈페이지
<http://www.yangjin-m.ms.kr>



양진중학교 홈페이지
<http://www.yangjin-m.ms.kr>



양진중학교는 2008년에 남녀공학으로 개교한 학교로서 개교 당시 1학년 4학급으로 출발했다. 입학생 기준(2008년 제1회 149명, 2014년 제7회 247명, 2019년 제12회 184명) 연도별 학생수 증가와 유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3월 기준 일반학급 17, 특수 2 학급을 포함 총 19개 학급, 539명이 지상 5층 건물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진사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anseong.go.kr/library>



젊은세대와 학생들의 유입에 따라 새로운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중요 시설이 진사도서관¹⁴⁾이다. 진사도서관은 안성시립 도서관으로서 안성시 관내 공공도서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대단위 도시개발구역에 속한 아파트들은 부설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민간주도로 신축된 진사리 아파트들은 별도의 도서관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과 주변에 인구증가를 고려한 시설확충으로 이해된다.

진사도서관은 어린이 자료실, 종합 자료실, 열람실 등의 주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진사도서관의 주요시설로 지상1층에 어린이자료실(유아자료실, 이야기방, 수유실), 종합자료실, 카페(별관)이 있으며, 지상 2층에 사무실, 세미나 실, 문화강좌실 1, 문화강좌실 2, 열람실, 체험동화마을이 있고, 지하 1층에 보존서고가 있다. 도서관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휴관한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49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과 장애인 전용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다.

위치	안성시 공도읍 진사2길 70
개관	2014년 3월
면적	1,488.5m ² (450.27평)
자료현황	62,920권(2018.12.31. 기준)
관외대출	162,329권
총이용자수	292,049
총대출책수	156,481
일이용자수	976
일일대출책수	523



진사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진사도서관 홈페이지)



진사도서관 종합자료실 (진사도서관 홈페이지)

3. 평택과 공도읍의 공존과 대립

1) 평택과 진사리의 생활권 공유

안성시 공도읍은 안성의 서남부지역으로 오랫동안 평택시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유지되어온 지역이다. 특히, 공도읍 주민들의 일반 생활권이 안성시 보다 평택시와 관련성이 커서 공도읍이 지닌 경계지역적 특징으로 드러난다.

안성시 서남부지역 거주민들은 평택시를 주된 생활권으로 살아왔다. 그들 중 원곡면 용이리, 죽백리, 월곡리, 청룡리 등은 평택시로 편입되었고, 공도면 소사리, 진사리, 중복리, 건천리, 만정리 사람들은 안성시 공도읍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

진사리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권이 예전부터 평택 중심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장, 전기,

진사리의 마을주민들
- 진촌 노인정에서



전화번호 등 주요 기반 생활을 평택과 공유했으며, 평택역이 들어서면서 평택 생활권화가 정착되었다고 여긴다. 진사리 사람들은 공도읍, 안성장으로 접근이 편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안성권 역보다 평택지역에 속하는 기반 시설을 이용했다고 말한다.

공도읍과 진사리의 주민들이 평택을 생활권으로 살아온 흔적은 평택에 위치한 통복시장에서 엿볼 수 있다. 통복시장은 평택역 옆에 구 평택시장이 속해 있던 원평동지역이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폐허가 되면서 통복동 일대로 대거 이전 하면서 생겨났다.¹⁵⁾ 통복시장은 5일과 10일에 열리는 5일장이다. 1960년대부터 평택역 앞 국도변을 따라 형성된 평택의 상업 중심지이며 물류 유통에 중요한 지역으로 성장해 간다.¹⁶⁾ 현재 평택경찰서 앞 식당가와 평택 시외버스터미널 상가까지 연결되어 있다.

진사리 주민들은 마을에서 5km 가량 떨어진 평택 통복시장을 걸어서 이용했다. 통복시장은 상설장으로 평소에도 어지간한 물건들을 사고 팔 수 있으며, 5일장이 들어서는 날에는 더 많은 물건들을 사고 팔 수 있었다고 한다. 진사리 주민들도 통복시장을 자주 이용했으며, 채소와 콩 등의 농작물을 중매인에게 팔거나 일반 생필품을 사러갔다. 예전에 통복시장이 한창 컸을 때에는 싸전이 있는 통복시장 외곽에서 온 소리꾼이나 약장수들이 여러 가지 공연도 해서 볼거리가 아주 많았다고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배뱅이굿>을 하는 이은관씨가 자주와서 공연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억한다.

진사리 주민들이 통복시장과 함께 자주 이용했던 시장이 철뚝너며시장이다. 철뚝너며시장은 오성뜰 인근의 넓은 평야지대에 형성된 임시 시장으로 통복시장처럼 5일장이었지만 전통장은 아니었다고 주민들은 기억한다. 1950년대 까지만 해도 상당한 규모를 유지했지만 임시적으로 형성된 시장이었기 때문인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통복시장이 커지면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평택 통복시장의 현재의 모습네이버 블로그 <야무진 들레씨>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usrhkdb&logNo=221698981717>



통복시장 모바일 홈페이지
http://tongbokmarket.allthru.kr/images/main/sd_1.jpg

결론적으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관할지역인 안성시내로 갈 수밖에 없지만, 생활에 편리는 평택을 통해 총족시켰던 진사리 주민들의 일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안성의 외곽지역인 진

사리가 자체적으로 부족한 생활문제를 평택과 공도읍 출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었던 것 같다.

평택 생활권으로서 진사리는 공도읍의 변화와 평택의 급성장을 직접 눈으로 지켜봤던 공동체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평택보다 안성이 경제적 우위를 점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안성농고가 개교하자 평택사람들이 안성쪽으로 배우기 위해 다 넘어왔다는 자긍심과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공도읍에 전화나 전기를 모두 평택에 의존했었다는 안성지역 권역 밖 소외지역로서의 기억이다.

물론 지금은 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를 진사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진사리 주민들은 생활의 편의를 위해 주변지역을 찾아다녀야 한다. 평택은 물론 인근 천안시와도 교류하고 있었다. 특히, 농기계 부품을 구입하거나 필요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주로 천안으로도 간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평택 동부지역의 개발과 이와 반대로 안성시 공도읍 지역의 환경변화와 개발지체가 비교되기 시작하면서 평택시와 공도읍은 암암리에 갈등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2) 행정구역 개편 이후 갈등과 대립

진사리의 평택 생활권 공유는 1983년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에피소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크게 탈이 있거나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두 지역은 시장, 전기, 전화 등 생활편의 인프라를 서로 공유함으로서 서로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지내왔다. 당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것을 두고 안성시 내부에는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렸다고 한다. 행정구역 개편 당시를 기억하는 안성문화원 사무국장에 따르면 안성시와 평택시의 경계면에 살던 사람들은 평택으로 이사를 했고, 안성의 구 읍내지역 사람들은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표현했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안성의 전통적 가치기준에 따른 당시 반대의견과 미래에 갈등적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다.

현재 안성시의 총 면적은 553.4km²이다. 『안성시 통계연보 1985년도』 자료에 따르면, 안성시 행정구역의 면적이 1979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안성시 전체 면적은 1979년 553.14km², 1980년 569.42km²로 약 2.94%에 해당하는 16.28km²이 증가한다. 이 수치는 대략 1981년 말까지 유지되다가, 다시 1982년도에 552.76km²로 줄어든다. 이는 전년인 1981년의 569.86km²에 비해서 17.13km², 약 3.0%에 달하는 면적이 다시 줄어든 것이다. 즉 원곡면과 공도읍의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된 수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치의 변화는 80년대 초반의 행정구역 개편이 복잡하게 진행되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4.12.31 현재			단위 : ㎢, 개소					
읍면별 Ub & Myeon	항 목 Area	면 계 구성비 (%)	구			시		
			시 City	구	동 Dong	행 정 Adm	법 정 Legal	통 Tong
1979	553.14	—	—	—	—	—	—	—
1980	569.42	—	—	—	—	—	—	—
1981	569.86	—	—	—	—	—	—	—
1982	552.69	—	—	—	—	—	—	—
1983	552.93	—	—	—	—	—	—	—
1984	552.76	100	—	—	—	—	—	—
안성읍 Ansōng	14.2	2.6	—	—	—	—	—	—
보개면 Pogae	36.91	6.7	—	—	—	—	—	—
금왕면 Kumgwang	72.73	13.1	—	—	—	—	—	—
서운면 Sōun	40.10	7.3	—	—	—	—	—	—
미양면 Miyang	34.18	6.2	—	—	—	—	—	—
대덕면 Taedok	32.78	5.9	—	—	—	—	—	—
양성면 Yangsōng	53.37	9.6	—	—	—	—	—	—
공도면 Kongdo	31.88	5.8	—	—	—	—	—	—

1979년 이후 1985년까지 안성시 행정구역의 면적 및 구성비¹⁷⁾

행정구역 면적의 변화를 공도읍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는 면적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다가 1979년에 비해 1984년도에 공도읍의 9.46%에 해당하는 3.33㎢가 축소된다. 안성시 전체 면적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과 비교해 공도읍의 축소는 소사리와 용두리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현상이었음을 추정케 한다.

공도면/읍 행정구역 면적 변화¹⁸⁾

기준년도(연말)	1969년도	1974년도	1979년도	1984년도
면적	35.99㎢	35.99㎢	35.21㎢	31.88㎢

이와같이 공도읍의 면적이 축소된 변화과정은 실제 안성시(군)의 관내행정구역을 표기한 지도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74년도에 발간된 『안성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당시 안성군의 관내행정구역을 표기한 지도에 따르면, 안성시의 관내 서쪽 경계 지역에 공도읍의 소사리(素沙里)와 용두리(龍頭里)를 포함해서, 원곡면(元谷面)에 용이리(龍耳里)와 죽백리(竹柏里)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75년 안성군 관내지도 中 진사리 일대
(안성시 통계연보 1975년도.pdf)



1985년 안성군 관내지도 (안성시 통계연보 1985년도.pdf)

평택지역과의 행정구역 개편 이후 안성시의 서쪽 경계가 공도읍의 소사리(素沙里)와 용두리(龍頭里)를 포함해서, 원곡면(元谷面)에 용이리(龍耳里)와 죽백리(竹柏里)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75년과 1985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안성군 관내지도 지도를 비교하면 당초 안성관할이었던 공도읍의 소사리(素沙里)와 용두리(龍頭里)를 포함해서, 원곡면(元谷面)에 용이리(龍耳里)와 죽백리(竹栢里) 등이 평택관할로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이 확인된다. 이를 지역은 모두 진사리의 북쪽 지역들이다.

공도면/읍의 행정구역 변화는 1983년 평택과 안성군의 선거구 조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과 키밀

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이전까지는 물밑에 가라 앉아있었던 평택과 안성의 지역성 구분에 대해 같은 안성지역 내부에 인식차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 이후 평택과 안성의 발전상이 전체적으로 대비되기 시작하자, 접경지역 사람들은 같은 공도읍이었던 이웃마을들이 개발을 바라보며 정치적인 사안일 뿐이라는 체념과 차라리 평택으로 편입된다면 생활이 편리해질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기존 안성시 중심부의 토박이들은 관할지 영역상실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된다. 다음의 두 자료는 안성과 평택 간에 불만과 갈등 관계가 형성된 것이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갈등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공조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몇가지 자료는 평택시와 안성 또는 공도읍 일대가 어떻게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평택시와의 관계>¹⁹⁾

가까운듯 먼 사이다.

두 지역간의 악연은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평택군과 안성군은 경기 제 10선거구로 동일한 선거구로 묶여 두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있었는데, 당시 의원이었던 이자현(민주정의당)과 유치송(민주한국당)의원 모두 평택 출신이었다. 두 국회의원 모두 나름 경력 있는 국회의원들이었고, 동쪽으로 치우쳐져 발전해 가는 평택군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안성 지역 주민들에겐 사전 통지와 주민 투표없이 일방적 으로 공도면 소사리와 원곡면 용이리, 죽백리, 청용리, 월곡리의 행정구역 15.8㎢(약 500만 평)을 평택으로 강제 편입시켰다.

<안성IC 명칭교체 건>

안성IC 일대는 과거 모두 안성의 행정구역이었으나 현재에는 바로 건너편이 평택으로 넘어가, 38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지역명을 내걸은 표지판을 대문짝만하게 걸어 미묘한 신경 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도가 평택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고, 평택 생활권인 것과 더불어 외지인의 유입이 많아 현재는 이러한 감정들이 많이 수그리들었다.

<진사리>

평택 생활권인 공도읍 중에서도 더욱 뚜렷한 평택 생활권 지역으로, 여기는 공도읍보다 평택 시가지가 더 가까울 정도라 사실상 평택으로 취급하지 안성으로 쳐주지 않는다. 심지어 진사리 성당은 아예 평택소속이고 육교 하나 건너면 평택이고 버스도 38번 국도를 끼고 있는 덕에 용이동이나 월곡동, 죽백동을 향하는 평택 버스가 대부분 정차한다. 특히 평택 버스 3사인 협진여객, 서울고속, 평택여객의 기점이 용이동차고지, 월곡동차고지, 죽백동차고지라 대부분의 버스는 이 곳을 경유한다. 오히려 안성 버스는 안성 버스 70, 안성 버스 370, 안성 버스 380번만 선다.

원래 이 곳은 90년대 중반까진 솔밭이였으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형성했고, 그러면서 차례차례 상가나 도서관,

건물들이 차츰차츰 지어지고, 길건너 용이동도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공도읍내와는 별개로 발전해가는 중이다.

이 곳에는 경기 남부, 충남 북부를 통틀어 가장 큰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안성’이 2020년에 개장할 예정이다. 안 그래도 38번 국도는 안성IC로 인해 출퇴근길 상습 정체구간인데, 스타필드가 오픈한다면 이 근처에 사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겐 아침 저녁으로 헬게이트가 열릴 예정이다.

출처 : 나무위키 <https://namu.wiki> 나무위키에 정리된 내용 중 평택과 안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함

“안성-평택, 시 경계 주민위해 양측 공공기관 문호개방”

안성시와 평택시가 인접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공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안성시에 따르면 공도읍은 행정구역상 안성시로 구분되는 도심형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평택시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 생활권이 발전이 빠른 평택으로 흡수되고 있다.

이에 공도시민들은 각종 쇼핑이나 문화생활들을 여건이 좋은 평택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공도는 평택시민들에게도 가까운 곳이다.

지난 2010년 6월, 공도도서관 개관에 따라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평택시민들이 다수 방문해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도서관 내에서의 자료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외 대출을 필요로 하게 됐다.

안성시는 평택시민들이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립도서관 운영조례를 개정했다. 2010년 10월부터 경기도내 거주자들이 공도도서관에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2011년 10월 현재 평택시민 대출회원이 12.67%를 차지한다.

또한 공도와 원곡에 사는 안성시민들도 평택시로부터 주어지는 혜택을 보고 있다.

공도와 원곡 등에도 가까운 보건지소가 있지만, 보건증 발급, 예방접종, 건강진단이 필요할 때 평택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한 해 총 4만 건이었던 평택보건소 예방접종 가운데 안성시민이 5~7% 정도를 차지할 만큼, 평택시 행정의 혜택을 보고 있으며 보건증이나 건강진단의 경우에도 평택시 보건소의 1달 평균 이용 건수인 1천200건 가운데 8~9% 정도를 안성시민이 차지한다.

이에 대해 안성시 보건소 관계자는 “독감 등 완전 무료 예방 주사의 경우,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관계적으로 평택과 안성은 양쪽 시민들의 이용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안성과 평택이 이웃 도시인 줄은 알았지만, 상호간에 이렇게

밀접하게 지내고 있는 줄 새삼 놀랐다”며 “이웃사촌인 두 도시가 앞으로도 상호 원원하며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행정구역보다는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우선”이라며 “안성시와 평택시는 지역구분 없이 가급적 행정서비스를 공유하며 계속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와 평택시는 자치센터 문화강좌에도 각 시민들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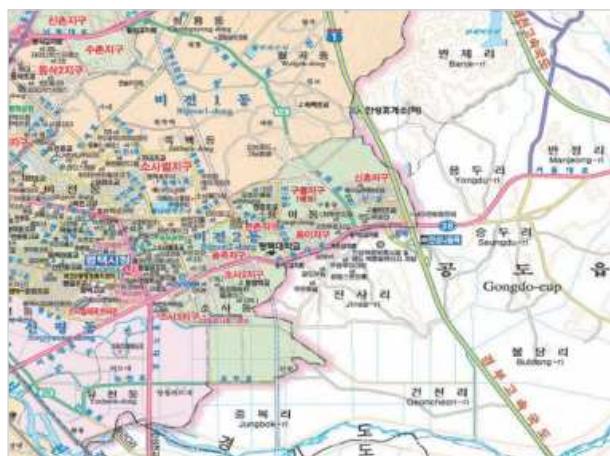
출처 : 2011.11.9. 자『경기신문』, 전자신문. <http://www.kgnews.co.kr>

진사리는 공도읍의 대표적인 경계면 지점으로 전반적으로 안성IC, 스타필드 등 다중이용 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용될 때 빛어질 경계면의 불만과 갈등은 현재로선 물밀에 가라앉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두 지역 공무조직 차원의 성과는 어느 정도 가시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성시 동쪽과 서쪽의 개발 불균형과 환경적 차이가 명백한 상황에서 안성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신생도시로 급성장한 진사리 포함 공도읍에 대해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것이 안성시 전체 공동체성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안성 진사리와 평택 용이동의
경계가 되는 주은교차로



평택시 행정구역 중
공도읍 인접지역



현재 공도읍에 속해있는 진사리 사람들의 개발지체에 대한 위화감의 실체는 인접한 평택비전동과 용이동 지역의 현황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평택시의 비전1동에는 비전동, 동삭동, 죽백동, 청룡동, 월곡동 등 총 5개 법정동이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죽백동(竹柏洞), 청룡동(靑龍洞), 월곡동(月谷洞) 등은 안성시의 원곡면에 포함되었던 지역이다.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평택군 평택읍(平澤邑)에 편입된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평택시청이 들어서 있는 비전2동은 과거 공도읍 소사동지역으로 택지개발과 인근지역 산업현장 종사자들의 입주로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진 곳이다.

연도	평택시 전체		비전 2동	
	세대수	인구수(남.여)	세대수	인구수(남.여)
2019년 8월말	221,590	505,817	28,481	74,675
2017년 12월말	204,252	481,530	22,255	60,063
2015년 12월말	189,122	460,532	19,976	55,671
2014년 12월말	181,801	449,555	17,567	49,599
2010년 12월말	165,745	419,457	15,314	45,803
2009년 12월말	158,628	410,042	13,998	42,095
2008년 12월말	157,018	406,721	12,985	38,739
2007년 12월말	148,995	396,765	12,256	36,995
2004년 12월말	133,244	370,653	12,747	39,237
2001년 12월말	120,076	361,992	12,009	39,456
1999년 12월말	115,822	352,181	11,715	39,405
1995년 12월말	102,182	337,437		
1994년 12월말	97,874	313,148		
1993년 12월말	92,598	299,633		

평택시 주민등록 인구통계 비전2동 중심으로²⁰⁾

진사리 인접지역인 비전2동 역시 진사리의 경우와 같이 젊은 이주민들의 대거 유입으로 교육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비전2동²¹⁾에만 초등학교 5곳(가내초·덕동초·소사별초·용죽초·현촌초), 중학교 5곳(평택여중·신한중·한광중·한광여중·), 고등학교 4곳(동일공고·신한고·한광고·한광여고), 대학교 1곳(평택대)이 있다. 비전1동에는 1913년 문을 연 성동초등학교를 비롯해서 1954년 평택여중, 1960년에서 1970년대에 지속적으로 학교들이 새로 생겨왔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의 주택 조성 시 초·중학교 건립이 뒤따라야 한다. 2000년대 정책기조에 따라 초·중학교 18개가 개설되었다.

특히 용이동은 경부고속도로 안성 톨게이트 앞에 용이지구 개발로 이주민들이 급증하며 성장한 도시이다. 진사리가 바로 마주하다보니 초기 개발 당시 심한 격차로 갈등이 첨예했지만, 현재는 진사리도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보니 갈등 구도가 많이 누그러든 상황이라고 한다. 용이동의 지속적인 성장세는 2019년 9월 이후 용이동이 비전2동에서 분동되는 상황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옛 양성시절의 기억을 가진 안성시 관할에서 평택 관할로 이속된 비전1동과 비전 2동, 용이동의 전래성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비전1동, 비전2동, 용이동의 마을유래와 지명유래

□ <비전1동> 중

• 죽백동(竹柏洞)

죽백동은 조선시대에 양성현(陽城縣) 반곡면(盤谷面)에 속했던 마을이다.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때 원당면(元堂面)과 반곡면(盤谷面)이 통합되어 안성군 원곡면에 속하였다.

1983년 2월 15일에 행정 구역 조정에 따라 평택군 평택읍에 편입되어 죽백1리(방아다리)·죽백2리(內村)·죽백3리(원죽백)로 되었고 1986년 1월 1일 평택시로 승격되면서 비전1동의 15통(방아다리)·16통(내촌)·17통(원죽백)·18통(죽백)이 되었다.

• 청룡동(青龍洞)

조선시대에 양성현(陽城縣) 반곡면(盤谷面)에 속했던 마을이다.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때 원당면(元堂面)과 반곡면(盤谷面)이 통합되어 안성군 원곡면에 편입되었다. 1983년 2월 15일 행정 구역 조정으로 평택읍에 편입되었다. 1986년 1월 1일 평택시로 승격되면서 비전1동 19통(청용)이 되었다.

• 월곡동(月谷洞)

조선시대에 양성현(陽城縣) 반곡면(盤谷面)에 속한 지역이다.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때 원당면(元堂面)과 반곡면(盤谷面)이 통합되어 안성군 원곡면(元谷面)이 되었다.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평택군 평택읍(平澤邑)에 편입되었다. 1986년 1월 1일 평택읍이 평택시로 승격되면서 비전1동 20통(舊 月球里) 21통(月谷)이 되었다.

□ <비전2동 일반현황> 중

◎ 비전2동 유래

비전2동은 비전동 소사동 용이동 등 3개 법정동의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 관할구역 명칭으로써 문화촌, 상신작로, 하신작로, 어인남, 소사, 소죽골, 솔밭말, 창말, 소사원, 소사장, 용이마을, 구룡마을, 현촌, 신흥동 등 13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비전2동

비전동 일부지역과 소사동은 조선조에 양성현 영통면(令通面)이었고, 용이동은 양성현 구룡면(九龍面) 소속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양성현이 없어지면서 안성군 원곡면으로 편입된 후 1983년 2월 15일 평택군 평택읍 관할이 되었다. 이후 1986년 1월 1일 평택시로 승격되면서 비전2동의 관할구역이 되었다.

• 소사(素砂)마을

평평하고 넓은 들이어서 소사라고 했으며 소사평야도 소사 앞 들판에서 시작하여 포승면까지 그 길이 가 백리 길이 되어 이 마을의 이름을 소사평야의 소사를 따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소사원(素砂院) 또는 원소사(院素砂)

예전에는 삼남대로(三南大路)변 소사에 있는 역원(驛院)으로 숙식시설과 교통의 요지를 상징한다. 소사원 앞쪽으로는 조선 효종때 영의정 김육이 삼남지방(충청·전라·경상지방)에 대동법을 실시한 것을 기념해 "대동법시행기념비"를 세운 곳이기도 하다. 소사장(素砂場)은 소사원 동쪽에 섰던 5일 10일장으로 예전에는 대장간 마굿간 및 갖가지 생활필수품 곡물 등이 거래되었다고 전한다. 이와 함께 역사적으로 유명한 소사별싸움(素砂會戰)이 기록되고 있는데 조선 선조(宣祖) 30년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사가 소사별(素砂坪)에서 왜장 구로타의 군사를 무찌른 싸움으로써 평양성싸움 행주대첩과 함께 육전 3대첩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 용이(龍耳)마을

백운산(白雲山)으로부터 아홉 개의 산맥이 동·서쪽으로 뻗어 내려와 동쪽은 용의 머리와 같다하여 용두(龍頭)마을로 불려졌으며(현재 안성시 소재) 서쪽에 있는 마을은 용의 귀 언저리에 해당된다 하여 용이(龍耳)마을이라고 풍수지리설에 따라 지은 이름이다.

• 구룡동(九龍洞)

백운산으로부터 동남향으로 뻗어 내려오는 아홉 골짜기로 굽이굽이 돌며 마치 아홉 마리 용이 용트림을 하고 있는 형국으로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하여 구룡동 또는 구룡골이라한다. 조선시대에는 곡물 대여기관이었던 사창육고(社倉六庫)가 설치되어 있었다. 현촌(玄村)마을은 예전에 현씨(玄氏)가 많이 살고 있어 현촌마을이 되었고, 신흥동(新興洞)은 1975년에 생긴 마을로서 새로 부흥하는 마을이라고 신흥동이라 했다.

□ <용이동> 중

• 용이동 유래

반제리의 백운산으로부터 아홉 개의 산맥이 동·서쪽으로 뻗어 내려오는데 동쪽은 용의 머리와 같다하여 용두(龍頭)마을로 불려졌으며 오늘날의 용두리가 되었으며, 서쪽에 있는 마을은 용의 귀 언저리와 같다 고 하여 용이(龍耳)마을이라고 풍수지리설에 따라 지은 이름이 오늘날의 용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시대 양성현 구룡면(九龍面)에 속해있었으나,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강제 통폐합으로 인해 양성현이 폐지되고 안성군 원곡면 용이리로 편입되었다. 이후 1983년 2월 15일 평택군 평택읍으로 편입되었으며 1986년 1월 1일 평택시 승격과 함께 용이동으로 바뀌었고 비전2동의 관할구역이 되었다. 2019년 9월 30일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행정수요의 증가로 용죽지구를 제외한 법정동 용이동을 분동하여 현재의 용이동 구역이 되었다.

출처 : 평택시> 동별 일반현황

<https://www.pyeongtaek.go.kr>

4.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혼재

1) 전형적인 농촌마을에서 도시형마을로 변화

공도 지역의 안성천과 한천 주변에는 경사도 5도 미만의 충적지가 넓게 발달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는 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공도읍 농경지 비중은 총 면적 대비 57.7%로 안성시 전체 대비 40%에 육박한다.

현재 공도 지역에는 안성천을 중심으로 발달한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으나, 아산만방조제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안성천을 따라 배가 지나가고, 곳곳에 웅덩이가 파여 있고, 갈대밭 천지에 물이 짜서 농사에 적합한 땅은 아니었다고 한다. 이 일대가 비옥한 농경지가 된 시점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 까지 마을주민들이 손수 진행했던 안성천 인근의 황무지를 개간하던 때부터 출발한다. 그러다가 1977년 아산만방조제가 생기면서 하천변에 둑이 정비되어 옥토가 만들어졌다. 때문에 1970년대 초반까지는 밭농사 중심이었다가 이후 논농사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²²⁾

진사리의 자연 마을들은 농사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전통적인 농촌마을들이 있었고, 농사와 관련된 전래적 습속들이 곳곳에 남아있다.²³⁾ 옹천의 ‘항아리 우물’ 외에도 진말에 두 개, 양진에 두 개, 합성촌에 세 개의 우물이 있었는데 모두 물이 좋았다. 그 중, 옹천과 진말에서는 정월 보름 이전에 생기복덕을 가려 날을 잡고 우물고사를 지냈다. 동네에 금줄을 매고 해질 무렵에 통돼지나 돼지머리를 제물로 삼아서 제를 지냈다. 진말의 경우 다른 마을처럼 공동제의는 없었지만 우물고사는 1960년대 초반 까지 지냈었다고 한다. 옹천에서는 우물에 불경스러운 말을 한 사람이 해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합성촌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정월 대보름날 마을우물과 물탱크를 청소하고 고사를 지낸다.²⁴⁾

우물은 곧 사람들의 먹을 것의 기본에 해당한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음식을 만드는 기본이며, 그로인해 건강과 생명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 행사에 우물고사는 매우 중요한 의례로서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마을의 전통적인 면모는 다양한 세시풍속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진사리 일대에서는 정월대보름에 건천과 진촌에서는 개천을 사이에 두고 상대방 천변에 불을 지르는 쥐불놀이와 쥐불싸움을 했다고 한다. 지금은 쥐불놀이나 쥐불싸움은 하지 않는다. 또한 진말에서는 진말의 아랫모퉁이와 윗모퉁이 간에 줄다리기를 했지만 6·25전쟁 전후에 없어졌다고 한다. 또한 진말에서는 정월대보름에 윷놀이를 했고, 단오에는 그네뛰기를 마을 앞 ‘기룡앞숲’ 혹은 ‘왜가리숲’의 아주 오래된 속이 빈 버드나무에 그네를 매고 뛰었다고 한다. 또한 마을에 두레째가 있어서 주민들이 서로 합심을 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진사리에서 만난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진사리 주민들은 농지정리가 진행될 때까지는 전통적인 방식의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진사리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인 기계화 농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심기나 김매기를 대개 1~6반까지 반별로 나누어서 했다고 한다. 모심기를 두레로 할 때는 한 집에서 1~2명씩 나와서 일을 돋는다. 모찌기는 대개 남

자들이 중심이며, 모심기는 여자들 중심으로 일을 했다. 논김매기는 애벌, 두벌은 호미로 진행하며, 세벌은 손으로만 훠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모심기, 김매기를 할 때 다 소리가 있었는데, 논매기를 할 때 <방아타령>과 같은 노래가 있었다고 한다.²⁵⁾

진사리에 터전을 잡고 살아오면서 지금의 마을을 지켜온 진사리 주민들의 전통적인 삶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도읍 발전사』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초례를 마친 신랑신부의 모습
(1966년, 진사리 응천 신경자 제공)



시아버지 육순잔치 때 찍은 기념사진
(1970년, 진사리 응천 김순자 제공)



진사리 주민들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왔으나 농경지 정리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공도읍에는 해방 후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가 소작농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토지개혁이 실제 미봉책으로서 농민들의 심각한 반발을 부추긴 사례가 전해져 내려온다. 1960년대부터 안성시에서 진행된 정부의 농경지 정리는 인근의 주민들 중 상당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진사리 진촌마을 등 6개 마을 농민 60여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인 사건²⁶⁾이 발생했다.

당시 진사리와 인근의 마을 주민들이 1972년 7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환지(還地) 도둑 찾아내어 농지를 찾자”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20여 분간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해산당하게 된다. 당

시 공도읍의 농민들은 정부가 440정보의 농지를 정리하면서 토지개량조합이 처음 약속한 감보율 1.8%보다 훨씬 많은 6.7%를 적용해 6만 3000여 평에 달하는 땅을 빼앗아 갔고, 농지정리지역에 속한 국유지 6만평을 농민에게 무상 양여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환지위원 12명이 서로 나누어 가졌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뜻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 3000평의 농지를 돌려달라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호소했던 것이다. 급기야 1973년 5월에는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하용두리에 소농들을 찾아오기에 이르지만 별다른 대안을 주지는 못했다.

또한 1975년 11월 7일에는 하용두리의 최완기 씨 등 100여 명의 농민들이 예탁 증서로도 영농자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진정을 하면서 당시 농민들은 추곡 수매대금 중 35%를 예탁증서로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농자금을 상환하고 나면 헐값에 증서를 팔아넘겨야 겨우 현금을 손에 쥐게 했었던 관행들을 주민의 힘으로 개선시키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는 진사리 일대 공도읍의 주민들이 농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들로서 이후 공도읍의 농업환경 개선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농업은 60~70년대까지 진사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었다. 그러나 진사리 일대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마을로서의 모습에 변화는 평택이라는 도시 근접성과 안성나들목이란 생활편의 인프라가 갖춰짐에 따라 아파트 개발이 주도하고 있다. 기존 경작지가 축소되는 것 뿐만 아니라, 고령화된 토박이들이 증가하고 젊은 세대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업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변화를 『공도읍 발전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까지 공도읍에 종사한 농가 인구와 비농가 인구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²⁷⁾ 이 자료에서 1960년대 이후 200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농가 인구 수가 감소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1961~2010년도의
농가인구 변화 추이 정리 자료

연도	농가 인구와 비농가 인구 추이				(단위: 명, %)	
	농가		비농가			
	수	비율	수	비율		
1961	1,538	84.9	274	15.1	1,812	
1965	1,580	81.9	349	18.1	1,929	
1970	1,857	88.8	235	11.2	2,092	
1975	1,686	79.8	426	20.2	2,112	
1980	1,406	57.1	1,055	42.9	2,461	
1985	-	-	-	-	2,557	
1990	1,605	58.1	1,157	41.9	2,762	
1995	1,221	35.5	2,265	64.5	3,486	
2000	1,063	14.8	6,120	85.2	7,183	
2005	1,150	8.1	12,967	91.9	14,117	
2010	1,112	5.6	18,774	94.4	19,886	

이러한 농가 인구수의 감소는 동일한 농경지 면적의 축소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 자료를 통해서 1961년부터 2017년까지 확인된 안성시 농경지 면적의 변화 과정을 보면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와 농경지 면적의 변화 추이²⁸⁾

(단위 反/ha)

년도	1961	1969	1975	1984	1994	1999	2004	2017
안성시	178,500	207,801	18,330ha	19,137	19,258	17,835	16,888	15,134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사에 종사하는 인구는 급격히 줄어 들고 있으며, 2018년 안성시의 『통계 연보』를 보면 안성시 전체 92,851명 중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를 모두 합쳐도 안성시 인구 중 0.786%에 해당하는 730명 밖에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 산업대분류별 종사자수²⁹⁾

2018년말 기준 총 92,851명

농업, 임업 및 어업 (A)		730
광업 (B)		19
제조업 (C)		39,70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36
하수, 폐기물, 원료재싱 및 환경복원 (E)		791
건설업 (F)		3,570
도매 및 소매업 (G)		9,175
운수업 (H)		4,615
숙박 및 음식점업 (I)		7,299
출판, 영상, 정보 등 (J)		558
금융 및 보험업 (K)		1,206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823
전문, 과학, 기술 (M)		1,317
사업시설, 사업지원 (N)		3,783
행정, 국방, 사회보장 (O)		2,072
교육서비스 (P)		6,623
보건 및 사회복지 (Q)		5,588
예술, 스포츠, 여가 (R)		2,080
협회, 수리, 개인 (S)		2,760

이러한 통계치를 뒷받침 하듯 진사리 또한 안성시의 전반적인 변화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리하여 진사리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전통적인 농업이 아닌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2012년도 1월 2일에 작성된 <진사리 제조업체 현황>을 통해 확인된다.

진사리 제조업체 현황³⁰⁾

업체명	대표자	주소	주 생산품목	종업원 수
신라엔지니어링(주)	신용문	진사 10-2 외1	금형 제품	91
다웰	강성훈 외 1인	진사 262-3 외1	반도체 전자 부품	9
부민산업(주)	박종명	진사 322	철 구조물	12
(주)보맥	김경현	진사 322	자동차 부품	9
티에스피	유현종	진사 322	반도체 장비	5
(주)대명	최경연	진사 322	자동차 부품	21
이화종합식품영농조합	이창우 외 3인	진사 371-6 외 2	포기김치	130
한국필아공업(주)	허 령	진사 371 외 3	캐스킷, 패킹, 씰	39
(주)유엔	장대순	진사 37-2	나무 수저, 성냥	24
(주)디에이치계전	김영숙	진사 401-2	가스 계량기	9

2012년 당시 진사리 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주로 자동차 관련 부품이나 반도체 관련 업체들 10곳이 들어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산업체들은 생활공간 또는 농경지처럼 주민들과 매우 밀접한 공간에 위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산업체에서 직접 근무하기도 하면서 더 이상 농경만으로만 생업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게 된 것이다.

진사리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근 평택의 개발도 진사리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생업이었던 농사를 포기하거나 농사와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주로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이나 평택항 등 주변지역으로 일을 찾아가며,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양한 일자리 구하기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진사리 주민들은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지역内外에서 일어나는 산업구조 재편이 농촌마을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2) 스타필드 유치와 지역 개발

진사는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아파트와 각종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계기로 급격하게 변화되어 온 도시이다. 스타필드는 2020년 오픈을 계획으로 한창 건설 중이다. 종합쇼핑몰이 들어서게 될 진사리 1-4번지 일원은 안성나들목 인근의 쌍용자동차 출고장 부지로서, 2010년 7월에 (주)이마트와 안성시가 복합유통시설을 계획하면서 투자 양해각서를 작성하면서 개발이 추진되었다. 쇼핑몰은 이마트가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컴팩트백화점, 이마트, 멀티프렉스 영화관, 오토볼, 브랜드샵, 키즈파크, 가전홈센터, 문화센터, 클리닉, 카페거리, 음식점, 양외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련된 많은 기관과 이해관계들이 얹히면서 실질적인 추진이 난항을 겪으며 실행이 지지부진해 지기도 했었다. 2010년도에 처음 계획된 복합유통시설 계획의 요약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공도 복합 유통 시설 추진

위치	진사리 1-4번지 일원
사업내용	랜드마크적인 대형·복합 쇼핑몰 건설 (대형 쇼핑몰, 영화관, 스포츠, 레저 시설, 이마트 등)
투자비	2,943억원 이상(부지 매입비 포함)
시행자	(주)이마트
추진 기간	2010.1.~2014.9.
부지 면적	203,561m ²
기타	고용창출 1,000명 이상, 방문객 400만 명



선을 제외한 신규도로 개설' 등 7건의 보완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 개선안은 '주·진출입 분산(1곳→2곳)', '38국도 우회노선 일부 신설 및 연결', '기존 평안지하차도 연장(315m)' 등이다. 그러나 실제 이들 주요 개선의견대로 사업을 추진될 경우 신세계측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만 수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안성 스타필드에 대한 건축이 허가되었고 2020년 오픈을 목표로 2019년 현재 건물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로 인해 주변지역 땅값, 집값, 교통체증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어 진사리와 공도읍 일대에 끼치게 될 영향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안성시는 시에 들어설 스타필드 오픈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안성시와 신세계 프라퍼티는 2018년 5월 29일에 황은성 안성시장과 임영록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도읍 진사리에 들어서는 스타필드 안성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도 진사(신세계복합유통)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되면서 본격적인 스타필드 입점을 위한 작업이 추진되었다. 2018년 4월에 시행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문제들도 조정해 갔고, 이어서 3월~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안성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스타필드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이에 이마트에서 사업을 인계한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는 "그동안 사업이 늦어지면서 신세계가 2군데 쇼핑몰을 오픈하면서 경험이 많이 축적됐다.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더 좋은 쇼핑몰을 만들겠다. 현지 법인설립을 신청했고, 외자 유치도 확정했다. 6월말이면 2,000만원의 외자가 유치하게 된다. 외투기업이 안성 현지 법인으로 설립된다"고 하였고, "스타필드 안성은 6,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안성과 평택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서울 남부의 수원, 용인, 천안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다. 안성에 좋은 맛집과 관광지 홍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공사기간에는 지역 물품을 이용하고, 지역 인력을 우선 채용해 스타필드 안성이 들어오니 지역이 달라진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 공사단계부터 안성지역과 상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³¹⁾ 이에 따르면 신세계측에서 스타필드 입점이 스타필드의 수입사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담겨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신세계측의 입장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벌휘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로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이제 안성시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 안성시 민선 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통해 안성 스타필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³²⁾>

□ 추진요지 :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안성점을 조기준공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이바지 함

□ 사업개요: ·사업명 : 스타필드 조기유치

·사업구간 :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4번지 일원

·대지면적 : 111,671m²

·사업비 : 6,000억원

·사업기간 : 2018. 08. ~ 2020. 08.

□ 기대효과 : 신산업서비스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채용을 통해 상생의 발전 도모

□ 연차별 추진계획: ·기존건축물 철거 및 착공 2018. 8.

·완공 및 그랜드 오픈 2020. 8.

2019년 현재 스타필드의 조기준공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르러서는 안성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스타필드 입주 시 생길 교통체증을 대비하여 대체우회도로를 확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움으로써 시정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평택시와의 공동업무 추진을 위한 계획까지 마련해서 이에 따라 진행 중에 있다.

<안성-평택 국도38호선 대체 우회도로 확충³³⁾>

◆ 우리시 공도지역 및 평택시의 국도38호선변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스타필드가 입주 되거나 진행 중으로 출·퇴근시 교통체증 가중으로 인해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국도38호선 대체우회도로 확충 필요.

□ 사업현황

·위치 : 평택시 합정동 ~ 안성시 미양면 신기교차로

·연장 : L=12.98km, B=20.0m (4차로)

·추정사업비 : 3,063억원(공사비 1,544, 보상비 1,113, 기타 406)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일일교통량 : 50,954대/일

·사업시행 : 국토교통부

□ 추진실적 및 계획

·'17.12 :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 반영 요청(국토부, 경기도)

·'18.05 : 상급기관 건의방문(경기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8.10 : 안성-평택 실무협의회 개최

- '19.01 : 국토연구원 방문 건의(안성시, 평택시 공동방문)
- '19.03 : 국토부 방문 및 건의
- '20.06 :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21~'25)계획 고시(국토부)

- 평택시 추진상황 - 국토연구원 우리시와 공동방문('19.1.15)
- 비전-공도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발주(2억): '19.1월 중

□ 문제점 및 대책

- 상위계획인『제5차 국도·국지도5개년('21~'25)계획』에 반영되어야 추진 가능
- 안성시와 평택시의 적극 협업으로 상급기관 공동건의 추진 필요

실제 스타필드 입점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 착공은 2019년도에 진행된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시작되었다. 2019년 3월 22일(금)에 개최한 2019년 제1회 안성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재심의'였으나, 이후 진행된 2019년 5월의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가결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본격적인 신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안성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³⁴⁾

1. 안건1 :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354번지 일원 복합쇼핑몰 신축공사

2. 회의개요

일 시	2019. 5. 7(화) 14:00	장 소	본관 2층 상황실
건축주	(주)스타필드 안성	참석인원	16명

3. 사업개요

허가번호	건축주	주 소		용도지역	
2018-신축-299	(주)스타필드 안성	안성시 공도읍 진건중길 7, 2층		일반상업, 자연녹지, 준주거	
대지위치		대지면적(m ²)	지목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354번지 외 17필지		109,127	잡	54,456.9	240,487.36
건축물의 종류		구조	층수(지하/지상)	건폐율(%)	용적률(%)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일반철골	2/6	49.90	107.63
비 고					

4.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19년 5월 10일

또한 안성 복합유통시설(스타필드) 진입도로를 215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신설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안성시, 평택시. 시공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타필드의 시설 추진과 실제 착공과정에서 다양

한 의견들이 있어왔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알 수 있는 지역신문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인터넷 『평택신문』은 <스타필드 따른 문제 해결 고민하자 vs. 스타필드 조기 착공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두고 2018년 2월 열린 토론회 결과에 대해 평택과 안성의 주민들이 ‘지역상권 파괴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 ‘방문자 증가로 인한 도로 정체’, ‘자동차 증가 및 주차장 공회전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염려하고 있다고 취재했다.³⁵⁾

더불어 해당 건에 대해서 평택에 비해 안성지역내부에 문제의식은 소수에 의해 제기될 뿐 스타필드에 대한 입장은 대체로 적극적인 유치를 희망하는 쪽 입장이 우세하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우려와 기대의 시각차는 인터넷 평택 안성의 커뮤니티신문인 『평안신문』 2017년 11월 3일자 기사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다. 스타필드의 입점을 둘러싼 입장에 대해서 평택내부에서는 시청과 시의회를 중심으로 상권과 교통환경 악화같은 문제를 우려하는 쪽과 편의증진을 기대하는 평택시민의 찬성의견이 명확히 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안성시 또는 공도읍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기사는 이를 “평온하다”라고 표현했다.

<관련기사 원문>

스타필드안성입점 안성과 평택 반응은 극과 극!

승인 2017.11.03. 09:22:35

안성과 평택이 스타필드안성 입점과 관련해서로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며 대립을 보이고 있다. 평택도 시청과 의회,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이 각각 이어서 혼란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공도읍은 너무 평온한 모습이다. 기자가 찾아간 안성시 공도읍은 공무원도 주민들도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여 의외였다.

평택시청과 평택시의회는 반대 의견

평택시와 평택시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8~20일 열린 평택시의회 194회 임시회에서 안성 공도읍에 들어설 예정인 복합유통시설(스타필드)에 대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경기도와 안성시, 사업자 신세계에 전달할 계획이었다.

시의회는 안성과 평택시 경계 지역인 공도읍에 대규모 복합유통시설이 입점하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평택 시내 진입로인 국도 38호선(서 동대로)은 교통체증으로 제구실을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이다. 평택시도 ‘스타필드 안성’과 관련 해 지난 9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에서 ▷고속도로에서 사업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개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지 입구 교차로 지하 차도로 개선 등 15건, 평택경찰서가 ▷국도 38호선을 제외한 신규도로 개설 등 7건의 보완의견을 제출했다. 교통영향평가 사전 검토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개선안은 ▷주·진출입 분산(1곳→2곳) ▷38 국도 우회노선

일부 신설 및 연결 ▶기존 평안지하차도 연장(315m)등 3개다. 특히 주요 개선의견대로 사업을 추진 할 경우 신세계측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만 수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돼 연내 사업 착공이 녹녹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홈페이지에는 평택시민들의 찬성 의견이 대부분

시의회가 건의안을 채택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16일부터 현재까지 평택시의회와 평택시, 안성시 홈페이지에 복합유통시설 입점을 찬성한다는 수백여 건의 글이 올라왔다. 안성과 평택시, 시의회 홈페이지에 이처럼 단일 사안으로 1주일 만에 수백건의 글이 게재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각 홈페이지에는 평택시와 안성시에 제대로 된 문화시설과 대규모 쇼핑몰이 없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평택시내거주’ 아이디의 평택 시민은 평택시에 대형병원 유치를 촉구하는 시의원에게 중소형 병원을 죽이는 소상공인 억누르기를 주장하면서 대형쇼핑몰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비전동’ 아이디의 시민도 최근 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과 함께 미세먼지 풍기는 발전소는 중지하고 쇼핑몰 빨리 추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10월 14일부터 시작돼 보름동안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평택시민들의 의견 대부분은 평택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스타필드가 적극 유치돼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상공인들 중심의 평택시민단체는 일관된 반대

평택지역 시민단체들이 2020년 개점하면 평택 상권의 쓰나미가 될 것으로 예견되는 신세계 그룹의 ‘스타필드안성’에 대비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한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비전동 평택시발전협의회 사무국에서 회의를 갖고 스타필드 안성 입점을 반대하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스타필드안성이 입점할 경우 최소한 반경 5~10km 이내에 있는 평택지역 상권의 붕괴가 불 보듯 뻔하며,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매연으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스타필드안성 입점을 결사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모인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오는 11월 6일에 ‘스타필드 안성입점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안성시 공도읍은 너무 평온하다!

‘스타필드 안성’은 평택시가 쌍용자동차의 경영위기 문제로 인해 평택 경제가 휘청일 때 경기도·안성시·신세계가 나서 평택을 구해주기 위해 ‘쌍용차 경영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성 공도 진사리 일원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추진됐던 사업이다. 안

성시 여론은 그런데 이제 와서 평택시는 교통 영향평가를 빌미로 발목을 잡고, 평택시의회는 평택시의 재래상권 보호를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해 사실상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 놓으라는 격이라고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면서 대응도 못하고 조용한 안성시 정치인을 질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스타필드 안성으로부터 2~3km 거리에 있는 공도읍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입점에 따른 피해가 더 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분위기다. 공도읍의 관계 공무원들은 스타필드 안성 건축과 관련해 이장들을 통해 서 전달된 의견도 없고 주민들의 민원성 아우성도 한마디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쇼핑몰 입점으로 소상공인들은 타지역 고객들로 인해 더 많은 유동인구가 예상되며 오히려 공도읍 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인 목소리를 전해주었다.

[출처]평택·안성커뮤니티뉴스-평안신문, <http://www.panews.co.kr>

이 기사를 통해 평택의 상공인과 정치인 VS 평택·안성시민, 안성시 사이에 스타필드 입점을 두고 일정한 온도차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평택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반대나 평택시민들의 적극적인 찬성과 달리 정작 당사자인 안성 공도읍은 여론형성이 읽히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좋다. 나쁘다 '공동체 차원의 공통의식'이 형성되지 않는 지역특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새로운 이주민들 중심의 공동체에서 특별한 이해관계는 느슨해질 수 밖에 없고, 생활편의 증대는 거주지역의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성이 크다. 이에 반해 개발과 전통의 틈새에서 전통마을을 지키고 있는 고령화 세대들은 안성시가 결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진사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여론의 추이를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개발호재를 기대하는 사람들보다 사업내용을 모르거나, 한발 물러서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미칠 영향을 그저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은 것처럼 보였다. 더불어 현재 개발호재로 인해 지역 토박이 주민들은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 스타필드 입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으로 매우 복잡한 심경에 처해 있다.

5. 구(舊)와 신(新), 내(內)와 외(外)의 공존(共存)

안성시의 서남부에 위치한 진사리는 전통적 관점에서는 안성의 외곽마을로서, 안성을 대표할 만한 어떤 특별한 점을 갖추고 있는 마을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적 관점에서 진사리는 안성시 공도읍의 일원으로 공도읍이 안성시 전체인구의 31%를 차지하며 관내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지역에 속

한다. 진사리는 공도읍 전체 인구의 21%에 달하는 12천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한편에서 새로운 정착민들에게 자신들의 터전을 조금씩 내어주며 사라져가는 전통마을이기도 하다. 전통마을이라는 이름은 이제 점점 과거의 것으로 사라져 가고, 새로운 이미지의 진사리로 거듭나고 있다.

진사리의 급격한 변화의 요인은 지금까지 고속도로 인접지역으로 나들목이라는 교통망과 아파트 신축이라는 물리적 경관이 주요한 대세를 이뤄왔다. 그리고 이제 스타필드라는 거대한 상업소비시설의 등장으로 인해 앞으로 생기게 될 변화는 공도읍의 향후 공동체성의 방향과 정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 현재는 일부에 의해서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생활권 보장이 약속대로 이행되며 삶의 질에 유익한 시설로서 자리잡느냐, 또는 경계 지역에 새로운 갈등원인이 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진사리는 현재 전통적인 자연마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마을들과 아파트숲으로 이루어진 마을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례적인 개발지역이다. 관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강력한 후원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이처럼 안성시 행정의 중심부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힘이 없는 이들에 의해서 지켜 온 진사리는 그 자체로 개발의 한 가운데 던져졌으나 그 조차 계획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진사리가 속한 공도읍이 최근 20여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기반시설이 확장하는 등의 성장을 이어왔다. 공도읍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현재 안성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관내 다른지역과 긴밀한 교류가 유지되지 않은 채 공도읍의 단독 질주가 이어지고 있어서 안성시의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다른 안성지역들은 공도읍에 대해 평택의 위성도시라는 곱지 않은 시선 보내며 견제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재적 상황을 원주민들의 배타성 탓으로 돌리는 견해도 있으나, 오히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안성시 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함에도 옛 안성중심 지역들과 긴밀한 관계를 거의 맺을 수 없는 도시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이 부재하기 때문일 수 있다. 안성의 고유성과 격리된 채 개인편의와 첨단생활권 중심의 ‘공도읍만의 승승장구’는 시정차원에서도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따라서 오랜기간 평택과 같은 생활권을 가졌던 전통마을 진사리가 평택으로 편입을 희망한다는 작은 외침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안타까운 점은 지금까지 진사리가 변화해 오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변화의 원인이 진사리의 내부적인 에너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시작된 힘의 논리에 의한 것이다. 진사리가 속한 공도읍은 평택과 생활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보니 안성시의 여타 관내 지역에 비해 일체감은 오히려 저조한 편이다. 특별한 영역변천 이력을 가졌고, 이주민 중심 도시로서 공동체성이 느슨한 경계지역으로서 면모를 가지고 성장·변화해 왔기 때문인 것 같다.

토박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나마 당행인 것은 자신들이 살아온 전통적인 생활터전이나 환경에 침해받는 많지 않았으므로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점이라 하겠다. 도회지적 요소들이 점차 마을을 채워가고 있으나, 토박이 주민들은 여전히 밭농사와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마을회관에 모여서 일년에 몇 차례씩 공동체적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위치를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은 까닭에 주민들은 현재 상황을 잠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는것 같다. 때문에 진사리에서 오랫동안 살아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지못해 조심스럽게 대기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이제 스타필드가 들어서면서 소비천국의 현장을 눈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진사리 주민들은 새로운 국면을 또 맞이하게 된다. 약 10년에 걸친 시간 동안 복합유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의 등장은 진사리의 주민들이 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암시하고 있다. 곁으로 드러난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포함해서 이들이 감내해야할 것들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숨죽이고 있는 진사리의 주민들은 자신들 안에 신구(新舊)와 내외(內外) 간에 여러 분면이 숨어 있다는 것이 점차 감지되고 있다. 스타필드의 입점으로 인해 소비지향적 문화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차치하더라도 전통적인 자연마을과 아파트로 새롭게 형성된 마을 간의 소통이 없는 한 진사리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 눈에 보듯 뻔한 상황이다. 진사리 내부에서 신구(新舊)와 내외(內外)가 보이지 않는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점은 진사리의 미래, 더 나아가 안성시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해 봐야할 지점이라고 판단된다.

지금 진사리에서 태어났거나 진사리로 이주해 온 아이들은 진사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다가, 양진초등학교와 양진중학교에서 교육을 받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진학을 위해서 안성시 또는 평택으로 이주한다. 필요에 따라서 아이들과 부모들은 더 먼 곳으로 이주한다. 그러니 진사리는 일정한 기간동안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둑지와 같아서, 진사리의 둑지에 머물다가 성장한 아이들이 다른 둑지를 찾아서 떠나간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진사리는 정착촌으로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진사리의 미래 또한 밝기 어렵다. 빌린 둑지에 잠시만 머무는 까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지 않고 있다. 지역에 애정을 갖지 않는 외지인의 유입과 유출이 반복되는 상황을 벗어나서 진사리와 공동체의 지속적인 생활공간으로 공존(共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스스로 낼 수 있는 지역문화가 형성되어야만 진사리에 미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안성시 차원에서 공동체와 안성의 옛 중심지들을 연결해서 지역 공동체성을 찾기 위해 시급하게 노력해야 한다. 안성시에서 전통적으로 공동체를 안성의 주변지역으로만 보던 인식에서 벗어나서 진사리를 포함한 공동체가 안성시에서 어떠한 가치를 갖는 지역인지 재인식하고 지역공동체로 끌어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안성시라는 지역적 경계 안에서 상호 공존(共存)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 『공도읍 발전사』, 공도읍 발전사 편찬위원회, 2012.
- 『안성군지』, 안성군지편찬위원회, 1990.
- 『안성시지』, 안성시지편찬위원회, 안성문화원, 2011.
- 『안성시 통계연보』 1961~2918.
- 『평택시사』, 평택시사편찬위원회, 2014.

<인터넷>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

네이버 블로그, <숨겨진 이야기>,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idco1&logNo=120181287382>

네이버 블로그, <사진으로 보는 안성[안성인포]>,

<https://blog.naver.com/fame7777>

네이버 블로그, <야무진 둘레씨>,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usrhkdb&logNo=221698981717>

네이버 블로그, <민트나무작업실>, <https://blog.naver.com/kshw1956>

안성포털 <https://www.anseong.go.kr/portal>

양진중학교 홈페이지, <http://www.yangjin-m.ms.kr>

양진초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yangjin.es.kr>

인터넷『자치안성신문』, <http://www.anseongnews.com>

인터넷『평택시민신문』, <http://www.pttimes.com>

진사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anseong.go.kr/library>

통복시장 모바일 홈페이지 <http://tongbokmarket.allthru.kr>

평택시청 홈페이지, <https://www.pyeongtaek.go.kr>

<인터뷰>

2019.07.08. 진사리 진촌노인정, 유종식(79세)

이회근(81세)

심소근(75세)

정영복(85세) 외

2019.07.17. 진사리 진촌노인정, 유종식(79세)

서광록(79세)

김유복(74세)

2019

경기도 현대지역사회 기록화사업

경기마을기록사업 ⑯

안성천이

흐르는

중복리의 근대화와

마을의 현재



시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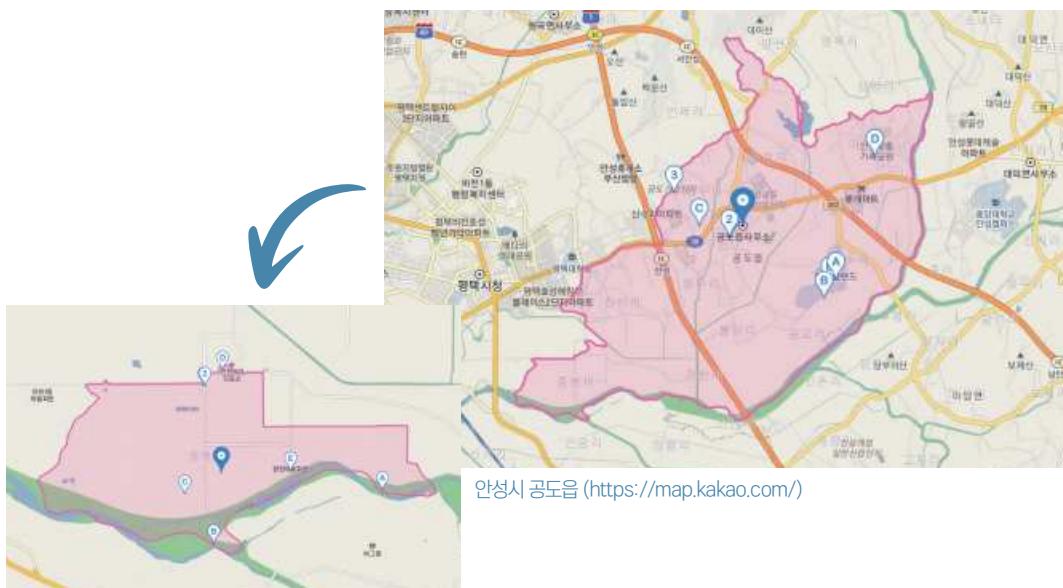
경기대학교

1. 중복리 바라보기: 지리적 위치와 특징¹⁾

1) 중복리의 두 마을, 원중복과 향정

중복리는 2019년 현재 안성시 공도읍의 11개 법정리 -양기리, 응교리, 신두리, 중복리, 용두리, 승두리, 건천리, 불당리, 만정리, 마정리, 진사리- 중 가장 서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 동쪽으로는 공도읍 건천리, 동북쪽으로는 공도읍 진사리와 접해 있으며, 서북쪽으로 평택시 유천동·소사동과 맞닿아 있다. 마을 남쪽으로는 안성천이 흐르고 안성천 너머는 바로 천안시 성환읍 안궁리·양령리가 보인다.

공도읍 중에서도 가장 서남쪽에 위치한 중복리는 안성천 하류에 위치해 있으며, 중복리의 지명은 이 안성천과 깊은 관련이 있다. 안성천은 안성시 고삼면과 보개면 일대에서 발원하여 평택시를 지나 아산만으로 흘러드는 76Km의 하천이다. 이 안성천에 있던 세 개의 보(洑) 중에서 가운데 보가 있는 곳에 위치한 마을을 ‘중복리(中洑里)’ 또는 ‘중보니’라고 불렀던 것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양성군 영통면의 중복리, 행정리, 상리, 책천리 각 일부가 합쳐졌는데, 당시 가장 규모가 커었던 중복리의 이름을 통합된 마을 이름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공도읍 중복리 (<https://map.kakao.com/>)

중복리는 원중복과 향정 두 개의 행정리로 이루어져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양성군 영통면의 중복리, 행정리, 상리, 책천리 각 일부를 합쳐서 하나의 마을을 이를 때 마을 이름을 중복리라고 했는데, 이때 기존의 중복리와 구별하기 위해 원(元)자를 붙여 원중복이라고 하였다. 원중복은 앞뜸, 뒤뜸, 쌍거리(세 갈래길)로 이루어져 있는데, 뜰은 한

동네에서도 몇 집씩 모여 사는 구역을 말하니 원중복은 세 개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셈이다. 원중복은 특별한 성씨가 집성을 이루지 않는 각성바지 마을이다. 향정은 은행나무가 있어 행정(杏亭)이라 한 데서 유래된 마을이름이다. ‘으능정이’ 또는 ‘은행정이’로 불렸고, 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쉬어갔다고 한다. 마을에 큰 은행나무가 있었다고 하고, 옛 지명표기를 보면 ‘행정’(杏亭)이라고 표기되어 있기도 하지만, 마을 노인들도 그 큰 은행나무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예전에는 마을 일대가 전부 땅밭(갈대밭)이었고, 마을에는 웅덩이가 수십 개 있었는데 모두 물난리의 흔적이라고 한다. 마을에는 김해 김씨, 전주 이씨, 청주 한씨 등이 살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중복리에는 136가구 283명(남자 130명, 여자 153명)이 살고 있었다. 그중 원중복에 95가구 210명(남자 98명, 여자 112명), 향정에 41가구 73명(남자 32명, 여자 41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2019년 11월 현재 중복리 전체에는 121세대 242명(남자 117명, 여자 125명)이 거주하고 있어 가구수와 거주자 수가 예전에 비해 다소 줄어든 양상이다.



2010년대 초반 원중복 일대, 앞들, 안성천 제방 (『공도읍 발전사』)



2019년 7월 원중복 일대, 앞들, 마을회관



2010년대 초반 향정 전경, 마을 정자, 마을회관 (『공도읍 발전사』)



향정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안성천 앞에서 前 노인회장 정봉화 (자치안성신문, 2010.2.25)

2) 옛 중복리의 특징

○ 비가 많이 오면 꼼짝을 못 하는 동네

안성천 하류에 있는 중복리는 매년 장마철만 되면 수해를 입었다. 2019년에 만난 원중복 마을 어르신들은 ‘마을을 빙 둘러 냅가였고, 여름에 비가 오면 학교(공도초등학교)에 수영을 해서 건너야 갈 수 있다는 등’ 비가 많이 오면 꼼짝을 못하는 동네였다고 한다. 안성천은 물론 2개의 작은 개울이 흘러 마을이 마치 섬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비가 오면 고립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1960년대 안성천 둑을 정비하고 농지정리를 하기 전까지 마을은 수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다.

현재 노인회 오장환 회장이 “1970년대 초반에 물난리가 나서 하천 부지에 사람이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튜브를 가지고 수영을 해서 사람들 구해 가지고 온다고 하다가... 헬리콥터 지원을 받아서 사람을 구한 적이 있다. 나중에 안성경찰서장 표창도 받았지만, 젊은 혈기에 사람들 살릴 욕심만 있었지.”라는 일화는 제법 유명하다. 1960년대에 안성천 둑을 재정비했지만 1970년대에 이 같은 일화가 남아있는 것은, 1974년 안성천 하구에 아산만 방조제가 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 안성천에는 밀물 때에 서해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홍수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장마철만 되면 거의 고립되다시피 하고 농지와 주택 등에 수해를 있었던 중복리는 안성천 둑의 정비와 아산만방조제의 축조로 만성적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중복리에서 옷 입은 체하지 말고 향정에서 장에 간 척하지 말라

비가 오면 수해를 입은 했지만 들이 넓은 중복리는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풍요로웠다. “중복리에서 옷 입은 체하지 말고 향정에서 장에 간 척하지 말라”는 말처럼 중복리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장에도 자주 가는 등 옆 마을들에 비해 생활 형편이 좋았다고 한다. 원중복 어르신들에 의하면 “6·25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에서 부리는 머슴만 40여명이 될 정도로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현재 중복리 경지면적이 15만평 정도인데, 6·25 전까지만 해도 중복리 주민들이 소유한 경작지가 40만평이 넘었다고 하며, 지금의 중복리 땅 뿐만 아니라 충남 일부의 토지도 중복리 주민들이 소유할 정도로 부자가 많았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마을 주민들이 이 농사에 전념하지 않고, 안성천 제방을 쌓으면서 받은 하천 부지 보상금을 노름 등으로 외지인에게 잃고 땅까지 팔게 되면서, 중복리 주민들 소유의 땅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한다. 현재도 중복리 땅의 상당부분은 외지인 소유이고 중복리 주민들은 그 외지인의 땅에 도지(賭地, 賭租)를 부치는 셈이라고 한다.

○ 안성에서 전기가 가장 처음 들어온 마을

중복리는 안성에서 가장 먼저 전기가 들어온 마을이다. 중복리에는 일제강점기 때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 이유로는 당시 앞서서 일하기로 유명한 이원하 면장의 영향이라는 것과 만석꾼 김시춘씨의 영향이라는 것이 뒤섞여서 마을에 전해진다. 중복리 김수권어르신에 의하면 “당시 대전에서

천안으로 해서 안성으로 넘어가는 전기를 이 마을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중복리로 전기선을 뻗 것이다”라고 한다.

전기가 일찍 들어온 까닭에 중복리는 모터로 안성천 물을 끌어올려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방앗간도 다른 마을에 비해 빨리 생겨서 도정이 용이했다고 한다. 방앗간으로 썼던 건물은 아직도 마을에 남아있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 전기가 들어와서 방앗간도 빨리 돌았지. 이복선씨라고 그 양반이 제일 처음 했지, 이 동네 토박이.
- 6·25때만 해도 이 근방에 방앗간이 별로 없었어.
- 전기가 일찍 들어왔으니까 방앗간이 일찍 돌았지.
- 쌀 방아 짹는 거지. 추수하고 옆에 마을에서도 오고.
- 충남에서도 평택에서도 공도 쪽에서도 오고 그랬어.

중복리에 전기가 일제강점기에 들어오고 방앗간은 6·25 전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다른 마을에는 방앗간이 없어서 인근 마을에서 중복리 방앗간을 이용하러 오기도 했다. 방앗간에서는 요즘같이 고춧가루·쌀가루 등을 빻고 떡을 하는 곡물 가공 작업보다는 추수한 쌀을 도정하는 작업만을 했다고 한다. 나중에 중복리 뿐 아니라 건천리·진사리 등에도 정미소가 생기면서는 주로 중복리 쌀만 도정하게 되었다.

- 방앗간은 6·25 전부터 있었고, 우리 이사 올 때 방앗간 안 돌아갔으니까 2000년 전부터 안 돌아갔지.
- 정부에서, 농협에서 벼를 수매하고 그러니까 방아 짹을 필요가 없잖아. 벼를 수매하면 가마니에 탈곡해서 벼째 갖다 주는데 누가 방앗간을 가? 그러니까 방앗간이 필요가 없으니까 폐쇄가 됐어.
- 거긴 이제 공장 같이, 마대공장 같이 차리고 있어. 그게 한 15년 됐을 거야. 마대공장은 바뀌고 1~2년 있다 들어왔어.
- 그거 말고 다른 공장 이런 것도 없어. 마대 짜는 공장은 아니고 다 짠 거 가지고 와서 재봉, 봉제만 하는 거야. 공장이라고 하기에도... 사람도 별로 없어. 사람은 하난가 둘인가 그래.
- 뭐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마대공장이라고 하는 거지.

마을에 전기가 일찍 들어온 덕분에 다른 마을에 비해 일찍 가동해 6·25 전부터 있었던 중복리 방앗간은 2000년대 까지 약 50년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쌀을 전량 수매하면서 동네에서 따로 도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결국 방앗간은 폐쇄되었다. 방앗간으로 사용하던 건물은 아직 중복리에 남아있는데, 마대를 봉제하는 작업장으로 사용한 지 15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중복리 방앗간으로 사용했던
건물의 정면과 측면



방앗간이 돌아가는 것이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가 작동했기 때문인데, 중복리에는 전기가 일찍 들어와 당시 공도읍에서 소방 기구도 제일 일찍 들어왔다고 한다.²⁾ 아래 왼쪽 사진의 발동기는 물을 푸고, 방아를 짚고, 탈곡기를 돌리고 등 다양한 기능을 했었다. 오른쪽에 있는 소방기구는 당시 공도면에 있었던 소방기구와 똑같은 규격으로 이 소방기구 역시 발동기를 이용해 물을 퍼울려 화재 진압에 사용했었다. 소방기구가 일찍 들어온 덕에 중복리에는 당시 소방대가 조직이 되고, 매년 정월 대보름에는 소방대가 소방 훈련까지 해서 다른 마을에 불이 나도 화재 진압에 나섰다고 한다.

중복리에 있었던 발동기와
소방기구, 현재는 개인소장
(다음카페 '중복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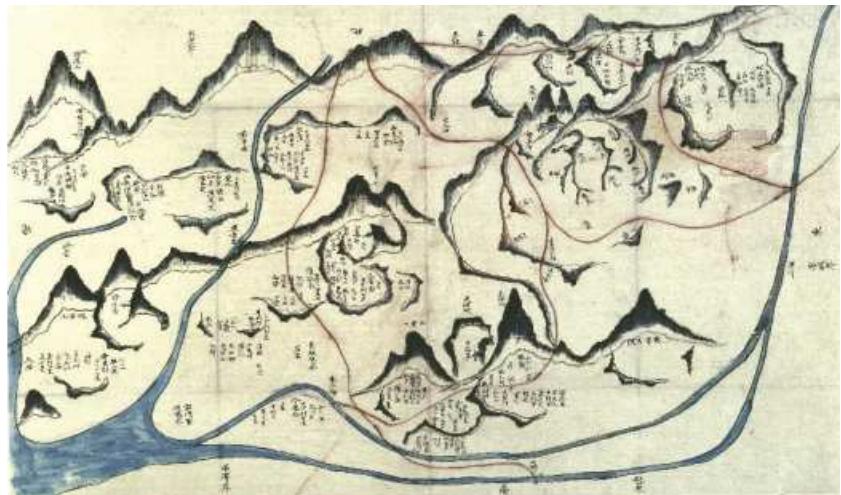


안성천의 물을 끌어올려 농사를 짓고, 방앗간을 돌리고, 소방기구를 비치해 화재 진압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들은 모두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으로 해서 모터 즉 발동기를 작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다. 6·25 전까지 중복리가 풍족한 마을이었던 것은, 주민들이 소유한 토지가 많아서이기도 했지만 전기를 일찍 사용하게 되면서 큰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도 정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등 전기를 이용했던 요인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춘향전의 이몽룡이 건넜다는 애구다리

오래전 중복리 근처에는 한양으로 이어지는 삼남대로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중복리에는 이 길을 이어 주는 다리가 놓여 있었다. '1872년 지방지도'에 아교(牙橋)라는 이름으로 표시된 이 다리를 주민들은 '애구다리'라고 불렀다.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이 다리를 지나면서 "애고, 다리야"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는 이야기가 전한다. 실제로 이 다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쉬어 갔다고 하지만 현재 남아있지 않다.

1872년 지방지도 중 양성지
도(陽城地圖) 전체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양성지도 중 공제면과
도일면 부분 확대



1872년 양성지도(陽城地圖)는 현재 안성시의 양성면, 원곡면, 공도면 일대에 해당하는 지도이다. 지도 아래쪽 중앙에 그려진 산봉우리 세 개에는 각각 오른쪽부터 덕봉서원·고성산·백운산이 표기되어 있고,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백운산 봉우리 아래에 도일면, 그 아래쪽으로 공제면이 표기되어 있다. 도일면에는 비리·하용두리·상용두리·신리·승두리·반자리·주정리 등이, 공제면에는 소신두리·대신두리·중리·불당리가 표기되어 있다. 현재 안성시의 공도읍은 이 공제면과 도일면을 합치면서 각각의 첫 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며, 현재에도 지도에 나타난 지명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특히 안성천 왼쪽으로 소사교(素沙橋)와 오른쪽에 아교천(牙橋川)이 보인다. 이 아교는 기호교계(畿湖交界) 즉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 다리가 일명 ‘애구다리’이다.

2. 중복리 뒤돌아보기: 근대화 과정과 에피소드

1) 만석꾼 김시춘

김시춘은 중복리 주민들에게 전설적이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었다. 만석꾼이지만 부(富)에 걸맞지 않게 허름한 옷차림과 살림살이로 중복리에 기거하다가 불운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 어르신 중 김수권 어르신과 충주김씨 일가여서 김수권 어르신이 김시춘에 관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어르신들의 기억에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로만 남아 있을 뿐 그에 대한 정보는 구하기 매우 어려웠다. 김시춘이 안성에서 태어난 인물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안성에 기록될 만한 족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김수권 어르신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하고,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보태서 김시춘의 행적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 만석꾼으로서의 면모

김시춘이 만석꾼으로 알려진 근거는 몇 가지가 있다. 해방 전에 김시춘은 중복리 일대의 땅을 소유했을 뿐 아니라 연백평야에도 땅이 수십 만평 있었다고 전한다. 김시춘이 그렇게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된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배를 이용해서 새우젓 도매업을 크게 해서 번 돈으로 땅을 샀기 때문이다. 김시춘은 외아들이고 와세다 대학을 나왔다고 전해져서, 부잣집 아들의 면모를 더욱 짐작하게 한다. 아버지의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김시춘은 결혼을 했다고도 하고, 하지 않았다고도 한다. 일설에는 결혼을 했으나 이혼을 하면서 ‘여자가 평생 먹을 만큼’의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했다고도 한다.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자식을 두지 않은 것은 확실해 보인다.

안성 중복리로 거처를 옮기기 전 서울에 거주하였던 김시춘의 행적으로 볼 수 있는 신문 기사들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지만³⁾ 추정에 불과할 뿐이다. 하지만 이 신문 기사들에 나타난 인물을 중복리에 살았던 김시춘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상당한 부를 소유한 인물이며 사회에 선행을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재동정금이나 삼남 수재의연금품을 낸 사람 중에 김시춘(金時春)이 있으며, 이혼소송을 당하면서 2만원⁴⁾의 위자료 합계를 청구 당한 기사 그리고 부내(部內, 京城府內) 부호 김시춘을 사칭한 사기 사건들을 보면 이 인물들이 같은 인물이 아닌가 추정하게 된다.

○ 낙향 그리고 중복리에 준 영향

김시춘은 원래 서울에서 살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중복리에 내려와 살게 되었다고 전한다. 김수권 어르신에 의하면 김시춘은 서울에서 여자(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이 살다가 폐병에 걸려서 요양을 하기 위해 6·25 전 일제강점기 때 중복리로 왔다고 한다. 김시춘의 아버지가 새우젓 등을 팔아서 번 돈으로 산 땅 중에 중복리가 있었고, 김시춘은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서 요양할 곳을 찾다가 일가(청주 김씨)가 있는 중복리로 왔다는 것이다. 김시춘은 김수권 어르신의 할아버지뻘 된다고 한다.

중복리는 일제강점기 때 안성에서 가장 먼저 전기가 들어온 마을로 알려져 있는데, 전기가 그렇

게 빨리 들어온 이유로 주민들은 당시 열정적으로 마을 일을 보았던 이원하 면장과 김시춘의 영향을 꼽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956년 공도읍 만정리에 개교한 공도중학교 건립 당시 김시춘이 상당한 액수를 기부하였다고도 알려져 있다. 정확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중복리에서 김시춘은 마을 또는 공도를 위해서 일정한 기여를 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공도읍사무소에 세워진 이원화면장 기념비와 공도중학교
(각각 자차안성신문, 2010.2.25., Daum Cafe 중복리, 나무위키 www.namuwiki.)

중복리 땅의 상당부분은 김시춘의 땅이었는데,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되면서 토지분배(토지개혁)가 이루어질 때 주민들이 그의 땅 일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차츰 주민들이 그의 땅을 사게도 되었는데, 그가 땅을 팔 때 사기를 치는 사람이 꽤 많아서 일가 되는 김수권 어르신의 형님을 믿고 그에게 일을 많이 맡겼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김시춘씨는 부자이긴 했지만,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인심좋은 사람의 기이한 삶 그리고 불운한 죽음

주민들이 기억하는 김시춘은 대단한 땅 부자이면서 사람들에게 인심이 좋았으나 매우 궁핍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다.

- 일을 가면 쌀을 닷 되를 줘. 다른 집 세 되 줄 때 닷 되를 줘. 그러니까 그 집 일을 불러만 줘도 좋은 거여.
- 그 집 일을 서로 갈려구 하는 거지.
- 일도 세게 안 시켜.
- 그 집에 가면 시골에 사니까 다 농사일이지. 그 전에 손으로 다 하니까. 손으로 다 심었지. 점심엔 그 양반이 꼭 고구마만 잡숴.
- 세배를 가면 꼭 돈 주는 사람은 그 양반이야.

해방 전에 요양을 위해 중복리로 내려온 김시춘은 주민들을 불러 농사를 지었다. 주민들의 진술대로 그는 주민들에게 다른 집에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비싼 품삯을 주었고,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세배를 가면 꼭 세뱃돈을 쟁겨주어 인심을 얻었다. 하지만 가족 없이 혼자 살아서인지 먹는 것을 잘 챙겨먹진 않은 듯 하다. 비단 먹는 것 뿐만 아니라 행색도 초라하여 종종 무시를 당하기도 했다.

- 완전 그지두 그런 그지가 없어. 혼자 살아 가지구, 돈이 문제가 아니구.
- 오죽 하면 평택 시장엘 그 양반이 가면. 그 전엔 광복을 샀거든. 그러면 “이거 한 필에 얼마유?” 이렇게 보면 그지가 와서 그러거든.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화가 나서 그 옆집에 가서 비싸게 사는 거여. 그러면 이 짹에서 환장을 하면서... 그러구 다녔던 양반이여.
- (왜 그렇게 다녔대요?) 돈이 있어 보이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 그 양반 그리고 다니는 거 우리가 다 봤지.
- 그냥 꾀죄죄하게 하고 다니고. 추레하게...
- 뭐 빨래를 해 입어? 그냥...
- 집안 일 해 주는 사람도 두지도 않고. 손수 밥 해 먹고...
- 옛날에 텔레비전 없을 때 흑백텔레비전 사 가지구, 애들이 그냥 보고 싶어 갈거 아니여? 그게 싫어 갖구 우리 집에 텔레비전 갖다 놓고 그 할아버지가 보러 오고 그랬어. 애들 왔다갔다 하는 거 싫다고. 자기 텔레비전을 우리 집에 갖다 놓은 거.

중복리 주민들의 이러한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그는 늘 초라한 행색을 하고 집에 다른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몹시 싫어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그의 초라한 행색에 대한 이유를 부자로 보이는 것이 위험해서였을 거라고 말하지만, 상점에서 거지로 볼 만큼 웃차림이 거지같고 꾀죄죄했다면 소박하고 검소함의 차원을 넘어서서 초라하고 불품없어 보이는 차림이라고 해야 한다. 또한 상당한 재산을 갖추었으면서도 집안 일 해 주는 사람을 두지 않고 손수 밥을 해 먹고, 혼자 살면서도 아이들 드나드는 것을 싫어했다면 보통 사람에 비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살던 그가 하루는 검은 고무신을 신고 나서면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며 서울을 간다고 하고는 그날 저녁 평택 역전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주머니를 뒤지니까 그 때 돈으로 360만원이 나오고, 집에 모시고 와서 보니까 속옷 주머니에서 또 18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일가인 김수권 어르신은 “일가 중에 사기꾼 같은 사람이 약을 먹여 죽이고 재산 다 차지하려고 하다가, 내가 증인 서고 해서 그렇게 하지 못 했지.”라고 진술한다. 함께 사는 가족이 없어서 집안에 있었을지도 모를 상당한 재산과 재산에 관한 문서들의 행방을 제대로 알지 못 한 채 그의 집과 짐은 정리되고 불 태워졌다고 한다.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환갑을 넘긴 나이라고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중복리에 왔다고 하는 그의 나이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결혼을 했다면 이혼을 한 상태였고, 중복리에 내려와서 전기를 끌어오는데 영향을 미쳤다든지 공도중학교 건립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는 등의 행적은 젊은 청년으로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로 70대 후반 이상 중복리 주민들이 김시춘을 아저씨뻘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환갑을 갓 넘기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치안성신문 2010년 2월 25일 기사에 ‘원중복리 마을의 부자로 김시춘(金時春)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1970년대 초반에 70대 초반의 나이로 별세했다고 한다.’라는 기사를 보면 주민들

이 기억하는 나이와 20여년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처럼 그의 행적은 여러모로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중복리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인심을 베풀었던 만석꾼 김시춘은 1980년대 초인 40여 년 전에 죽음을 맞았으며, 중복리에 전설 같은 인물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2) 물과 떨 수 없는 마을, 안성천 제방과 아산만 방조제

○ 물과 떨 수 없는 마을, 제방을 쌓다

안성천과 접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거주 지역이 대부분 안성천변에 있는 중복리는 늘 마을 앞을 흐르는 안성천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마을 앞을 흐르는 안성천 외에 마을을 둘러냇물이 흘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안성천과 냇물이 불어나게 되면 중복리는 마치 외떨어진 섬처럼 되어 오고가기가 매우 힘들었다.

- 일제시대 때 이 동네 사람들은 야학도 다니고 공도국민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었지. 나도 공도국민학교가 8Km인데 여기서 걸어댕겼지.
- 이 동네가 물로 빙 이렇게 싸고 둘았으니까. 이거 쌓은 지가 6·25 지나고 바로 쌓은 거니까. 그 전에는 물 건너서 비 많이 오면 미리 학교에서 보내주고. 못 갈까 봐.
- 그리고 마을이 빙 둘러 냇가리였어. 여기서 공도국민학교 다니려면 애들이 여름이면 수영을 해서 다녔어, 길이 없어서. 비가 많이 오면 꼼짝을 하지 못했던 동네거든. 애들이 하도 그렇게 다니니까 어른들이 도라무통으로 배를 만들어서 양쪽으로 잡아당기게끔 하기도 했었어. 그 전에는 가방 둘러메고 수영해서 다녔어, 쪼그마도록.
- 그 전에는 장마가 많이 쳐 가지고, 살기가 참 힘든 동네였어요. 여기 형님들 계시지만, 저쪽에 냇가까운 데 집이 있었는데 다 떠내려가고 그랬대요. 내가 본 건 아니지만.

위의 증언처럼 중복리는 비가 오면 섬처럼 갇힌 마을이 되기가 일쑤였으며, 장마가 지면 수해를 겪는 일이 다반사였다. 비가 와서 마을이 섬처럼 갇혔을 때도 불구하고 수영을 해서 학교를 갔던 아이들의 모습과 그 모습이 안타까워 마을 어른들이 드럼통을 배처럼 띄워서 아이들의 등하교를 도운 기억은, 당시에는 매우 고달픈 일상이었겠지만 지금은 대견하고 흐뭇했던 기억으로 되살아난다. 장마가 지거나 홍수가 나면 통행이 불편했을 뿐 아니라 집이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가는 등의 수해를 비켜갈 수도 없었다. 중복리 외에 안성천 주변 다른 마을도 중복리와 같은 수해를 입기는 마찬가지여서, 중복리와 같이 안성천을 끼고 있는 평택의 원평동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원평동은 해방 이듬해(1946) 큰 수해를 겪었다. 일명 병술년 물난리다. 본래 원평동은 안성천과 가까워 수해에 취약한 도시구조를 갖고 있었다. 일제는 수해 방지를 위해 도심 주위에 직사각형 형태의 제방을 축조했다. 하지만 1946년 6월 20일부터 26일 사이에 무려 426mm나 내린 집중호우에는 당할 수가 없었다. 평택지역에서는 유천동·군문동·원평동(당시 평택동) 등 안성천 주

변마을이 침수되고 11명이 사망했으며 735ha의 경작지가 유실됐다. 또 교량 26개, 오산-평택 사이의 도로 및 철로도 유실돼 교통이 마비됐다. 각종 관공서와 상가, 시장이 밀집됐던 원평동은 피해가 상당히 컸다. 당시 수해를 경험한 상인들은 물이 지붕 위까지 잡기고 상점에 보관 중인 상품들이 모두 못쓰게 돼 손해가 많았다고 한다.⁵⁾

평택 원평동의 사례이긴 하지만, 안성천에 접해 있는 안성과 평택의 마을들은 장마와 홍수에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것이다. 평택 원평동의 경우에는 물난리를 예방하기 위해 이미 도심 주위에 제방이 축조되어 있었으나, 1946년 큰 물난리에 상당부분이 붕괴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중복리에는 일제강점기에 제방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이전에는 제방이 없었고 6·25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제방이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다가 내가 1951년도에, 6·25 전쟁 그림책 하나 받고 초등학교 1학년을 다 마쳤는데, 그 후 초등학교 4학년 땐가 55년에 이 제방을 막은 거야. 안성천 제방을 막아 가지고 후배들이랑 겨울에 그 제방으로 학교를 간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1954년 아니면 1955년에 이 제방을 막은 거야.
- 제방은 정부에서 여기가 장마가 많이 지고 그러니까 그 전엔 이 둑이 얕으니까 침수가 많이 되니까 정부에서 해 줬어. 장마가 지면 중복리에 피해가 많았지. 안성천 제방은 웅교리 앞에서 평택 유천리까지(평택 유천동) 다 이어져 있는 거지.
- 제방 쌓을 땐 마을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정부에서 도자(불도저)가 와서 다 쌓았지. 한 2년 정도 걸렸어. 그 때 서울공대 나온 사람하고 한양 공대 나온 사람들이 설계해서 쌓았다고. 그거 쌓고 나서 큰 장마가 없는 거지. 제방 쌓고 나서도 물이 아직도 깨끗한 편이지.

현재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오정환 어르신이 제방 쌓은 것에 대해 말문을 열자,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중복리 마을 앞에 제방을 막은 시기를 정확하게 하려고 기억을 더 더듬었다. 제방을 정부가 주도해서 쌓았으며, 불도저 같은 기계가 들어와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제방을 쌓았다는 이야기들이 오가다가 재미있는 일화로 제방을 쌓은 시기가 정리되기도 하였다.

- 춘자가 몇 살이여? 춘자가 그때 불도저 기사하고 시집 간 거 아녀? 저 제방 막을 때.
- 그래, 그 조씨.
- 춘자가 20살인가 됐을 때 그런 거잖아.
-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 때가 겨울인데. 내가... 6학년일 때 거여, 6학년 때.
- 열추 60년은 됐나 봐요, 이 제방 막은 지가. 지금 나랑 동갑인 게 80살이지 뭐여.
- 그럼 60년은 됐네, 60년.
- 그 때 연애해서... 그러니까 다 안 거지. 여기 제방 막을 때 도자 기사가 들어왔으니까.
- 그 때 불도저가 별로 없었어. 그 때 외지 사람이랑 연애하기 쉽지 않았지. 결혼까지 했으니까. 아들 둘 낳고...

제방을 쌓기 위해 마을 바깥에서 건설 기술자들이 들어왔는데, 이 기술자들 중 불도저를 다루는 기사와 마을 처녀가 연애를 했다는 일화이다. 당시 외지 사람과 연애를 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에

서 마을 처녀와 불도저 기사가 연애를 했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롭다. 당시 불도저는 쉽게 볼 수 없었던 건설자동차였고, 그 불도저를 다루는 기사 역시 혼한 직업이 아니었을 것이다. 불도저와 불도저 기사는 해방과 전쟁 이후 건설의 역군 또는 신문물의 대명사로 보였으리라 여겨진다. 더구나 외지에서 들어온 낯선 사람과 연애를 한 마을 처녀는 어쩌면 사랑을 이루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눈초리를 겪어냈으리라. 이러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마을의 일화는 그러나 두 사람의 이혼이라는 결론으로 끝났지만, 마을 정비와 근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에피소드로 남아있다.

○ 안성천 제방 건설이 가져온 마을 농지의 손실

장마와 홍수 등으로 인한 수해를 줄이고 막기 위해 1950년대 중반에 중복리 앞 안성천 변에 제방이 세워지면서 단연코 제일의 효과는 수해가 줄어든 것이었다. 수해가 줄어든 것 외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 농지의 대부분이 손실됐다는 사실이다. 손실이라 함은 줄거나 잃는 것인데, 안성천 제방 건설 이후 중복리의 농지는 바로 그 손실 자체였다.

앞 장에서 ‘중복리에서 옷 입은 체 하지 말고 향정에서 장에 간 척 하지 말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안성천 범람으로 인한 잦은 수해에도 불구하고 중복리는 6·25 전까지만 해도 공도의 다른 마을에 비해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마을이었고, 부농도 꽤 많은 마을이었다.

- 그때 머슴이 세경으로 1년에 8가마, 9가마, 10가마 받을 땐데 이 동네에 머슴이 40명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동네가 부자지. 6·25 전후까지 그랬지. 세경받는 사람이 중복리에만 40명. 땅 크게 하는 사람이 많았지. 기찻길 옆, 충남, 소사리 다 중복리 사람들이 가진 땅이었으니까.
- 6·25 전까지는 40만평이 넘었는데, 여기가.
- 엄청... 그 전에 최고 부자 동네였어, 여기가. 저기 충남까지 땅이 있고 그랬는데. 이 조상님들이 이 화투를 좋아했어. 그래 가지구 화투를 좋아해 가지구 다 팔아먹고 그래서 다 없어진거야.
- 지금 중복리 경지면적이 15만평 밖에 안 돼나?
- 경지면적이 13만평이여, 우리 중복리 땅이.

마을에만 세경을 받는 머슴이 40여 명 있었고,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중복리 뿐 아니라 인근 다른 마을의 농지를 소유한 이들도 꽤 많아서 중복리 주민들이 소유한 경작지가 40만평이 넘었다고 할 정도로 예전 중복리의 풍요는 여러모로 확인된다. 현재 중복리의 경작지가 15만평 내외라고 하니 195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중복리 주민들의 토지 소유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안성천 제방 건설로 중복리 주민들이 소유한 농지가 손실된 이유는 무엇일까?

- 하천 부지는 지금은 안 해요. 정부에서 못 하게 하고 전부 풀만 자라는데. 안성천 안쪽에 벼농사 많이 짓고, 밭농사도 짓고 그랬죠.
- 그 전엔 제방 땅도 다 개인 땅이었거든.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땅을 돈 주고 산 거지.
- 제방 나가고 나서 돈을 찾으니깐, 땅이 줄으니까. 돈을 찾아먹기만 했지 땅을 메꾸질 않았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 제방 나가면서 땅이 엄청 줄으니까.

바로 제방을 지으면서 안성천 하천 부지를 국가가 사들인 것이 발단이 되었다. 안성천 하천 부지는 지금은 물이 흐르고 풀이 자라고 새가 노니는 평범한 하천 부지이지만, 제방을 짓기 전에는 중복리 주민들이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는 농지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농지로 사용했던 하천 부지는 사유지였었고, “제방 나가면서 땅이 엄청 줄으니까”라는 진술 등을 통해 그 농지의 면적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방을 지으면서 하천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면서 하천 부지는 더 이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곳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돈을 찾아먹기만 했지 땅을 메꾸질 않았어”라는 것은, 국가에 하천 부지를 팔고 받은 돈으로 다시 다른 땅을 사서 줄어든 땅을 보충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방을 쌓은 후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안성천 하천 부지

- 근데 6·25 끝나고 사람들이 술 많이 먹고 노름하고 그러다가 다 들어먹은겨. 일 안하고 맨날 머슴만 부려먹었으니까.

- (화투도 돈이 있어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 돈 가지고 땅을 사야 하는데 땅을 안 샀단 말이야. 그 돈으로 계속 화투를...

- 그 때 화투를 치면 도리지꾸 땅이라고 있어, 도리지꾸 땅. 투전, 투전. 마작이라고.

- (그걸 하면 마을 밖에서 해요? 나가서 해요?) 아, 여기서 하지. 그래도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다 따 갖구 가지. 여기 뿐만 아니라 시골 동네에는 그런 게 다 심했어. 도리 지꾸 땅, 투전, 마작, 섯다 그런 거.

- 그게 순식간에 그렇게 됐어. 마을 사람들 돈 잃고 그런 게.
- (그래도 여기 경작지는 많이 남아있는 거죠?) 6·25 지나고 남자들이 술 먹고 장에 가서 노름하고 그러느라고 다 팔아먹었다니까.
- 여기 땅 지금 외지 사람이 다 차지하는 거지, 여기 사람이 갖고 있는 건 얼마 안 돼. 그래서 도지 짓는 사람이 많지.

넉넉하게 소유한 땅으로 풍요를 누리던 중복리 주민들은 제방을 지으면서 국가에서 받은 하천 부지 대금으로 유흥에 빠지기 시작했고, 부지 대금 뿐 아니라 소유했던 다른 땅들까지 팔게 되었고 심지어 중복리 땅까지 잃게 되었다. 현재도 중복리 땅의 상당부분은 외지인 소유이고 중복리 주민들은 그 외지인의 땅에 도지(賭地, 賭租)를 부치는 셈이라고 한다. 면담에 응한 어르신들은 당신들의 윗세대에서 이루어진 실수와 잘못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못내 안타까워하였다.

○ 아산만 방조제 건설

중복리는 안성천 주변 다른 마을과 같이 만조(滿潮) 때가 되면 아산만을 통해 바닷물이 안성천 까지 밀려 들어왔다. 안성천에 바닷물이 들어왔던 시기의 경험과 기억들이 다음과 같이 남아있다.

- 여기가 쌀이 좋으니까 배로다 서울로 실어가고. (여기 배 묶어놨던 자국이나 자리가 있어요?) 우린 잘 모르지, 배가 여기까지 들어온 것만 알지.
- 안성천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거지. 아산만 막고서 안 들어온 거야.
- (지금 안성천 바다에 내려가 보면 조개 껍데기 엄청 많이 있잖아요?) 조개도 있고 참게도 여기 안성천에 굉장히 많았어.
- 뱀장어 그걸 엄청 엄청 잡아서.
- 일 할 게 없을 때 그걸 일본으로 수출했지. 6·25 이후에 그걸로. 바닷물 민물 왔다 갔다 하니까 새끼를 많이 치는 거야, 뱀장어가.
- 아산만 막으면서 없어진 거야.
- 아산만 막기 전까진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어.

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안성천에는 아산만을 통해 바닷물이 들어와서 배도 왕래를 했고, 조개와 참게·뱀장어 등이 무척 많았었다. 조개와 게는 그 종이 다양해 바닷물에 사는 종류와 민물에 사는 종류가 각각 있지만, 참게는 황해로 흐르는 크고 작은 하천 유역에 서식하며 특히 바다에 가까운 민물에서 산다. 민물장어로 불리는 뱀장어는 장어류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와 민물을 오가며 생활하는데, 중복리 주민들은 6·25 이후 안성천에 사는 뱀장어를 잡아서 소득에 일정한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이 아산만을 막으면서 홍수 피해는 줄었지만 그와 함께 오랜 추억도 줄었음은 세월의 당연한 이치라고 해야겠다.

아산만 방조제⁶⁾ 1974년에 아산만으로 흘러 드는 안성천(安城川) 하구에 축조된 방조제로 충남 아산과 경기도 평택을 연결하는 방조제이다. 아산만 방조제는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었지만, 이후 바다와 호수를 동시에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어 아산만 일대가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기도 하였다. 안성천 하구를 막아 만든 아산만방조제와 1979년 삽교천 하구에 건설한 삽교천 방조제를 비롯해 남양·대호 방조제 등을 건설하여 이 지역은 간척사업의 표본장이 되었다. 방조제의 건설로 강 연안의 평야지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함은 물론 해수의 역류로 강을 따라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히는 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간척과 개간에 의한 농경지를 확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방조제의 건설로 평택과 아산 등지에는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농경지 확장 등의 큰 변화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내륙에 자리잡은 중복리에는 그만큼의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다. 하지만 안성천에서 바다 생물이 사라진 것과 홍수와 만조가 겹칠 때 일어나는 큰 수해가 줄어든 것은 아산만 건설로 비롯된 중복리의 분명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사이를 막은 아산만 방조제
도로 (다음백과)



3) 농지정리와 국회의사당 농성

중복리의 농경지 정리는 197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중복리의 농경지 정리는 건천리, 진사리를 포함하는 일명 건천지구의 농경지 정리와 함께 이루어졌다. 다음의 지도는 위에서부터 각각 1971년, 1974년, 1983년, 2019년의 안성 행정구역을 중복리 중심으로 확대한 것이다. 1971년과 1974년 지도에서 중복리 중심으로 행정구역 상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74년 초에도 농경지 정리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1983년 지도를 보면 이전에는 곡선으로 이루어졌던 마을 경계가 조금 더 반듯한 선으로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경지 정리로 인해 행정구역에도 일정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지도를 보면 농경지가 직선으로 정리되어 있고, 중복리·진사리·건천리 등 농경지가 많은 마을의 경계는 직선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71년 행정구역 지도,
부분 확대(안성시청)



1974년 행정구역 지도,
부분 확대(안성시청)



1983년 행정구역 지도,
부분 확대(안성시청)



2019년 행정구역 지도,
부분 확대(안성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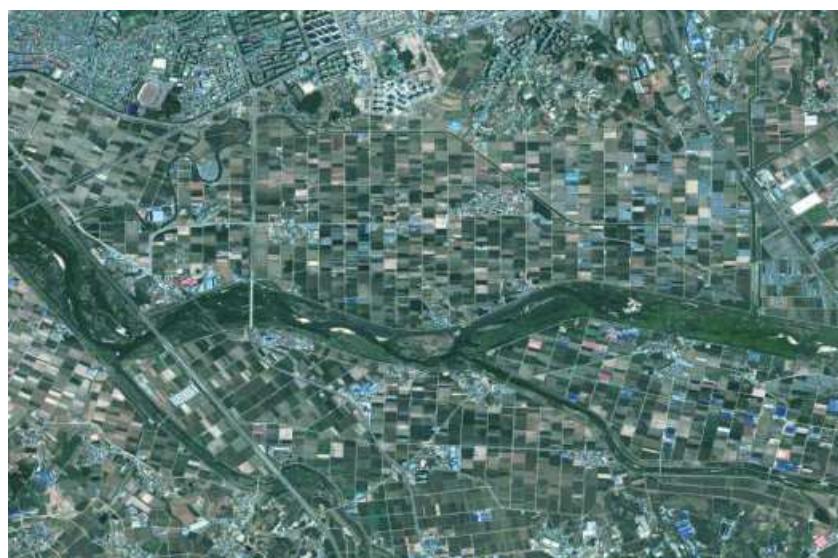


현재 공도읍의 농경지 기준 마을 지도를 보면 그야말로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정리된 것이 확인된다. 중복리는 물론 진사리·불당리·건천리 그리고 안성천 건너 천안 신가리·안궁리·양령리 등의 농경지가 모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다.

2019년 현재 중복리 일대
사진 (국토지리정보원)



2019년 현재 중복리 일대
사진 (국토지리정보원)



현재 이와 같이 농경지가 정리되었는데, 1972년 농경지 정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중복리는 물론 공도읍 농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가서 농성을 벌인 것이 큰 사건으로 남아있다. 50여년 전에 농민들이 국회의사당에 가서 농성을 벌이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어서 신문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진술과 당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한다.

○ 갑자기 오른 감보율

농경지 정리를 하게 되면 원래 자신이 소유의 땅에서 일부를 공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감보(減步)⁷⁾라고 하고 그 비율을 감보율(減步率)⁸⁾이라고 한다.

- 농지정리하기 전에 자기 가진 땅이 있잖아? 그거 (적어서) 내라 그래갖고, 거기에서 길도 내고 도랑도 내고 그거 빼고 받으면 좀 줄여서 받는 거지.
- (만약에 천 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길 내고 도랑 내고 그러면 얼마나 빠져요?) 그럼 960평 정도 받는 거야. 길 내고 뭐 내고 3~40평 정도 빠지는 거지.

이 감보율이 문제가 되어서 공도읍 농민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가서 농성을 벌이게 된 것이다. 당시 안성천의 하천 부지는 모두 국유지였기 때문에, 도로를 내고 공원을 만드는 등 공공용지를 국유지인 안성천의 하천 부지로 충당하게 되면 농민들 소유의 토지는 그만큼 공출을 덜 할 수 있게 된다.

- 그걸 농어촌 공사에서 했는데, 토지를 빼지 말고, 국유지를 빼지 말고 국유지 다 하고, 모자라면 우리 땅을 줄여야 되는데 그 때 그게 아니었어. 여기는 하천 부지가 엄청나게, 여기 넷가가 다 국유지였는데, 국유지는 다 빼고 우리 땅을 줄여가지고 감보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데모를 갔었어, 국회의사당에.
- 그 때 계엄령 선포 내릴 적이여.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때 우리가 30대 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 밖에 안 됐는데, 호락한 사람들이 들고 올라갔다가 대번 붙잡혔지, 거기서. 한 두어발짝 가다가 붙잡혀 가지고. 우리가 한 50명 올라갔나? 여기 건천지구 다. 건천리, 중복리, 진사리 다 해서 한 50명 올라갔어. 거기서 기자들, 경찰들 다 빼 둘러쌌는데 누가 누군지도...
- 남대문경찰서에 다 불들려갔지. 가서 조사 받고 서상인 국회의원, 그 때 안성 국회의원이었어. 그 자택에 가 갖고 하고. 데모는 남대문경찰서 끌려갔지. 그게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었어. 그 때 건천리, 중복리, 진사리 다 같이 농지정리를 했으니까 다 같이 올라갔지.

이와 같이 당시 농민들의 판단에는 국유지인 안성천 하천 부지를 제외하고 농민들의 토지에서 감보를 해서 공공용지를 모두 충당하려고 해서 애초에 약속했던 것보다 감보율이 훨씬 올라가게 된 것이다.

○ 농지를 찾기 위한 농민들의 농성

당시 안성 건천지구 농민들의 농성에 관한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다.

<신문기사: 1972년 7월 26일 경향신문 7면>

- 국회 앞서 농성, 잊은 농지 찾아달라, 안성 건천 농민 60명

26일 낮 12시 반 쯤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건천지구 6개 부락 농민 60여명이 국회의사당 앞에 몰려와 「농지정리로 잊어버린 농토를 되찾아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20분간 농성했다.

열차편으로 상경한 이들 농민들은 부락농경지 정리 사업환지위원 서광태(徐光泰)씨(60) 등 12명이 정리 후 줄어드는 토지비율이 1.8%인데 6.7%라고 속여 남은 5만 2천여 평을 나누어 먹었다고 주장했다. 농성을 벌인 농민들은 출동한 기동경찰에 의해 모두 해산했다.



- ▲ 1972년 7월 26일 동아일보 7면 기사
▶ 1972년 7월 26일 동아일보 7면 기사, 확대



<신문기사: 972년 7월 26일 동아일보 7면>

- 국회 앞서 시위, 경지정리과정서 농지 뺏겼다

안성군민 60여명, 26일 낮 12시 반경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진사리 진촌부락 오동환(吳東煥)씨(40) 등 인근 6개 부락 농민 60여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경지정리에 불만을 품고 「환지도둑 찾아내어 농지 찾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20여 분간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열차편으로 이날 오전 상경했다는 이들은 작년 11월 기호토지개량조합(조합장 金在慶)이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진사리 일대 6개 부락의 440정보의 농지를 새마을사업의 일부로 지난 4월말까지 경지정리 했으나 조합측이 당초 약속한 감보율 1.8%보다 훨씬 많은 6.7%를 적용, 농민들의 땅 6만 3천여 평을 잃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농지정리지역 안에 있는 국유지 6만여 평은 농민들에 무상양도하게 돼 있는 데도 인근 부락에서 뽑힌 환지위원장 오상근(吳常根)씨(50)등 환지위원 12명이 자기들 소유로 했다고 주장, 초과 감보율 적용에서 잃은 6만 3천여 평과 국유지 6만여 평 등 12만 3천여 평을 농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당국에 호소했다.



▲ 1972년 7월 26일 동아일보 7면 기사

▶ 1972년 7월 26일 동아일보 7면 기사, 확대

신문기사에 의하면 당시 상황이 좀 더 정확하게 파악된다. 농지 정리를 하면서 하천부지를 포함한 국유지 6만평을 농민들을 위해 사용 또는 적용하지 않았고, 농민들에게 애초의 약속보다 감보율을 훨씬 높게 올려 받아 농민들이 예상 외의 토지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기억과 진술대로 국유지에 대한 처리가 감보율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 감보율 문제 해결 후

신문기사에는 농성을 벌인 농민들이 경찰에 의해 해산한 것으로 나오지만, 주민들은 남대문경찰서에 끌려갔다고 증언하고 있다. 농성을 벌인 일부가 경찰서에 연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서상인 의원이 농민들의 고충을 들어주어 감보율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한다.

- (그래서 잘 됐어요?) 잘 됐지. 국유지 다 반영해서 감보를 해 줬어.

- 그 때 서의원이 힘을 많이 써 줬어.

당시 농지 정리를 하면서 안성천 앞의 도로를 냈는데, 현재 중복리를 거쳐가는 모든 버스와 자동차들이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약 50여 년 전인 1972~73년에 작은 마을인 중복리에 폭 8m 도로를 냈는데 당시에는 주민들의 반발과 의구심이 많았다고 한다.

- 여기 도로가 8m 아녀? 8m 도로를 뺀 거야. 그래 가지구 그 때 노인네들이 그랬어. 여기 무슨 차가 다니고 그러냐고, 무슨 도로를 저렇게 8m씩 하냐고.

- 맞어. 무슨 농로길에 8m 길을. 농지 빼지니까 짓지 말라고 막 그랬어, 그 때.

- 다 미친놈이라 그랬어. 근데 지금은 저것도 모자라. 그러니까 박정희대통령이 10년을, 20년을 앞을 보고 정치한 사람이여. 그 양반 땜에 먹고 사는 거여. 우리 시골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농성으로 국유지도 찾고, 갑자기 올라간 감보울도 낮추어 농지 정리를 하게 된 중복리 인근 마을 주민들은 폭 넓은 도로를 지으면서 감보울이 또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50여년이 지난 현재에는 그 때 지은 도로가 아니었으면 빈번하게 다니는 버스와 자동차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겠냐는 안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 현재 이 도로는 중복리에서 안성천 주변 마을들을 들고 나는 것 뿐 아니라 주요 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 평택을 오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중복리 앞 안성천 제방로
(카카오맵)



4) 마을의 중심, 마을회관의 건립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있고, 근래에는 하나의 행정동에 묶인 여러 개의 법정동에 각각의 마을회관이 지어지기도 한다. 중복리에는 두 개의 마을회관이 있는데 하나는 원중복 마을회관이고 다른 하나는 향정 마을회관이다. 이 중 현재 원중복 마을회관은 마을에서 두 번째로 건립된 것이다.

○ 1978년에 2층짜리 마을회관을 짓다

처음 지은 마을회관은 1978년에 지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마을회관은 2003년에 지었다. 1978년에 지은 마을회관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곳에 마을 이장을 했던 김수권 어르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여기에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얹혀있다.

- 여기 처음에 마을회관 자리잡을 때 터가 좋았지. 중앙대학교 부설 중고등학교 교장이 여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퇴직했지, 이유영씨라고. 이 옆에

큰 집이 그 양반이 공도 면장을 했고. 옛날 어른들이 풍수지리를 보더라고. 집터도 좋아지고, 산 소 자리고 좋아야 하고 그게 다 풍수지리 보는 거거든.

- 터가 좋아서 여기로 이사왔는데, 만평을 다 들어먹었는데도 이리 와서 다 풀리더라고.

위의 증언들은 예전의 마을회관 터가 풍수지리적으로 좋다는 믿음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다. 마을회관을 짓기 전에 그 터에서 고등학교 교장, 공도 면장 등과 같은 공직자들이 태어나서 좋은 자리로 여겨져 마을회관을 짓게 되었다. 2003년에 다른 자리에 새로운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사용하지 않게 된 예전 마을회관으로 이사를 해서 살아보니 ‘만평을 다 들어먹었는데도’ 어려운 문제가 다 풀렸다는 것이다. 이 증언들은 모두 현재 거주자인 김수권 어르신이 했던 내용들이라 주관적인 의견이 강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 마을회관 지을 자리를 잡을 때 마땅한 자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고, 그렇게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자리에 대한 믿음을 김수권 어르신이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인다. 김수권 어르신은 예전 마을회관을 주택으로 사용해 살면서 어려운 집안 형편도 잘 풀렸고 자손들도 모두 잘 성장해 주었다고 여기고 있다.

마을회관을 처음 지었을 때 상황 중 흥미로운 사실들도 들을 수 있었다.

- 그 전에 조그맣게 마을회관이 가정집마냥 있었는데, 부락에서 땅은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 이 부역도 안 하고 맡겨갖고 지은 거에요. 짓고 나니까 민물 모래하고 바다 모래하고 차이가 나더라고.

- 이 집이 안성에서 제일 처음 2층으로 생긴 마을회관이지. 1978년도. 그 때 내가 마을 이장을 했지. 동네 돈이 좀 있었고,

- 2층으로 지은 건, 대지가 좁으니까. 여기가 101평이니까. 작으니까 아래위로 지었지. 1층엔 가게 있고 2층에 회의실 있고. 아래층엔 젊은 사람들 놀고, 윗층에 나이든 사람들 놀고. 그 땐 남자여자 구분하지 않았고... 그 때 여자들은 잘 안 나왔으니까.

정식으로 마을회관을 짓기 전에는 가정집 같이 작은 공간을 마을회관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8년 당시 마을회관을 지을 때 마을에서 땅을 제공하고 외부에 맡겨서 지었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이 부역도 안 하고’, ‘동네에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즉 마을에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준비되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전문적인 건설업에 전적으로 회관 건설을 맡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 중반 안성천 제방을 지으면서 주민들이 소유한 상당부분의 토지를 상실했음에도 마을에는 마을회관을 건립할 만큼의 경제력이 유지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 옛 마을회관의 특징

당시 중복리 마을회관이 안성에서 2층으로 지은 첫 번째 마을회관이라고 할 만큼 2층짜리 마을회관은 흔하지 않았는데, 마을회관을 2층으로 지은 이유는 단순히 대지가 좁았기 때문이었다. 2층으로 지은 마을회관에서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바로 1층에 마을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게가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개인이 마을회관 1층 한 쪽에 세를 얻어서 생필품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그 세는 마을 공동운영비로 사용했다. 중복리는 안성 시내에서 뿐만 아니라 공도읍 내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안성의 외곽인데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마을에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편이었고, 현재도 마을에 가게나 식당과 같은 상점이 전혀 없다.

- 가게는 생활필수품 파는 가게. 그건 개인이 마을에서 세를 얻어서 한 거지. 그 월세는 마을 비용으로 들어가고, 자기 장사하는 거고 그 월세는 마을 수입으로.
- 원래 여기 마을회관에 가게가 있었는데, 이제 가게를 안 해요. 담배도 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가게를 해야 팔 게 없어. 여기 옆에 창고같이 문 닫은 데 여기가 점방이었는데 지금은 안 하지.

예전 마을회관에서 1층 한 쪽에 ‘점방(店房)’같은 작은 가게가 운영되어 생필품을 사려는 주민들이 드나들면서 그 옆에는 청장년 주민들이 모이고, 2층에는 중노년 주민들이 모이는 형태의 마을 회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민들이 점방으로 드나들고 마을 남성 대부분이 모이던 마을회관에서 서로의 안부는 물론 마을 대소사가 교류되고 논의되었던 마을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충분히 해 냈으리라 여겨진다.

안성에서 첫 번째로 지은 2층 마을회관이라는 점과 마을회관 한 편에 작은 가게가 운영되었다는 점 외에 옛 마을회관의 특징은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안성천 민물 모래를 지어서 무척 튼튼하다는 점이다.

- 이 건물은 짓고 나서 한 번도 고치지 않았어. 안성천 모래로 건물을 지었으니까 튼튼하지. 바다 모래로 지으면 부식이 되는데, 이거는 금 하나 안 갔잖아. 여기 안성천 모래가 좋으니까. 평택 안정리 미군부대에서 여기 모래를 다 파 간격, 미군부대 지을 때. 이명박 대통령 할 적에. 그래서 민물 모래하고 바다 모래하고 차이가, 민물 모래로 지으면 100년을 가도 괜찮은 거. 이게 부식이 하나도 안 됐거든, 오래됐어도.
- 건물을 깨 보면 멀쩡해, 부식이 하나도 안 되고. 헐고 다시 지을 생각이었는데, 고쳐 갖고 사는 거지.
- 이거 팔 때만 해도 이거 오래 돼서 얼마 못 간다 그랬는데, 살아보니께 아무렇지도 않어.

1978년에 지은 2층짜리 마을회관에 2003년에 이주해서 현재까지 15년을 살고 있는 김수권 어르신에 의하면, 지은 지 40여년이 다 된 옛 마을회관 건물이 의외로 튼튼하다고 강조한다. 25년 정도를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사면서 아예 회관을 헐고 주택으로 새로 지으려고 할 생각이었으나, 건물이 의외로 튼튼해서 조금씩 고쳐가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한다. 부식되거나 금이 간 곳이 한 군데 없을 정도로 40년 된 건물이 건실한 이유는 바로 안성천의 민물 모래를 이용해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옛 마을회관이 마을주민들에게 추억어린 기념비적인 건물임에 틀림없지만, 마을회관을 지을 당시 이장을 역임했던 김수권 어르신은 각별한 자부심과 애정을 갖고 있음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78년에 지은 원종복 마을
회관 (2019년 현재)



○ 2003년 새 마을회관을 짓다

현재 중복리 마을회관은 2003년에 새로 지은 것이다. 이 마을회관은 옛 마을회관을 판 돈으로 새 마을회관 부지를 마련해서 지을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옛 마을회관 건물은 아직도 튼튼하지만, 1978년에 지을 당시에 2층으로 지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대지가 좁았다. 25년을 사용하기도 했고, 다소 좁은 마을회관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계기가 있었다.

- 땅만 있으면 거저 지어준다고 해서 마을회관을 다시 새로 지어보자 그래서.
- 그러니까 이걸 팔 수 있었던 거지. 이거 팔아서 땅을 사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건물을 올렸지. 지금 마을회관은 2003년도에 지은 거야.

2000년대 초반에 마을회관을 지을 부지만 있으면 정부에서 마을회관을 지어 준다고 하자, 중복리에서는 새 마을회관을 지어보자는 의견을 공론화해서 현재 사용하는 마을회관을 짓게 된 것이다. 옛 마을회관을 개인에게 팔고 그 돈으로 마을회관을 새로 지을 부지를 마련했고, 부지가 마련되자 정부에서 마을회관 건물을 짓게 되었다.⁹⁾

현재 마을회관은 겉모습도 깔끔하지만, 회관 안에는 남자 모임방과 여자 모임방이 있고, 방 앞쪽 거실과 같은 공간에 냉장고, 에어컨, 러닝머신을 포함한 각종 운동기구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데 많은 애를 쓴 현 이장 오정환 어르신은 주민들 모임에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춘 마을회관을 마을 자랑거리 내지 자부심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2003년에 지은 원종복 마을
회관 (2019년 현재)



3. 중복리 들여다보기: 마을의 전통과 변화

1) 논농사가 지속되는 마을

○ 논농사의 전통

중복리는 주로 논농사를 짓는 마을이다. 예전에 중복리에서 농사짓는 방법을 추억 삼아 어르신들께 여쭈었다. 다른 마을과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이제는 영농화되어 볼 수 없는 농사 장면을 여러 어르신들의 기억으로 확인하고 환기하고자 하였다.

- (여기 농사는 어떻게 지으셨어요? 모내기는 언제 해요?)
모내기? 모내기 6월 달에 하지.
- 옛날에는 다 6월에 모내기 했지.
- 옛날에는 6월 8일 망종 때가 모심기 제일 좋은 때라고 했지. 근데 지금은 안 그러지.
- (모내기 6월에 하고, 김매기는 언제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하는 건 아시, 이듬 그리고 훔치기.
- 매는 건 호미로 매는 거여. 아시랑 이듬은 호미로 매는 거. 훔치는 건 손으로 훔치는 거.
- 아시, 이듬, 세벌. 세벌은 훔치는 거.

젊었을 때 주로 농사를 지었던 여러 어르신들에게도 이제 손으로 농사짓는 것은 추억처럼 남아서, 한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를 보완하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로 이끌어 가기도 하였다.

중복리에서 예전에 모내기는 주로 6월에 했다고 한다. 한 어르신은 특히 6월 8일 망종 때가 모심기 제일 좋은 때라고 하며, 6월에 모내기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실제 망종(芒種)은 벼·보리 등 수염이 있는 까끄라기 곡식의 종자를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라는 뜻이지만 예전에는 모내기와 보리베기에 알맞은 때였다고 한다.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벗모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이요라는 속담이 있듯이 망종 전에 보리를 모두 베고 논에 벼도 심어야 한다고 했다.¹⁰⁾ 보리농사가 많은 남쪽 일수록 이러한 상황은 더 심했지만, 중복리의 경우 보리농사로 많이 바쁘진 않았었던 듯 한다.

모내기를 하고 나서 김매기는 세 번 하는데 이를 아시, 이듬, 세벌 혹은 훔치기라고 했다. 첫 번째 김매기인 아시와 두 번째 김매기인 이듬은 호미를 이용해서 하고, 세 번째 김매기인 세벌 혹은 훔치기는 손으로 논바닥을 훔치듯이 잡풀을 걷어내는 작업을 말한다. 김매기를 세 번 하는 것 그리고 아시와 이듬은 호미를 사용하고 훔치는 것은 호미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작업 방식 등은 경기 남부 여느 지역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김 매는 건 혼자 안 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잖아요?) 품앗이, 품앗이.
- 내가 만약에 논을 3,000평 짓는다고 하면 그럼 3,000평에 대한 일꾼을 얻지, 품앗이로다.
- 조금 짓는 사람은 그냥 품앗이로 하고, 식구들 모아서 하기도 하고.
- (동네 분들끼리 품앗이를 하는 거죠? 어떤 마을은 품앗이를 하는데, 왜 농기 들고 악기 치고 다니면서...) 그건 대농들. 농사를 많이 짓잖아. 그럼 품을 얹어서 악기 쳐 가며 놀아가면서.

다음은 집중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김매기에 노동력을 어떻게 동원했느냐에 대한 내용이다. 김매기를 할 때 일꾼을 얹어서 한다는 진술이 먼저 나왔다. 김매기를 할 논의 규모에 따라 그것을 ‘품앗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일손을 얹을 만큼 논의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식구들을 모아서 김매기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다른 지역 조사 사례를 보면, 어르신들의 진술에 따라 공동노동작업인 두레의 형태를 ‘품앗이’라고 하기도 하고 ‘농악’이라고 하기도 해서, 혹시 김매기를 할 때 공동노동작업의 형태가 없었는지 다시 질문을 드려보았다. 질문에 바로 ‘그건 대농들. 농사를 많이 짓잖아. 그럼 품을 얹어서 악기 쳐 가며 놀아가면서...’라는 대답이 나왔다. ‘두레’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대농들이 품을 얹어서 악기 쳐 가며’라는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두레라고 하는 공동노동작업이 중복리에서도 이루어졌음을 들을 수 있었다.

○ 두레의 전통

중복리에서 김매기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난다. 농사짓는 규모가 작을 때는 다른 사람의 품을 얹어서 하거나 식구들이 모여서 김매기를 진행하지만, 농사짓는 규모가 만 평이 넘어서 대농이라고 불리는 집에서는 ‘농악’을 했다고 한다.

- 그건 대농들. 농사를 많이 짓잖아. 그럼 품을 얹어서 악기 쳐 가며 놀아가면서...
- (중복리는 그런 거 없었어요?) 했었지. 농사 만 평씩 짓는 사람들.

- (그럼 일꾼이 몇 명이 모여요?)

한 열 대명씩 모이지. 15명, 20명 씩 모이지.

- (그걸 두레라 그랬어요?)

농악, 농악이라 그랬어. 그냥 북 멱이고.. 가만 내가 북 가져와서 한 번 멱여보까? 허허허.

- (그럼 사람이 모이면 일단 농기를 세워요?)

일단 기는 세우고, 두레 치고 다니고 이동할 때는 그거 쓰고. 김 맬 때는 한 사람이 북을 메기고.

- (그 사람은 일을 안 하잖아요?)

안 하지. 서서 북만 치고 노래하고.

- 꽉~ 가서 두레 놀고 농기 갖다 걸어 놓고 하면서. 김시춘씨 그 양반 논 매고 그럴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어.

대농인 경우에 사람을 불러 모아서 김매기를 했는데, 그 때 일꾼이 보통 15명에서 20여명이 모이고, 깃발을 세우고 악기를 쳤다고 한다. 그렇게 사람을 모아서 김매기를 하고 악기를 쳤던 것을 ‘농악’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다른 어르신이 ‘두레’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중복리에서의 이러한 노동 조직을 ‘두레’라고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중복리에서 두레는 일단 일꾼이 15명에서 20여명 모이면, 깃발(당연히 농기라 추측된다)을 세우고, 김매기 할 장소에 도착해서 깃발을 세워놓고 김매기를 시작한다. 김매기를 하게 되면 소리를 메길 줄 아는 사람이 북을 치며 소리를 메기고 김을 다 매면 농기를 뽑아들고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김매기를 할 때 소리꾼이 북을 치며 선소리를 메기는 것 뿐 아니라, ‘그럼 품을 얻어서 악기 쳐 가며 놀아가면서’라는 진술 내용으로 보아 이른바 ‘농악’이 놀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악기 쳐 가며 놀아가면서’는 한 작업장에서 김매기를 하다가 잠시 쉬거나, 한 작업장의 김매기를 모두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벌여졌을 것이다. 논두렁에서 나와 손발에 잔뜩 묻은 흙을 씻어내고 몇 가지 안 되는 악기를 집어 들고 한바탕 농악을 치고 허튼 춤을 추었으리라. 그리고 벗어놓았던 신발과 우장 등을 챙기고 농기를 다시 뽑아 들어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김시춘씨 그 양반 논 매고 그럴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어’라는 내용을 통해 김시춘씨가 중복리의 땅을 적지 않게 소유하고 있었으며, 주로 마을의 일꾼을 얻어 논농사를 운영했다는 것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김시춘씨의 사망 시기가 빠르면 1970년대 초, 늦으면 1980년대 초로 추정되므로 중복리에서의 두레는 197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활발하게 활동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겠다. 다음은 어르신들이 기억하는 두레패들의 면모이다.

- 이광현씨가 상쇠고. 권돌쇠라 그랬어, 권영만씨가 부쇠하고. 이광현씨가 하여튼 다 했어.

- 이광현씨가 소리는 안 했던 거 같은데.

- 그냥 팽과리 치고, 벼꾸 치고 두 개만 노는 거지, 뭐. 그냥 북 치면서는...

- 김성환이, 김성환 그 양반이 북 쳤던 거 같애, 소리도 하고. 뭐라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

- (방아로다 이런 소리 했어요? 에렐렐 상사디야 이런 소리 했어요?)

그런 소리 했던 거 같은데, 생각이 조금 나는 거 같은데. 지금 북 치면 할 수 있을 거 같기도 한데... 하하하. 김성환씨 그 양반이 했던 거 같아.

- (김성환씨는 형님뻘이세요? 아버님뻘이세요?)

아저씨뻘은 된 거 같은데. 94세 정도 됐었을 거야, 살았으면. 돌쇠는 형님뻘 되고, 이광현씨도 형님뻘 되고.

- 권돌쇠씨가 이제 89세인가? 그렇게 됐을 거야.

- 88세일 거야. 살아있어, 권돌쇠씨는. 근데 아들네로 가 있지.

이번에 면담에 응하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70대 중후반인데, ‘두레’ 또는 ‘농악’을 하지 않은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신들은 ‘우린 일 안 하고 숟가락 가지고 밥 얹어먹으러 다닐 때’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기억하는 ‘두레’나 ‘농악’은 형님 또는 아버지 세대에서 했던 것이라고 기억한다. 아저씨뻘 되는 김성환씨는 북을 치며 선소리를 메겼던 분으로 기억하지만, 어떤 소리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 한다. 상쇠를 했던 이광현, 부쇠를 했던 권영만(권돌쇠) 그리고 이광현씨가 면담에 응한 어르신들이 기억하는 두레패 인물들이다.

‘그냥 팽과리 치고, 벼꾸 치고 두 개만 노는 거지, 뭐’라는 내용에서 중복리 두레패의 면모는 대규모로 발달한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악기나 악사가 다양하게 갖추어진 것은 아니지만 팽과리 장단에 맞춰 벼꾸(법고)를 놀 수 있을 만큼의 장단과 일정한 기량이나 춤사위는 가능했을 것이다. ‘그냥 북 치면서는...’, ‘김성환 그 양반이 북 쳤던 거 같아. 소리도 하고.’라는 내용을 통해, 면담자들의 아저씨뻘 되고 당시 나이가 제일 많은 김성환씨가 김매기를 할 때 논바닥에서 북을 치며 소리를 하는 일명 ‘못방구 소리’를 했던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중복리에는 1970년대 전까지만 해도 대규모로 발달한 형태는 아니지만 노동력의 집합, 깃발(농기), 소리꾼, 악기 등의 요소를 갖춘 두레가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못방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진도들노래)



○ 영농화로 유지되는 논농사 중심의 마을

두레가 운영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중복리는 현재도 여전히 논농사 중심의 마을이다. 하지만 1970년대를 지나면서 경운기, 트랙터 등의 기계 등이 등장하자 더 이상 사람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필요치 않게 되는 영농화의 변화를 맞게 된다.

-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나무하러 다니고, 논두렁으로 천동산으로 나무하러 다니고 풀 베러 다니고.

- (마을에 소는 안 키웠어요?)

소 하나 키우면 부자였어. 부자집은 소 길렀지.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소가 있어야 농사 짓 걸랑. 집집이 있진 않았어도 마을에 소가 꽤 있었지.

- 그 전에는 소가 큰 농사 지어줬던 거여. 여기 다 소로다 한 거 아니야?

- 소로다 다 했지. 농사 좀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있지, 부잣집은.

- 그 뭐 경운기가 있어, 뭐가 있어?

면담자들은 어렸을 때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하진 않았지만, 집안일을 돋기 위해 논두렁이나 산으로 다니며 풀을 베고 나무를 하러 다녔던 기억들이 생생했다. 당시 나무는 난방이나 취사를 위해 필수적인 땔감이었을 테니, 어린 남자아이들이 지게를 메고 나무를 하러 다닌 것은 중복리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풀을 베는 것은 집안의 대표적인 가축인 소를 먹이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6·25 지나면서 경작지를 많이 잊긴 했지만 중복리에는 아직도 여전히 많은 경작지가 있다. 이 많은 경작지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축이 바로 소였는데, 중복리에는 적지 않은 소가 있었다고 한다. 경작지를 꽤 소유한 집에서는 소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며, 이 소가 큰 농사를 지어주었다고 말한다. 소가 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농사지을 땅을 갈고, 흙을 부수고 땅을 고르고 모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곡물이나 짐을 옮기는 데 소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소가 없으면 사람이 일일이 써래나 가래 또는 지게를 이용해서 땅을 고르거나 짐을 나르는 일들을 일일이 해야 하는데, 소가 있으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소가 해 주면서 대규모 농사도 경작이 가능했는데, 경운기가 보급되면서 농사는 훨씬 수월해졌다. 경운기는 우리 전통농업에서 소가 하던 갈기·흙부수기·땅고르기·운반 등과 같은 작업을 대부분 대체하게 된다.

- (여기 경운기는, 기계는 언제 들어왔어요?)

박대통령 새마을사업 할 때 그 때 들어왔지.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에 들어온 거 같아.

- 그 때는 새마을노래 틀어주고 일 하면 그냥 기운이 슬슬 났어. 그러니까 1970년대 초인 거 같아.

- 그 때가 1975년도, 1976년도. 그 전엔 소로다 일 했어.

우리나라에 경운기는 1960년대 초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중복리에는 1970년대 중반에 새마을운동과 함께 경운기가 보급되었다. 경운기가 보급된 이후 트랙터나 이앙기 등도 보급되면서

중복리의 농사는 더 이상 사람의 집중적인 노동력이나 소의 건실한 근력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 마을 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거의 다 농사를 지으신 거죠? 여기 경작지는 많이 남아있는 거죠?
- 6·25 전에는 많았었는데, 그 후에 다 팔아먹었지. 외지 사람이 다 차지하는 거지 여기 사람이 갖고 있는 건 얼마 안 돼. 그래서 도지 짓는 사람이 많지.
- 아니, 여기가 농사지으려는 후계자가 없어. 지금 아들을 낳으면 다 도시로 내보내려고 그러지, 농사지으려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여기 농사짓는 사람이 열 몇 명 정도 되지. 자기 땅도 있고 남의 땅도 있고.
- 그 사람들이 원중복 논을 다 지어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트랙터 하나가 하루에 논을 썰려면 하루에 만 평 이상을 써려요. 근데 원중복에 트랙터가 몇 대가 있어요. 여기 논이 13만평인데, 맘만 먹으면 그 논 하루에 다 써려요
- 모 심는 것도 이양기 한 대가 하루에 만 평, 9천, 8~9천 평 심어요. 이양기 갖고 그러면 모도 며칠이면 다 심어. 그러니까 사람은 적어도 그거 다 한다 그거지.

현재 중복리에는 경작지만 13만 평 정도이며 농사를 짓는 사람은 15명 내외라고 한다. 6·25 이전에 중복리 주민들이 중복리 외 타지의 토지까지 소유했었고 그 면적이 40만 평이 넘었으며, 농사를 짓는 마을 주민 외에 대농에서 일하는 머슴만 40여 명이 될 정도로 많은 경작지와 그에 비례한 노동력이 필요했었음을 앞에서 정리한 바 있다.

6·25 이후 중복리 주민들이 소유한 땅을 상당부분 상실하여 현재 중복리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작지는 13만 평 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이 13만 평을 15명 내외의 농민이 경작할 수 있는 것은, 경운기·트랙터·이양기 등의 농기계를 적지 않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복리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이용하면 벼농사를 지을 땅을 하루에 다 갈아 낼 수도 있고, 모내기도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농(營農)화로 중복리는 소수의 인원으로 넓은 땅을 여전히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은 보기 드문 순수한 농촌 마을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드넓은 중복리의 경작지



2) 정지사의 전통

○ 정지사의 유래

중복리에는 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마을 제사가 있다. ‘정지사’라고 부르는 이 마을 제사는 매년 정월 대보름 이른 아침에 안성천변에서 지낸다. 마을 주민들은 ‘정지사’라고 하지만 그 의미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 이 동네에 우물이 있었는데 흔적이 없어졌다. 아주 옛날에 6·25 전에 우물이 몇 개? 한 4군데 있었지. 안성천 물이 깨끗하니까 냇가 물을 많이 먹었지. 우물도 먹지만...
- 내가 68년도에 여기로 시집 왔는데 그 때 물지게로 떠다 먹었어. 안성천 물 떠다 먹느라고 옛날에 함석 같은 양철통 그거 물지게... 그리고 좀 있다가 펌프로 지하수 먹고.
- 여기 안성천 물 떠다가 먹고 그러다가 우리가 여기 이사 와서 그러니까 2003년 이후에 상수도 생긴 거지. 그 전에 펌프로 지하수 길러서 먹고, 팔당물을 먹은 지가 2003년 지나서지.

제보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마을에 우물이 적지 않게 있었지만 주민들 대다수는 안성천에서 물을 길어다 먹기가 훨씬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물 또는 안성천 물을 길어먹다가 지하수를 펌프로 옮겨 마시고, 2003년 이후에는 팔당물을 상수원으로 하는 수돗물을 마시게 되었다. 현재 수돗물을 마시고 있지만, 중복리 주민들에게는 예로부터 안성천이 우물의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보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조사자의 생각으로는 마을에서 오래도록 식수의 역할을 해 온 물이 바로 안성천의 물이고, 이 냇가 앞에서 지내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물 정(井)자를 써서 ‘井祭祀’라고 하는 것을 편의상 ‘정지사’라고 부르는 듯 하다.



예전 안성천변에서 지내는 정지사 모습 (『공도읍 발전사』)

- 정월 대보름에 마을 제사는 6·25 전부터 계속 지낸 거야. 냇가 물을 먹으니까 냇가 물을 위해서 지낸 거지. 정지사라고 불러.
- 말하자면 마을 편하라고 냇가를 위해서 지낸 거지. 물 보고 지내는 거지. 대보름날 새벽에, 아침 해 뜨기 전에.
- 그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지냈으니까 언제부터 지냈는지 몰라, 나도. 근데 현재까지 우리 부락에는 제사를 지내고 있어. 저기 제방 비석 있는 데서 냇가를 바라보고 지내지.
- 나도 그 제사를 언제부터 지냈는지는 모르지. 계속 지내왔으니 모르지.

- 그 전에도 지냈어. 일제강점기때도 지냈다고 봐야지. 일제 때 못 지냈단 소리는 못 들었으니까 지냈다고 봐야지.

위의 진술들을 살펴보면, 마을에 정지사는 언제부터 지내왔는지 알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부터 계속 지내왔으며, 매년 정월 대보름날 동트기 전 새벽에, 안성천변에서 지내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정지사’를 동제, 부락고사라고도 부르지만 이는 ‘정지사’를 설명하고자 하는 부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그러니까 여기 수호신이 뭐냐면 물, 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동네 아냐? 떠내려가고 별짓 다 했으니까. 그런 거 보호하사 이런 뜻에서 내를 쳐다보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 안성천.

- (제사 때 제일 크게 비는 건 물난리 나지 말라고?)

그게 첫째지, 물난리 나지 말라고. 그리고 옛날엔 홍역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 질병 예방도 해 주십사... 오곡백과 잘 익게 해 주시고, 우리 마을 안녕을 비는 것이 첫째지.



2010년 중복리 정지사 모습 (다음카페 '중복리')

위의 사진은 2010년에 정지사를 지냈을 때의 사진이다. 안성천변에 내려가 안성천을 향해 상을 차리고 절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 주민들의 말대로 ‘정지사’에서 기원의 대상이 되는 존재는 바로 안성천이다. 1950년대 중반에 제방을 제대로 쌓기 전까지 중복리는 장마와 홍수 때 안성천 범람으로 인해 수해를 꽤 많이 입은 마을이다. 1970년대 초에 아산만 방조제를 쌓고 나서도 큰 홍수에 몇 번 물난리를 겪기도 했었다. 이러한 물에 대한 경외심이 물을 기원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고 이로 말미암아 시작된 마을 제사가 현재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정지사의 준비와 내용

중복리에서 정지사를 준비하는 절차는 지금까지 조사된 다른 마을제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절차가 간소화 되거나 생략되는 추세 역시 일반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 제사 지내면, 몸이 깨끗해야 되고. 제사 지내는 사람을 당주라 그러는데, 마을에서 제일 어르신, 연세 많은 분이 지냈지. 지금은 마을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이 지내지.
- 그 전에는 당주가 몸 깨끗한 집에서 차렸는데, 지금은 동네에서 나이 많이 잡수고 몸 깨끗한 양반인 그냥 차리지. 흰 두루마기 입고. 제일 연세 많은 분 한 분만.
- 대보름날 제사 지내면 그 전에 길목에 줄을 걸었지. 원새끼라고... 들어오지 말하고, 당주 집 앞에.
- 옛날에는 집 앞에다가 금줄, 왜 얘기 낳고 거는 거 있잖아? 그거 걸어놓고 앞에 황토 깔아놓고, 날 잡아놓으면 두 내외 잠도 같이 안 잤대요. 같이 자면 부정 탄다고 따로 자고. 목욕재계 다 하고 정성을 들이고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 제관이라 그러나? 뭐를 봐 가지고, 노인네들이 봐 가지고 닿는 사람, 부정이 없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 사람을 임명을 하면, 목욕하고 마누라 옆에도 못 가게 따로 재우고 그랬던 거에요.

일반적으로 마을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앞두고 제관, 집사, 축관 등의 의례 담당자들을 선출한다. 중복리에도 이러한 형식이 모두 있었을 테고, 제사를 앞두고 일종의 금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중복리에서 의례를 담당하는 사람은 당주와 제관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나지만, 이 둘의 구분이나 역할은 명확하지 않다.¹¹⁾ 이 의례담당자들은 마을에서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선출’하고, 의례 담당자의 집 앞에 금줄을 걸고 황토를 깔아놓아 ‘신성함’을 부여하며, 부부간에 거리를 두고 목욕재계를 하여 ‘깨끗함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현재 중복리에서 정지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축소되었고, 어떤 기준에 의해 선출을 하거나 엄격한 금기를 제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을에서 나이가 제일 많거나 이장이나 노인회장 등 마을에서 중책을 맡은 사람이 정지사를 총괄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 확인된다. 의례가 축소되고 변화하였다고 하지만 예전의 선출 과정이나 부여했던 신성성, 제시되었던 금기가 마을에서 여전히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성격이 완전히 간과되거나 무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엄격하진 않지만 의례의 성격과 신성함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돼지대가리, 떡, 제수 중에 삼색과일, 북어대가리,, 거기 돈 많이 놔, 절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제사 지내고 동네 돈도 마련해 주고.
- 축문 이런 거 옛날엔 다 했겠지만 지금은 다 생략하고. 지금은 술 올리고 절 세 번 하고 그렇게 지내요. 그리고 잔 올릴 사람은 또 올리고, 마을에서 하고 싶은 사람은...
- 지금 써서 읽는 게 그거에요. 축문을 써서 읽어요, 내가. 그 축문은 내가 맡고 나서부터 읽은 거야.

유세차(維歲次)

단기 4345년(壬辰) 정월 열나흘 제주 000는 중복리 수호신님께 감히 아뢰옵나이다.
 금년 한 해에도 각종 질병을 퇴치하고 마을의 안녕을 빌며 무탈하여 주시길 기원 합니다.
 우리 마을에 거주하고 진출입하는 모든 이에게 만복을 내려 만사형통하고 재수대통하길 기원하며,
 천재지변의 화를 면하게 하고 백 가지 곡식의 알이 많이 달려 풍년이 되길 기원하며,
 변변하지 못하오나 감주 제수를 마련하여 우리 중복리 수호신님께 올리오니,
 불쌍히 여겨 흠향하시고 공평무사 순일 길이길이 오래 하도록 하여 주시옵길 고개 숙여 업드려 비옵니다.
 아뢰옵기 죄송하오나 우리 부락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께 수호신님의 은총이 있으시길 간곡히 비옵니다.

단기 4345년 정월 열나흘 제주 000 상향

위의 사진과 주민들의 설명을 살펴보면 정지사를 지낼 때 상차림은 떡, 과일, 데지대가리, 초, 향, 술 등으로 간단하다. 상을 차리면 안성천을 향해 술을 올리고 절을 세 번 하는 것으로 의례는 마치지만,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술을 올리고 절을 할 수 있다. ‘동네 돈 마련해 주고’라는 내용을 통해 정지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절을 하면서 정성으로 상에 올린 돈은 마을 공동 경비로 사용하게 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축문 이런 거 옛날엔 다 했겠지만, 지금은 술 올리고 절 세 번 하고 그렇게 지내요’에서처럼 예전에는 축문이 있었지만, 어느 때인가부터 축문없이 정지사를 지내왔다. 위의 축문은 2012년에 현 노인회장 오정환 어르신이 쓴 것이다. 위 축문에서는 제를 올리는 날이 정월 보름이 아니라 정월 열나흘로 되어 있다. 여러 제보자들이 정지사는 대보름 동이 트기 전에 지낸다고 했으나 축문에는 정월 열나흘날로 되어 있으니,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원래 중복리 정지사는 정월 열나흘 깊은 밤에 지내던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정월 대보름 이른 새벽에 지내게 되었을 가능성이다. 실제 이와 같이 편의상 시간을 변경하면서 날짜가 차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축문의 내용은 우리나라 일반적인 마을제의 축문 내용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며, 축문 없이 정지사를 지내는 것이 안타까웠던 오정환 어르신이 위와 같은 축문을 마련했고, 현재 중복리 정지사는 위의 축문을 사용해서 의례를 지내고 있다.

○ 정지사를 지내며 주민을 모아내고 풀어내다.

중복리의 정지사는 매년 보름날 아침에 지내지만, 정지사 외에 정초에 이른바 지신밟기가 행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약 30년 전까지만 해도 풍물패가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악기를 치고 소리를 하고 그 댓가로 쌀을 받는 광경을 기억하는 주민들이 꽤 있었다. 하지만 직접 악기를 치거나 지신밟기를 했었던 면담자는 없었고, 예전에 보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전부였다.

- 옛날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 봤는데 지금은 간소화돼서 다 없어졌지. 소리해 주고 쌀 받고 그런 걸 한 30년 전까지는 하고 그랬는데.
- 예전에는 풍물치고 같이 했는데, 나는 별로 취미가 없어 구경만 했는데...
- 옛날에 치는 사람 많았는데, 시간 있으면 놀고 그랬지만.

예전에 했던 지신밟기를 현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정지사를 지내는 정월 대보름날은 예전이나 현재나 중복리의 마을 잔칫날이나 다름없다. 기억에 따라 지신밟기를 정월 대보름에 했다는 진술이 있기도 하고, 정지사를 마치고 나서 마을회관에서 풍물을 치고 놀았다는 진술도 있다. 지신밟기와 정지사 후 마을회관에서 풍물을 치고 여흥을 즐기는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 회관에서 놀고 척사대회하고, 지신밟기하고 아침에 정지사 지내고 척사대회하고 회관에서 놀고...
- 보름날 마을회관에서 윗놀이도 하고, 옛날 노인네들은 가끔 치기도 했지만 지금은 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도 회관에 옛날 악기들이 있긴 해.
- 정지사는 지내는 데 간단하게 지내니까 30분 밖에 안 걸려. 음식 걸어서 마을회관에서 같이 먹고...
- 아침에 여기 와서 떡도 나눠 먹고 윗놀이도 하고, 보름날이면 신나면 노래도 한 번씩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현재도 정월 대보름에 정지사를 마치고 나서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정지사를 지내기 위해 마련한 떡과 과일들을 나누어 먹고, 척사대회를 하고 신나면 노래도 한다. 사진을 보면 정지사를 지낸 대보름날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모여 경품을 놓고 윗놀이를 즐기는 장면, 악기를 들고 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지만 경품 주변에 팽과리와 볶 같은 악기가 놓여 있는 것이 보인다.

정지사를 통해 안성천에 모여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평안 그리고 풍년을 기원하고, 이후에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놀이들이 벌어진다. 이로써 정지사는 마을 주민들의 결집의 장이자 해동의 장이 되기도 한다. 중복리의 정지사는 마을에 대대로 내려오는 소박한 기원행위 이자 겨울내내 얼어붙었던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마을회관으로 한 데 불러내어 풀어내는 해동과 화합의 자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중복리 정지사 이후 마을회관에서 윗놀이를 하는 모습 (다음카페 '중복리')

3) 평택 생활권에서 진사리로의 이동

중복리는 행정구역상 안성시 공도읍에 속해 있지만, 예전부터 평택 생활권이었다고 할 수 있다. 6·25 전부터 운영되던 방앗간과 1978년에 지은 마을회관 1층에 자리 잡았던 작은 가게를 제외하고 중복리에 다른 상점이나 식당이 없었다. 현재는 방앗간도, 마을회관에 자리했던 작은 가게도 문을 닫은 지 오래되어 그야말로 농지와 주택만 있는 마을이다.

이와 같이 마을에 편의시설이 없어서기이도 하지만, 안성 시내나 공도읍내와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고 평택과 바로 맞닿아 있는 마을이라, 중복리의 생활권은 예전부터 평택이었다.

- 시장은 평택시장, 평택에서 통복시장으로 가요.
- 통복시장 가려면 버스가 돌아가니까 한 40분 걸려요.
- 안성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멀고, 딴 데는 없으니까 안성은 잘 안 가고 평택으로 가요.
- 옛날부터, 원래부터 거기로 다닌 거에요. 여긴 평택이에요, 그냥.

지도상으로 보면 중복리에서 평택 통복시장과 공도읍은 거리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공도읍보다는 통복시장이 편리하기에, 중복리 주민들은 예전부터 평택으로 생활용품을 사러 다녔고, ‘여긴 평택이에요’라고 할 만큼 평택을 생활권으로 삼고 있다. 평택의 통복시장은 그 유래가 깊고 규모가 상당히 큰데, 평택 뿐 아니라 인접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다.

- 평택시 통복동 일원에 위치한 평택통복시장은 1953년부터 인근 지역과 가깝다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된 전통이 깊고 서민들의 애환이 있는 시장입니다.
- 총 면적이 8만 7천 289㎡로 시장 내 종사자 수만 1천 550여명에 이르는 요즘 보기 드문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형 시장입니다. 예로부터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교통망으로 인근 안정리, 송탄, 안중, 천안 등지까지도 쉽게 오갈 수 있어 지역의 농·수산물을 비롯 포목, 주단에 이르기까지 없는 게 없는 시장으로 통합니다. 또 1960~1970년대에는 주단골목이 활성화되면서 명절이 가까워지면 인근 지역에서 한복을 맞춰 입기 위해 오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 현재는 606개의 점포가 통복시장 상인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노점상까지 포함하면 800여개의 점포가 운영 중입니다. 시장의 현대화 설치비를 지원받아 아케이드설치를 완료했고, 공영주차장 및 대형마트에서 주로 쓰이는 쇼핑카트를 구비해 누구나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위 평택 통복시장에 대한 소개^[12]에서와 같이 통복시장은 1953년부터 형성되어 유래가 깊고, 교통이 편해 평택 뿐 아니라 인근의 넓은 지역을 상권으로 삼을 정도였다. 1960년대에는 주단골목이 활성화되었다고 하니, 중복리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전해지는 김시춘의 일화에서 ‘김시춘이 평택시

장에 가서 광목을 샀거든.'이라고 한 부분도 통복시장일 가능성이 크다.

중복리 주민들은 시장 뿐 아니라 병원도 평택시의 병원을 이용한다. 시장 이용의 편의성이 병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용이한 접근으로 인해 오랜 세월 평택의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해 왔던 중복리 주민들에게 근래에 들어서는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 병원도 다 평택으로 다니지. 마트도 평택으로 다니다가... 진사리에 마트가 세 개가 생겨갖고 버스랑 자가용이랑 타고 거기로 다녀요, 웬만한 건.
- 우림마트, 롯데마트, 소니마트? 진사리에 아파트가 생기고 마트도 생기고 그러면서 여기 중복리도 좀 많이 편해졌지.



진사리에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생활용품을 파는 마트가 생겼고, 중복리 주민들도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평택으로 나가기보다는 진사리의 상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진사리에는 20여 년 전부터 평택 길 건너를 중심으로 아파트가 생기면서 젊은 인구의 유입이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상점·병원·식당·학교·어린이집·학원·도서관 등의 편의시설과 교육시설이 들어섰다.

중복리에는 젊은 인구나 아동이 없으니 교육시설을 이용할 빈도는 낮지만, 상점·병원·식당 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평택에 비해 진사리가 상당히 가까워진 편이다. 지난 20여년 간 진사리의 도시적 변화가 중복리의 생활권에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이, 2020년에 안성IC 근처 진사리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가 중복리에 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적 여건 상 중복리의 생활권이 전통적으로 평택이었다고 하지만, 서서히 평택에서 진사리로 옮아갈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4. 중복리 내다보기: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마을

○ 예전의 풍요는 가고

중복리 주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 동네가 예전에는 잘 살았었다.’이다. 앞에서 중복리의 특징을 몇 가지 서술했지만, ‘그 전에는 이 동네가 부자로 잘 살았거든. 어디든지 이 동네만 바라보면 배가 부르다고 그랬으니까.’ 혹은 ‘6·25 전까지만 해도 잘 살었어. 근데 6·25 나면서부터 논도 줄고 다 짜부라 들은 거야.’라는 진술을 더 보탤 수 있다. 주민들이 이러한 내용의 진술을 거듭하는 것은 예전에 중복리는 다른 마을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중복리가 ‘짜부라 들은’것은 주민들이 소유했던 많은 땅을 6·25 이후 유홍으로 잊고 심지어 중복리 땅의 상당부분을 외지인들이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중복리 주민들의 안타까움은 중복리와 가까운 지역들이 도시화되는 변화를 띠게 되면서 더 커지고 있다.

- 평택 저쪽 벽산아파트 쪽은 땅을 쥐도 안 가져간 데에요. 그 뭐해? 산 같은 거, 야산 같은 걸.
- 어, 그랬어. 벽산아파트 거기가 공도면 공동묘지 있던 데야.
- 그런데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거 주워만 웠어도 지금 부자 되는 거지. 그렇게 변화가 될 줄을 누가 알은 거여?
- 여기 땅 한 평에 3천 원 하면, 지금 저 300만 원 짜리가 그 때는 30원도 안 했던 땅이야. 20원, 30원 했던 땅이야.
- 그 전엔 거기, 여기랑 땅 차이가 엄청 비교도 안 됐던 거여, 반대로. 근데 지금은 여기가 거기 꽁무니도 못 쫓아가.
- 거긴 지금 아파트 짓고 그러면서 엄청 비싸지지.

주민들의 이와 같은 진술은 공도읍과 가까운 평택시청 주변의 급속한 발달 그리고 중복리의 이웃마을인 진사리의 도시화를 두고 하는 말이다. 평택시청 중심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각종 편의 시설들이 생기고, 평택시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한 진사리에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중복리 주민들은 액면상 풍요로움의 큰 차이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와 같은 집단주거시설이 들어서야 주민 수가 늘고 그에 따라 교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생기고 그러면 땅 값이 올라가는 추세 때문이다.

‘거긴 여기랑 비교도 안 됐던 거여. 근데 지금은 여기가 거기 꽁무니도 못 쫓아가’라는 표현에서, 예전에 중복리가 지녔던 풍요와 자부심이 사라지고 이제는 도시화 된 지역의 땅값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중복리의 현실이 여실히 느껴진다.

○ 주로 노인들이 살지만 거주민은 늘어나고

도시화 된 지역들과 땅 값을 비교하면 중복리를 안타까운 상실의 마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복리 주민들이 정작 더 안타까워 하는 현실은 따로 있다.

- 옛날에는 동네에 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 동네에 애들이 없어. 지금 애들이 둘이 있다. 네 살 인가 세 살인가 됐는데, 그게 그렇게 귀한 거여. 장가 든 애가 42세인데 베트남에서 부인 얻어갖고 결혼한 거고, 그보다 더 젊은 애는 외지에서 이사 온 거야. 개네는 아주 동네 귀염둥이지.
- 그게 제일 큰 변화지. 지금 나이 든 사람들만 있는데, 여기 있을래도 직장을 가야 하니까 할 수 없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둘이 사는 거지, 전부. 삼대가 사는 집은 42세 애기 있는 집. 할머니, 아들, 손주, 그 집 서씨 어르신네 집.

이렇게 노인 인구가 거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근대화, 현대화 되면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농촌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3대 혹은 4대가 한 집에 함께 살았던 전통적인 대가족이 해체되고, 부부 중심의 핵가족 형태가 도시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부모 세대들은 어쩔 수 없이 부부만으로 구성되는 가족의 형태를 갖출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부부만으로 구성되는 가족의 형태는 도시나 농촌에서 두루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학업이나 직업을 구하러 떠난 농촌에는 나이 든 부부만의 가족 형태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중복리도 이와 마찬가지 현상을 겪고 있어서 마을 주민들 중에 어린아이는 딱 두 명이고, 그 어린아이의 부모들이 마을에서 보기 드문 젊은 이가 되는 것이다.

중복리가 다른 농촌 마을과 같이 노령화를 겪고 있긴 하지만, 감소했던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주민들이 뿌듯해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약간 의외이기도 하다.

- 내가 이장 볼 때, 78~79년도에 한 50호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70호 정도 돼요.
- 인구가 자꾸 늘어나요. 여기가 살기 편하잖아요, 교통도 편리하고. 버스 한 번 타면 큰 병원이고 시장이고 다 가니까.
- 여기 안성 사람보다 평택 사람이 더 많이 이사를 오지. 교통 좋고, 병원 다니기 좋고.
- 차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평택 가려면 3분이면 가.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싶은 거지.
- 버스가 여기 하루에 열여섯 번인가 열일곱 번인가 다녀요. 버스가 자주 데기니까, 교통이 좋으니까 외지에서 와서 보고...

40여 년 전에 중복리의 가구 수가 50호 정도였는데 2019년 현재 70호 정도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구 수의 증가는 아주 완만한 것이지만, 인구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 보인다. 중복리에 인구가 느는 것은, 이웃마을인 진사리에 집단거주시설인 아파트가 생기면서 젊은 외지인들이 이주해 오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주민들은 우선 마을에 버스 운행 횟수가 적지 않아서 교통이 편리한 점을 첫째 이유로 꼽고 있다. 편의시설이 많은 평택과 가깝고, 버스가 자주 다니니 이주를 하더라도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를 오는 사람이 안성시민보다는 평택시민이 더 많다고 한다. 교통이 편리한 점 외에 중복리에 인구가 조금씩 느는 이유는 몇 가지 더 있어 보인다.

- 여기 특별한 성이 없고 다 각성바지라 텃세가 없지. 그래서 살기좋은 동네라고 그러는 거야.
- 텃세가 약간 있지, 심하게 있는 건 아니고.
- 지금도 다른 데 비해선 그게 없는 편이지. 각성바지로 사니까, 도시마냥.
- 또 우리 마을이 경치가 좋잖아요. 저기 제방에 가면 산은 없어도 냇물 흐르고 앉아서 있는 데도 잘 해 놨으니까.
- 아무래도 시내보다 조용하니까. 노인네들은 아파트 같은 데 싫어해요. 그래서 그러지.
- 개발되고 아파트 들어오고 그러는데 아파트 들어가기 싫고 여기로 아예... 노인네들은 싫어하지.
- 지금 중복리에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랑 원래 사는 토박이랑 비슷해요. 이사 온 사람들이 반 조금 더 넘어요. 젊은 사람이 이사 온다고 하더라도 전부... 우리 이장이 61세인가 그런데 그 밑으로 하나 둘인가 있으려나? 다 노인들이야, 다.

농촌은 아무래도 거주기간이 긴 주민들이 많고 그에 따른 관습이나 생활규칙 등이 견고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존 주민들이 이주민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나 우월감 등을 갖고 있기도 해서 이주민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중복리는 예로부터 집성촌을 이룬 적이 없고 예나 지금이나 각성바지 마을이라 이와 같은 '텃세'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이주민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현재 중복리에는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랑 원래 사는 토박이랑 비슷해요. 이사 온 사람들이 반 조금 더 넘어요.'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토박이보다 이주민의 수가 더 많다. 비록 이주민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시와 달리 복잡하거나 시끄럽지 않는 곳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니, 원래 이주민들이 살던 성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어울리기 쉬울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이 꼽는 이주 이유로 마을 앞에 시원하게 펼쳐진 안성천변과 그 앞에 안성천변과 제방도로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지어놓은 주민들 쉼터를 들기도 한다.

중복리에 차츰차츰 인구가 느는 것은 마을 자체가 발전이 되거나 생활이 편리해서가 아니다. 마을은 농경지 중심에 노령인구가 대부분이지만, 평택시나 진사리 등 가까운 곳에 편의시설을 쉽게

안성천변에서 바라본 중복리, 왼쪽으로 버스정류장과 큰 나무 아래 주민들 쉼터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민들이 한편으로는 정지사와 같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을의 관습이나 규율을 강요하기보다는 서서히 어울리도록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을 분위기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보인다.

○ 벼농사 유지 그리고 주민 화합

중복리는 대대로 마을에 경작지가 많고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마을이다. 제보자들의 진술을 통해 일제강점기와 6·25 이전까지만 해도 주민들 소유의 경작지가 중복리를 넘어 40여만 평에 이르렀지만, 현재 중복리의 경작지는 13여만 평에 불과하다. 중복리는 ‘옛날에도 모타 돌려서 물 그렇게 썼는데, 농사 짓기로는 최고로 좋았던 벼 농사’ 마을이었지만, 현재도 ‘마을에 있는 경운기와 트랙터, 이앙기를 사용해서 열 댓명의 농부가 농사를 짓는 벼농사 마을’을 유지하고 있다. 마을에 다른 상점·식당·공장 등이 들어서지 않는 그야말로 순수한 농촌이다. 중복리가 이렇듯 농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업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떨어져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경제적인 풍요에 집착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중복리 주민들은 그들의 소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복리에는 매년 정월 대보름에 지내는 ‘정지사’ 외에 주민들의 모임이 몇 개 더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노인회 총회, 노인회 봄 나들이, 삼복 더위 중에 복달임¹³⁾을 하는 것 등이다. 노인회 총회는 노인회 1년 사업 보고를 하고 회장과 총무를 선출하는 모임이고, 봄 나들이는 말 그대로 봄을 맞아 따뜻하고 경치 좋은 곳으로 나들이를 가는 것이다. 복달임은 여느 마을에서도 하지만, 중복리에서는 보통 초복날 마을회관에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게 여름 날 것을 준비하고 기원하는 자리이다. 요즘엔 직장 다니는 분들이 있어 초복 당일날 모이지 않고 초복날 가까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날을 잡고, 부녀회와 청년회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부녀회와 청년회가 노인회를 대접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지만 실상 복달임을 하는 날은 마을 주민이 모두 모이는 날이나 마찬가지이다.

중복리의 복달임과 안성천변에 세워진 마을 표지석에는 마을 주민들이 은근히 자부심을 느끼는 일화가 있다.

약 10여년 전부터 마을 어르신들 복달임에 사용하라고 일정한 금액을 보내주는 분이 있고, 안성천변에 마을 표지석을 제작해서 세운 분이 있다. 두 분 모두 중복리가 고향인 분들로, 마을 주민 김경중씨의 누님 되는 김영임씨는 60세 정도인데, 서울에 살면서도 매년 복날 즈음해서 100만원씩을 마을에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안성 양성면에서 중앙프라자를 운영하는 김진철씨는 70세 정도인데,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다가 2018년 4월에 마을표지석을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이 표지석은 높이 5미터, 폭 3미터로 마을에서 안성천으로 나가는 길목 가운데에 서 있다.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정례적인 몇 개의 모임과 타지에 사는 고향 사람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몇 가지 사례가 중복리 마을의 화합을 모두 담아낸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모임이 정기

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마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마을 지원 사례를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중복리는 진사리와 같이 안성과 평택의 경계면에 있는 마을이지만, 평택의 급속한 확장과 발전에 따라 받는 영향과 변화는 사뭇 다르다. 진사리는 안성나들목의 길목이면서 평택시의 집단주거 시설을 바탕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에 영향을 받아 공도읍의 인구밀도 상승을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이다. 그리고 2020년 종합쇼핑몰 스타필드의 건설로 도시화와 상업화는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복리는 급변하는 평택과 진사리를 접하고 있는 마을이지만, 진사리와 달리 전형적인 농농사 마을로 지속되고 있다. 중복리의 이러한 모습은 우선 진사리와 다른 위치적 조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중복리의 거주민들은 상당수가 안성천 주변에 모여 살면서 안성천을 마을의 중심 공간으로 삼고 살아왔다. 그리고 현재도 인접하고 있는 평택의 마을인 유천동과 소사동은 대부분 농지로 이루어진 마을들이다. 이에 반해 진사리는 평택에서 가장 변화하다고 할 수 있는 시청 주변과 비전동에 접해 있으면서 변화의 속도에 영향을 받거나 밭 맞추어 가야 할 입장일 수 밖에 없다.

중복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을 유지하면서 예전에는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평택으로 다녔지만, 요즘은 점차 도시화된 진사리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나 평택으로 향하는 큰 길들에서 빗겨나 있으면서 평택으로 향하는 편리한 교통편을 갖추고 있다. 또한 안성천 제방길과 농경지 정리로 확보한 길들로 진사리를 비롯한 이웃 마을과 교류가 예전보다 수월해졌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중복리는 평택과 진사리 등 인근 지역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생활에 큰 불편함 없이 벼농사 중심의 마을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마을의 분위기와 대체적으로 소박한 생활을 즐기는 주민들의 성향 그리고 토박이와 이주민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중복리의 특성 등으로 보아 중복리는 현재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우리나라 농촌 마을의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회 총회의 날, 2010년 1월> (다음카페 '중복리')



<이경재 어르신 필순잔치, 2015년 3월> (다음카페 '중복리')



<노인회 봄 나들이, 보령 개화예술공원, 2013년 5월> (다음카페 '중복리')

주요제보자



김수권 음띠, 80세

중복리가 고향이고, 마을에서 이장·새마을지도자 등을 역임했다. 마을에서 주로 농사를 지었으며 1978년에 지은 2층짜리 마을회관에 2003년에 이사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다.



오정환 양띠, 77세

고향이 중복리이고 대대로 중복리 토박이이며, 마을에서 이장·새마을지도자 등을 역임했다. 젊었을 때 1년 정도 서울에서 생활한 것을 제외하고 계속 마을에서 농사를 지었다.



민사규 79세, 뱃띠

강원도 홍천이 고향으로 1974년에 중복리로 이주하여 45년째 살고 있다. 거주 기간이 길어서인지 토박이 면담자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기억해 내곤 했다.



조연영 78세, 말띠

수원 매교동이 고향으로 강원도로 이주했다가 어머님 고향이 안성 양성인 것이 인연이 되어 6·25 직후 가족이 중복리로 이주하였다. 마을에서 이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19
경기도 현대지역사회 기록화사업
경기마을기록사업 ⑯



안성시, 도시공간의 변화와 역사적 정체성

[안성시장, 도기동, 공도읍 진사리·중복리를 중심으로]



◆
장수아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글을 시작하며

한 도시에 대한 현황, 그리고 잠재력, 그리고 가능성은 늘 과거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도시를 기능적인 하나의 공간이나, 개발의 관점으로만 대상화시킬 경우 우리에게 있어서 도시는 그 이상 공공의 가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된다. 도시에 대한 여러가지 담론 중에 경제적 관점에 실행만을 추구한다면, 근대시기부터 제기되어왔던 불평등, 불균형, 삶의 가치하락, 소외성, 현대에 제기되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 현대도시가 갖는 문제를 전면에 두고 그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역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도시공간 형태의 역사는 중요한 시각 중 하나이다.

안성은 근현대과정 개발의 흐름에서 살짝 비켜나 있다. 조선의 3대 시장 중 하나로 꼽혔던 도시가 근현대적 의미의 교통이라는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자 개발 더디어졌고 역으로 조선시대 형성된 도시구조를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수많은 안성시 관련 연구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내용을 현재 안성이라는 도시의 장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서울의 영향을 받는 경기권역이나 인접한 충청남도 천안권역 양쪽에 포함되지 않는 안성의 위치적 특성 또한 개발의 파도를 피하는데 한몫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안성에는 오래된 길, 필지, 밀집된 근대건축물이 남겨질 수 있었기에 그것의 역사적 가치를 되짚고, 그 가치를 통해 도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공간의 역사적 흔적 말고도, 동북측의 산지형과 서남측의 넓은 논 경작지형을 따라 흐르는 안성천은 친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비춰볼 때 안성이라는 도시가 지닌 잠재적 가치를 더욱 상승시키는 요소이다.

최근 들어, 도시화된 안성지역의 절반가량 면적에 달하는 아파트단지들이 평택방향으로 등장하고 있다. 흐름상 안성시는 평택과 경부고속도로 안성IC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평택중심 도시 팽창이 가속화되고, 평택으로 인구유입이 지속될 경우, 안성시는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가? 서유럽의 도시역사에서 볼 때,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화화 집합주거의 확장은 도시 외곽으로 진행되었고, 여기서 필요한 인구유입은 지방의 시골이나 외국인 이민자들로 채워졌다. 평택과 안성시와의 관계에서 안성시 인구가 평택으로 옮겨간다면, 안성시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으며, 거꾸로 역사와 자연을 품은 고퀄리티 정주도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해법이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결국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어디서 정착하고, 어디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안성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는 안성시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도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담론을 먼저 배치하고, 이후 안성의 근대시기 역사개요, 도시공간의 역사적 정체성과 구조, 그리고 평택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성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완전한 대안보다는 질문과 사유의 지점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1. 도시개념 다시 생각하기

서양과 동양, 그리고 각 나라, 더 나아가 각 도시는 서로 다른 성격과 모습으로 성장해왔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 개념은 개별적 특성이 반영되기보다 일률적인 잣대로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도시의 개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1) 도시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역사

도시의 개념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지만, 가장 보편적일 수 있는 사전적 측면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적 활동의 중심지, 혹은 인구가 집중되어 인구 밀도가 높은 일정한 지역을 일컫는다. 유럽의 도시 역사에서, 중세시대에는 성곽에 의해 둘러싸인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을 도시의 공간적 범위로 간주해 왔다. 성곽 안에는 정치의 중심인 궁이나 관원시설, 시장,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었고, 경작을 위해 성문을 나가 일을 하고 다시 성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도시팽창의 중요한 기저가 되었다. 성문을 중심으로 안과 밖의 교류과정에서 성문 밖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성 밖으로 도시가 팽창되고, 일정한 시기가 지나 더 외곽 쪽으로 성곽을 축조하면서 도시가 커져갔다. 산업화가 진행된 근대시기에는 시골의 경작농부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공장을 비롯한 산업시설물들이 도시외곽에 건설된다. 이때 성곽은 더 이상 전통적인 방어 의미를 상실하고,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등장하면서 성벽을 파괴된 자리에 대규모의 순환로를 만들어 도로로 사용하게 된다.

프랑스 파리의 ‘불르바르(Boulevard)’의 도로도 이때 생겨난 것이다. 전통적으로 도시의 영역을 구분했던 성벽이 사라지면서, 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주거난, 그리고 사회적 계층의 발생, 빈부격차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도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도시화의 과정에 지금까지도 종종 모순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도시’의 근원적 개념이 들어있다. 중세시대 그리고 근대초기에 이르기까지, 서유럽의 도시에서 ‘자연녹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수도원 내부의 중정 일부에 작은 경작지들이 있었지만,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 안에는 자연녹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친환경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최대 이슈를 삼고 있는 오늘날의 유럽도시들의 최대 관심사 또는 지향점을 바로 자연녹지에 두고 있다. 수원 화성의 경우, 성곽 내에 이미 정치의 중심지인 행궁과 시장이외에도 경작지와 자연녹지 그리고 산이 포함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해 왔던 도시개념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 바로 좋은 도시에 대한 지향점은 각 도시의 역사로부터 재정립되고 재정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도시의 다양성과 미래에 대한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도시 이름을 보면 유럽을 비롯한 외국의 도시개념을 카피하거나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도시의 역사가 고려되지 않은 채 결만 이식된 도시는 반드시 상처를 입게된다. 우리의 도시 역사는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이미 충분한 경험

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개념, 정의는 각 도시의 역사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경기문화재단-경기학연구센터가 진행하는 이 연구를 통해 경기도 각 도시의 역사를 종합화하고, 분류해서 역사로부터 고찰되는 새로운 도시의 미래상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도시 [都市]'의 용어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용어에 대한 것이다. 건축이라는 용어의 사적적 개념은 인간의 여러가지 생활을 담기 위한 기술·구조 및 기능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공간예술이다.(두산백과사전)

영문권에서의 'architecture'의 정의는 'the art or science of building specifically : the art or practice of designing and building structures and especially habitable ones.'이다. (www.merriam-webster.com)

건축에 대한 한국과 영어권 사전적 정의가 동일하다. 왜 그럴까? 건축의 역사가 이미 수천 년에 걸쳐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 왔음에도 왜 용어에 있어서 동일한가? 서양에서의 'architecture'는 'archetype[원형, 종합]+tectonics [기술]'로 기술의 종합 영역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建築[건축]은 세우다+쌓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한자어에서 의미하는 바와 사전적 인 정의가 서로 다르고, 사전적인 정의는 서양언어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용어가 근대시기 일본을 통해서 수입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근대시기 유럽의 학문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용어를 만들었으며, 이때 사용된 한자어가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그 수많은 용어의 기원이나 출처 그리고 그 의미를 문화적 이해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 대한 정의 또한 마찬가지이다. '都市'는 한자어로 도읍, 저잣거리(시장)의 의미를 갖고,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재하다. 도시의 용어 또한 19세기 일본을 통해 수입된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출처가 불분명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도시의 역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용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만의 도시역사를 방증하는 용어가 탄생될 수 있다.

3) 도시개념이 도시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도시개념이 도시를 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과정에서 역사성이 배제된 채 이식된 개념으로 만들어진 도시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우리에게 일제강점기는 도시구조가 갑작스럽고 철저하게 변화된 경험의 산실이다. 철로의 등장과 교통수단의 변화, 그리고 전통

도시 조직내부에 주요한 결절지점마다 근대식 건축물을 짓는 등 온갖 방식으로 도시구조가 철저하게 변형되었다. 조작된 공간에 대한 아픈기억을 갖고 있음에도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까지도 여전히 우리는 도시의 생산방식과 도시 구조의 변경에 있어서 과거를 거울삼거나 지향점을 새롭게 정비하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다.

프랑스 라벨레뜨 국립건축학교의 도시학자였던 ‘신용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시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 도시가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견지에서 보면, 도시만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만의 미래를 그리는데 있어서, 다른 역사와 문화에서 만들어졌던 이질적인 도시 개념의 적용은 사회적 문제와 공간적 문제 그리고 역사적 문제를 되풀이하는 원인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속해 있는 도시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도시 역사를 고찰하면서 새롭게 우리도시만의 개념을 만들어야 필요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우리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도시개념에서 출발해야 새로운 도시 미래를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식된 도시개념이 아닌 땅에서 형성되어 온 도시의 개념과 그 역사를 이해하고, 원리를 도출할 수 있는 도시 분석의 방법론은 그래서 중요하다.

4) 도시 분석방법론으로서의 ‘어반 모폴로지’

도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도시는 모든 것을 담고,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접근하기 매우 어렵다. 개인으로부터 사회,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광역권과 국가 차원 더 나아가 일본과의 갈등처럼 국제적인 관계까지 그 범위는 어마어마한 확장성을 갖고, 개인 내면의 기억과 습관 그리고 심리의 깊은 무의식까지 매우 강력한 응축성을 갖는다.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 지구상에 존재한 다양한 생물을 포괄하는 자연의 범위까지 포괄하면,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해서 도시를 이해하는 데는 일정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국내에는 많이 소개되지 않았지만, 유럽의 도시들처럼 오랜 역사적 흔적을 적층시켜나가면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지역과 도시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방법론이 있는데, 그것은 ‘도시형태유형학(Urban morphology)’이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1970년대 등장한 이 방법론은 쉽게 설명하면, 도시의 형태를 통해 도시의 성격을 정의하려는 것이다. 도시 형태를 먼저 분석해서 역으로 역사적 사실들을 유추하고, 사료나 기타 역사적 자료를 통해 그 사실들과 도시공간과 공간변화의 속성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작용하는데, 하나는 공시적 다른 하나는 통시적 관점이다.

공시적 관점은 시간적인 개념으로서의 과거와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의 도시형태에 초점을 둔다. 도시의 형태, 즉 건축물들이 밀집되어있는 분포와 이 분포를 통해 나타나는 형태, 그리고 도로와의 관계에 의한 도시구조 형태를 분석하고, 주변도시들과의 관계, 주변 자연환경

과의 관계 등을 살펴본다. 더 나아가서는 도시형태의 유발단위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의 관계이다. 이 건축물의 관계는 네가지가 작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작용하는 지형이며, 두 번째는 도로, 세 번째는 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물이다. 이 네가지 요소들은 지역[혹은 지형], 문화, 시대에 따라 일정한 형태로 변화하지만 각각은 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 네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빼질 수 없다. 이러한 네가지 요소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도시형태를 도시학에서는 ‘도시조직’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공시적 관점에서의 도시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도와 항공 사진이 필요하며, 이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도시의 요소별로 재 그래픽화를 시도해서 도시공간의 형태를 분석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시형태에 대해서는 도시의 형태를 스케일별로 확대 축소를 반복하면서 현재 도시공간 형태의 원인을 찾는다. 큰 스케일로서는 도시들의 관계, 산이나 하천과 같은 주변 자연 환경, 주요 국가도로 혹은 철로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작은 스케일로는 도로와 필지와 건축물[주거건축물 중심]의 관계를 살핀다.

공시적 관점에서의 도시형태 분석은 주로 묘사와 유형화에 초점을 둔다. 도시형태의 묘사과정에서 도시공간의 주요 요소들이 등장하고, 이러한 요소들 간의 관계가 분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또한 일정한 길 혹은 일정한 지역별로 유사한 건축물들이 등장하거나 유사한 ‘도로-건축물-필지’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이때 유사한 도시조직을 유형화시켜 분류한다. 자연발생 도시의 경우 모든 도시와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형화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들은 도시공간 생산방식과 밀접한 관련속에 유지되거나 사라진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개별 필지를 합필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도시공간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계획된 신도시의 아파트 둑에는 자본주의 생산방식에 따라 동일한 유형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지형과 주변환경, 역사적으로 전승된 모습을 통해 도시형태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화 단서들을 찾을 수 없다.

역사와 단절된 도시생산 방식의 확장은 도시가 갖는 다양한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 단체들은 도시 브랜드를 위한 ‘정체성’을 내세우며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와 거리가 먼 축제나 명품도시 같은 이름들을 난발하면서 더더욱 도시정체성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대규모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나 재개발처럼 거대한 도시공간 생산방식은 빠르고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간의 역사적 정체성 또한 빠르고 쉽게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 이러한 대규모 택지개발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이 필요하며, 소규모 지역공동체에서 소규모 필지단위로 개발되는 방식에 대한 가능성과 장점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방식 이전까지는 개별 필지별로 토지주 혹은 건축주의 의지에 따라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 공사자와 함께 건물을 짓는 등의 공간생산 방식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초



까지만 하더라도 필지들의 합필을 통해 소규모 맨션이나 빌라와 같은 소규모 개발이 이루어져 도시공간의 역사를 한꺼번에 지워버리는 일이 많지 않았으나, 1990년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생산 방식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대규모 개발방식이 확장된 이면에는 통시적 관점으로 도시를 이해하는 방법론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시적 관점은 위에서 살펴본 공시적 관점의 도시형태에 시간적 개념을 적용시켜 확장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공간이 생산되는 방식과 더불어 이러한 방식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혹은 변화되어 나타나는지 그리고 변화되어 나타날 때 일정한 변화의 유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먼저 도시화영역 전체를 볼 수 있는 큰 스케일에서 도시의 형태가 일정한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 했는지를 살펴본다.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1970년대 경부선을 중심으로 북측으로 도시가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서울의 위성도시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그로인해 수원의 북측인 서울방향으로 도시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1980~90년대에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커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섰던 동쪽으로 도시가 확장된다. 이렇듯 도시의 형태를 시대적으로 분류해서 그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찾는다. 이러한 도시형태의 변화 혹은 팽창은 일정한 대규모 도로, 주요한 산업시설, 공공시설, 주변의 주요 도시와의 관계변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때로는 철로, 하천, 급경사, 지형 등 장애요소를 만남으로 팽창을 멈추거나 변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매우 재미있는 사실은 일정한 도시팽창이 순조롭거나 평이하게 진행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장애요소를 만날 때, 그 장애요소와 만나는 접경 지역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한 장애요소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그 지역의 독특한 공간과 문화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도시형태유형학 [어반 모폴로지]에서 도시 분석의 정점은 통시적 관점에서의 ‘도시 조직의 변화유형’이다. 이것은 가장 먼저 큰 스케일의 관점에서 도시간의 관계, 도시와 지형의 관계, 도시의 확장 혹은 쇠퇴의 양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았다면, 그 다음 단계로서 도시공간의 단위 세포로 여겨지는 작은 스케일에서 도시조직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지형, 길, 필지, 주거 건축물 이 네 가지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유형을 갖게 된다. 이 시간의 변화에 따르는 ‘도시 조직의 일정한 변화유형’은 도시형태유형학의 정수가 된다. 이것은 한 도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DNA이자 속성이고, 그것은 가장 중요한 역사적 가치, 더 나아가 보존하고 계승해서 미래에까지 전해 주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조직 [길, 필지, 건축물의 관계]는 단순한 오래된 가치를 넘어 일정한 변화의 속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통시적 관점에서의 도시조직의 변화유형 분석을 위한 작업은 매우 오랜 시간과 방대한 자료의 분석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작업은 한국의 도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한 결과들은 도시공간의 역사적 정체성을 담는 새로운 도시의 개념과 용어의 탄생에 이바지할 것이다.

5) 융합적 접근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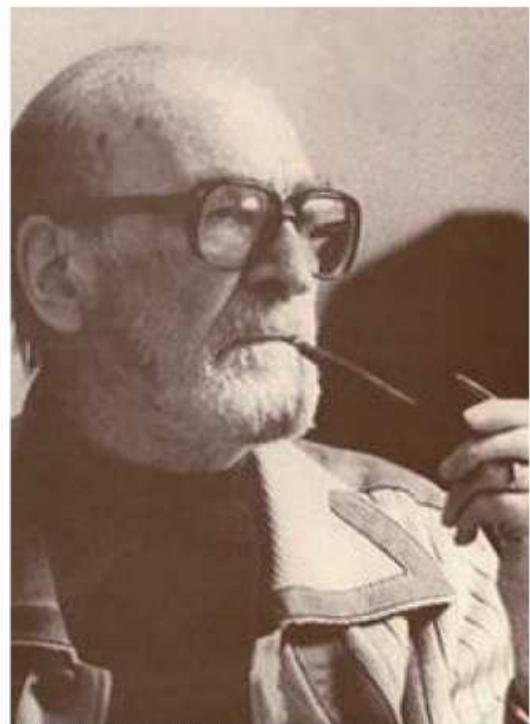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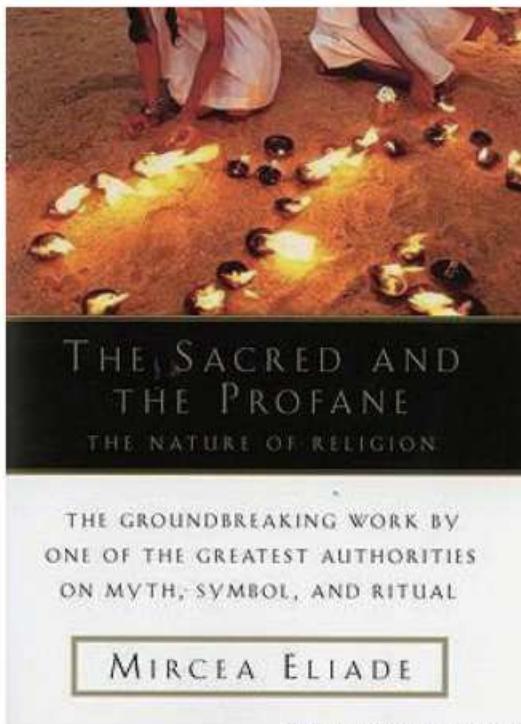
도시는 물리적인 형태를 갖는 공간이지만, 이 공간은 여러 가지 의미와 문화를 담고 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는 일정한 이유와 원인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시대와 그 공간을 형성 시킨 사람들간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다양한 문화들과 관련된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에 대한 분석은 도시공간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점유하고 형성하고 삶의 방식을 담아 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가나 도시학자 뿐만 아니라, 역사학, 인류학, 민속학, 고고학, 사회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가령 한 도시조직을 분석 할 때, 공간적인 관계와 형태를 위해서는 건축가의 시선이, 도시와 주변도시와의 관계 그리고 산업과 인구 등 큰 스케일의 관점의 분석을 위해서는 도시학자의 시선이, 하나의 주거건축물에서 가정을 이루며 삶을 이루어 온 삶의 방식과 이웃들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는 데는 인류학자의 시선이, 주거건축물 내에 위치하는 일정한 신앙이나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용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민속학자의 시선이, 때론 고대의 성곽이 지나갔던 자리나 고대 유물들이 발굴되는 현장을 마주할 때는 고고학자의 시선이, 그리고 계층과 사회적 변화와 영향을 살펴볼 때는 사회학자의 시선이, 지형과 주요한 지리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는 지리학자의 시선이 필요하다.

하나의 도시공간 형태를 다양한 전문분야의 시선이 동시에 투과되어 논의되고 분석될 때 한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심도 깊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길과 그 길에 분포되어 있는 건축물들의 일정한 권역을 설정하고 분석할 때, 형태, 변화, 물리적 지형과 공간 거리처럼 건축물의 기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출입문의 다양한 크기, 건축물의 배치가 실제로는 신앙적인 원인에 따른 결정이었다처럼 전혀 다른 해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일례로 이슬람 문화를 가진 전통도시에 지어진 주거 건축물들은 도로측으로 건축물의 개구부를 매우 작게 만들어 도로상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거나, 주 출입구의 축을 한번 꺾어서[‘시칸 (Chican)’이라 부른다.] 내부 중정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데, 이는 이슬람 문화에서의 여성의 모습을 숨기려 했던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도로가 경치가 좋은 방향에 있더라도 문화적인 이유로 창을 작게 만들거나 ‘시칸’을 적용한 것이다. 이렇듯 건축물의 순기능을 역행하며 문화적인 이유로 공간을 변화시키는 경우까지 해석하기 위해서는 건축가뿐만 아니라 민속학, 인류학, 사회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선이 함께 융합될 때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이 제대로 찾아질 수 있다.

안성시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위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될 수는 없지만, 경기학연구센터에서 진행하는 본 연구는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도시정체성에 접근하는 시도로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여겨진다. 도시형태유형학 방법론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접근으로서 ‘공시적 관점’에 중점을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도시에 담겨진 그러나 잊혀진 의미

본격적인 안성시를 살펴보기에 앞서 몇 가지 도시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스펙타클한 도시 이미지가 아닌 상실된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 근현대 역사 가운데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장 속에서 우리는 ‘Ctrl + C & V’로 만들어진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매우 기능적이고 편리한 공간을 점유하고 살고 있지만, 그 기능적이고 편리함 속에서 잊혀지거나 상실되어 버린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생각해보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안성시가 어떤 현재이고, 어떤 역사를 살아왔고, 어떤 잠재력이 있고, 그 잠재력을 통해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을지를 상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잊어버린 상징, 우리는 어디에 의지하는가?

문화인류학자인 ‘마르시아 엘리야데[Marcea Eliade]’는 인간은 본래 물리적인 공간을 ‘성’의 공간과 ‘속’의 공간으로 구분하려는 본성을 지닌다고 말했다. 인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성스러운 공간을 설정하고, 자연재해나 기타의 여러가지 제약을 의지하고 문제해결을 기원하려는 대상으로서의 신의 가치가 늘 존재해왔다. 그것이 시스템차원의 종교까지 확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크고 작은 무속신앙으로 연결되거나, 그러한 무속신앙은 시대를 거치면서 문화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한 문화들은 한 주거건축물의 구조와 도시조직 더 나아가 도시공간과도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공간속에 그 의미를 담아왔다. 이슬람 문화권의 도시들은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시장과 교육기관인 ‘퐁투크 [Fondouk]’와 ‘ㅁ’자형 중정을 갖는 주거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분포되어 있다. 사원은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사원의 중심부에는 커다란 중정이 형성되어 있는데, 도시의 심장을 신에게 바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듯 도시의 구조와 공간들은 신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유럽의 도시들도 성당을 중심으로 성장해왔고, 오늘날까지 그 역사적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다. 전통도시에서 종교건축물이 갖는 의미는 종교적 측면을 넘어서는 집단의 기억을 상징함으로 더욱 중요하다.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의지가 집단적으로 모여 형성된 물리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공동기억이 존재하며, 그것이 시간에 흐름에 따라 세대 간에 공유되고 전승되기 때문에 도시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끼지는 영향은 지대하다. 시간 속에서 상징성은 사람들과의 소통과 공유를 만들어내고 기억의 전승을 통해 도시의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잡게된다.

‘신’을 밀어버리고 ‘과학과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대체해 버린 시대흐름은 어쩔 수 없다지만 현재 종교적, 역사적 상징을 가진 도시의 공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식은 동서양이 다르지 않다. 국보 1호인 서울 숭례문,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가 슬픔과 상실감을 불러일으

컸던 이유는 이 건축물들이 과거 종교적 역사적 상징을 넘어선 문화로 잡리잡은 까닭이다.

다만, 유명세를 걷어내고 종교와 도시와의 관계를 접어두고서라도 오늘날 우리가 시군단위 전통도시 건축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다. 종교가 축소되고 합리적 사고와 자본주의 시스템안에서 종교, 역사적 장소는 문화로 공유되고 있는가?

전통적 관점에서 집안내부와 마을의 공유지 곳곳은 무속신앙의 대상이 되어왔다. 문지방, 복을 기원하며 뒷마당 한편에 놓아두었던 칠성단지, 마을입구에 세워놓았던 장승, 성황당 등은 신성시되었던 장소들이지만,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 모두 명맥을 잊지 못하고 사라지는 추세인 것도 현실인 것 같다.

하나, 우리의 도시는 이젠 정말 ‘성스러운 구별된 장소’가 필요 없는가?

근대에 유입된 종교 조차도 예배공간의 ‘성[聖]’ 스러운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종교적 선택권의 여부를 떠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의지의 공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선조들이 만들어왔던 역사성을 부여받은 공간들이 주로 ‘관광지화’ 되어가는 경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관광지화조차 어려운 작은 역사적 공간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부분별 한 파괴를 막는 것 만큼이나 남아 있는 곳에 대한 장소성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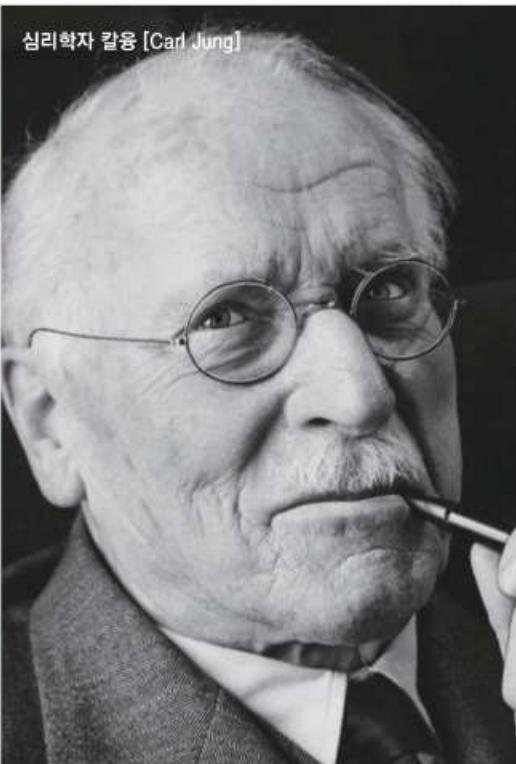
둘, 통시적 관점에서의 종교는 문화로 어떻게 자리잡는가?

종교가 사회구조를 지배하던 시절 그 영향은 도시공간에 자연스럽게 나타게 되지만, 종교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에는 다른 차원의 공유와 전이 속성이 필요하다. 상징은 기억과 깊숙한 문화적 무의식을 기호, 물리적 표상으로 드러나게 하는데, 문화로서 공유된 집단기억과 의식은 세대가 벌어지더라도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에는 반드시 문화와 상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상징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고, 무의식중에 물체나 형태를 상징으로 변형시켜 이것을 종교와 예술 그리고 환경으로 표현한다.” -칼 구스타브 용 (Carl Gustave Jung)-

결론적으로, 도시공간과 상징성은 불가분의 관계로 보아야 하며, 우리의 도시공간은 역사적으로 축적된 종교, 문화, 더 나아가 집단으로 기억된 축적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실은 도시공간을 쉽게 삭제하고 쉽게 만들어 내지만, 새로 만드는 것 보다 삭제하는데 훨씬 더 많은 고민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삭제하는 도시의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연결된 무수한 집단의 기억이며, 그것이 정수로 만들어진 상징이기 때문에 무의식까지도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상징이 사라져가는 우리의 도시공간과 환경, 과연 이대로 좋은가?



2) 장소성(lieu)과 비장소성(non lieu)

“우리는 거주하는가? 체류하는가?”

스페인의 낙후 도시, 빌바오[Bilbao]는 도시재생의 기적을 상징하는 아이콘처럼 생각되곤 한다. 물론 좋은 사례이지만, 여전히 실험과 도전이 진행 중인 도시이다. 여기서 엉뚱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자 한다.

‘도시는 성장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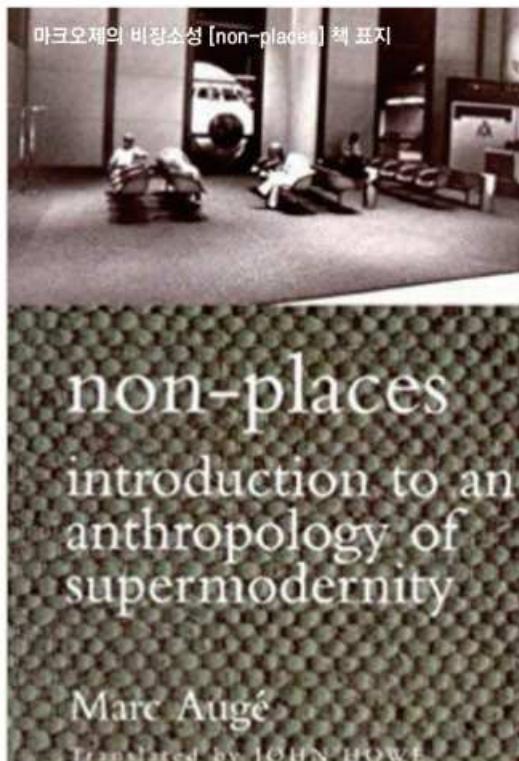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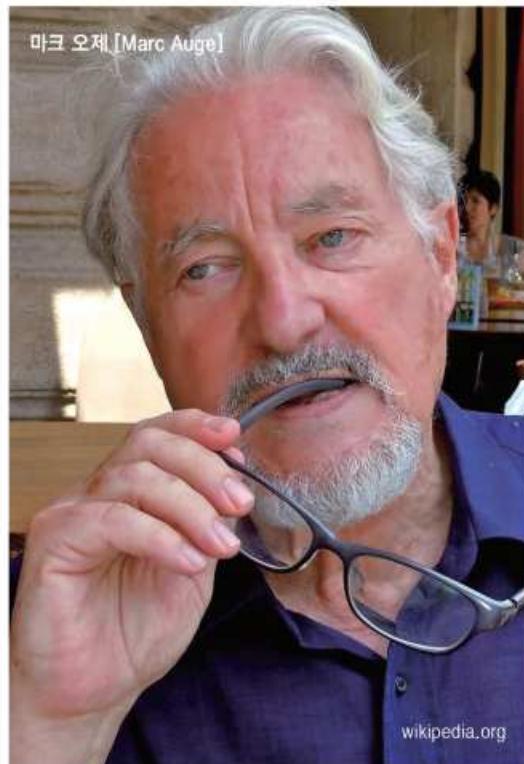
우리는 막연히 도시는 성장하고 발전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시대적 변화를 거치게되면 도시는 자연스럽게 커지고 긍정적으로 개발성장한다는 것이 한국적 근현대가 사람들에게 심어 놓은 도시의 이미지이다.

가끔 필자는 그런 의문을 품는다. 전 세계를 지배했던 거대하고 탄탄한 고대 이탈리아 도시들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을까?

합리적인 사유와 철학, 과학적인 기술발달, 민주정치 및 건실한 사회구조와 탄탄한 산업 등 충분한 조건들을 가졌음에도 도시가 사라지는데 걸린 시간이 도시가 형성된 시기의 수십 분의 일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른 도시의 사례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미국 디트로이트는 1950~60년대 180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세계 최고 부자 도시였지만, 오늘 날에는 마야과 범죄소굴로 절반 이상의 도시가 버려진 쇠락한 도시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다. 도시의 낙후, 패망의 열쇠는 사람이다.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도시로 이주하고, 살아갈 이유와 가족과 이웃과 관계 맺으며 거주한다. 따라서 도시에 거주할 이유들이 하나 둘 사라질 때,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게 되고,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마크 오제의 ‘비장소성’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근대적인 도시 개념을 넘어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을 경험하는 시점이다. 산업 발달초기에는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집중하는 인구에 비례해서 도시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왔고, 도시와 도시간의 그리고 도시공간들 간의 더 빠르고 쾌적한 이동을 위해 교통수단이 비약적인 발전되었다. 이 시기에는 가족단위가 유지된 상태에서 도시 내부, 도시간의 이동에 따라 도시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가족단위 개념이 붕괴되어 1인 주거가 비약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거주보다 체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살아간다. 도시공간 변화속도가 이동과 체류의 문화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통수단의 발달은 인간이 거주하는 어느 장소에 애착을 가지면서 보내는 시간을 덧없게 만들고 있다. 물리적인 이동속도와 정보속도는 인간이 전통적으로 경험해 왔던 것을 비약적으로 능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인간은 그 속도를 적응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거주’와 ‘체류’의 차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의 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계는 모호하나 체류로 갈수록 공유 범위는 줄어든다. 공간적인 공유와 시간적인 공유의 범위가 좁아지게 되고, 우리는 막대한 정보의 양을 제공하는 SNS와



같은 인터넷세상에 더욱 빠져들게 된다. 거주는 구성원들, 이웃들과의 관계가 수반됨으로 장소의 역사와 소통 양이 늘어나 공유와 공감이 확대된다. 체류자들의 소통 축소는 장소가 지니는 의미에 가치를 하락시키고, 따라서 장소의 변화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거주에서 체류로의 주거방식 변화는 도시공간의 변화를 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카페문화의 확산은 이러한 체류문화로의 변화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공간에서 최소한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대부분의 활동들은 외부공간으로 조달받게 된다. 배달 서비스, 온라인 소비증가, 일회용 생활용품 증가, 24시간 편의점 증가 등은 거주보다 체류를 선택한 도시의 일상적 모습이다.

하지만 거주에서 체류로의 변화를 단순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거나, 오히려 도시공간의 미래를 계획하고 결정할 때 근거로 사용하며 커다란 오류를 범하게 된다. 왜 거주에서 체류로 변화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변화로 인해 야기될 문제와 이러한 현상이 우리도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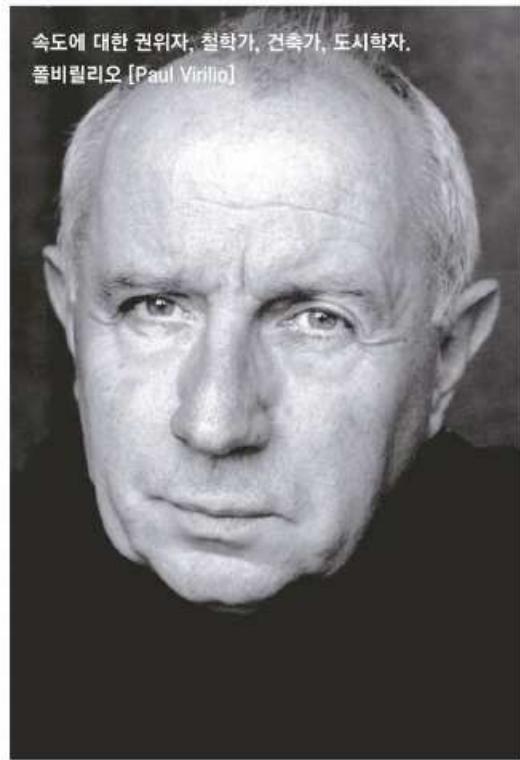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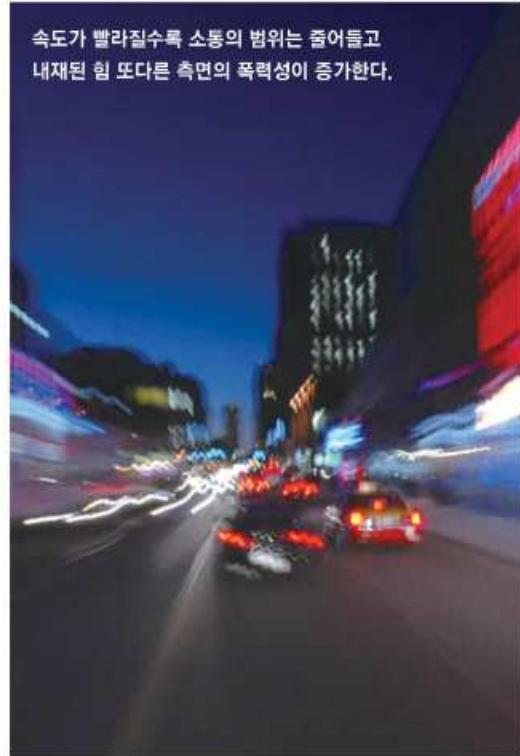
필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주장한다. ‘체류의 도시’ 보다도 ‘거주의 도시’가 되어야 하며, 그래서 장소의 의미가 발생되고, 그 의미들이 그 도시의 구성원들과 소통되고 공유되며 시간 속에서 축적될 때, 어떤 외부자극에도 견딜 수 있는 생명력과 힘이 생길 수 있다. 디트로이트처럼 특정 산업에만 종속된 도시가 된다면, 외부적인 변화에 그대로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증가된 인구가 도시 구성원으로서 체류가 아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 거주 구성원들이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고 리드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며,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에 대한 안정성’이다.

3) 도시와 속도

앞서 논의한, 비장소성, 그리고 체류의 도시는 모두 속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속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긍정적인 개념이다. 근대시기 산업화 과정에서 속도를 상징하는 기차와 철로 그리고 비행기의 등장은 전통적인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고, 자동차가 지닌 속도의 가치는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간의 점유가 필요한 인간의 무능력을 해결해 주었고, 공간의 장악능력은 근·현대 사회적 힘을 상징한다.

“속도는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La vitess reduit le monde a rien]”
폴 비릴리오(Paul Virilio), Le monde.fr, 2010

프랑스의 건축가이자 도시학자, 속도에 관한 철학자 폴 비릴리오가 죽기 얼마전, 프랑스의 신문 르몽드지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말이다. 공간의 개념은 시간의 개념과 분리될 수 없고, 여기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결합되면서 형성되는 개념이 속도이다. 우리의 주변은 공간, 시간, 그리고 이들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속도 이 세 가지가 항상 존재해 왔다. 삶과 죽음에 관계된 시간은 오래 전부터 철학자들에 의해 많은 이론과 담론을 만들어냈지만, 공간에 대한 본격적인 사유와 논의를



개시한 이가 바로 ‘풀 비렐리오’이다.

풀 비렐리오는 속도의 속성을 속도와 비례하는 힘과 폭발력으로 보았고, 오늘날 도시는 속도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고 표현했다.

도시의 속도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물리적 속도, 다른 하나는 정보의 속도이다. 속도는 인류가 지구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추구해 온 욕망 가운데 하나이다. 사냥, 부족 간 전쟁, 정보선취를 목적에서 속도는 늘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힘으로 간주되어왔다. 동물의 힘을 빌렸던 속도는 산업혁명 이후 기계를 통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다. 도데체, 왜 인간은 그토록 속도를 추구하는가?

속도 추구 욕망 이면에는 ‘속도가 갖는 힘’을 소유하고픈 욕망이 전제되어있다.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속도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얻은 정보가 바로 ‘힘’이라는 의식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속도는 더 다양한 의미로서 욕망된다. 그것은 소통에 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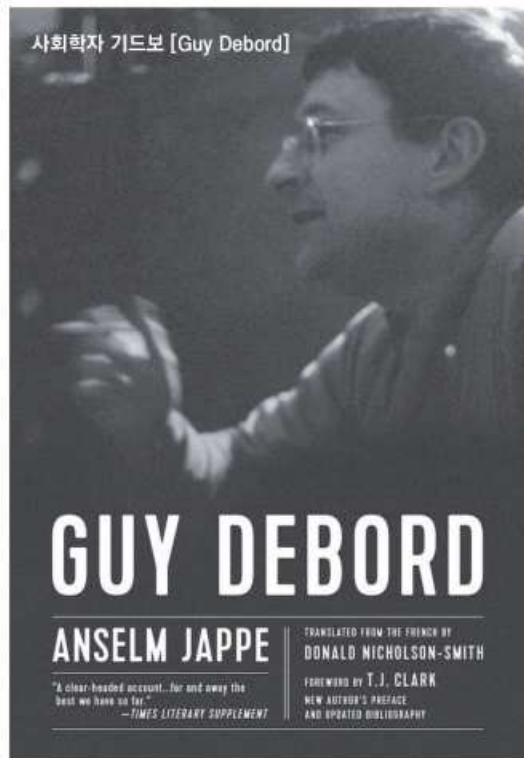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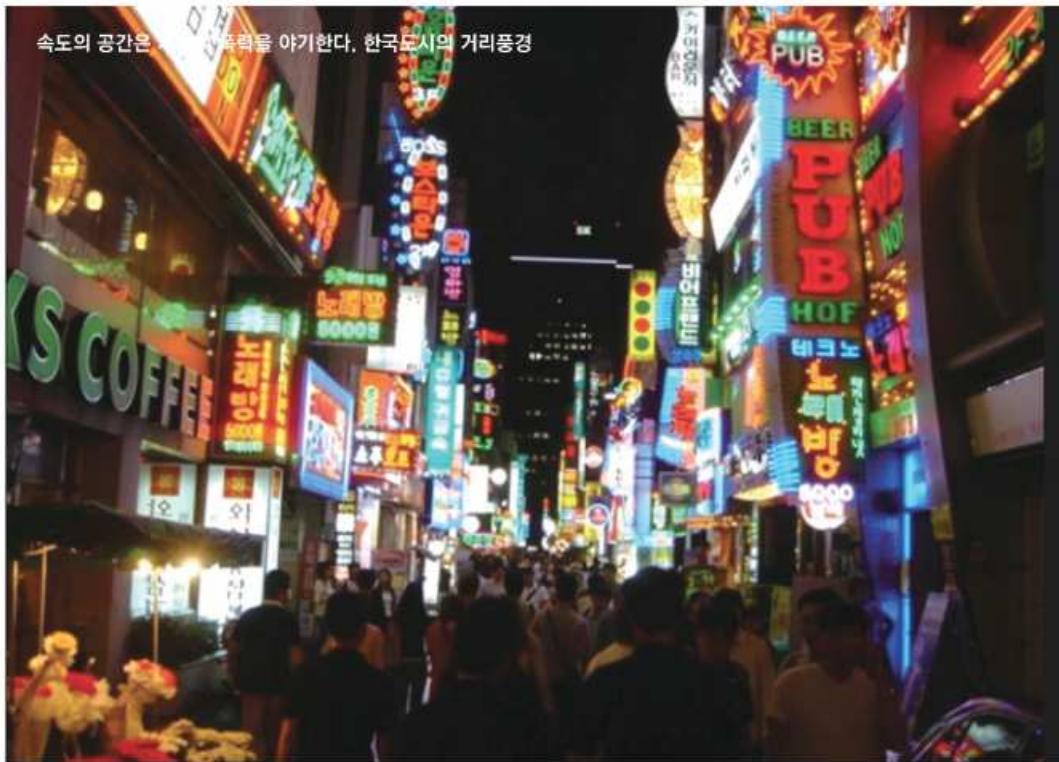
따라서 속도 = 정보 = 소통의 공식이 가능해진다.

과거에는 물리적 속도가 정보의 양과 비례했지만, 이제는 발달된 정보기기[인터넷과 스마트폰]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는 이 물리적 속도와 정보의 속도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속도의 상징인 자동차는 자동차중심 도시구조를 만들었고, 속도가 가미된 기능적인 도시공간에 대한 수요는 수직이동 엘리베이터와 입체적 이동이 가능한 아파트단지와 고층복합건축물을 만들었다.

속도의 점유는 공간을 차별하기 시작했고, 역사적 흔적이 많을수록 속도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일반적인 도시들의 근대화 과정들은 도시들마다 모두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이 강할수록 차이와 다양성은 쉽게 약화된다. 속도는 도시공간의 차별화뿐만 아니라 도시들 간의 위계를 바꿔 놓았다. 속도의 위계에 따라 도시공간의 경제적 위계 또한 같이 이동하게 된다. 서울을 생각해 볼 때, 강남이나 분당의 예가 그러하다. 속도는 도시공간의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적 계층의 구조 또한 바꾸어 버렸지만, 여전히 그 힘은 건재하고, 정보와 그 정보를 취하려는 욕망 또한 여전하다.

속도를 통한 힘을 가진 자와 힘을 누리는 자 중심으로 도시공간이 재편되면서 속도를 점유하지 못한 상대적 약자는 길을 이용하는 보행자이다. 보행자들은 속도의 가장자리 공간에서 차량 소음과 오염, 시각적 폭력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노약자나 장애인에게 길은 더 위협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보행로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평균의 2.7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OECD, www.oecd.org/statistics)

또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왜 길에서 보행약자의 피해가 심각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소통의 문제 때문이다. 정보의 점유와 더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점유하기 위해 선택한 속도는 더 많은 또 다른 소통을 차단해 버리곤 한다. 예를 들어 40km/h 자동차 속도에서는 가시권이 100° 인데 비해, 130km/h의 속도에서는 가시권이 30°로 3배 이상 줄어들게 된다. 자동차의 빠른 속도는 보행자와의 시각적 소통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보행약자의 사망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속도와 소통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 결과는 도시공간의 ‘폭력’을 촉발한다. 폴비릴리오가 전쟁의 원인을 속도라고 보았듯이, 속도는 컨트롤의 한계를 넘어설 때, 엄청난 사고와 폭력을 유발한다. 우리사회의 폭력이 도처에 난무하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도시공간의 속도가 컨트롤되지 못할 때 우리 도시공간의 환경은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된다. 속도의 경쟁적인 점유욕망은 일부 효율적 소통을 가져다 주지만 더 많은 소통을 잃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4) 시각폭력 [비쥬얼 비올러스 - Visual viol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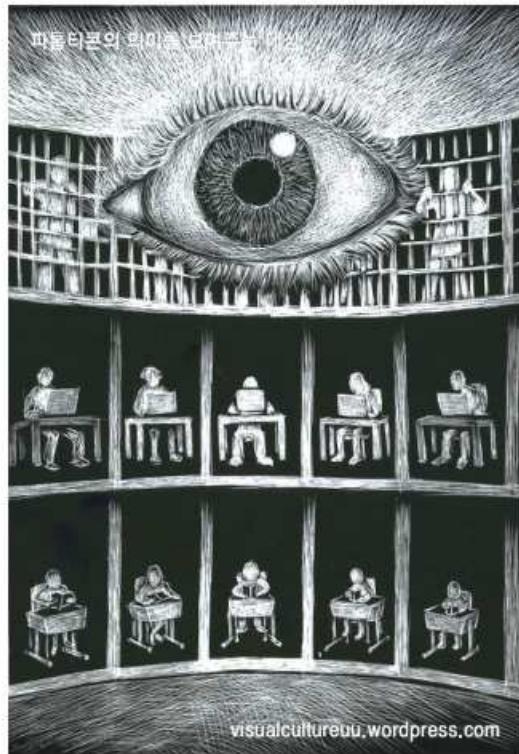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은 바로 시각이다. 그 만큼 시각은 매우 중요하고, 오늘날 모든 종류의 정보가 시각화 되어가고 있으며,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바로 동영상이다. 더 많은 정보를 취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도시 공간의 시각의 폭력성이 나타난다. 도시의 공간구조가 속도에 의해 재편되었고, 도시의 길은 끊임 없는 속도의 장이 되었다. 이러한 속도의 공간에서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며 무차별적인 시각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옥외 광고물이다. 빠른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시각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는 상업주의 공간에서 극명하게 그 폐해가 드러난다. 일본을 비롯한 거대도시들이 빠른 속도의 자동차 중심 도시공간구조를 지향하며 도시경관은 무질서하고 폭력적인 간판들에 의해 점령되었다. 여기서 시각적 폭력이 발생된다.

필자가 보는 시각적 폭력은 공공의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시각매체들이다.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시각적 소통은 시간의 축적에서 우러나오는 역사적 흔적과 사유가 동반되지만, 도시에서 경험하게 되는 시각적 소통은 일방적이며 무질서하다. 이러한 일방적이며 무질서한 시각적 폭력의 흥수는 속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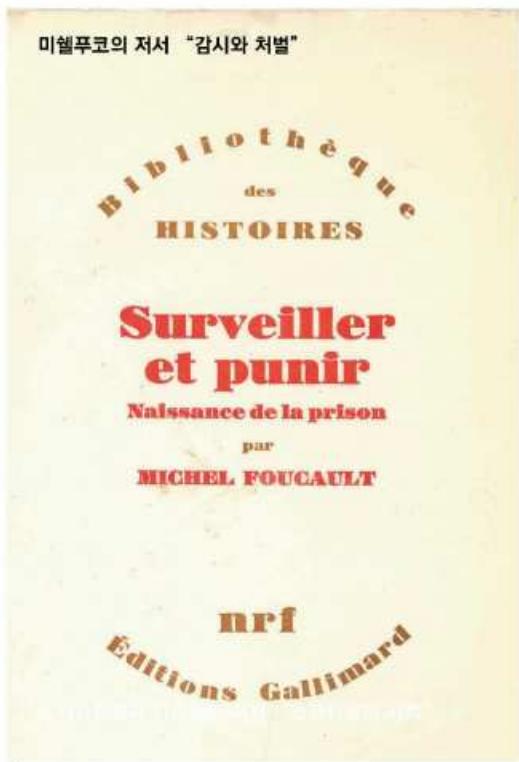
깊은 사유를 동반하지 못하는 시각적 소통은 TV와 같은 미디어 매체가 가장 대표적이다. 미디어 매체를 통한 일방적인 시각 주입은, 우리의 도시공간을 소통의 존재가 아닌 선택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바로 옆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기에 바쁘다. 즉 우리의 도시공간은 스펙타클의 대상인 것이다. 프랑스의 상황주의자이자 맑스주의자로 알려진 기드보르는 현대사회를 ‘스펙타클의 사회’라고 정의했다. 결국 우리 도시의 환경은 소통과 일체화 대상이 아닌 선택적이고 개별적, 파편적이 되어버렸다.



감시의 상징인 CCTV 카메라



파울티쿤의 그림에서 가져온 것



미셸푸코의 저서 “감시와 처벌”



프랑스 철학가 [Michell Foucault]

속도를 늦출 때, 역사적 충들과의 소통이 회복되고, 역사적 정체성을 쌓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속도를 높혀 정보를 정복하는 것보다 역사적 충들과의 소통방법들을 만들어가는 도시공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각적 소통이 축적되어야 문화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5) 통제와 감시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우리사회에서 어느덧 일상이 되어 버렸다. 최근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는 화성연쇄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폭력, 1인 주거에서 발생되는 성 범죄나 폭력, 미디어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폭력사건이 보도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 공간에서의 불안이 극대화되자, cctv 설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을 추적하거나, 폭력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어쩌면 매우 당연한 조치라고 여기게 되었다. 혹은 셉 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추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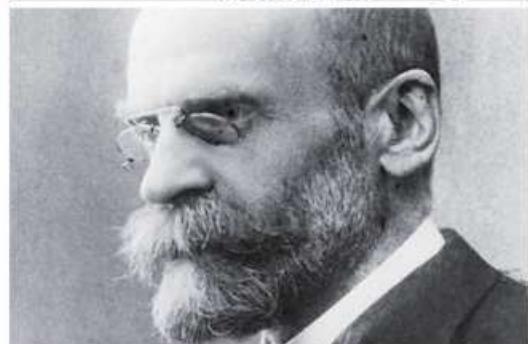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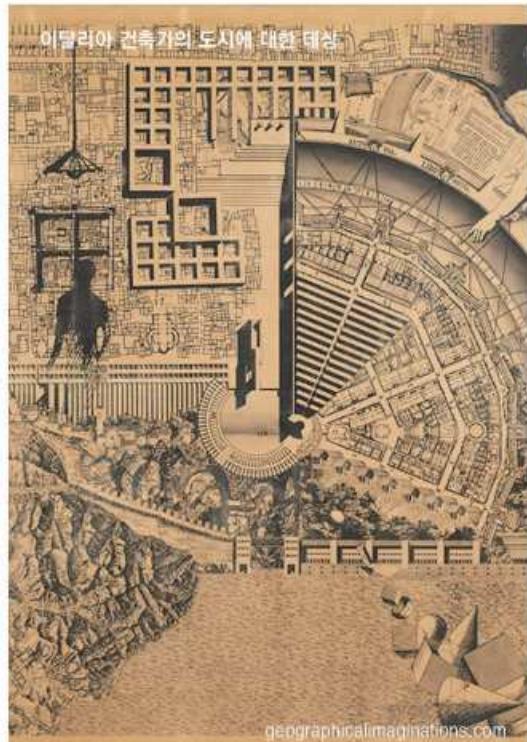
도시공간에 거주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 때문이다. 홀로 시골과 자연에 살기보다 유사한 조건에서 집단으로 거주할 때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번쯤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과연 도시에 사는 우리는 안전한가? 왜 우리의 도시공간에서는 끊임없이 범죄가 발생하고, cctv 설치와 cpted 도시설계는 과연 범죄예방에 적합한가?

수많은 통계와 자료를 기반으로 범죄발생의 감소효과를 증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사는 도시공간에서 범죄가 일상적으로 지속되고 있는가? cctv 설치는 과연 문제가 없는가?

프랑스 철학자인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감시와 처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주거환경과 도시공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근대에는 공개처벌로 권력이 한 사회와 조직을 통제하려 했다면, 근대에는 대중으로부터 격리된 별도의 통제공간에서 집단적 공포심에서 생긴 통제가 아닌,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훈련하고 조직에 맞게 길러내는 새로운 감시와 처벌 형태로 변화된다. 푸코는 새로운 형태의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는 감옥과 학교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cctv가 상시로 돌아가는 도시공간도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감옥과 비슷하다. 개인이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소통과 상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사회 조직에 알맞은 기능적인 존재로서 맞춰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 아파트 공간과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공간배치가 크게 다르지 않음도 마찬가지 사례가 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통제와 감시받는 공간에서의 성장과 거주가 억압된 정서를 만들고, 그러한 억압된 정서는 도시공간에서 다양하고 일상적인 폭력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속도에 지배되고, 통제와 감시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거주하는 우리사회에 내재된 폭력이 과연 cctv와 cpted라는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가?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도시공간의 재구조화와 대규모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의 확산되었지만,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공간에 대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이해와 해석 그리고 의지들이 종합적으로 발현된 것들을 다시 심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였던 오래된 골목과 낙후된 지역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렇다면 왜 낙후되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가? 예나 지금이나 낙후성이 동일하다면, 왜 오늘날에만 범죄가 발생하는가?

답은 아주 간단하다. 범죄가 발생하기 힘들 정도의 탄탄한 커뮤니티의 형성. 그것은 다시 ‘소통’에서 비롯된다.

6) 기억의 장소, 기억의 집적체로서의 도시

정체성은 시간성과 집단성이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서 작용한다. 쉽게 말하자면, ‘과거로부터의 것을 같이 기억하는 것’이다.

여기서 도시가 갖는 의미가 발현된다. 즉 여렷이 같이 모여 사는 사람들끼리 공통으로 기억하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기억이 전승] 되어가고 그것이 일정한 삶과 양식으로 표출 될 때 ‘정체성’을 말할 수 있다. 도시에서는 기억의 집단성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쉬[Maurice Albache]는 ‘집단의 기억’을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이다. 알박쉬는 1925년 ‘기억의 사회적 구성 틀’을 출간하고 특유의 ‘집단기억이론’을 펼치며 기억의 사회적 조건과 형성구조 그리고 기능방식을 규명하였는데, 이러한 집단기억은 특정한 공간을 매개로 구축된다고 주장하였다. 알박쉬의 이론을 이어받은 피에르 노라[Pierre Nora]는 이러한 집단기억들이 공간을 통해 매개되고, 그러한 공간은 ‘기억의 장소’ 혹은 ‘기억의 터’로 설명한다. 이것을 도시공간과 연결시키면 집단의 기억이 담겨있는 ‘집단기억의 장소’가 된다. 역으로 도시의 공간은 집단의 기억을 담고 있고, 그곳에서 또다시 집단으로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도시민들은 지속적으로 그 공간을 통해서 그 기억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기억들을 축적시켜간다. 이러한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켜켜이 쌓여가는 기억들의 집적체가 바로 도시인 것이다.

오래된 낡은 주택가의 골목을 걸어갈 때 바라보게 되는 작은 골목의 공간, 햇살에 비춰진 보도블럭, 그 사이에 피어나고 있는 작은 풀들, 오래된 담장의 갈라진 페인트 자국, 그리고 그 공간에서 뛰어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은 그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기억되어, 그 공통의 기억을 갖는 이웃들과의 소통은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그것이 나아가 문화로 자리 잡고, 또다시 그것들은 세대를 통해 전승되고 공유되고 기억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쌓여가는 기억들의 집적체로서의 공간. 그것이 바로 ‘도시’인 것이다.

우리가 도시의 이러한 시간속의 집적된 기억들과의 소통을 고려할 때, 도시의 어느 한 구석이라도 함부로 지워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기능과 효율의 문제를 넘어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지역의, 더 나아가 한 도시의 수많은 기억들의 담겨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도시의 생명을 지켜주는 젖줄이기 때문이다.

7) 도시지운 도시, 도시위의 도시

소통이 우리사회의 화두가 된지는 매우 오래되었다. 중세유럽의 건축물이 매시브한 석재위주의 구조로 달혀 있고, 고립된 공간들이 분할적 구성을 보였다면, 근대에 들어서는 공간간의 연결과 확장에 관심을 두고, 공간의 소통, 그리고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소통되는 건축흐름으로 변화했다. 한국의 도시에서 이러한 소통의 개념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철골구조와 통유리가 유행하며 내부공간이 외부에서 투명하게 보이는 건축물을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흐름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도시안에서도 커뮤니티의 형성을 주제로 마을만들기, 지역민들 간의 소통을 위한 공간 등 꾸준히 소통이 화두로 자리잡고 있으며, 도시재생의 커다란 화두 중에도 소통이 있다. 앞서 건축물의 내·외부간 공간적 소통과 비교해 필자는 시간적 소통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의 존재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다.”

[je suis ce que je regarde (french) / I'm what i look(english)]

앞서 언급한, 기억의 집적체로서의 도시공간은 시간적 소통에 매개체로서 작용한다. 오래된 도시일수록 이러한 기억의 집적체로서의 시간적 소통이 다양하고 깊어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시위의 도시”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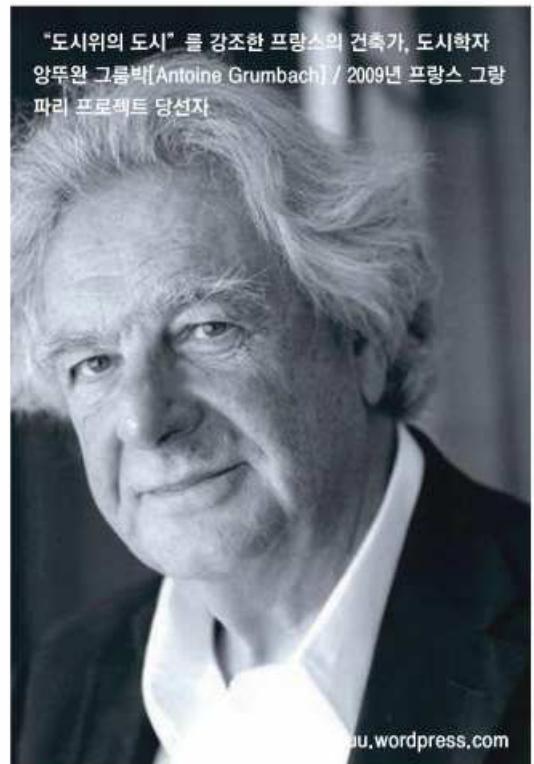
도시위의 도시는 프랑스의 건축가이자 도시계획자인 ‘앙뚜완 그룸박 [Antoine Grumbach]’가 주장한 이론이다. 도시의 시대적인 층들이 계속해서 적층되고 쌓여져 도시변화가 만들어낸 수많은 시대적 케들이 지속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쌓여진 도시변화는 실제 고고학 발굴을 통해 물리적 지층을 형성하지만, 도시의 수평적 확장이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중동지방의 예루살렘 도시의 경우, 역사적 성벽의 모습에는 하단부로부터 상부에 이르기까지 고대 이스라엘시기, 그리스로마 점령시기, 이슬람점령기, 오스만 투르크[터키]에 이르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고스란히 남아 있다.

다른 한 예로, 프랑스 파리 도시의 경우 고대 로마시기에 형성된 동서남북 교차축의 도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이 도로축을 따라 로마시대부터, 르네상스, 루이14세, 나폴레옹 시기의 오스만 정책에 의한 도시 변화 및 팽창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도시의 중심부로 갈수록 과거로 거슬러 올라 로마시대 건축물과 골목들을 볼 수 있으며, 도시 외부로 향할수록 현대 건축물을 볼 수 있다. 도로를 따라 도시 중심으로 간다면 우리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로마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파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922년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르꼬르 뷔제의 파리도시개조계획(파리 중심부를 전면 철거하고 고층아파트단지를 건설)이 있었지만, 전문가와 시민들의 반대로 철회되자 그 역사적 모습이 보존될 수 있었다.

우리는 어떠했는가?

“도시위의 도시”를 강조한 프랑스의 건축가, 도시학자
양뚜안 그룸박[Antoine Grumbach] / 2009년 프랑스 그랑
파리 프로젝트 당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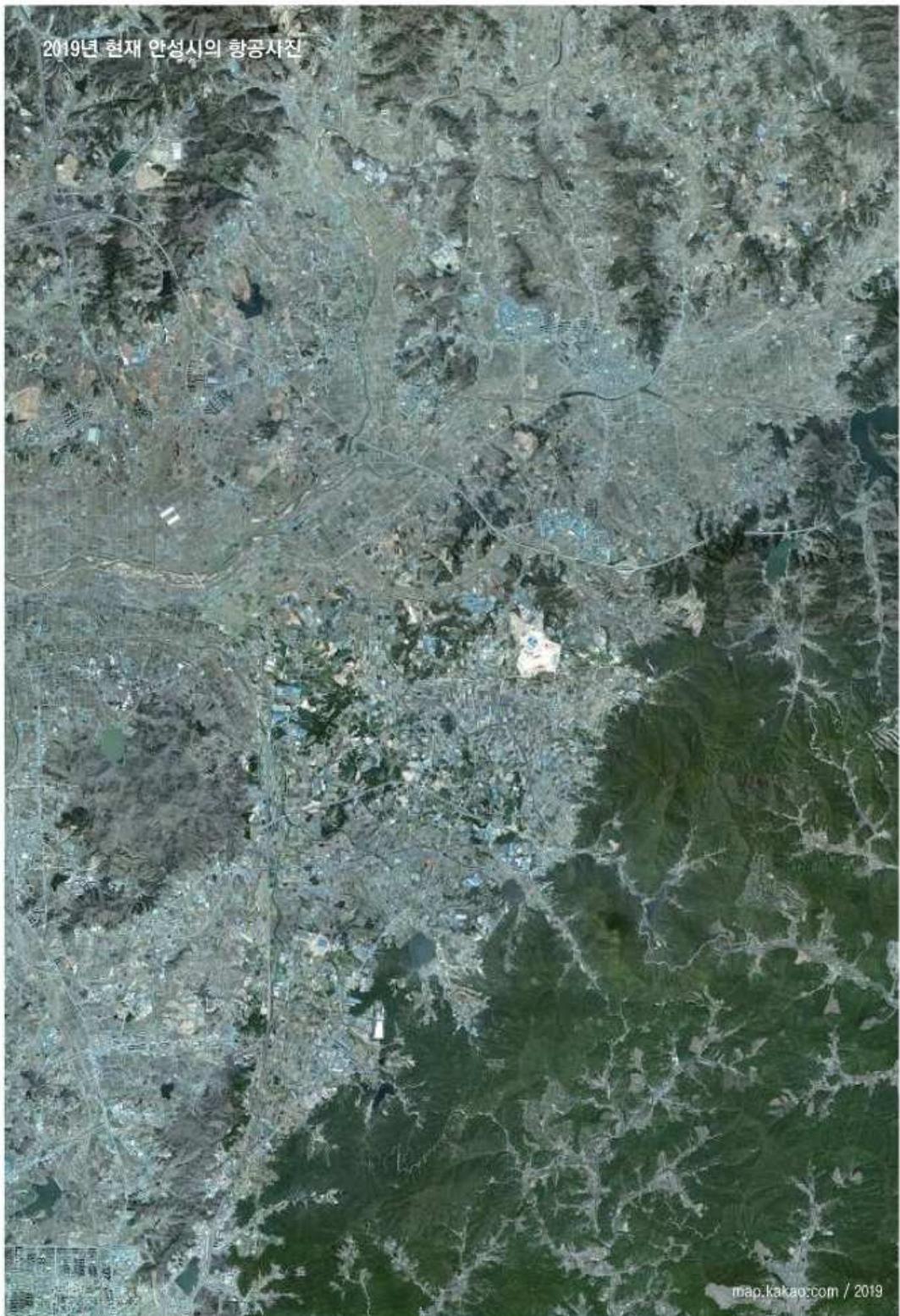
grumbach.eu.wordpress.com



우리의 도시역사는 철저히 ‘도시지운 도시’를 만들어 왔다. 새로운 도시 지음을 위해 기억의 집적체로서의 도시는 아무 성찰도 없이 도시의 지워짐을 수용해왔다. 기억의 집적체인 도시공간을 강제로 지울 때 반드시 그곳에는 폭력이 발생한다. 용산참사의 사례가 그렇고, 지금도 수많은 도시 재개발 지역에서 그러한 폭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러한 폭력은 온전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자행되는 측면이 강하다.

도시위의 도시는 첫째 땅에서 시작한다. 단순히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구조물[도로, 건축]만이 아닌, 자연에 의해 형성된 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원형적이다. 둘째 그 땅의 역사 존중에서부터 시작된다. 도시위의 도시로서 시대적 충들이 계속 축적될 때, 집단의 기억의 장소로서, 공간적 시간적 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이것은 곧 도시의 풍요로움이 된다. 오래된 것이 단지 도시개발에 거추장스럽거나 방해요소가 아닌, 그것 이면에 담겨있는 도시의 수많은 의미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수많은 도시가 정체성을 브랜드가치화하고, 선동적인 문구를 통해 도시를 홍보하려 하지만, 도시위의 도시를 존중하지 않는 한, 그것은 모두 의미 없는 일이다.

안성시를 생각하며,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보길 원한다. 오래된 것의 가치와 잠재력을 되새기며 안성시가 갖고 있는 상징, 장소성, 집단의 기억, 그래서 도시위의 도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토대로 어떤 미래를 지향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3. 안성시 근대도시 역사 개요

1) 개요

고구려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안성시는 조선시대 3대시장의 도시로서 잘 알려져 있다. 근대초기의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경부선이 1905년 지금의 평택역과 함께 건설되면서, 안성시는 주요 교통노선에서 이격된 채 균현대를 지나왔다. 이 과정에서 평택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축의 개발이 본격화되었지만, 역으로 안성시의 도시 확장은 조선시대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의 행정구역 변천과정에 따라 오늘날의 안성시는 약 553.41km²의 면적을 갖고 있으며, 경기도의 최남단에 위치한다. 서쪽으로는 평택, 북동쪽으로는 이천시, 남쪽으로는 안성천을 경계로 천안, 진천, 음성, 북쪽으로는 용인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안성시는 전 토지의 48%가 산지이고 경지는 29.5%이다. 고삼정수지, 금광저수지, 마둔 저수지, 칠곡저수지 등이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전체적으로는 동북이 높고 서남의 경사가 완만하여 남북으로 형성된 차령산맥은 지역을 동·서로 나누고 동쪽으로는 청미천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안성천과 조령천, 한천이 합류하여 서해로 흘러 나간다. 남쪽으로 서운 산(547m)이 충남북과 도계를 이루며 솟아있고 관내 전역에 크고 낮은 산들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으며 남·서쪽으로 장년기 및 노년기의 구릉지이며 하천의 발달로 평야가 넓게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에 의해 안성시 남측 부동서축으로는 넓은 평야가 안성천을 끼고 펼쳐져 있으며, 이러한 지형적 조건은 서측의 아산만 일대의 바다와 평택으로부터 안성천을 따라 편서풍과 계곡형 바람을 따라 안성에 이른다. 이러한 기후적 조건은 평택 및 평택항의 현황이 안성시와 연결되어있다.

도시의 기본구조는 비봉산[227.8m]의 정상에서 살짝 외편으로 비껴나간 지점에서 천안시 성거산[579m]의 정상과 직선 축을 이루는 풍수에 의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전체적인 도시의 구조는 이 전통도시구조의 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지역으로의 도시 확장이 진행되면서 남북축의 공간구조가 기존의 구조와 결합되면서 그 구조가 변형되고 있다.

안성시는 전체인구 약182,843명으로, 경기도 권역 내에서 18위로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며, 19세 이하는 줄고 있고, 65세 인구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도시의 인구노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안성시의 총 행정구역은 1개 읍 [공도읍]+11개면+3행정 동으로 구성되어있는데, 평택지역의 도시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공도읍 지역의 인구가 약 57,000명으로 안성1~3동의 인구 약 53,800명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인구분포를 갖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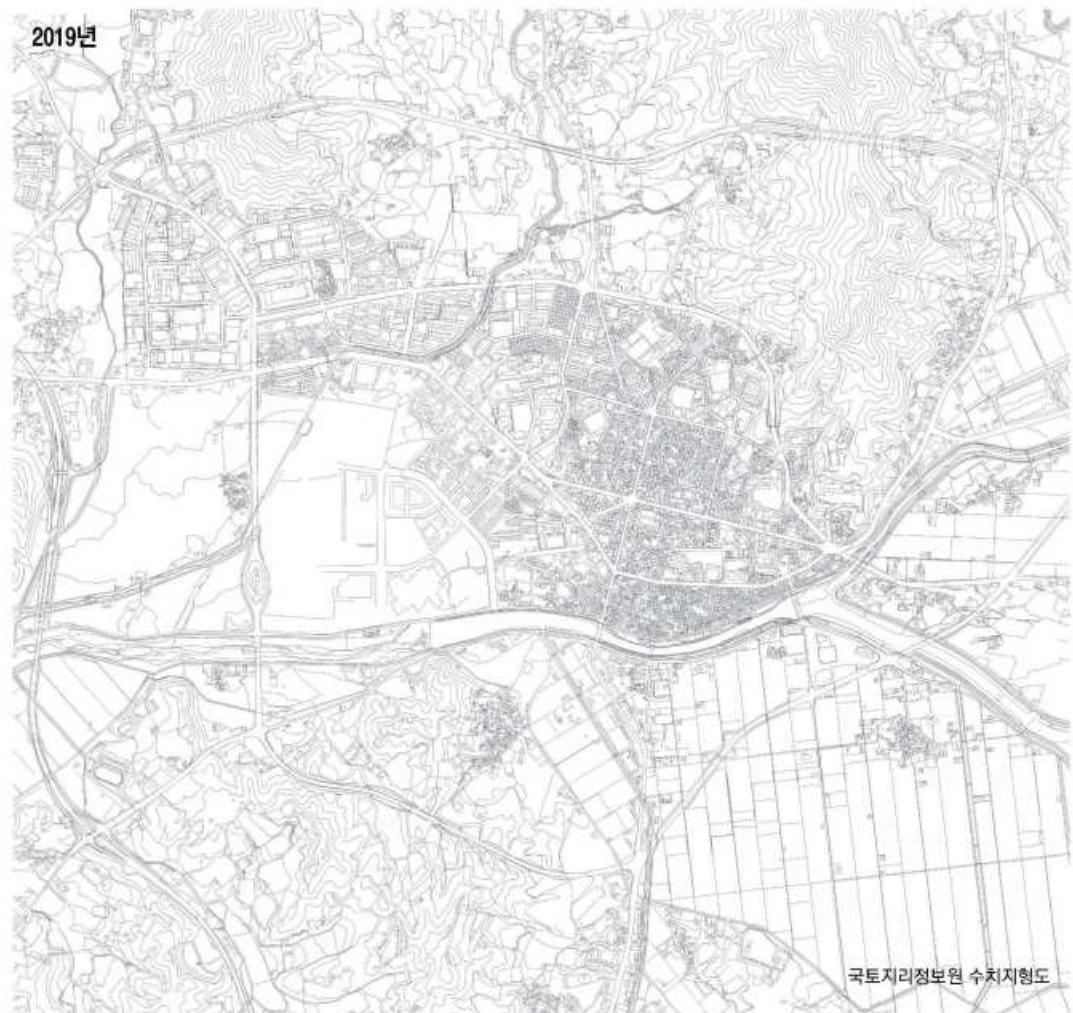
전체 교통기반시설로는 평택과 인접한 경부선의 안성IC를 중심으로 서측 끝부분에 남북으로 경부선이 관통하고,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안성시 남측을 동서로 지나고, 중부고속도로가 동측 이천시에 인접해 남북으로 지나간다.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볼 때 안성시는 광역교통망과는 상당히 이격되어있고, 북동 측의 산맥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보다는 풍수와 넓은 들, 그리고 깊은 산으로 둘러

싸인 한적한 위치에 형성된 역사정체성이 강한 도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를 이용해 약1시간 정도면 서울시내 진입이 가능해서 충분한 교통잠재력을 갖고 있다.

2) 도시역사 연표

1905년 1월 1일	진위군 병남면 통복리 [현, 평택시 원평동]에 보통역 개설[경부선 건설]
1909년 1월 15일	사립 공교 안법학교 설립 인가, 설립자 프랑스 선교사 공안국(孔安國, Gombert Antonio) 신부
1910년 4월 1일	사립적성학교 설립(양성사립보통학교, 개교 1912년) [현, 양성초등학교]
1914년 3월 1일	안성, 양성, 죽산 등 3개군을 통합하여 안성군 설치 [일제에 의해 지방행정 구획 개편]
1919년 3월 11일	안성의 3·1운동 (3.11~4.3)
1921년 9월 27일	공도공립보통학교 설립인가(개교 1922년)[현 공도초등학교]
1919년 9월 30일	안성선 착공 [천안-안성]
1922년	구포동성당 건립
1924년 2월 1일	일죽공립보통학교 개교 [현 일죽초등학교]
1925년	천안-안성간 안성선 개통 [1956년 경기선을 안성선으로 개칭]
1927년 4월 16일	죽산-장호원 안성선 개통[확장]
1930년 12월 15일	용인군 고삼공립보통학교 개교 [현 고삼초등학교]
1932년 12월 5일	금광공립보통학교 개교 [현 금광초등학교]
1933년 9월 16일	원곡공립보통학교 개교 [현 원곡초등학교]
1934년 4월 1일	미양보통학교 부설 보체간이학교 인가 [현 보체초등학교]
1937년	안성읍으로 승격
1937년 5월 7일	원곡 초등학교 개교
1939년	안성공립농업학교로 설립 [현 한경대학교]
1940년 6월 15일	비봉간이학교 개교 [현 동신초등학교]
1946년 9월 1일	양성 명륜 공민학교
1947년 12월 3일	금광초등학교 개산분교장 설치인가 (1948년 6월 8일 개교) [현 개산초등학교]
1950년	안성농업고등학교 개편(안성공립농업학교) [현 한경대학교]
1951년 8월 31일	안법고등학교 인가
1952년 10월 14일	양성중학교 인가
1954년	토지구획정리사업시작 [새로운 격자형 도시구조로 변화]
1956년 2월 28일	양성고등학교 인가(공립 3학급)
1956년 7월 28일	삼죽초등학교 마전분교 인가 [현 마전초등학교]
1957년 2월 22일	도립양성중학교 인가(6학급)
1963년 1월 1일	용인군 고삼면을 안성군에 편입
1963년 9월 1일	서운국민학교 산평분교장 설립 인가 [현 산평초등학교]

1964년 3월 5일	미양국민학교 개정 분교장 인가 [현 개정초등학교]
1964년 4월	안성군립도서관 개관
1965년	안성농업고등전문학교 개편(1970년 안성농업전문학교 교명 변경) [현 한경대학교]
1976년	구획정리사업완료
년도 미확인	안성시장을 기준의 창전동, 낙원동 일대에서 서인동으로 이전
1977~79년	한경대학교 국립 이관 및 안성농업전문대학 승격 [현 한경대학교]
1979년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설립
1982년 3월 1일	원곡국민학교 성은분교로 개편
1983년	신시장(서인동) 이전 완료
1983년 2월 15일	안성군 원곡면 용이리, 죽백리, 청룡리, 월곡리 및 공도면 소사리를 평택군 평택읍에 편입
1984년	안성선 폐쇄
1985년	경부고속도로방향 대덕면 건지리, 소현리, 모신리 일대에 제1공업단지 조성완료
1987년 1월 1일	보개면 양복리 일부를 금광면에, 삼죽면 남풍리, 동평리, 가현리를 보개면에 편입
1992년 9월 30일	이죽면을 죽산면으로 명칭 변경
1993년	안성산업대학교 승격 [현 한경대학교]
1993년	미양면에 2공업단지 조성
1993년 4월 8일	대덕면 건지리 일부, 대덕면 소현리 일부를 안성읍에 편입
1994년 3월 1일	비룡초등학교 인가
1995년	내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착공
1995년 3월 1일	일죽초등학교, 금산분교장 통폐합 [현 일죽초등학교]
1996년 3월 1일	공도초등학교로 개칭, 공제국민학교 통폐합 [현 공도초등학교]
1997년 6월 6일	보개면 2개리(가사리, 가현리)와 대덕면 3개리(모산리, 건지리, 소현리 일부)를 안성읍에 편입
1998년 4월 1일	안성시 승격으로 도농 복합시 설치, 안성읍을 3개동(안성1동, 안성2동, 안성3동)으로 명칭 변경
1998년 9월 1일	일죽초등학교, 장암초등학교 통폐합(현 일죽초등학교)
1999년	한경대학교 교명 변경
	내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완공
	신시가지 조성. 석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완료와 함께 석정동, 당왕동 일대 고층아파트 건립)
1999년 3월 1일	양성 초·중통합학교로 운영
2000년 10월	경기도 안성공장 준공(롯데 칠성음료)
2001년 6월 1일	공도면을 공도읍으로 승격
2008년 8월 1일	가사동 종합버스터미널. 시외버스 운행
2008년 11월 13일	안성시립중앙도서관 개관
2011년 3월 1일	만정초등학교 개교
	공도초등학교, 만정초등학교 분리
2012년	한경대학교 종합대학으로 전환
2016년 5월	안성시는 7년째 방치돼온 가사동 종합버스터미널 복합상가를 특별법에 근거해 철거키로 결정
2018년 2월 28일	원곡초등학교 성은분교 폐교



4. 안성시 근대도시 형성 및 변화

1) 도시형태 유형학적 접근

안성시는 지리적 자료 및 항공실측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항공사진의 자료수집이 충분하지 못하였으나, 기초적인 지도와 항공사진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하여, 10년 주변 단위로 구분하고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사진이나 지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선정하였다. 지도 및 항공사진은 안성시를 중심으로 4등분 구분되어서 각 년도의 지도를 4개씩 취합하고, 경우에 따라서 작성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접한 년도의 지도 및 항공사진을 서로 조합하여 구분하였다.

총 46개의 지도 및 항공사진을 수집하였으며, 여기서 위 지도와 항공사진을 근접한 년도 별로 구분 정리하여 15개의 지도로 구분하였다. 구분된 년도 별 지도 및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1. 1914년 + 15년 + 22년 지도
2. 1946년 항공사진
3. 1954년 항공사진
4. 1964년 지도
5. 1969년 항공사진
6. 1974년 항공사진
7. 1977년 지도
8. 1989년 지도
9. 1999년 지도
10. 2010년 항공사진
11. 2014년 항공사진
12. 2016년 항공사진
13. 2018년 항공사진

위 지도와 항공사진은 동일한 스케일[축적]으로 재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일한 스케일에서 도시구조 및 도시영역 변화를 비교 분석하면서 도시의 확장과 구조의 변화,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의 특성 및 배치의 성격, 지형의 변화 등을 살펴본다.

2) 1910년대[1915-22년 지도 : 조선시대 및 일제강점기 시기의 도시구조]

일제강점기 초기 지도를 토대로 조선시대말의 도시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1914, 15년과 1922년 지도를 참고할 때 도시는 북측과 남측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떤다. 당시 지도에는 현재의 안성시 북측 [안성3동]지역과 남측[안성2동] 그리고 도기리[도기동] 지역의 건축물들이 밀집 분포

되어있고, 현수리[현 현수동]와 바로 윗 쪽에 작은 촌이 형성되어있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현재의 70국도 - 장기로]를 중심으로 남과 북측으로 건축물 밀집분포가 분리되어있다. 크게 볼 때 3 지역으로 구분되어있는데, 안성천 곡류지점을 중심으로 남과 북측으로 분리되어있는 지점 사이를 좌우로 흐르는 실개천이 놓여있었다. [현 일부구간 복원]

동서를 가로지르는 안성천을 중심으로 안성천 윗 부분에 과거 진위와 여주 이천방향의 도로가 중심이 되고 남북방향으로 두개의 도로가 평행하게 지나고, 현수리에서 북서방향으로 진행되는 도로가 겹쳐지면서 전체적인 도시구조는 남북방향으로 나란한 형태를 띠고, 동측의 삼각형 구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몇 가지 의문은, 첫째 왜 남측과 북측의 도시화가 구분되어 형성되었는가? 이다. 사회적 계층에 의한 지역적 분리, 혹은 기능적인 분리, 혹은 토착민과 이주 혹은 보부상의 주요 거점 혹은 거래지점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과거 전통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창전동 일대는 동서축의 도로[장기로]와 남북축 도로[안성교-중앙로 104길 일대]의 교차지점에서 특이한 형태[다른 지점에서의 표현 방식과 다른 모자형]의 모습을 지도에서 볼 수 있는데, 모자형의 표현을 고려해 볼 때, 중앙부에 마당이 형성되어있고 마당을 중심으로 'ㅁ'자형의 시장공간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현재는 우측부분이 일부 변형된 모습으로 그 블럭의 초기 모습이 상당부분 남아있다. 현재는 신흥 농산물 판매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남측 도로변을 향해서는 여전히 마당이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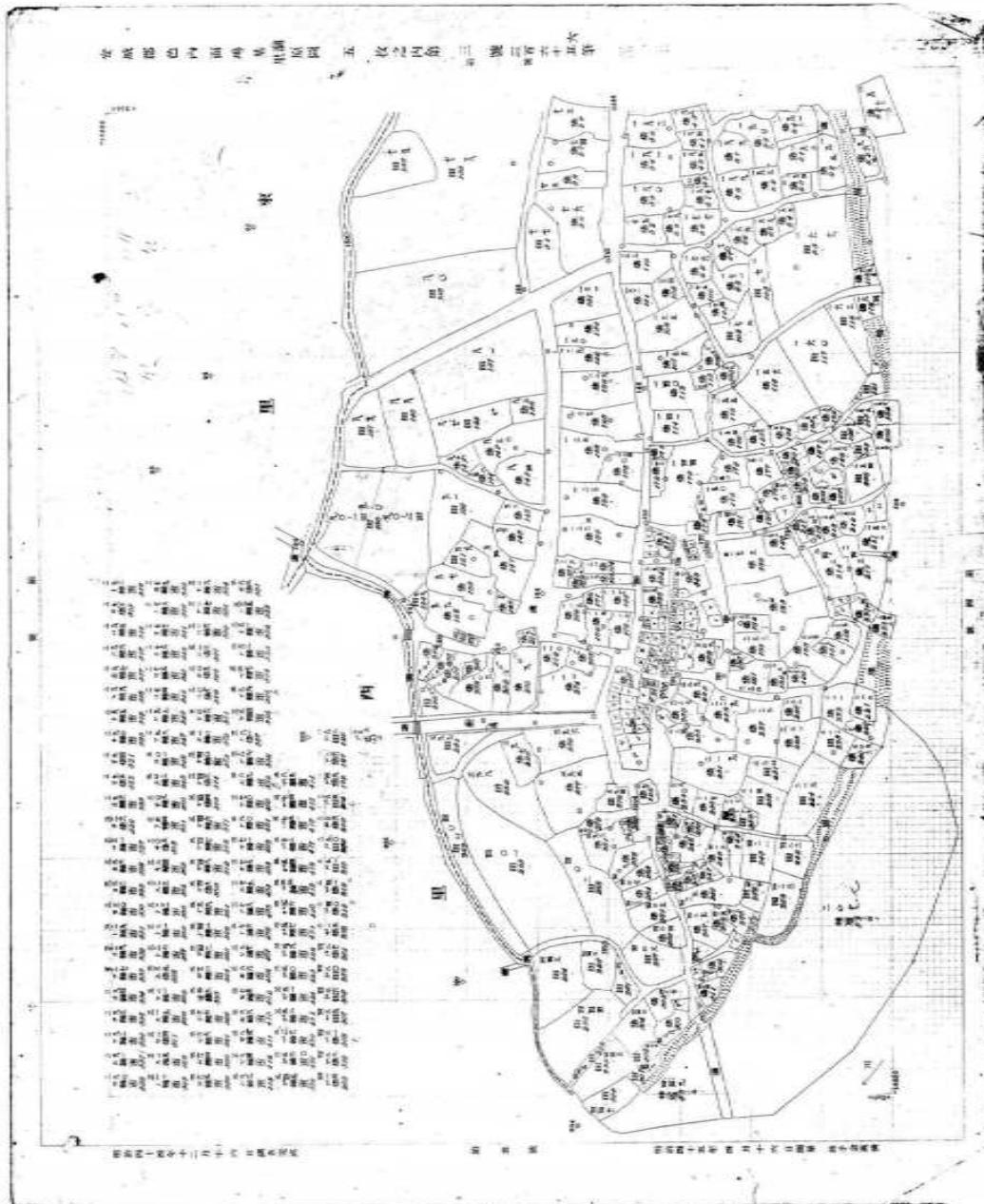
전체적인 도시 밀도는 남북축으로 형성된 두 도로사이 구간에 건축물 밀도가 높게 표현되어있고, 장기로 남측에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동서축 도로를 따라 북측으로는 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남측으로는 밀도가 낮게 표현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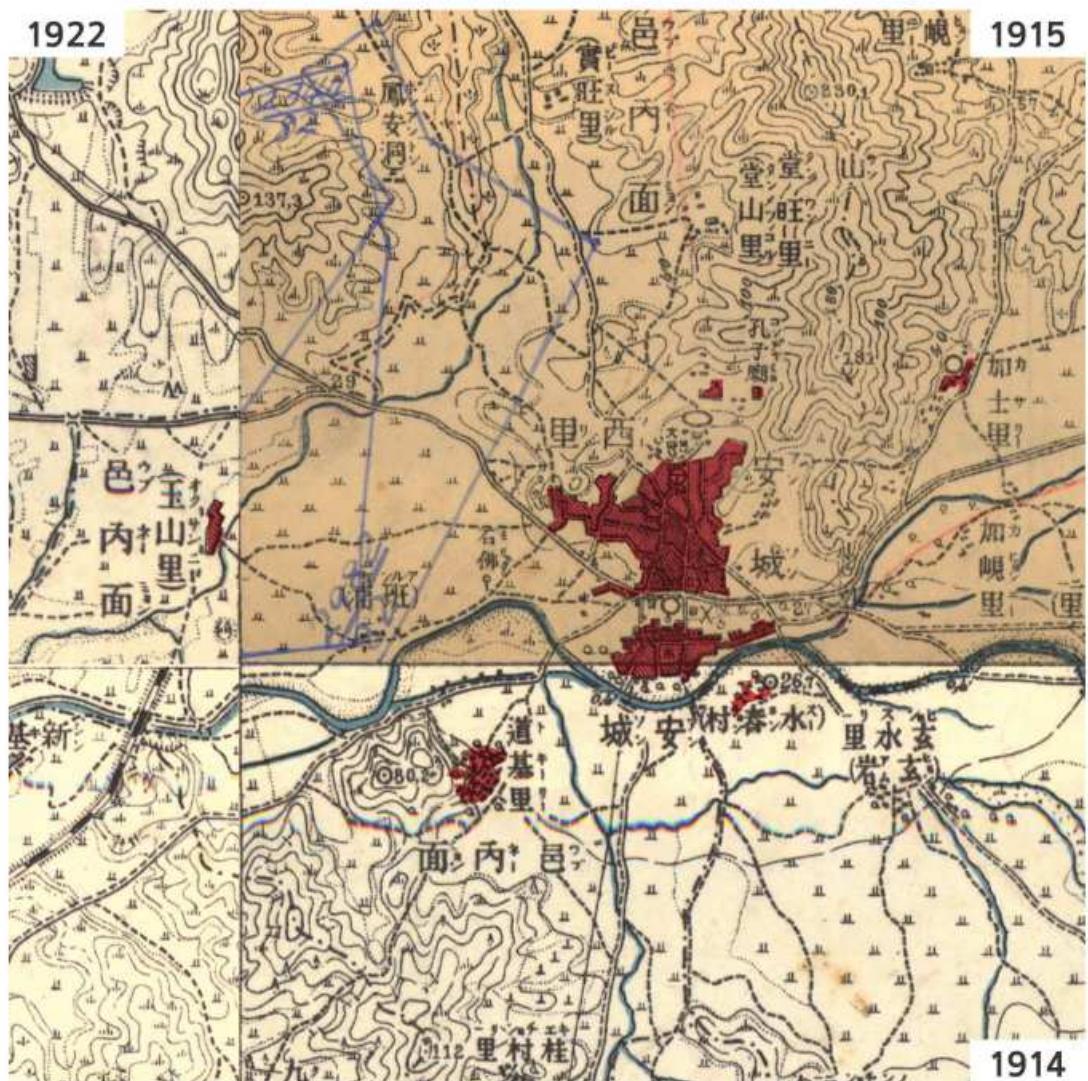
도시가 남북 두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있고, 남북으로 평행한 두 도로를 사이로 밀도가 높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도로의 중요도는 남북축 도로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도로에 건축물 밀도의 분포를 비교해서 도로의 중요도를 고려할 수 있는데, 시장 형성의 주요 길이 동서축의 도로일지 남북축의 도로일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

전체적인 건축물의 밀도 분포를 볼 때, 두 번째 위계를 갖는 표현 영역이 남측 보다는 북측으로 넓게 분포 되어있는 것은 조선말기~일제강점기 북측의 진위, 오산, 수원방향으로의 관계가 더욱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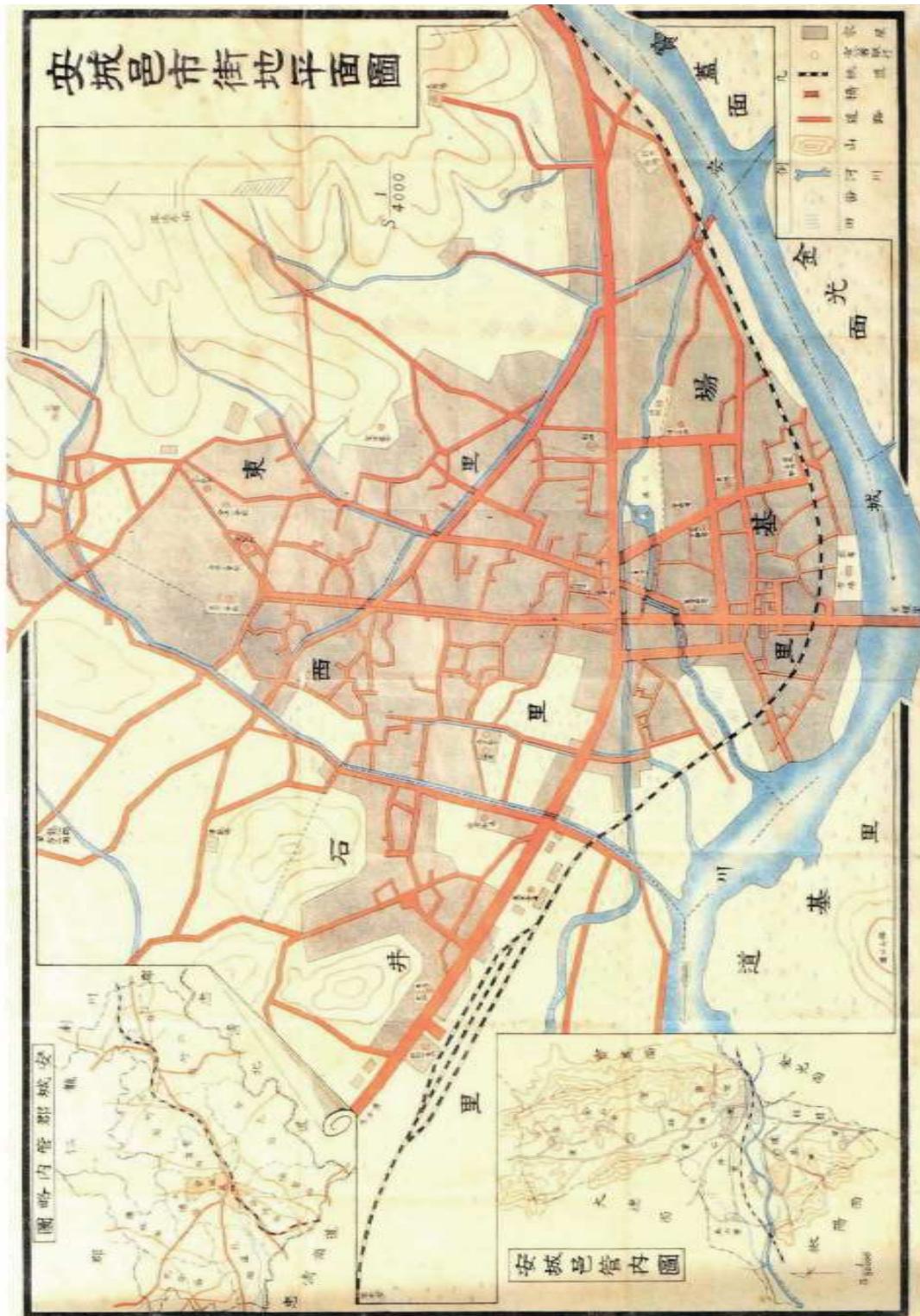
안성천의 모습을 볼 때, 현재의 모습보다는 훨씬 곡류의 모습을 갖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존재하는 아양동 석불입상의 지점까지 곡류천이 형성되어있었고 현재의 아양1로와 도기1길을 따라 형성되어 있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12년





1987



3) 1940년대[1946년 항공사진]

남북 세로축 중심도로 [안성교 - 중앙로 400번길 - 안성초등학교]

1914년과 1922년 지도가 갖는 공간표현 정확도의 한계를 1946년 항공사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안성시의 도시구조는 남북방향의 현재의 안성교에서 안성초등학교 방향으로 형성되어있는 직선도로[현 중앙로 400번길]와 동서방향 장기로가 전체도시 구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마치 고대 로마의 도시 기본구조인 카르도와 마르쿠스[Cardo & Decumanus]처럼 동서남북 축이 교차를 이루고, 안성초등학교 방향으로 사선을 그리며 동북 측으로 흘러가는 도로[현 중앙로 419번 길]가 그 축을 사선으로 깨며 지나간다. 이 사선도로의 배치와 분포는 지형적인 영향과 북측 도시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1914년 지도에서 나타나는 도시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남북방향으로 나란한 두 도로가 실제 항공사진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도로의 위계나 중요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도로확장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동서축 중심도로 [장기로 - 낙원길] 중심의 도시구조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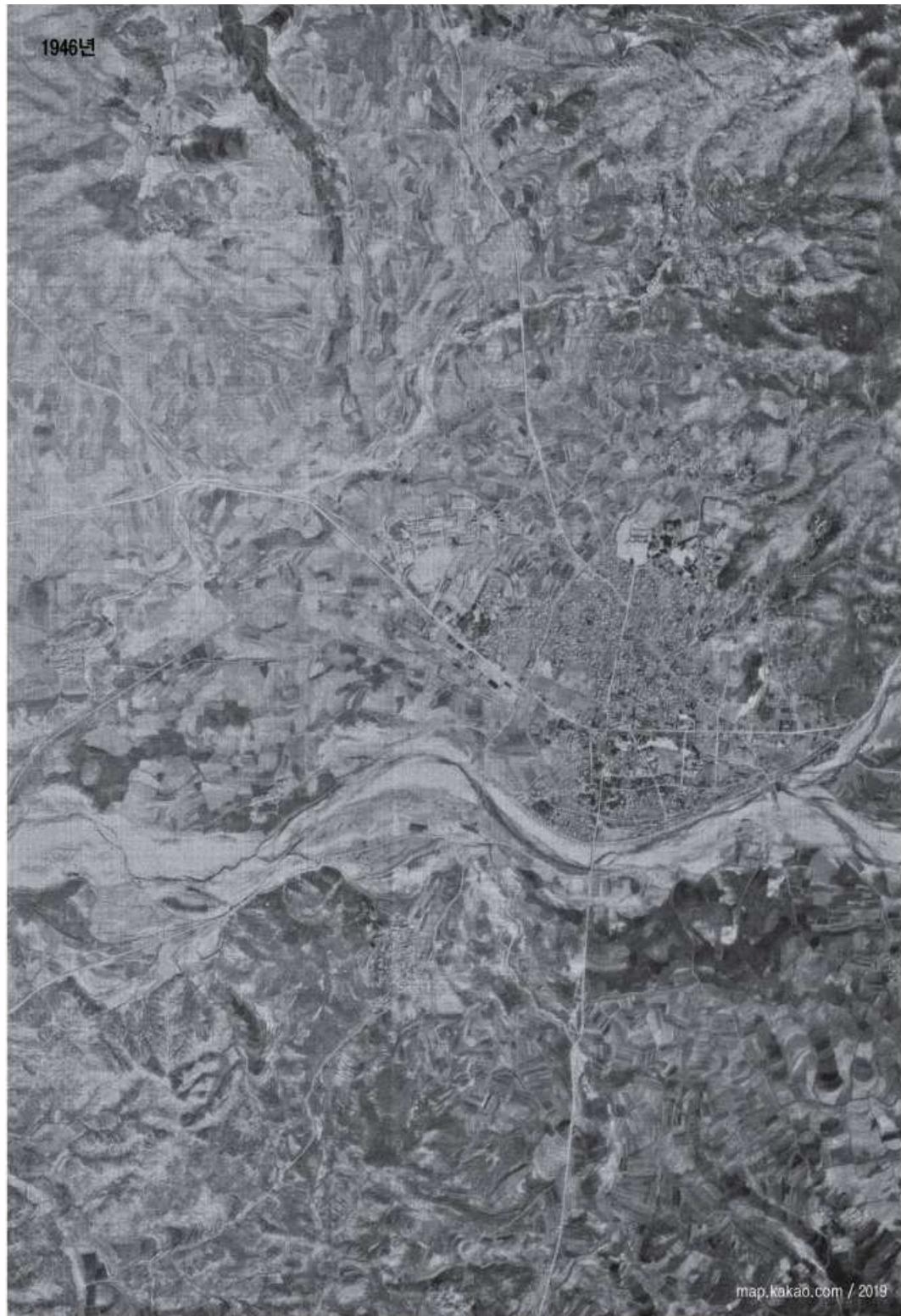
1914-22년 지도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동서축의 도로 위치는 1946년 항공사진을 통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장기로에서 낙원길과 연결되는 길이다. 안성농협 남측 교차로에서 서인동 공영주차장을 지나 낙원역사공원과 안성1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되고, 봉산로터리에서 현재의 보개 원삼로로 연결되는 도로이다.

도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 도로는 안성천에 나란하게 위치하는 안성선과의 일정하게 이격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측에서 만나는데,

1915년~1946년 사이의 도시변화를 고려해 보면, 동서축의 도로를 따라 주요한 건축물들이 안성역 주변으로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다. 위 시기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학교시설이 남북측도로 끝 향교 옆에 나타나고, 도시 외곽 쪽으로 동서중심 도로를 따라 형성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도시전체 구조는 중심부의 동서축 도로를 따라 남측으로 격자형 도로구조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도시의 중심부로 작용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안성 1동 주민 센터로 이용되고 있는 위치에 1946년 지도에도 그대로 커다란 필지와 건축물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위 건축물은 일제강점기 지어진 근대건축물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있다.

중심부의 동서방향으로의 격자형 재구조화

여기서 변화된 모습은 과거 남측과 북측의 건축 밀집분포와 이격되어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았던 중간부분에 격자형 형태의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다. 남북축 중심도로인 중앙로 400번 길 주변으로 건축물들이 들어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도시 밀도가 진행되지 않았고,



중앙로 400번 길과 사선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중앙로 452번 길[현재]을 제외하고 3개의 세로축 도로가 확연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915년 지도에서는 남북축의 도로는 2개뿐이고, 사선방향으로 지나가는 도로를 포함 총 3개의 도로가 남북으로 도시를 관통하고 있다. 그러나 1946년 지도에서는 위 3개의 도로 외 3개의 주요 도로와 희미하게 보이는 도로가 중심축 도로와 만나고 있다. 현재에도 위 도로는 [물방아거리]로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필지와 건축물의 방향 또한 옛 도로질서에 순응한 채 남아있다.

안성역과 안성선 철로 건설

경기선[안성선]은 지도에서 서측에서 북측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현재의 한경대학교 앞부분으로 안성역사가 보이고, 다시 안성천을 따라 곡선을 그리면서 동북 측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안성역 주변부로 검은색 건축물의 모습이 기존 주거 건축물에 비해 비교적 큰 규모로 철로와 나란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안성천변으로 도시 남측부에는 북측에 비해 건축물의 밀집도나 분포도가 불규칙하게 나타나 있고, 남북 중심축 도로의 우편은 건축물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흰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경기선의 출현으로 인해 철도부설을 위해 주변지역을 철거했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또한 도시주변부인 북서 측에 도시로부터 이격된 채 큰 규모의 학교건물과 운동장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구) 백석초등학교[현, 안성 몽실 학교 건립 예정]자리 이고, 비록 건축물은 신축된 것이지만 현재에도 그대로 초기 배치를 유지하고 있다.

안성천을 통과하는 유일한 교량 - 안성교

안성천 남측 도기동 마을이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다. 서측의 언덕을 등에 진 형태로 동측의 평야지대를 바라보며 불규칙한 형태로 건축물들이 밀집되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항공사진을 통해 구체적인 도시공간의 질서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건축물 볼륨의 흐름과 질서를 볼 때, 자연지형을 따라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의 세로 중심축인 중앙로의 도로는 안성교를 지나 남쪽을 향해서는 직선으로 형성되어있지만, 북쪽 도기동 방향으로는 도로질서가 형성되어있지 않다. 위와 같은 도로구조로 볼 때, 안성시와 도기동과의 관계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도기동쪽에서 안성시 방향으로 진행되는 도로가 안성교쪽을 향하지 않고, 그대로 내혜홀초등학교 방향으로 향하다가 안성천 우측으로 꺾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1940년대 까지 안성시는 도기동과의 관계보다는 안성시 남측 [천안 입장면, 진천방향의 도로] 의 다른 방향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안성선이 안성시 서측 안성천을 건너는 철교의 모습이 항공사진에서 나타나고, 이 외에는 안성시 세로 중심축으로 작용한 도로를 연결하는 안성교가 유일한 교량으로 보인다. 이외에는 하천을 보행으로 건너는 징검다리 형태의 연결방식이었

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천의 우측 거리미길 일대는 하천의 범람으로 넓게 모래사장이 분포되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주기적인 하천 범람으로 인해 마을이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1915년 지도에는 거리미 일대의 마을의 흔적을 분명히 표현되고 있으나 1946년 항공사진에서는 그 흔적을 찾 아볼 수 없다. 다만 동남 측의 현수동[현]일대에는 마을의 모습이 지금과 동일한 위치에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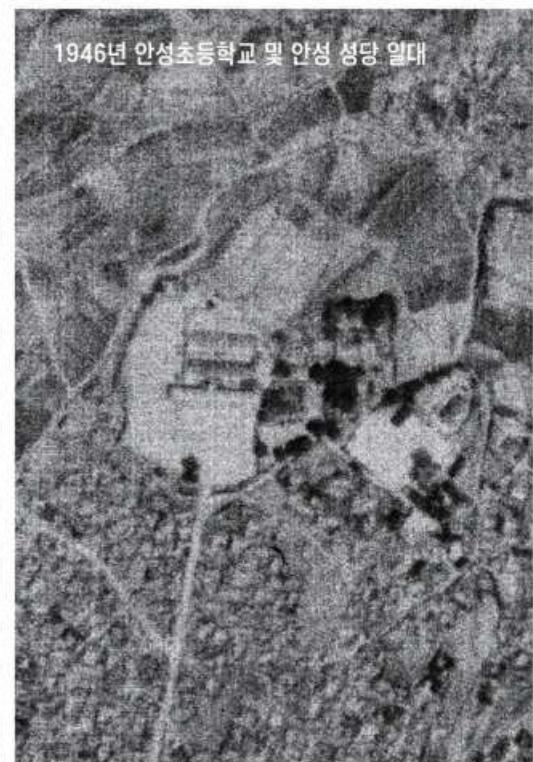
4) 1950년 [1954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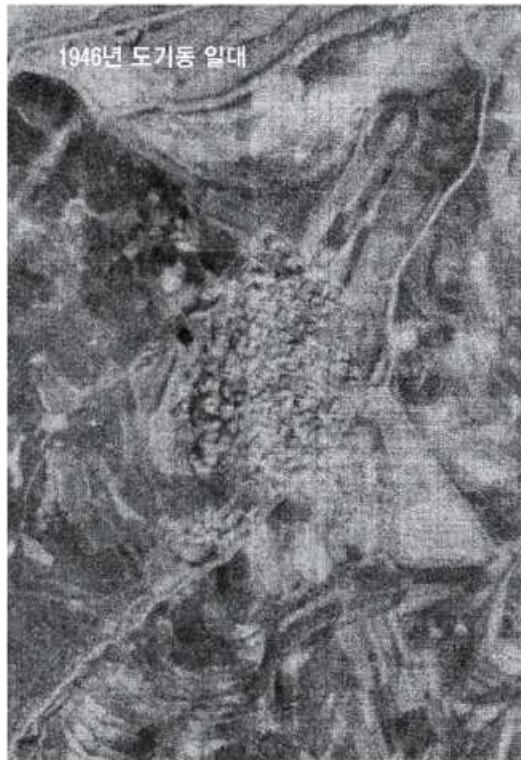
안성시 중심부의 도시 밀도화 진행

6·25전쟁이 끝난 지 1년 지난 안성시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기존의 도시구조의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이 시기의 두드러진 도시변화의 특징은 1946년 항공사진에서 나타나는 중심부의 격자형 도시구조 지역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전히 동서축 도로를 따라 안성역 주변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어서 도시 중심부의 도시 밀도화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시 남측의 안성천변을 따라 우측 변에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분포되어있는 것을 볼 때, 1946년 항공사진에서 비어있는 터에 작은 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 우측 천변 마을에 도시 밀도화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안성천변의 건축물의 특징은 사진상의 컬러가 블랙의 군집으로 나타나는데, 개량한옥지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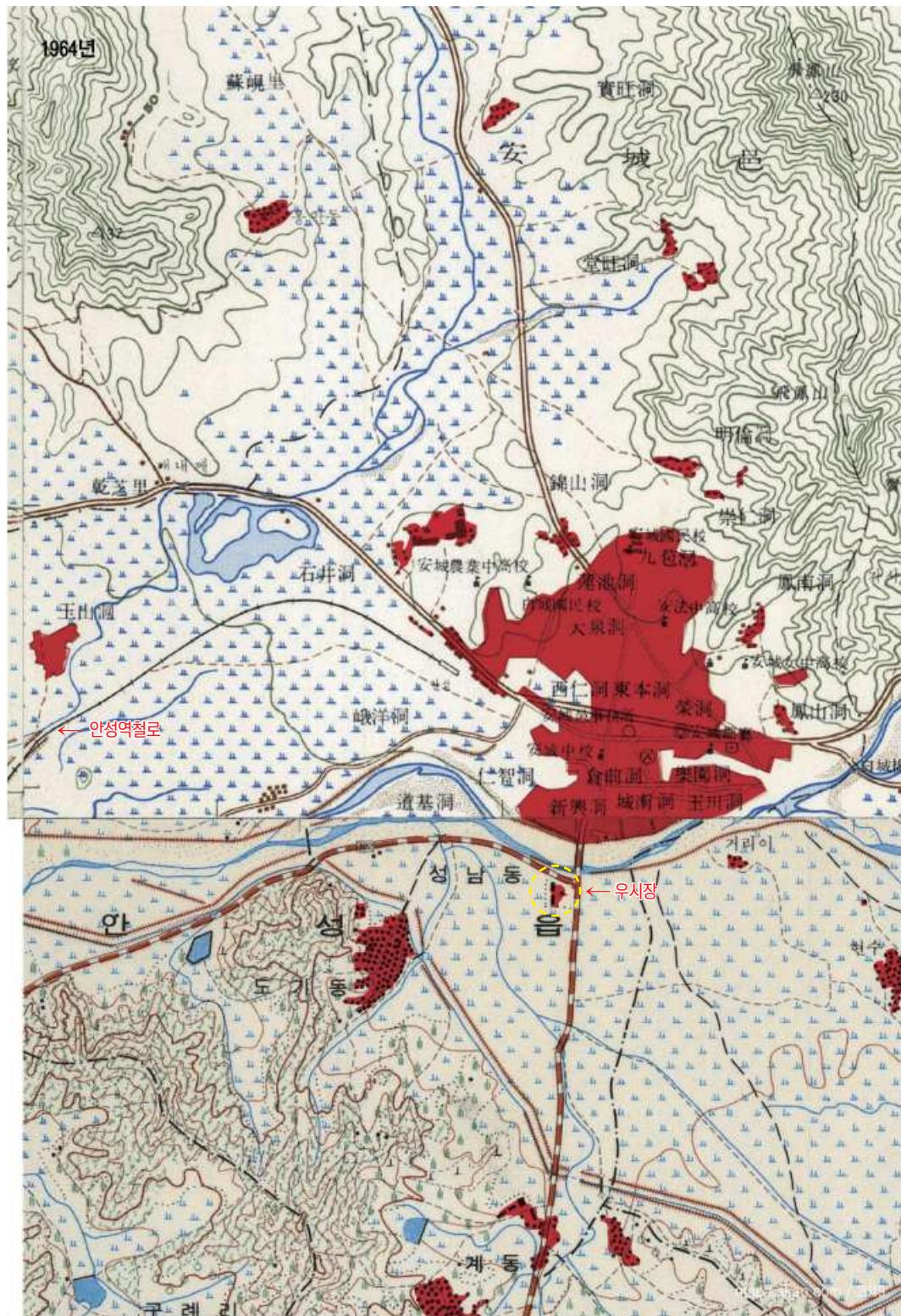
현재의 안성시 신흥동 일대가 그 지역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건축물은 서울에서 유행하던 개량한옥지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배치 및 구획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도시조직의 흔적은 현재 까지 그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데, 장거리 2길의 소로와 필지, 그리고 건축물들이 아직까지 50%가 랑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근대초기의 안성시 최초의 계획된 집단 주거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도시들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안성시 최초의 계획된 개량한옥을 통한 집단 주거지일 경우, 이러한 사업을 진행한 주체와 사업방식, 그리고 분양의 과정 등 또한 안성시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남북축 중심도로인 중앙로 400번길 주변으로 검은색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지역 또한 기와지붕을 갖는 개량한옥들이 집단적으로 출현했을 가능성성이 보이며, 오늘날에도 부분적[안성시 남측]으로 한옥의 구조를 갖는 건축물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 1960년대[1964년지도 + 1969년 항공사진]

기록에 의하면 1954년 6·25전쟁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60년대를 거쳐 1976년에 완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위에서 살펴본 1954년 항공사진은 촬영일자가 1954년 1월로 되어있어, 구획정리 사업 바로 전단계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후 1964년 지도와 1969년 항공사진에는 전혀 새로운 격자형 도시구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964년 지도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큰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하나는 장호원 방향의 철로가 사라진것과 기존의 가로세로 중심축 도로에서 새로운 중심축 도로가 만들어진 것이다.

사라진 안성선 폐선로 구간의 낯선 점유 건축물들의 등장

1944년 선로 공출 명령으로 안성~장호원 간 41.8km 구간을 폐지하게 되는데, 1946년, 1954년 항공사진에서는 철로 폐선구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1964년 지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천안방향에서 안성 역까지만 철로가 남아있게 되고, 안성천을 따라 곡선을 그리며 있었던 철로는 보이지 않는다. 1969년 항공사진은 이와 같은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안성 역은 여전히 몇 개의 선로가 겹으로 있으면서 플랫폼의 모습도 나타나지만, 도시쪽의 구 선로구간은 작은 건축물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폐 선로구간에 나타나는 불규칙한 건축물들의 점유 모습은 1979년 항공사진에서도 동일하다. 이러한 모습은 공유지의 선로 구간이 폐선이 되면서 무허가 판자구조의 건축물들에 의한 점유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기를 점유했던 사람들이 안성시 사람인지 혹은 시장이나 상행위와 관련된 외부인들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점유형태로 인해 이 지역의 일정한 문화나 생활양식들이 주변과 영향을 맺으면서 그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크다.

안성시 새로운 동서중심축로 - 중앙로의 등장

1964년 지도에는 지도위에 낯선 두 평행한 선이 등장하는데, 이 선은 오늘날 도시의 동서를 관통하는 새로운 중심로인 중앙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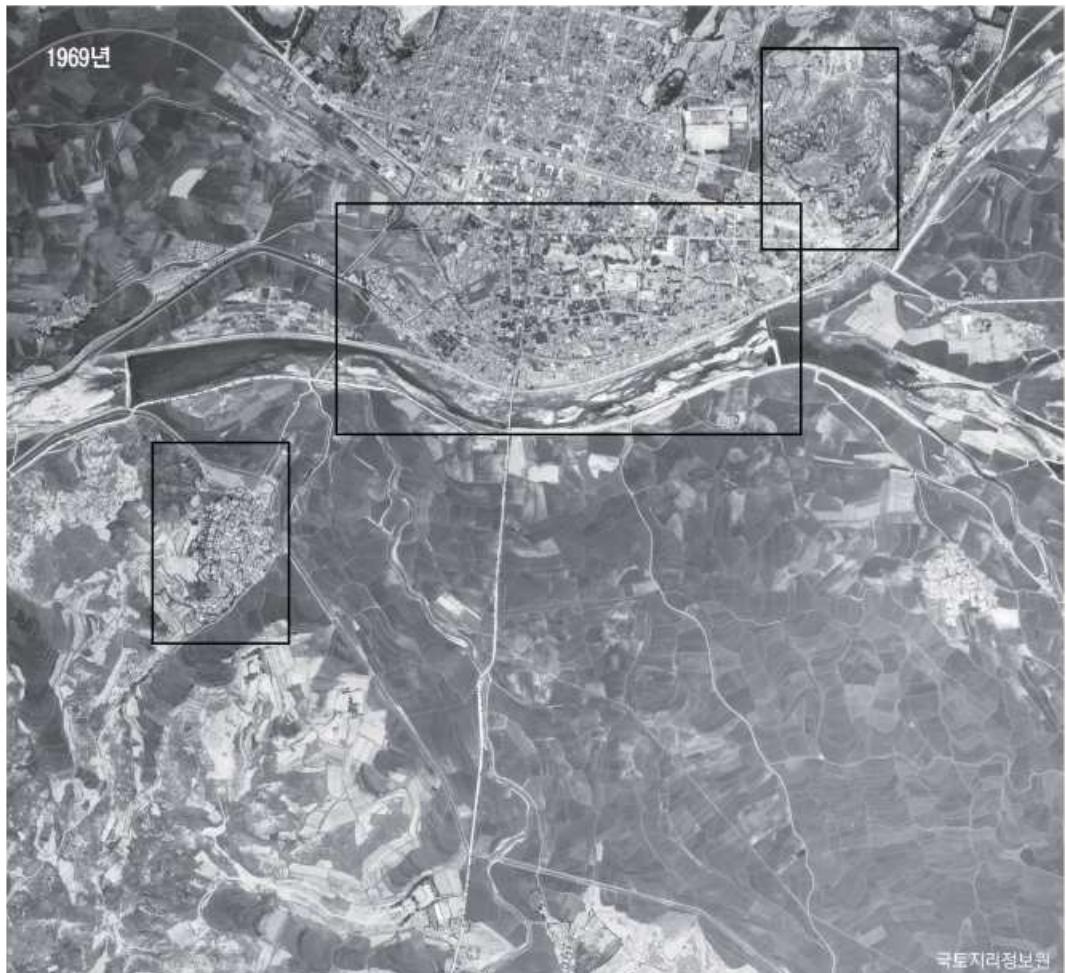
구 안성 역에서 현재의 봉산로터리까지 직선으로 도시를 관통하는 길이 약 1.3km 새로운 도로가 출현한다. 이 시기까지는 기존의 도시구조가 도로를 따라 유지되고, 새로운 동서 중심축이 추가되어 나타날 뿐이다. 기존의 사선방향의 도로나 세로축의 중심도로 등 그대로 그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에, 안성천 남측에 도기동 윗부분 하천 변을 따라 안성교로 연결되는 도로와 남북중심축인 안성대교와 연결되는 도로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동서축 중심도로의 직선화의 모습은 여전히 안성시의 주변과의 교류가 남북축으로의 교류보다는 평택의 성장과 관련하여 동서축으로의 관계가 급진적으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택시가 나타나기 이전인 조선말 [일제강점기 초기시대]까지 수원방향과 천안방향으로의 관계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이 중

요했기 때문에 도시의 중심구조가 동서축보다는 남북축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경부선 건설과 평택역의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는 평택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성시의 도시구조가 동서축으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안성시는 일제강점기 초기의 동서 중심축이었던 낙원길 중심에서 새로운 중앙로가 등장하면서 동서축은 이 두개의 도로가 나란히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며, 이 두 도로 사이에 도시중심부가 위치하면서 동서축의 주요지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로서 도시의 중심구조는 구도로인 [장기로45번길 - 낙원로]와 새로운 도로인 중앙로 두개의 도로가 활시위 모양의 구조를 형성하면서 이 둘 사이의 공간이 부각된다. 이 동서축의 새로운 중앙로로 인해 세로축의 새로운 도로 -안성맞춤대로와의 교차지점에서 서서로 교차로가 안성시 전체 도시의 중심부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안성시 동측 끝부분인 현재의 봉산로로터리가 이 시기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남북중심축로 - 안성맞춤대로의 등장과 새로운 격자형 도시구조의 확대

1964년 지도에서는 아직까지 세로축의 새로운 도로가 등장하지 않으나, 현 안성축협과 서안동 사거리간의 짧은 구간에서 도로가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위 도로는 1969년 항공사진에 명확한 새로운 세로축 도로 - 안성맞춤대로로 등장한다. 기존의 남북축 중심도로였던 중앙로 400번길에서 160m 가량 이격 된 채 안성고등학교와 안성축협앞 도로[장기로45번길 - 낙원로]를 잇는 새로운 중심축 도로가 출현한다. 1969년 1974년 항공사진에는 안성축협자리는 녹지와 수목이 분포되어있다. 남북축의 새로운 이 안성맞춤대로는 동서축의 중앙로와 유사한 왕복 4차선의 도로[현재 기준]를 갖고 있으며, 이 두 새로운 도시의 중심도로를 기준으로 일정한 격자형의 도시구조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격자형 도시구조가 기준의 도시조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제강점기 서울도시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격자형의 도시질서는 세로방향보다는 여전히 가로방향의 블럭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세로방향의 도시순환구조보다는 가로방향의 도시순환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곧 여전히 평택과의 관계에 의존하는 구조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의 전반적인 구조가 격자형으로 새롭게 재편성 되었지만, 블록 내에서 존재하는 필지와 건축물 그리고 작은 소로들 간의 관계를 갖는 세부 도시조직은 여전히 그 흔적을 충분히 갖고 있다. 남측의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한옥건축물들의 분포와 도시조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전반적인 도시조직과 자연발생적인 도시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도시의 기본구조였던 중앙로 400번길 축과 나란하게 존재했던 등기소 [낙원성당]일대에서 낙원역사공원을 거쳐 장기로 92번길로 연결되는 도로 또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전통적인 도시의 기본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전반적인 격자형 도시구조는 전통적인 도시구조를 따라서 재배치되어 오래된 도로에 의한 도시구조의 변화가 축적되고 적층되어진 도시구조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1969년 안성역 주변



1969년 장기리 시장 일대



1969년 도기동 일대



1969년 안성시 등록 경사면의 주택들



제방과 하천의 정비 그리고 옛 물길의 흔적

1964년 이전까지의 지도와 항공사진에서는 해상도나 디테일 표현의 한계가 있어, 하천의 모습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없었으나, 1974년 항공사진에는 비교적 안성 시내를 관통하는 소하천이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구포동 안법고등학교 북측에서 시작해서 금산교차로 - 중앙로 371번 길 - 인자1길까지의 길[현재]이 이 시기에 하천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봉산 자락으로부터 남북을 관통하는 안성의 주요 하천이었음을 보여준다. 현재는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이 복개하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또한 중요한 안성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발굴하고 유지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동서방향으로는 낙원역사공원을 가로지르는 작은 하천의 모습이 1915년-22년 지도와 이후 각 시대별 항공사진에서 희미한 검은 선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969년 항공사진에서 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안성천과 나란한 방향으로 장기로 103번 길 - 낙원역사공원 - 장기로 69번길 - 인자4길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현재의 장기로 60번 길에서 도기1길-아양1로의 도로와 안성 하우스디 아파트 일대는 과거 안성천이 곡류천 일 때 하천이었던 곳을 새로운 제방을 쌓으면서 육지로 편입되었다. 안성천변 곡류하천의 형태를 따라 필지들이 구획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부분적으로 건축물들이 조성되어있고, 북측 천변은 그대로 논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하천 동측과 서측에 수중보의 형태가 보이며, 이로 인해 하천의 저수량이 늘어나 있는 모습 또한 볼 수 있다. 그러나 안성천을 연결하는 교량의 모습은 남측으로는 여전히 안성교 하나뿐이며 동측의 봉산로터리 부근에 교량의 모습이 보이고, 농경지는 지형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논 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964년 지도에는 도기동 앞을 흐르는 계림천의 제방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현수리 방향 조령천과 현암천 제방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경지정리 이전 제방정비공사가 1960년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고, 계동과 도기동 일대에 소규모 저수로가 보인다.

경사지형 위의 도시조직의 출현

1960년대 항공사진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도시 밀도화가 진행되고, 격자형 도시구조로 재편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의 확장이 미세하게나마 진행되는데, 안성여자중학교 주변으로 산 경사지형 방향으로 밀집된 건축물이 분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사동 방향으로 건축물들의 분포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 또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여전히 안성시의 도시의 중심은 세로축 보다는 동서축으로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안성천 남측 안성교 아래로 우시장의 등장 [추정]

1964년 지도와 1969년 항공사진에는 안성교 바로 남단측에 2개의 건축물이 등장한다. 지도와

항공사진간의 건축물의 배치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64년 지도에는 두개의 건축물이 세로로 남북도로축에 나란하게 배치되어있고 전면의 커다란 마당을 두고 있으나, 1969년 항공사진에는 두 개의 작은 건물이 안성천과 나란한 방향으로 동서축으로 배치되어있다. 이 둘 간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추후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1974년 이후 항공사진을 보면 1964년 지도와 유사한 방향으로 건축물이 세로방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전면부에 커다란 마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몇 채의 농가건축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6) 1970년대[1974년 항공사진과 1977년 지도]

1970년대에는 뚜렷한 도시의 확장이나 도시 밀도의 분화의 모습은 항공사진과 지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특이한 사항은 도기동 일대의 낙원역사공원 앞 안성천과 나란히 흐르던 하천의 모습이 사라지고 그 위치는 도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도시의 세로축으로 안성맞춤대로와 나란하게 흐르던 하천의 모습도 자취를 감추는데, 복개되어 도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시의 전체적인 구조는 여전히 38번 국도를 통해 평택과 연결되는 도로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 한경대학교 북측으로 건축물들이 증가한 모습을 볼 때 한경대학교 건축물을 증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성고등학교 주변으로 점 형태로 건축물들이 분포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주로 북측 한지동 주변으로 건축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오늘날 남아 있는 대부분의 안성시 구도심의 건축물들은 70년대의 건축물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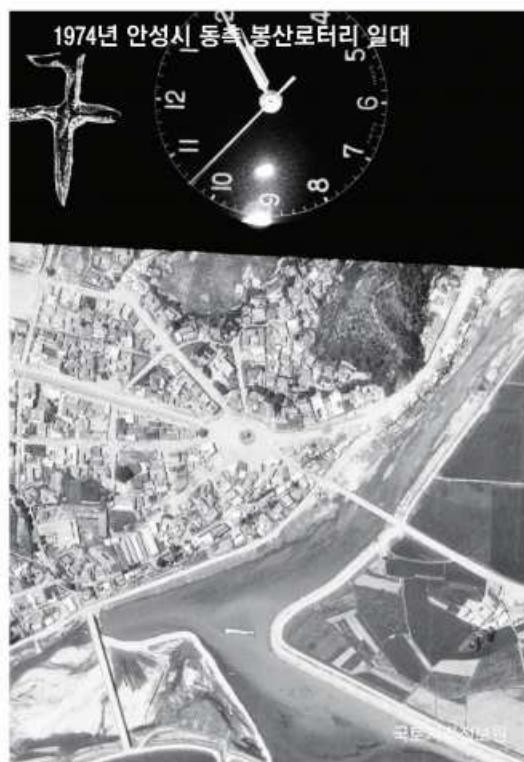
7) 1980년대[1989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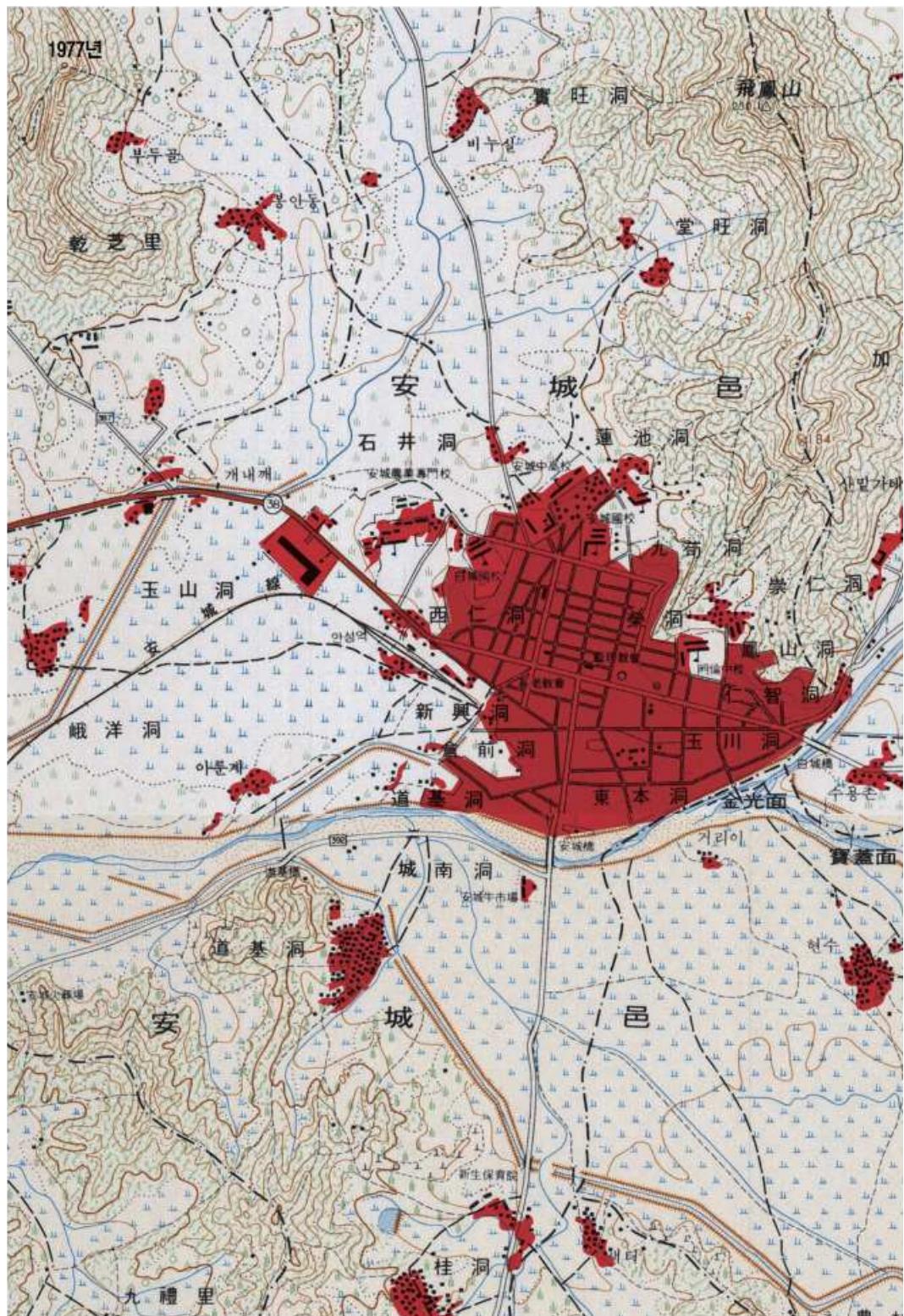
안성시 최초의 집합 주거건축물의 등장

1980년대에 두드러진 도시변화의 특징은 안성산업단지의 출현이다. 대규모의 안성산업단지는 경부선 안성IC 방향으로 형성되어있으며, 산업단지 남측으로 점 형태의 건축물들의 분포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80년대 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맨숀이나 연립주택의 모습이 등장한 것으로 보여 진다. 산업단지 남측에 등장하는 건축물들은 점 형태가 아닌 수평선의 형태로 일정한 배치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이러한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는 연립이나 맨숀인 경우가 많다. 현재의 신안주택과 삼우연립이 그 위치에 해당한다. 안성시의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건축물 주변에서 노동자를 위한 집단 주거시설로 볼 수 있다. 특히 안성시내에서는 맨숀이나 연립건축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에 반해, 이러한 건축물들은 안성시가 갖는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합건축물의 초기형태로 고려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 가치를 충분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항공사진과 지도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이러한 연립주택이나 맨숀 형태의 집합주거는 안성







시내에서 한경대학교 주변의 석정연립, 금화연립, 수정연립 등이며, 안성시 동측의 명륜 여자중학교 주변으로 봉남연립, 진흥연립, 낙원연립 등을 볼 수 있다. 1980년대의 이러한 집합주거는 안성시 도시주거 변천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연립주택이나 맨손의 배치는 남향을 기본적으로 택하고 있어 충분한 채광과 환기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안성시 집합주거 역사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시장으로 형성되었던 조선말기, 상인들이 머무르던 숙박시설이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측면의 연구 또한 안성시만이 갖을 수 있는 중요한 도시정체성의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안성천 남측 논 경작지의 경지정리

1980년대 농경지의 가장 큰 특징은 1970년대 정비되었던 하천에 이어, 논경지가 일정한 세로축의 질서를 갖으면서 경지정리가 된 점이다. 현수리 일대와 농촌리 일대를 중심으로 세로축으로 경지정리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으며, 반면에 도기동측의 성남리 일대는 도기동의 지형적 영향을 받아 사선형태의 질서로 경지정리가 되고 이 둘의 질서는 남북축을 가로지르는 339번 국도[현 강변로 74번 길]와 만나게 된다. 이로 인해 안성시 주변에서 자연발생적인 논필지 구획을 갖는 지역은 옥산동 일대, 도기동 경사지형 일부, 청재식물원 일대만 남아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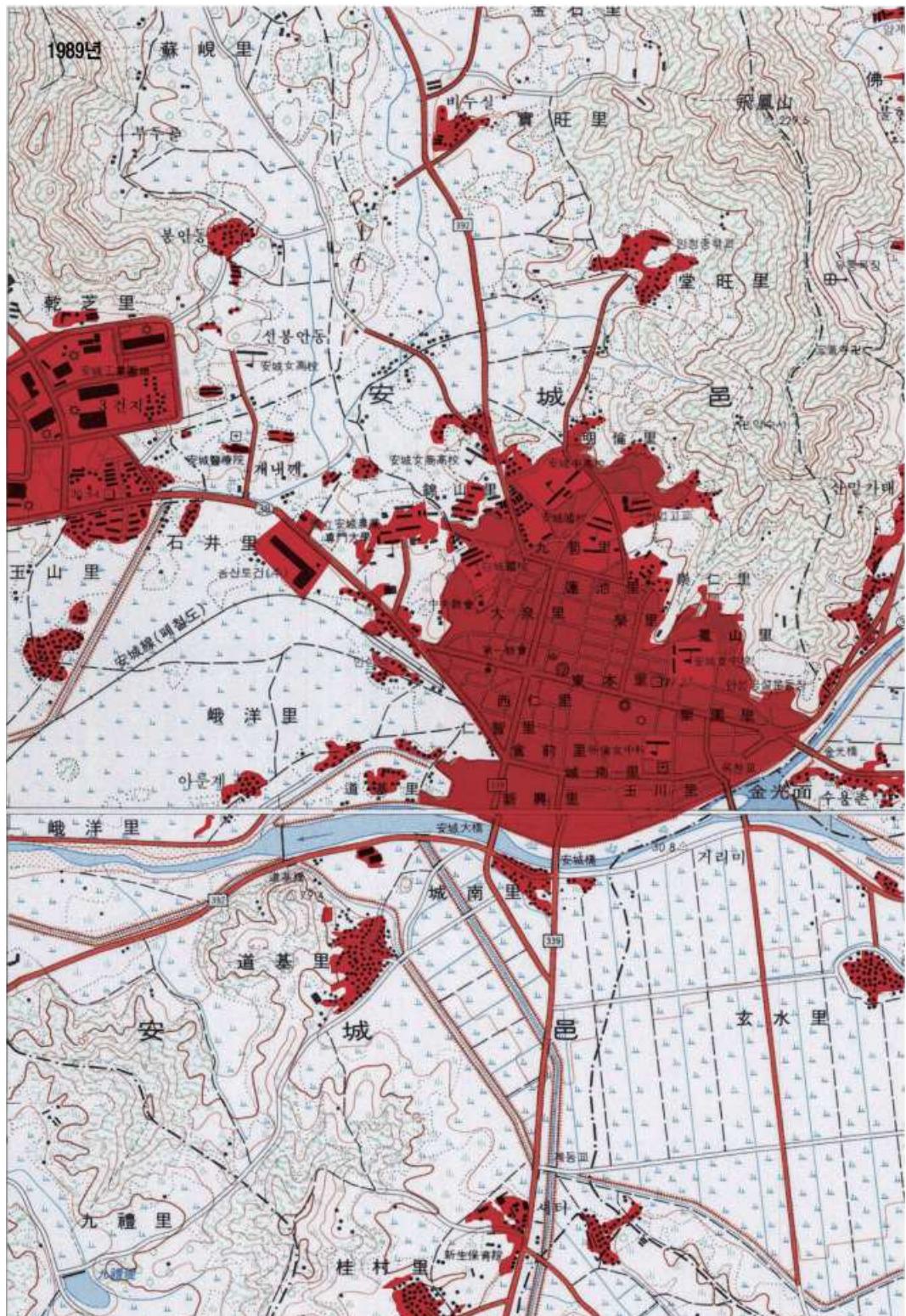
8) 1990년대[1999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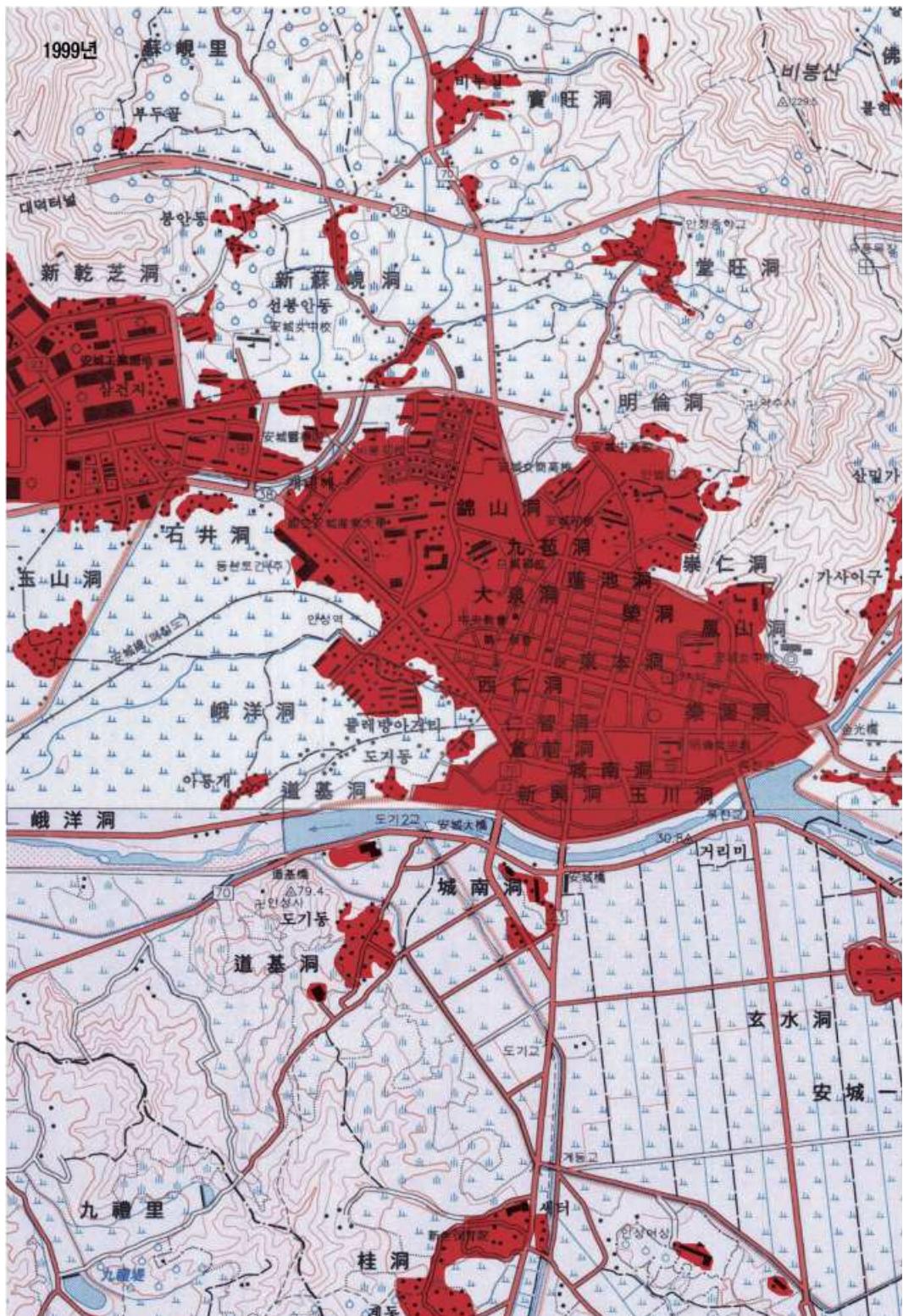
안성시 아파트 건설기

1990년대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안성시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한다. 산업단지와 안성고등학교 주변으로 아양 주공아파트, 대우, 태영, 쌍용아파트, 동신아파트, 안성고등학교 북측으로 한주아파트, 안법고등학교 주변으로 동신아파트가 건설된다. 안성시에서의 아파트들은 전반적으로 소규모 5동 이하로 부분적으로 형성되었고, 산업단지 방향과 구 안성역사 주변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졌다. 이러한 북동 측의 아파트 단지들의 건설은 평택과 연결되는 38번 국도가 중요한 도시중심 축으로 작용하였다.

안성 산업단지의 위치가 지형적으로 북서 측의 산 지형에 위치하고 90년대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들이 구도심을 북서쪽 지역으로 이격된 지역에 들어서면서 안성천과 안성천 남측의 넓은 논경작지로의 조망권과 배산임수라는 도시 입지 조건들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도시에서의 남향과 남측의 조망 및 환기에 대한 이점과 안성천과 남측 경작지로부터 보여 지는 도시의 모습은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볼 때 전혀 손상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잘 보존되고 있다.

아파트들의 출현에도 구도심의 도시조직과 모습들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은 다른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안성시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38번 순환국도 서동대로

90년대 도시의 큰 변화중의 하나는 주요한 교통체계의 순환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도시의 외곽부를 북측에서 순환하는 38번국도 - 서동대로가 비봉산을 터널로 관통하면서 순환하고, 남측은 평택-제천간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안성시의 외곽부를 순환하는 차로가 형성되었다. 서인사거리를 도시의 중심위치로 고려할 때, 비봉산 아랫자락과 북측 도시화 영역과 경계를 이루는 남파로와 안성천변의 도로들은 일차적은 순환구조를 갖고, 북측의 38번 국도인 서동대로-안성터미널-57번국도의 도로들은 남측의 순환로를 형성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안성시는 겹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겹순환 구조와 도시내부의 십자형의 중심축과 격자형 구조로 형성되었고, 외부는 순환형 도로에 의해 둘러싸인 형국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데 이는 마치 프랑스 파리의 도시의 구조와 흡사한 모습을 갖는다.

9) 2000년, 2010년대 [2010년, 2018년 항공사진]

평택방향으로의 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

2000년대부터 진행된 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이러한 안성시 서측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안성시의 도시구조 전체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면적 약 266,731평 [847,213,m²]으로 인구 약 16,500명의 총 세대수 6,638세대를 아우르는 규모로 안성 구도심과 비교해볼 때 새로운 안성시가 하나더 생기는 격이다. 아양지구는 남측으로는 안성천, 북측으로는 안성산업단지, 그리고 동측으로는 안성 구도심으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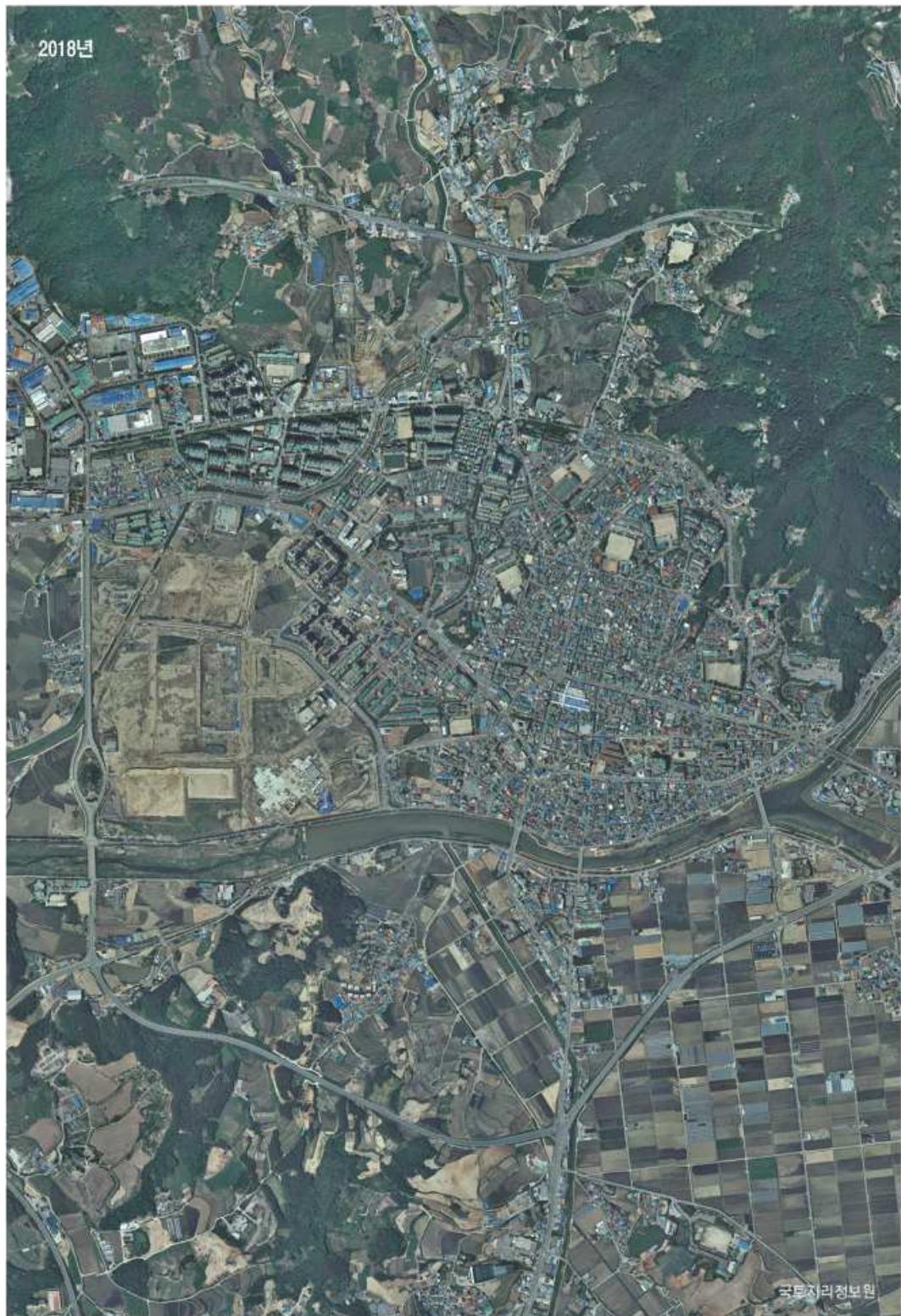
안성시는 경기도의 남동쪽 끝 부분에 비봉산자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평야지대가 안성천을 따라 동측으로 펼쳐지다가 경사지형의 산맥들을 만나면서 끝이 나는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안성시가 동측의 타 도시들과의 관계보다는 여전히 서측의 평택과 경부고속도로 안성IC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성시 동측으로는 안성시보다 규모가 크거나 광역권의 비중이 높은 도시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경기도권의 남동쪽 끝부분에 위치하는 셈이다. 이는 안성시의 도시개발 및 확장이 동측방향보다는 서측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이야기이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안성시 서측에 위치한 아양지구 사업측면에서는 입지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지선정은 안성시 전체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동측 끝 구도심의 쇠퇴하는 흐름에 빨대효과처럼 서측의 아양지구에서 동측의 구도심에 빨대를 꼽은 형상이 초래될 수 있다. 이것은 안성시가 전통적으로 성장해 온 방식이나 도시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도시구조의 전반적인 변화

아양지구의 도시구조를 살펴보면, 기존의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왔던 배산임수의 축과 다른 안성









천에 수직인 남북 직선 축을 중심으로 구도심과 사선으로 연결되며 중앙로를 중심으로 두 도시의 구조가 만나고 있다. 아양지구의 도시구조는 기본적으로 두개의 남북축의 도로가 나란하게 있어, 구도심의 기울은 남북축과는 다른 구조로 형성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로의 중요도가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렇게 볼 때, 사선방향으로 진행되는 한경대학교 앞 중앙로가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 중심축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도시중심 축의 변화뿐만 아니라, 안성대교를 통해 남측의 안성 제 2-3산업단지와 연결되는 57번 국도와 남안성IC에서 대덕면사무소로 연결되는 도로는 안성시의 중요한 새로운 순환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기동 주변의 도기교차로에서 경찰서 앞 사거리로 거쳐 알미산로로 연결되는 도로를 통해 아양지구단지 주변으로의 순환구성이 새로운 도시의 중심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안성시 구도심은 주요 순환영역에서 이탈될 수 있고, 구도심의 쇠락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서 안성종합터미널을 비롯한 주요체육시설[안성시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안성맞춤 야구장], 안성객사 등이 동측 끝부분에 위치하지만 현황을 살펴보면 안성 시민의 접근성은 매우 떨어져 그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5. 안성 도시공간의 역사적 정체성

전반적인 도시공간의 역사적 정체성은 조선시기에 형성된 도시의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도시 조직 또한 자연발생 도시조직의 흔적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안성시 도시역사에서 삼국시대의 흔적을 갖고 있는 도기동 일대, 조선시대로부터의 안성시장의 특징을 갖는 장기리 일대, 평택의 도시팽창 및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공도읍 진사리 일대, 끝으로 안성천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의 역사와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중복리 일대를 도시공간의 역사적 정체성의 주요한 거점으로 간주하고 살펴보았다.

1) 안성 시장

안성시는 조선시대 3대시장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18세기 중반 상업도시로 성장하고, 19세기 경부선 철도와 타 도시의 시장이 성장하면서 점차 상업도시의 위상은 점차 약해지게 되었다. 시장의 도시로서의 위상과, 역사적 공간의 정체성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이는 도로의 형태 및 구성, 필지의 구성, 건축물의 배치 등을 통해 조선시대 상업 및 유통 활동 공간의 유형 등 시장의 모습을 도시 맥락적 측면에서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북측의 관아중심의 마을과 남측의 시장 중심의 마을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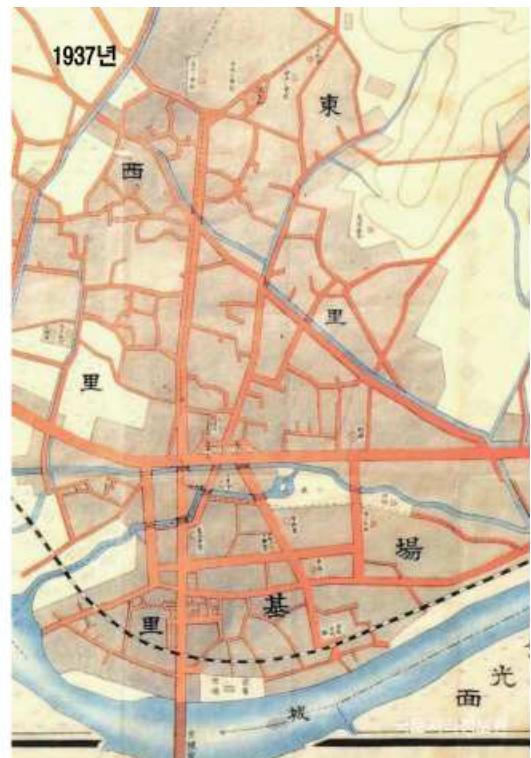
1872년 지도에서 나타나는 도시의 구조는 1914년 지도의 모습과는 전혀 상이한 모습을 갖고 있다. 19세기 후반까지 안성이 상업도시로서 성장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러한 도시구조의 차이는 현저하기에 그 원인과 중간 과정에서의 변화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1872년 지도에서는 비봉산 자락의 관아에서 'ㅅ'자를 그리며, 동리와 서리를 연결하고, 외부도시[북서 측의 진위-동북 측의 죽산]로 연결되는 도로가 동서를 관통하고, 여기에 수직인 도로가 남측의 시장으로 향하게 되어있다. 서울시나 수원시의 조선시대 도시화 영역분포와 비교해볼 때, 관아 중심의 마을과 시장 중심 마을은 모두 이격되어 나타난다. 시장 중심의 마을은 서울의 경우, 청계천을 따라, 수원시의 경우 수원천을 따라 나타난다. 이런 조선시대 도시구조의 맥락을 참고해 볼 때 안성시 또한 관아 중심의 마을[북측]과 시장 중심의 마을[남측-장기리]로 이격 되어있고, 안성천과 나란히 동서 방향으로 흘러가는 소하천변의 공간을 두고 남북으로 이격 되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장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북측의 관아 중심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졌었다면, 18~19세기를 거치면서 남측의 장기리 일대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북으로 도시화 영역이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서로 이격되어있는 사실은 도시 진화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도시공간화에 있어서 민족, 문화, 종교, 사회적 계층에 의한 도시공간의 구조적 차이는 흔히 나타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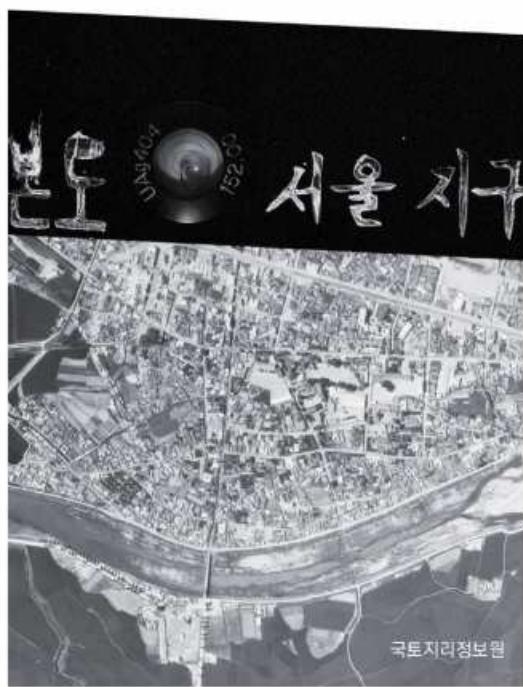
첫째, 북측의 관아주변으로의 양반계층, 남측의 시장 중심지역의 중인과 상인 등 사회적 계층의 차이 둘째, 북측의 거주 중심지역과 남측의 상업 중심지역의 기능적 차이

먼저 시장의 위치에 대한 부분에서, 현 장기리의 위치가 시장이었다는 사실은 1872년 지도에 나타난 '장터'를 의미하는 '장기(場基)'라는 표현과 1914년 지도에 표기된 부분-市-을 볼 때 부정할 수 없지만, 도시 진화의 일반적인 모습에 비춰볼 때, 의문시 되는 지점은 왜 중심도로로부터 이격 되어 있는지? 이다. 일반적인 도시 진화의 형태를 볼 때, 가장 오래된 시장의 중심 길을 찾아보면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장기리를 시장 위치의 원형으로 본다면 이러한 도시진화 양상에서 어긋나 있다. 시장 길은 한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경제적 교류와 함께 도시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경제적 교류에 대한 흔적은 길의 위계에서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외부도시와 연결되는 주요한 길에 시장이 형성된다. 외부 지역으로부터의 물품이 일정한 교통수단[보행, 동물(소나 말)을 통한 운송]을 통해 도시의 한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교류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등장하고, 필지의 분화모습을 통해 도로의 위계가 나타나곤 한다. 쉽게 말하자면, 도시에서 외부도시와 연결되는 도로가 가장 오래된 길로 나타나고, 가장 동선이 많이 발생되는 도로에 접하여 필지의 분화가 많이 일어난다. 역으로 필지의 분화 정도가 높을수록 중요한 교류가 일어난 도로를 알 수 있는데, 안성시의 경우, 이 둘의 사실이 어긋나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1987년 지도에서 나타나는 도로의 형태와 구조는 남북축의 도시 관통 보다는 동서의 관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동서방향으로의 도로를 중심으로 북측으로 관아와 양반중심의

1946년 안성시 일대 항공사진







거주지역과 남측의 시장과 상인 중심의 공간으로 구분되다 하더라도, 동서방향으로의 동선이 중요했다면, 시장 측에서도 동서방향의 도로가 다시 양성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만나야 하지만, 안성시의 경우, 도로의 만남이 수직의 형태로 만나서 연결되고 있고, 장기리의 경우, 일종의 섬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에, 교량을 통해 건너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장기리 일대에 시장이 형성되어있다.

지방시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천변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넓은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안성시의 장기리의 경우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북측의 도심부와 이격된 남측 하천변에 위치하여 시장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여진다.

장기리 일대 시장의 공간구조

위에서 도시전체 구조 측면에서 시장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 했다면 이제 시장의 공간구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910년 지적도는 현재의 신흥동, 창전동, 인지동 그리고 성남동의 서측 일부지역까지만 표현되어있다. 1910년 지적도와 1937년 지도를 분석해볼 때, 먼저 인지로4길-창기로 69번 길의 흐름은 하천이 복개된 부분으로 나타난다. 낙원동 613-37일원의 도로와 성가의원 - 인지1길의 도로 또한 낙원길 남측으로 동서를 관통하며 흐르던 하천으로 나타난다. 현재의 낙원역사공원 일대에서 서측으로 두 개의 하천으로 분리되어 하나는 인지4길 위치의 하천으로 안성천과 만나고, 성가의원 앞 인지1길로 연결되던 하천은 아양동 석불입상방향으로 흘러 안성천과 만나고 있다. 이렇듯, 장기리 일대의 남측은 커다란 안성천, 북측으로는 동서로 흐르는 두 개의 하천이 둘러싸고 있어, 섬 형태로 공간이 분할되어있다.

1910년 지적도가 현재로서는 조선시기 이후의 최초의 지도이기에, 정확한 조선시대의 시장공간의 원형을 알 수는 없으나, 1872년 지도~1910년 지도의 38년간의 기간 동안 도시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비교적 조선후기 장기리 일대 시장공간의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장기1길-창기로69번 길의 직선화의 모습은 사뭇 낯설게 보인다. 위 도로는 일제강점기 영향을 받은 신축 혹은 재정비된 도로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로변에 위치한 필지들의 형태가 잘려진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필지가 잘려지고 남아 있는 필지형태가 일반적인 다른 필지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어 위 도로는 서인동 공영주차장(현)의 낙원길과 만나는 지점까지 새로 건설된 도로로 보인다. 위 도로의 지점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자연 발생 도로 유형을 갖기에, 조선시대로부터 형성된 도로라고 간주할 수 있다.

장기리 일대의 도로 위계[어떤 도로로 더 많은 통행이 이루어졌는가?]

도로의 위계란 사람들의 동선의 양과 연결지어 생각한다. 어느 길이 더 중요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역추적 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필지의 분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장기리 일대의 도로는 남북축 보다는 동서축의 도로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 부분의 작은 필지들

이 무리를 이루어 블록을 형성하고 있고 이러한 블록들의 불규칙한 분포는 남북도로 보다는 동서 방향의 도로중심으로 되어있다. 또한 동서방향으로의 필지분화가 남북방향으로의 필지분화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동서방향의 도로가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필지분화의 방식은 앞 단락에서 언급한 도시의 동서 중심축이었던 양성-죽산으로 연결되는 도로와의 관계에서도 의아한 부분이 발생한다.

장기리 일대에서의 도로의 위계와 필지의 분화방식은 도기리로 향하는 도로가 시장에서 소하천을 건너 북측으로 동서 중심로와 연결되는 도로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말해 시장중심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가 양성방향으로의 도로보다도 도기동 방향으로 형성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리 일대의 시장과 도기동과의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수의 불규칙한 보이드(마당)형태와 다른 성격의 장터의 공존

일정한 규모와 형태를 갖는 필지들의 서로 다른 분포

대부분의 필지는 밭(田)과 건축물이 입지한 대지(垈)로 이루어져 있다. 소하천과 안성천변으로는 밭들이 분포되어있고, 각 도로주변으로는 대지가 형성되어있어 집들이 분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필지분화형태의 양상을 살펴보면, 4개 권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장 중심부로서 정사각형 형태의 아주 작은 필지가 동서방향으로 나란하게 밀집되어 있는 권역이다. 이 권역의 필지는 가로세로 3m 규모의 정방형 형태를 갖고, 규모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지역의 필지는 대부분 정방형 형태를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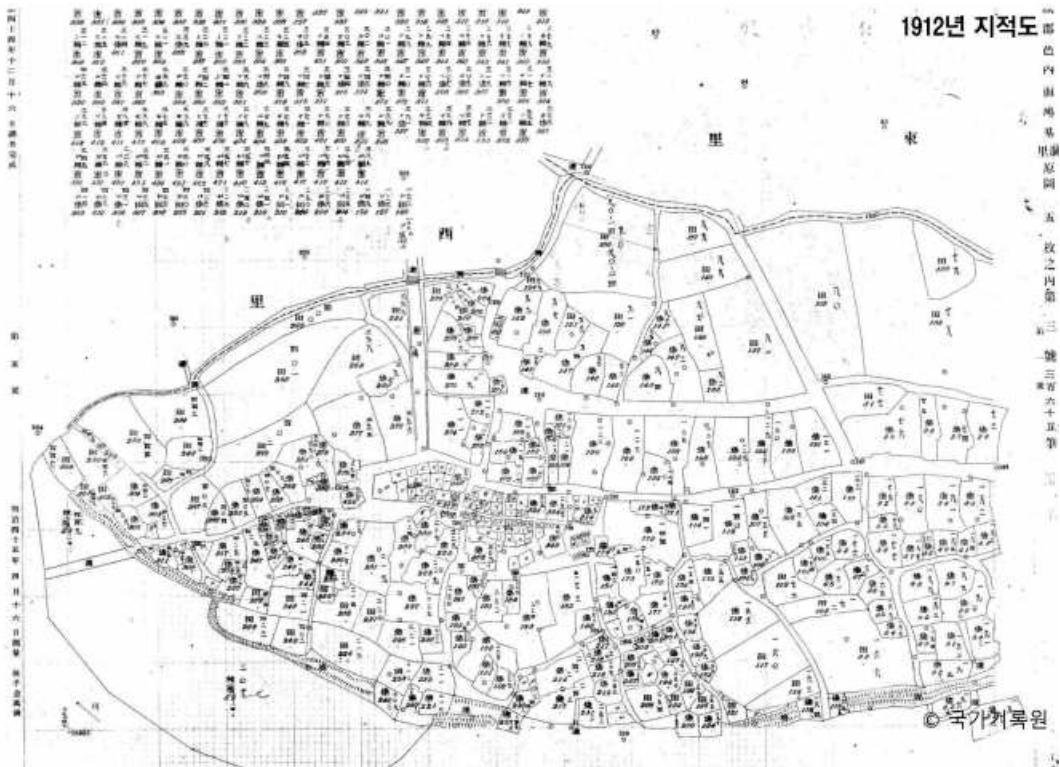
두 번째, 도기동 방향으로 나 있는 도로에 접해있는 필지이다. 이러한 필지들은 현재의 성안 펠리체아파트 주변에 분포되어있다. 필지의 규모는 시장중심부의 필지보다 훨씬 크고, 비례는 살짝 긴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세 번째, 성남동 368-14번지 일대이다. 이 지역은 'H'자 형의 도로 구조를 갖고, 중심부에 작은 정방형 마당을 두고 대지들이 분포되어있다. 대체적으로 6~9m 너비의 필지로 구성되어있다.

넷째, 현재의 낙원로 일대 추억의 거리 출입구 부근이다. 이 지역은 안성시장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마당을 갖고 있고, 주변으로 비교적 크고 긴 필지들이 분포되어있다. 시장 방향으로 들어갈 수록 필지들이 작게 분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섯째, 이러한 중소규모의 필지 외 넓고 큰 필지들이 중간 중간 분포되어있고, 하천방향으로는 밭들이 분포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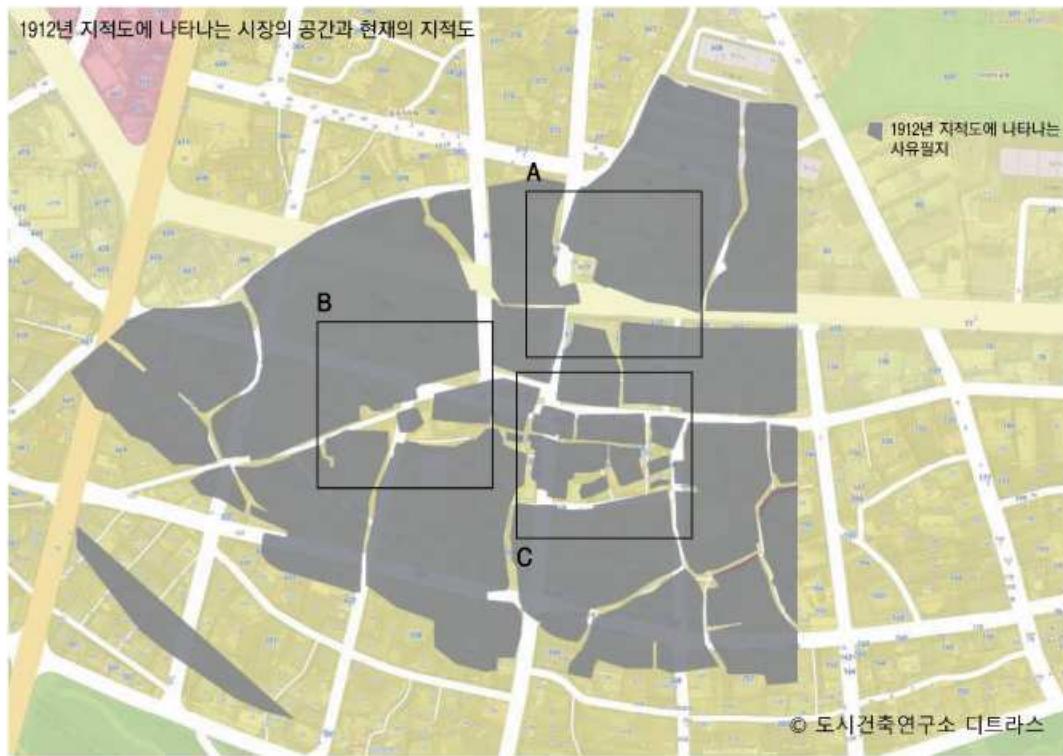
간략하게 필지의 규모와 형태 그리고 분포를 살펴볼 때 4개소 정도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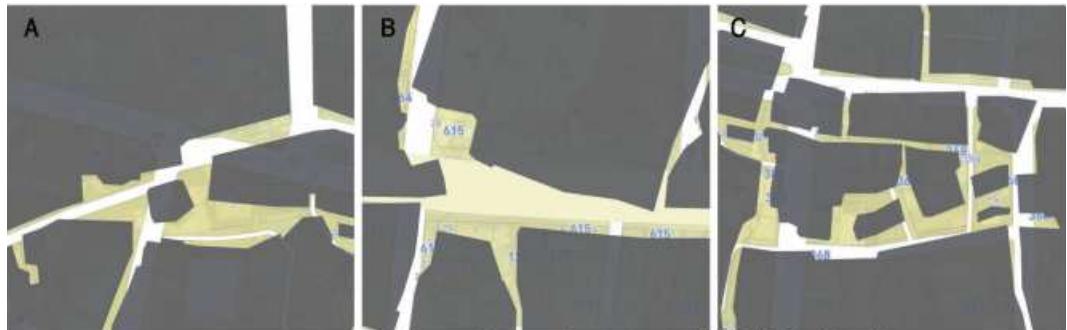
1912년 지적도



277 五 一 六 274 一
1912년 지적도에 나타나는 시장일대의 공간구조







1912년 지적도에 나타나는 시장 마당 [공공 공간] 형태 / ©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1912년 지적도에 나타나는 시장 마당 [공공 공간]의 현재 남아있는 흔적 / © map.kakao.com / 2019



1912년 지적도에 나타나는 시장 마당 [공공 공간]의 현재모습 [2019년 항공사진] / © map.kakao.com / 2019



1912년 지적도에 나타나는 서로다른 유형의 필지군집 분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장기능 추정] ©국가기록원

어 보인다. 이러한 필지규모와 형태가 다른 분포양상은 시장 내에서도 판매물품 혹은 객주나 창고와 같은 상업행위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에 따라 시장공간의 배치가 다르게 나타났을 확률이 있어 보인다.

다수의 불규칙한 보이드[마당]의 불규칙한 분포

위에서 언급한 일정한 규모와 형태를 갖는 필지들이 서로 다른 권역에 분포되는 지점에는 서로 다른 형태의 마당이 존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중앙부 소규모필지에 밀집된 부분이 도로 가운데 섬 형태로 존재하면서 길들이 이 중심부를 둘러싸 있고, 이 중심부를 따라 외부로 퍼져 나가는 도로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로 퍼져나가는 도로의 중간 중간지점에 서로 다른 형태의 마당이 형성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불규칙한 마당의 형태가 다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마당의 중심에는 1~3개의 작은 필지가 중앙에 놓여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마당의 중앙에 놓여있는 필지는 5개소인데, 1개 필지가 마당으로 둘러 싸여있는 곳이 1개소, 2~5개 필지로 둑여 있는 곳이 4개소 나타난다. 이렇게 마당으로 둘러 싸여있는 필지의 건축물은 지목 상 대지로 되어있고, 여기에 있던 건축물은 공공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예측된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위치는 객주집이나 주막 혹은 어떤 종류의 물품보관소처럼 기능을 담당했던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체적인 건축물의 기능에 대한 근거는 찾을 수가 없으나, 이러한 위치에 놓인 건축물이 다른 시장 공간의 기능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밀집된 도시공간에서의 보이드 공간의 형태는 매우 독특한 도시경관을 형성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불규칙한 보이드 공간의 분포 자체가 안성시장 공간이 갖고 있는 특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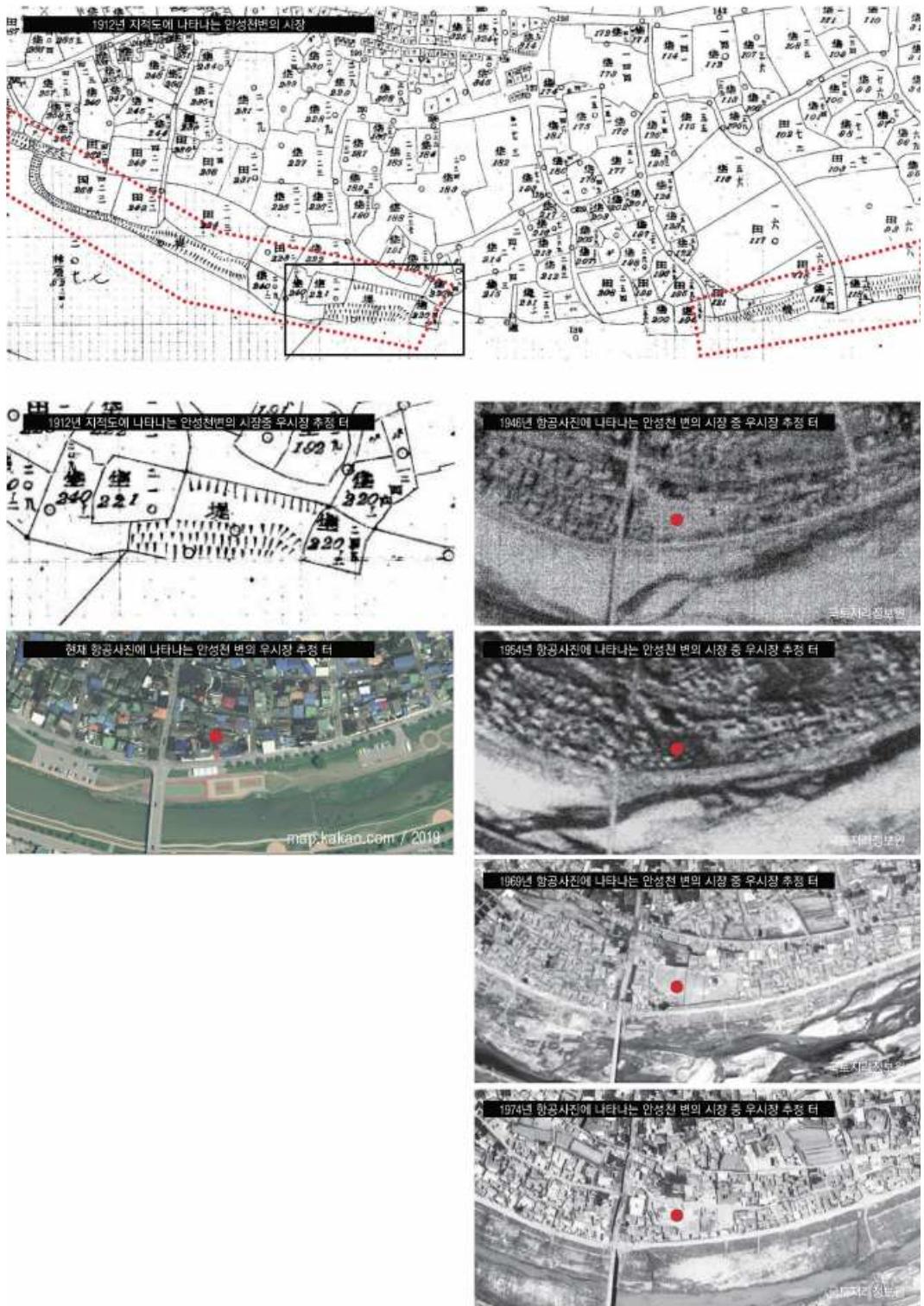
하천변의 장터

도로변 필지들의 분화가 일정 권역별로 중소규모로 집중되어있는 반면, 남측의 하천변에는 1910년대 지적원도에 점선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천변의 모래사장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여기에 한자어로 ‘場’으로 써여 있는데, 약 4개소가 있고, 도기동 방향에서 현재의 안성교 주변까지 길게 분포하고, 현재의 안성교 바로 윗부분은 비교적 직사각형의 형태로 되어있다. 또한 우측의 긴 천변의 공간에도 동일한 형태로 분포되어있다.

이 중에서 1937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도에 안성교 바로 우측부분의 마당에는 ‘市場’이라고 표기 되어있고, 가로 세로 약 100x30m의 비교적 큰 규모의 마당으로 형성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장시나 우시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은 현재의 ‘성남연립’ 일대의 큰 필지를 통해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시장

1960년대 지도에서 안성교 남단좌측에는 우시장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시장의 초기위치는 안성교 위쪽의 성남동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남동 일대에서 그 정확한 위치를 가늠할 수 없지만, 위에서 언급한 1937년 지도의 안성교 우측의 마당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46년 항공사진에



는 같은 위치에서 직사각형 형태의 마당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하천변의 모래사장 변의 공터에 우시장뿐만 아니라 닭이나 돼지와 같은 가축시장이 장기리의 남측 안성천변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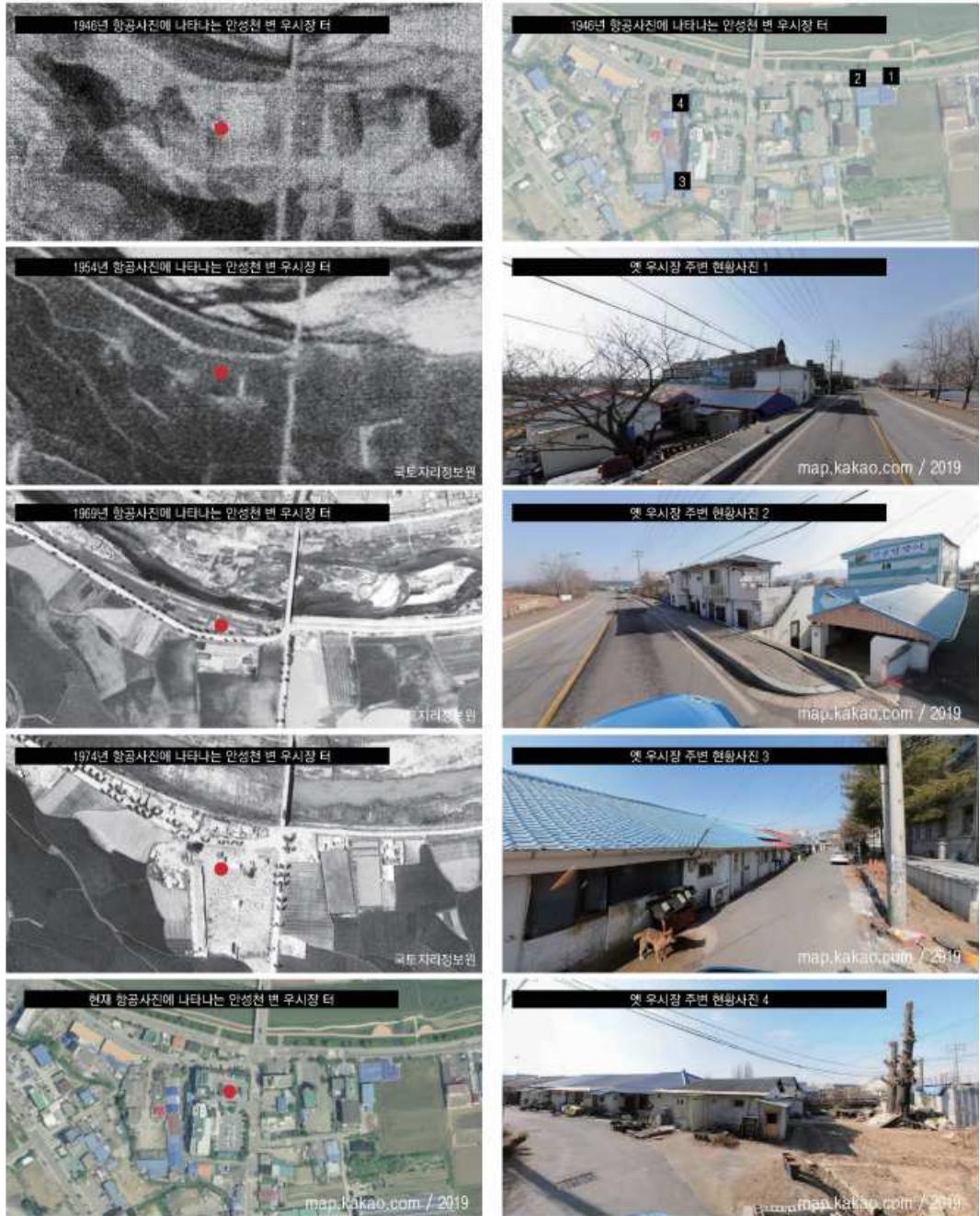
1960년 현재의 도기1통 구우전 마을로 우시장이 옮겨오는데, 1969년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우시장은 안성천변과 나란한 마당이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있고 2개의 건물이 안성천변과 나란한 동서방향으로 놓여 배치되어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서 남북축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1974년 항공사진과 지도에 나타나는 우시장 건물의 형태는 남북축이 도로(강변길 74번길)와 나란한 형태로 전면에 직사각형 형태의 마당을 두고 배치되어있다. 1960년대에 비해 마당의 규모나 건축물의 규모가 3배 이상 크게 확장되었다. 남북 축 도로 건너편 동측에는 4개의 필지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맨 우측의 건축물이 위치한 자리에는 현재까지도 당시의 건축물이 남아있다. [경기 안성시 도기동 55-9] 이 주변에는 현재 3개의 건축물이 남아있는데, 하나는 긴 3개 볼륨이 '丶'자 배치를 이루고 있고, 우측의 건축물은 'U'자 형태 배치를, 도로 전면의 건축물은 매우 독특한 입면을 만들고 있는데, 다양한 볼륨이 불규칙한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이 3개의 건축물 용도와 배치가 모두 서로 다른데 서로 붙어있는 구성이 매우 독특하다. 첫 번째의 긴 볼륨의 건축물은 형태적으로 길게 형성되어있는 것으로 볼 때, 소와 관련된 시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 좌측에 직사각형 형태의 마당은 현재 안성2동주민센터와 보건소로 이용되고 있고, 후면부에는 구우전 길을 따라 일정한 소규모 필지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시장과 연관된 술집이나 음식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74년 항공사진과 1977년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구우전 마을은 1970년대 후반이나 1980년대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안성 시장 일대의 도시공간의 역사적 정체성과 미래

안성시장 장기리 일대는 조선시대 1872년 지도에 언급되어 현재까지 그 흔적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도로의 구조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크게 변화되었지만, 필지와 도로의 구성은 조선시대의 형태를 전반적으로 간직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 부분적으로 잘려나가거나 구조 자체가 변화되었지만, 필지들 사이에 남아 있는 필지 간 경계부분을 확인해 볼 때, 대부분의 원형이 남아있다. 이러한 시장공간의 흔적들은 조선 3대 시장으로서의 공간구조와 형태를 연구하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구성들의 특징을 유추할 수 있는 목구조의 주택들도 다수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도로, 필지, 건축물로 구성되는 도시조직의 원형이 전반적으로 잘 남아있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장 공간구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아주 훌륭한 자산의 가치를 갖고 있다.

연구의 가치를 넘어, 조선시대부터 수세기에 걸쳐 축적되어온 도시공간의 역사적 층들은, 그 자체로서 거대한 이야기와 역사를 담고 있는 안성시의 보물이자 지혜의 창고이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꺼내 어떻게 보여주고 공유할 것인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구 도심권 쇠퇴가 가



속화될 것으로 예측될 때, 전면 철거 전면 재개발 방식 - 도시 지운 도시 - 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 주체와 거주자들 간에 형성되어온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미 고령화되어가는 거주주체가 갖고 있었던 생활양식, 이야기, 문화,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성들이 새로운 세대를 통한 거주주체로 변화할 때 안정적으로 연속되어야 할 것이다. 공간을 기억하고, 점유하고, 재생시켜나가는 주체로서의 거주자와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거주자들 간의 공동체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두 번째로는 공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점진적인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구 도심권의 쇠퇴가 가시화되는 현 시점에서, 성급한 도시재생 정책은 자칫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영원히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거주자들의 삶을 이어온 세대들의 이야기와 흔적이 일부 몇 명의 짧은 검토를 통해 좌우된다는 사실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공간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은 첫째, 철저한 공간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분석에 따른 기록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 기록은 거주자들의 기억과 삶의 방식 및 문화적 측면에서도 구술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수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1인주거가 증가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의 편리성과 쾌적성,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발굴이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사 속 이야기의 재현을 통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거주자들의 소득과 소비의 경제적 순환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거리가 축소되어야 하고, 여섯 번째로는 거주자들 간의 공동체 형성이 소비의 과정을 넘어 생산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이 역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질 때, 그 공간이 갖는 잠재력과 가치들이 재생산될 수 있고, 역으로 그 공간들의 정체성이 보존 계승될 수 있다.

세 번째, 위와 같은 공간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공간에 대한 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촉매 역할의 공간이란, 전면개발을 하지 않고도, 사람의 혈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처럼, 도시맥락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지점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지점들을 찾아서 개발을 시행하는 것이다. 도시공간을 크게 길, 필지, 건축물로 구분해볼 때, 길 중에서도 전략적으로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과 구간들이 존재하고, 필지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동일 유형을 갖는 경우, 대표성을 갖는 필지 하나의 새로운 변화는 동일 유형이 필지의 동일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건축물의 경우는 다양한 역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성과 집단의 기억물로서 여겨질 수 있는 공공건축물의 가치와 일상적인 삶의 기억들이 담겨있는 일상적 건축물들과 공간을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공공성을 담고 있는 오래된 관공서나, 학교, 종교시설과 같은 건축물은 역사적 정체성을 지탱해주는 역할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설들의 주변은 대중들의 접근과 활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모의 보행 중심의 외부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외부공간의 형성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의 파사드와 모습이 잘 드러나

고 소통될 수 있고, 접근로로부터 다양한 시퀀스를 동반하는 도시경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상적인 삶의 기억이 담긴 주택과 시장관련 소규모 건축물들의 경우, 그 시대적 삶의 재생될 수 있는 그러나 현재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도 수용될 수 있도록, 운송용 차량의 접근의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고, 차량중심이 아닌 보행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례로, 외부로부터 접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장 중심 권역과 일정한 거리[보행권내]를 두어 주차장을 제공하고, 보행권내의 도로는 장애인과 같은 보행약자가 충분히 그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행구간의 확장 [주요한 문화유산 지점과 주차장간의 거리 확장]은 자연스럽게 공간을 이동하는 속도를 늦춰주며, 이러한 보행속도의 낮아짐은 다양하고 깊은 소통을 유발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보존과 개발의 사이에서 이분법적인 갈등과 결정을 뒤로하고, ‘고쳐 쓰는 도시’를 다시 한번 생 각해 볼 수 있기 바란다. 통계와 수치를 뒤로하고, 실제 공간을 걷고, 보고, 만지고, 바라보자. 지혜는 이미 이곳에 있다.

2) 도기동

4~6세기 백제시대 산성의 흔적이 발견되어 사적으로 등록된 도기동 산성을 비롯해 고려시대의 도기동 삼층석탑이 경기도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어있는 도기동 마을은 1914년 지도를 통해 근대 초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배치는 동측의 하천과 일정한 논 경작지를 두고, 서측의 해발 80m 높이의 산을 뒤로하고 있다. 도로의 구조는 마을 전면에 있는 계촌천과 안성천이 만나는 지점으로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현재의 미양로와 도구머리3길이다. 도구머리3길은 도기동 삼층석탑을 지나 안성시장 장거리 일대로 연결되고, 남서 측으로는 구례리 방향으로 형성되어있다. 산의 경사지형이 논 경작지와 만나는 지형적 경계지점에 위치하는 미양로는 도기동 마을영역을 한정하고 있다. 도구머리2~3길과 도구머리길~미양로가 지형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나란히 이동하면서 주택들은 이 3개 도로 사이에 밀집되어있다. 건축물들의 배치는 전반적으로 경사지형에 순응하는 위 3개의 도로 질서를 따르는 남동 측을 향하고 있고, 경사지형이 동측에서 남측으로 호를 그리며 진행될 때 도로와 건축물의 배치 또한 나란히 지형에 순응하고 있다. 마당을 통해 ‘ㄱ’자 배치를 갖는 목구조 주택들과, 옥상을 갖는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1970~80년대 건축물도 섞여 공존하고 있다.

1946년, 1954년 항공사진에는 마을 남측으로 직선화된 제방 혹은 도로의 분분이 나타나는데, 현재의 도구머리1길에 해당한다. 약 230m 구간에 형성된 최초의 둑은 오늘날 계촌천 일대 농경지의 공간구획의 시초가 되었다.

도기동 마을이 갖는 역사적 가치는 구릉지 경사면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이라는 점에 있다. 또한 산성과 삼층석탑을 고려해볼 때 고대 삼국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을 확률이 높고, 이런 측면에서, 산성과 마을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구릉지에 형성된 다랭이식 논 경작지가 잘 남아있어 농경문화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과 자연발생 논 경작지와의 관계를 아우르는 도기동 일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3년 이후, 14여 채의 재래식 가옥이 철거되고, 기존 도시조직과는 상이하게 다른 4층의 소규모 빌라단지가 들어서며 기존의 마을의 모습을 지워가고 있다. 또한 동측의 도로변은 각종 창고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도기동 일대의 도시경관 또한 훼손되고 있어, 도기동 마을의 도시조직을 포함한 공간분석과 재생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

3) 공도읍 진사리 - 아파트 단지와 촌락의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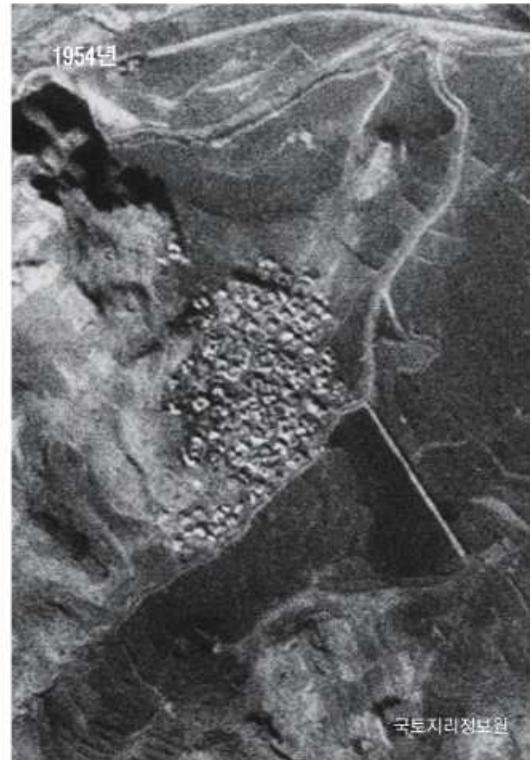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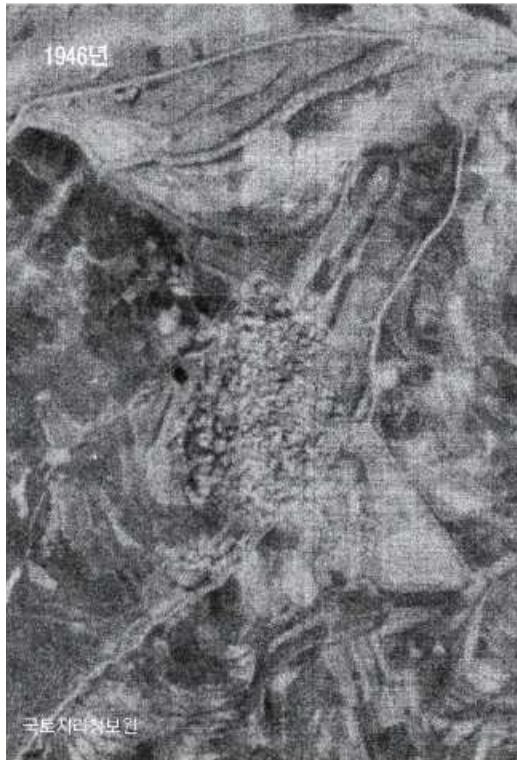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일대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권역상 안성시에 속하지만, 급격한 도시팽창과 산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평택시와 인접한 지역에서의 촌락의 공간적 변화 양상을 보기 위함이다.

공도읍 진사리의 지리적 위치는 남북으로 통과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평택과 안성지역으로 연결되는 안성IC를 기점으로 남서 측에 위치한다. 평택과 안성을 연결하는 주 도로인 38번 국도를 경계로 북측, 서측으로 평택시에 해당하고, 동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의해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행정적으로는 안성시에 속하지만, 공간적으로는 평택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진사리 북서 측의 평택 지역은 북측의 용이동 일대를 중심으로 구릉도시개발지구로 아파트 단지건설이 진행중에 있고, 서측으로는 평택대학교와 소사2단지, 비전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건설되고 있다. 최근에는 안성시 행정권역에 속하고 진사리 북동 측에 위치하며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출구방향에 과거 쌍용자동차 출고창고의 자리에 대규모 상업시설인 스타필드가 2020년 준공을 위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평택시 1914년 지도와 1946년 항공사진을 살펴볼 때, 조선시대 말기까지 형성되었던 도로는 지금의 38번 국도라기보다는 평야지대에서 구릉 경사지형이 시작되는 지점을 따라 촌락들이 연결되었던 진전중길로 연결되는 도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사리의 경우 현재의 진말길 일대, 양진초등학교 일대, 그리고 진사리 291-2 일대의 마을 등 3개의 촌락분포를 나타내며 진말길 일대의 마을이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진말길 일대의 촌락은 'ㅅ'자 형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진사리 촌락의 가치는 평야지대 북측 구릉지에 조선시대 형성된 자연발생 촌락으로서 도시조직이 모습이 상당부분 남아있다고 보여진다. 촌락의 위치는 구릉지에서 남향의 평야지대 방향의 경사면에 위치하여 조망과 일조권에 유리한 지점에 형성되어 있다.

다른 촌락과 마찬가지로 진사리 일대의 건축물들은 마당을 갖는 'ㄱ'자 형의 목구조와 기와지붕의 주택들과, 1970~80년대 지어진 전면에 마당을 두는 형태의 주택들이 다수 섞여있다. 건축물들의 배치는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 정남향보다는 동남, 혹은 남서방향으로 지형에 순응한 도로 질서에 순응하는 배치를 하고 있다.





진사리 촌락의 38번 국도 남측을 중심으로 2000~2005년에 걸쳐 진사리 주운 청설 아파트를 비롯한 4개 아파트 단지들이 출현하면서 변화된다. 기존 촌락과 이질적인 아파트 단지와 이를 아파트와 연계된 학교시설, 그리고 대규모 상업시설과 부분적으로 물류창고와 같은 산업시설들이 38번 국도와 경부고속도로 변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 과정은 남측의 진사리 촌락으로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평택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이 준공된다면 이러한 진사리 촌락의 형태와 공간구조는 그 흔적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사리는 결론적으로 매우 특이한 상황에 놓여있다. 행정권역으로는 안성시에 속하지만 생활권으로는 평택과의 관계가 더 깊고, 특히 경부고속도로에 의한 공간적 단절은 더더욱 평택의 영향권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화의 모습과 수세기에 걸쳐 형성되어온 농경문화의 집적지로서의 촌락이 공존하는 상황이고, 도시경관에서도 이러한 모순된 이미지는 진사리 일대 어느 곳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마치 거대한 고층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을 쌍두마차로 달려오는 도시화속에 오래되고 소소한 일상이 담겨졌던 작은 촌락이 고스란히 놓여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평택시의 도시화의 모습과 다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평택의 도시화가 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아파트 단지가 확대될 때 역으로 촌락의 공간과 이야기들을 지켜내어 차별화된 영역으로 맞설 필요가 있다. 친환경, 도시농업, 물과 식물을 통한 자연으로부터의 휴식, 소소한 일상에서 발견 할 수 있는 선조들의 이야기들과 흔적들은 획일화된 아파트 거주자들에게는 아주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또한 진사리에서 바라보이는 남측의 넓은 조망과 일조권은 진사리가 갖는 잠재력이기도 하다.

4) 중복리 - 들 위의 섬마을

안성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평야지대는 위에서 논의한 진사리의 구릉지까지 약 1.3~1.8km 구간에 걸쳐 안성천과 38번 국도의 경사지형과 나란하게 서쪽으로 펼쳐져 있다. 안성시에 속하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평택시의 경부선에 이르는 약 10km의 이러한 평야지대에는 약 8개의 촌락들이 군집을 이루어 분포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안성시 행정권역에는 중복리에 2개 마을과 건천리에 1개 마을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중복리의 2개 마을은 안성천변에 인접해 있고, 건천리는 진사리와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1946년, 1954년의 항공사진을 보면, 경지정리 이전의 자연발생 논 필지구획의 모습과 다양하고 불규칙하게 분포되어있는 곡류 소하천들의 모습이 보인다. 중복리는 작은 소하천이 북측으로 반원을 그리는 소하천에 둘러 싸여있고, 그 외 중복리 동측의 작은 촌락과 건천리는 또 다른 긴 하천이 북측으로 반원을 그리며 형성된 곡류천으로 둘러 싸여있다. 이렇게 볼 때 중복리에서 안성방향이나 평택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북측의 건천리를 거쳐 진사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복리를 비롯한 평야지대의 촌락들은 크고 작은 곡류 소하천으로 에워싸여진 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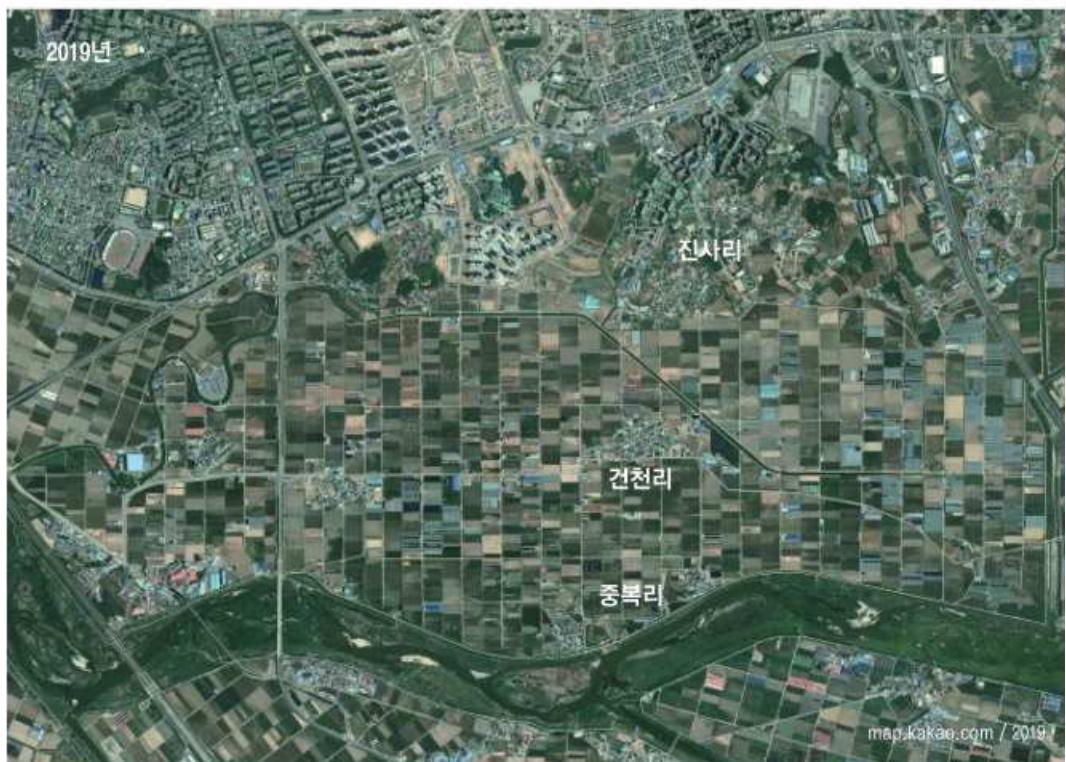
위치하고 있어서 안성천과 관련한 어업과 논 경작지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중심의 촌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1946년 항공사진과 현재의 항공사진을 비교해볼 때, 초기 촌락의 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1960~70년대의 경지정리사업을 통해 형성된 질서정연한 동서남북축의 경작지에 비추어 볼 때 촌락들의 불규칙한 형태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촌락들 간의 거리는 약 0.7~1.5km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각 촌락들의 도로구조는 현재의 격자형 경지정리 질서화와 달리 일정한 방향으로 이질적으로 형성되어있는데, 경지정리사업 이전의 곡류하천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논 필지 질서에 순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논 필지 구획방식은 일반적으로 물의 흐름에 따라 형성된 크고 작은 하천들이 지형에 순응하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이러한 촌락의 도로구조는 지형에 순응했다고 볼 수 있어, 중복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속에서 형성된 물과 지형의 관계에 순응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복리의 경우는 7~8개의 도로가 10시-4시 방향 기울어진 사선방향을 그리며 형성되어있다. 건천리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2시-8시 방향으로 기울어진 사선 방향을 구조를 갖고 있다. 이들 도로들 사이에는 3개 내외의 필지로 구성되어있고, 한쪽 필지가 건물로 사용되고 다른 필지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전형적인 촌락의 주거형태인 ‘ㄱ’자형 건물이 마당을 중심으로 사랑채와 안채로 ‘ㅁ’자 형인 목구조 주택들이 7채 가량 남아있고, ‘ㄱ’자형 안채에 마당을 중심으로 ‘—’자형 사랑채 혹은 창고나 외양간의 기능을 담당하는 건물이 조합된 ‘ㅁ’자형 주택들도 다수 남아있다. 이외에도 중복리 일대의 주택은 현재 70여 채가 존재하는데 이중의 35여 채의 건물이 목구조의 기와지붕(현재는 스레트 혹은 철재 골판) 형태의 경사지붕을 갖는 재래식 주택들이다. 또한 건물의 볼륨이 ‘—’자형, ‘ㄱ’자형 건물과 이들의 복합형인 ‘ㅁ’자형 처럼 다양한 주거형태가 남아있어 초기 농경지 주택들의 다양한 유형들을 살펴보는데 매우 중요한 촌락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된 주택의 모습들이 점차 늘고 있고, 축산시설물들을 비롯한 창고시설이나 비닐하우스들이 늘어나면서 고유한 촌락의 경관이 조금씩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6. 안성시 대외관계 및 특성화 전략

1) 안성시의 대외관계

안성시의 근대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도시변화과정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주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시대적 도시 층위를 훌륭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선시대 말기에 형성된 보행위주의 작은 골목길에서, 도시의 기본구조였던 길, 그리고 골목길들과 연결되어있는 수많은 빌지들과 그 구성 체계들은 조선시대 말기의 모습부터 일제강점기, 전쟁후의 근대화시기, 그리고 1980년대 초 소규모 집합주거에 이르는 다양한 도시의 역사적 층들이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안성시가 갖는 가장 커다란 자산이자 미래 도시가치에 있어서의 다른 도시가 갖을 수 없는 잠재력이다.

둘째는 비봉산-돌섯산-청량산-칠현산-덕성산-무이산-서운산-좌성산 자락은 안성시를 북동남 측으로 둘러싸고 있는 산 지형과 산 지형에 있는 호수 [마둔 저수지-금광저수지-고담저수지-덕산 저수지]는 안성천과 밸화동 일대의 평야지대, 그리고 동신리 일대의 평야지대와 어우러진 훌륭한 자연경관과 휴양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의 조건들은 안성시가 갖는 매우 큰 도시적 가치이며, 이를 도시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향점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수도권과의 광역교통망이다. 이는 철도나 지하철의 교통망이 평택에 한정되어 평택 쪽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나,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서울진입은 약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고, 동탄이나 수원권역 또한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광역교통망의 경우, 자동차 중심의 도시 구조와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면 안성시는 수도권역의 정주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적으로 평택-부발선[지제-공도]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성시의 광역교통 접근성은 장기적으로 매우 좋은 조건이다.

넷째, 공도읍의 발전에 따른 안성시 도시중심의 이원화이다. 공도읍의 총 인구수는 안성시 구도심 일대의 인구와 비교할 때 더 많은 인구분포를 갖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의 안성IC 주변 오픈예정인 스타필드의 준공은 안성시의 도시변화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공도읍의 발전은 평택 발전, 안성IC 주변으로 진행되는 도시화와 맞물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승우2지구 도시개발계획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택지개발지구가 추진중에 있으며, 이러한 평택과 인접한 공도읍 주변의 도시화의 가속은 안성시 구도심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다. 더욱이 공도읍은 두개의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광역적 측면에서의 위상과 안성 팜랜드로 들어오는 관광객 유입의 경제적 측면에서 위상이 구도심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공도읍과 안성의 구도심은 서로 다른 차별성이 필요하다.

대외적 관계에서의 안성시는 주요한 광역교통망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이격되어있고, 산지, 평지, 하천과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둘러 싸인 곳에 위치하고 있고, 조선시대부터 적층되어온 훌륭한 유산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은 산업이나 상업위주의 도시로의 지향보다는 친환경 정주

도시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적으로는 평택이 산업 중심의 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차별된 지향점으로 평택에서의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안성시는 현재의 교통망과 지리적 입지로서는 평택에 의존될 수 밖에 없다. 안성이 지리적으로 동쪽 끝에 위치하고, 평택과 주요 수도권 교통망이 남북축으로 형성되어있고, 또한 평택항을 중심으로 수도권 진입과 서해안의 주요 물류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고려 할 때, 평택방향으로 안성시의 도시 확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과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주변은 지속적으로 안성의 도심권을 빨아들일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안성시 구도심권이 동쪽 끝에 위치하여 구도심의 쇠퇴가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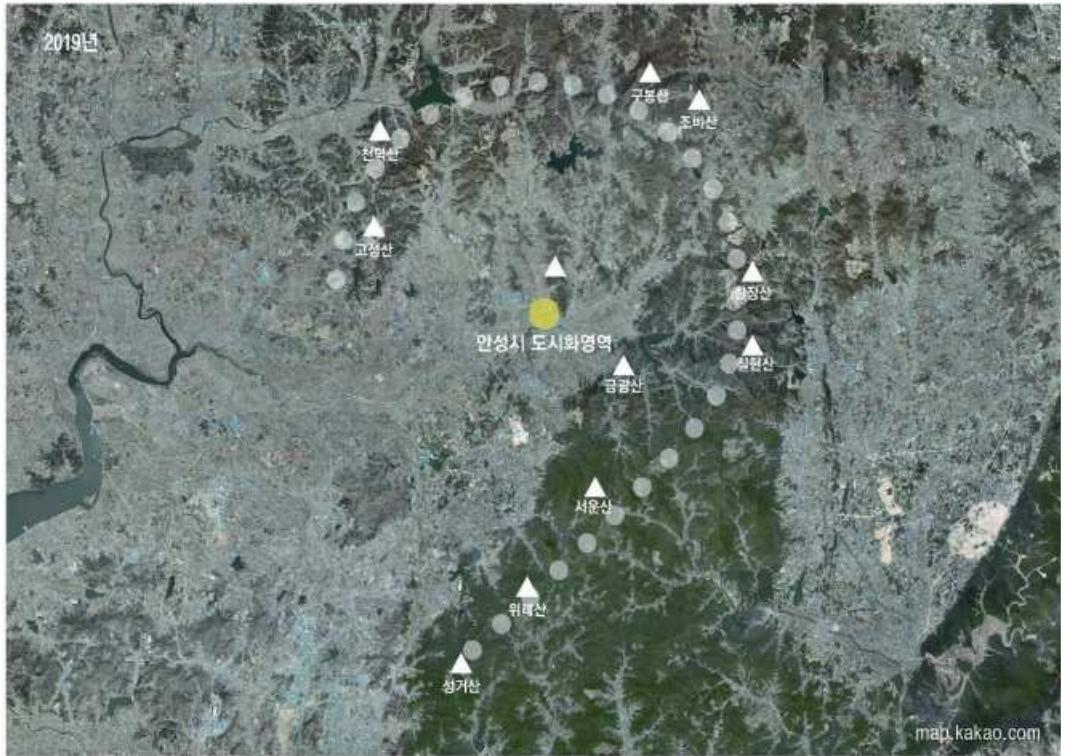
2) 특성화 전략

안성시 발전에 있어서 이러한 지리적 한계는 역으로 평택시에서 설정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차별된 내용과 성격으로 도시의 방향설정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평택시가 산업단지 중심 업무위주 도시로 성장할 경우, 안성시는 평택시와 차별된 역사와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고급화 정주도시를 고려해볼 수 있다. 안성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시대로부터의 역사적 흔적을 충분하게 간직하고 훼손되지 않은 도시공간
2. 풍수에 충실한 도시의 기본구조와 오픈된 주변 환경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자연 경관
3. 도시와 인접하여 흐르는 안성천과 산 지형으로부터 흘러오는 청정한 블루그린[하천과 녹지] 네트워크
4. 휴양 및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는데 있어서의 다양한 청정 자연환경
5. 생성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농축 산업 환경

특성화된 정주도시

도시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일반적으로 뿌리가 깊을수록 도시의 생명력도 같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와 같은 산업 의존 중심의 도시는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도 있지만, 또한 급격한 쇠락도 야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도시는 균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주거의 안정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의 안정화와 성장이다.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는 가족공동체의 파괴와 더불어 1인 주거의 급격한 증가인데, 이러한 현상은 주거가 안정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고, 주거의 불안정은 결국 가족공동체가 파괴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가족단위 자체에 대한 변화가 이 시대의 주요한 흐름 중에 하나이지만, 이것을 단순한 현상으로 파악하고, 이 현상을 수용하는 측면으로만 도시계획을 설정하면 위험하다. 2인 이상의 최소



단위의 가족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이 필수적이며, 이는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주요한 도시계획의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로 우리도 이를 눈여겨 봄아 할 것이다.

유럽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추진하고 있는 주거 안정화 정책은 모든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서 제1순위로 고려되고 있다. 안성시는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도시가 산업성장 위주의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정주도시로서의 주거안정화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물론 안성 구도심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유출에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쉽게 생각해보면, 젊은 청년층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되고, 전통적으로 기존의 산업[농업]에 의존해왔던 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미래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두고 산업유치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산업유치가 먼저고 주거환경 개선을 후순위로 둘 것이 아니라, 친환경 역사적 특수성을 활용해서 차별화된 정주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여기서 거주자들과 함께 새로운 산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산업은 평택에서 거주는 안성에서'라는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공동체[가족] 단위가 정착할 수 있을지라는 물음을 통해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기존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를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자세 또한 필요하며,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극적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역사도시

역사도시로서의 안성은 앞서 수차례 언급했고, 타 연구서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안성의 구도심의 도시구조, 도시조직은 충분한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도시조직이라 함은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작은 골목길과 빌지 그리고 건축물들이다. 건축물들은 근대시기에 많은 부분이 신축되었지만 이것 또한 역사적 흔적으로 남겨져 있다. 최근의 서울 일부지역이나 다른 도시에서 벌여가고 있는 '레트로 문화'는 도시공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의 익선동은 오래된 한옥건축물을 개조해 상업시설이나 공방과 같은 공간으로 변모하였고, 오늘날 서울에서 가장 핫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 안성시 구도심권은 오래된 목조 건축물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건축물과 1960-70년대의 건축물 또한 가득 분포되어있다. 이러한 골목길과 빌지, 그리고 건축물들은 역사성을 내포한 또 다른 도시의 잠재력이다. 오래된 건축물이 단순히 옛것이기 때문에 매력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가스통 바슬라르가 언급했던 '공간의 시학'이 말해주듯 우리는 속도로부터 잠시 떠나 물리적인 소통이 아닌 역사 속에 담겨진 수많은 이야기와의 소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통은 공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통해 이해되는 수많은 재료속에 담겨있다. 재료가 시간 속에서 담아온 수많은 흔적들은 인간의 문화뿐만 아니라 비바람과 햇빛과 같은 자연의 이야기 또한 담겨있다.

역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번째 도시공간이 박물관화 되어서는 안 된다. 박제화 되어 구경의 대상이 되어버린 공간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있다. 서울의 인사동이나 북촌의 한옥마을과 같은 경우, 상업적 성장을 배경으로 오래된 도시조직인 거대한 관광지역으로 대상화되어버렸고, 그 결과 거주자와 방문자간의 수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젠트리피케이션 또한 심화되어왔다. 서울의 수많은 오래된 도시조직의 역사적 가치는 상품화되어 판매되길 기대하고, 그 결과는 상업적으로 반짝 이슈가 되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토착민 거주자와 수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청년층들이 떠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풍선효과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몰락을 반복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상업 전략'보다는 '거주 전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거주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 거주자를 중심으로 존재해왔던 역사성이 새로운 문화로 성장하고 그것이 산업으로 연결되어 또 다른 생산으로 연결될 때, 그것은 지역소득과 연결될 수 있다. 역사적 가치는 반드시 그곳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을 통해 지역 경제로 재순환되어야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자들이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그것이 세대 간에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역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재검토이다. 서유럽의 오래된 도시가 오늘날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새로운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새로운 교통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유럽 도시들의 도시구조는 기본적으로 보행과 말이 이끄는 마차를 중심으



로 형성되어왔다. 마차의 폭은 오늘날 자동차의 폭과 유사한 규모를 갖고 있어, 오늘날의 자동차를 통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 왔어도 그러한 조건들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안성시가 갖는 오래된 도시조직 중에서 길들은 상당부분 보행위주로 현재의 자동차가 수용될 수 없는 공간적 한계를 갖고 있다. 자동차 교통을 통한 수도권과 연계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통한 공간이동과 소통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1960-70년대 진행되었던 격자형 도시구조는 이러한 염려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 블록 단위의 충분한 실험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건축물들이 자동차를 집안에까지 끌어들이는 방법보다는 단위 블록을 통한 공동주차와 공동주차 시설에서 개별 주택까지의 이동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블록 단위의 연구는 서유럽에서는 그 연구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어 그 효과가 충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블록 단위의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새로운 획일적인 블록을 가지고 기존의 블록을 삭제하고 이식하는 방법이 아닌, 기존의 도시조직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변형 및 재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블록연구가 필요하다. 블록을 구성하고 있는 골목길, 필지, 개별 필지간의 건축물들을 부분적으로 변형시켜 소규모의 공원과 주차 공간을 삽입하고, 블록별 중심상업시설, 블록별 주민센터[커뮤니티 및 공동체 시설], 블록내의 공공마당[소규모 광장]등의 적절한 구성을 통해 오래된 도시조직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단위로 재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보행친화 및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 도시 - 속도의 선택과 컨트롤을 통한 부드러운 이동

이동의 공간인 길은 도시의 혈관과 같다. 길이란 단순히 한 점에서 출발해 도착지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볼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에서 길은 선으로 인식하고 네트워크와 체계 혹은 순환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해왔다. 이것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의 성격에 따라 도시공간의 불균형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이탈리아의 도시학자인 '베르나르 쎄키'는 오늘날 도시의 가장 큰 문제를 도시공간간의 불평등이라 여기고, 도시공간의 균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길'이다. 이러한 도시공간의 균등, 평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길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길의 주체는 사람이며, 주체의 우선순위는 보행약자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길은 선 혹은 통로의 개념을 넘어서, 공간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

셋째, 길은 길의 주체[사람]들 간의 공유되고 공감되어야 하는 공공의 장소이다.

넷째, 도시공간의 성격에 따라 속도가 컨트롤 되어야 하며, 시간성을 강조하기 보다 더 많은 소통이 발생될 수 있는 공간의 증가가 필요하다.

다섯째, 길은 거주자가 공동으로 기억하게 되는 도시경관의 장소이다. 공공의 그리고 시간을 아우르는 공동의 기억의 공간

여섯째, 이동을 위한 통로가 아닌, 소통하고 공유하고 사색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갖어야 한다.

일곱째, 친환경도시를 위한 혈관으로서의 길은 '블루그린네트워크'로 확산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길의 개념과 인식을 통해, 안성시 구 도심권을 다시 바라본다면 역사를 내재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갈수 있다. 우선은 차량이 모든 골목과 길을 통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버리고, 가장 쾌적한 보행구간과 주요 순환체계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블록 단위를 자동차 순환로로 이용하고, 블록내의 건축물들의 재구성[부분철거 및 공공 공간 확보]을 통한 블록이 외부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형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블록내의 공공공간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

격자형 도로 또한 통행량과 상업 및 거주관계를 파악하여 부분적으로 보행전용, 보차 혼용, 일방



통행, 속도규제 강화 등의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보행중심의 공간으로 변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구도심 전체적으로 보행구간을 확대하고, 보행구간은 자동차에 의한 소음, 물리적 충돌에 대한 방지 시스템, 편의시설 증대, 농지와 물의 공간 확대, 구간별 휴게 시설 등을 고려하여 블록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발생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점차 확대 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안성시 구도심의 격자형 도로체계와 블록을 통한 단위별 재생방법을 통해, 구도심 전체의 친환경 도시로의 협관과 부드러운 이동을 통해 길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에서 소비가 일원화되는 자족도시

정주도시, 그리고 주거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길에서의 다양한 일상들은 가계소득이 안정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일 것이다. 도시재생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주자 스스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소득이 지역경제순환으로 이어질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내의 대부분의 도시재생은 관에서 자금과 비용을 투자하고, 문화시설 한두 개 설치해놓고, 이를 통해 도시

의 변화를 기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핵심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문제는 여기에 있다. 자본이 외부에서 유입되어 그 자본이 그 지역에 풀려야 하는데, 그 자본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이다. 대부분의 도시재생의 흐름은 관에서 공공자금을 투입하고 광역권 문화시설을 투자하고, 그 문화시설을 관람 혹은 소비하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 혹은 외부인들에 의해 소비 과정 중에서 또 다른 소비를 일으키게 하는 방법. 쉽게 말하면, 강력한 매력시설[문화시설]을 놓고, 외부인들의 유입 동선 과정에서 소비를 유도해서 수입을 올리는 구조이다. 이는 식당이나 카페, 혹은 술집이나 의류 판매시설 등이 가장 일반적이고 이러한 시설들이 주요한 골목에 들어서면서 상권 활성화를 야기하고, 그 상권 활성화가 마치 도시재생의 성공인 것처럼 홍보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허상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반복되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토착 거주민들의 이탈, 그리고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증가.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에서 유입된 자본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빨대처럼 빨려가 들어간다는 사실. 그 한 철이 지나면 다시 쇠락한다. 이러한 도시재생은 우리가 그리는 도시의 모습은 아닌 것이다.

먼저, 구도심권역의 거주연령층이 고령화가 진행된다고, 무조건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고령화되었더라도 그 지역 거주자는 무한한 지역에 대한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고, 지역산업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들이 축적되어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청년세대가 유입될 때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와 플랜이 필요하다. 기존거주자와 새로운 거주자간의 안정적인 커뮤니티는 관 주도적거나 문화시설위주의 투입보다는 생산성을 염두에 둔 노동을 통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노동을 통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한다. 최근 유럽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프로젝트의 초점이 과거에는 관 주도의 문화시설을 통한 재생이었다면 오늘날은 창업시설이나 새로운 산업발굴을 통한 재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리인벤터 파리[혹은 혜엉병떼, Reinventer Paris]' 프로젝트의 경우, 친환경 도시를 위한 하나의 거점을 위해, 도시농업 재배시설을 구도심 유휴부지에 건립하고 농업관련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의 실업자와 소득이 없는 거주자들이 교육을 통해 도시농업기술자로 성장한다. 이 과정에서 도시농업시설에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모듈화된 재배시설의 관리생산을 진행하게 되고 지역산업거점으로 성장하게 된다. 도시농업 재배시설을 통해 재배된 농산물들은 지역에 판매되고, 농산물뿐만 아니라 잉여 물들에 대한 2차 가공을 통해 판매품목을 다양화하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구도심권에 관이 지원하는 시설은 소비위주의 시설이 아닌 생산위주의 시설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커뮤니티와 새로운 문화들이 쇠퇴해 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리인벤터 프로젝트의 또 다른 사례로는 작은 마구간으로 사용되던 공장지역의 한 건물을 수제맥주 동호회를 운영하는 청년들에게 임대하여, 수제맥주의 거점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과거 시중에서 유통되는 대규모 기업들의 맥주가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수제맥주는 근로자들이 노동을 끝내고 휴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로 연결되고, 이러한 과정에 지역청년들이 새로운 지역문화를 세워가는 것이다.

오늘날의 도시는 중세시대 생산과 소비가 일원화되던 시대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사회구조는 자본주의를 급격하게 가속화시키면서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에게 득이되는 공공성 보다는 이윤위주의 산업구조를 키웠고, 도시공간 또한 그 속에서 변해왔다. 오늘날 도시재생의 한계 또한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을 생성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여전히 소비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젠트리피케이션과 일부 자본가들에 의해 역사적 도시공간은 훼손되거나 다시 쇠락하게 될 것이다.

친환경도시 지속가능한 도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생산과 소비의 거리를 단축시켜 다시 일원화하는 것이다.

친환경 블루그린 시티

현재와 미래도시의 가장 큰 화두는 친환경 지속가능성이다. 유럽 도시의 형성과정 자체가 미네랄중심으로 건축되어진 밀도 높은 곳을 일반적으로 도시로 여겨오고, 상대적으로 시골, 자연 등은 늘 도시의 상대적 환경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와 자연은 대립적이고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여겨져 왔었다. 동양도시의 개념과는 다른 유럽도시의 개념이 그대로 근대화 과정에서 이식되어왔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도시는 전통적인 도시구성과 원리는 점점 멀리하고 근대적인 유럽의 도시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역으로 도시의 폐로 불리며 등장하기 시작한 '공원'이란 개념도, 한국적 도시의 역사측면에서 보면 아이러니할 뿐이다. 한국적인 도시역사는 이미 모든 도시적 조건과 구조, 지향점 자체도 이미 충분한 친환경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성시가 갖는 이러한 도시역사의 충분한 흔적들은 친환경 블루그린시티를 위해서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보인다. 앞서 언급한 북동남측을 돌며 조성되어있는 산 지형과 평야지, 그리고 중심을 동서로 관통하는 하천이 그것이다.

미래 도시는 미네랄로 형성된 지역과 생물다양성이나 자연녹지로 조성된 지역의 영역별 차별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 도시와 자연은 특정 경계를 통해 구분되어 상대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도시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자연화, 친환경화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녹색공간이 과거에는 도시의 폐처럼 일부지역에 존재했다면, 이제는 네트워크화되는 것이다. 간단히 생각하면, 길이 공간의 일부를 가로수와 다른 성격의 녹지를 연속시켜서 이들이 거대한 도시의 녹색네트워크화를 촉진하고, 이러한 녹색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의 공간이 다시 친 자연환경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동안은 녹색의 수목중심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토양과 물의 흐름이 녹색공간과 같이 흘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추체가 된다. 생물 다양성이란, 일부 녹색당원이나 그린피스 운동가들의 주장에서 멈추지 않는다. 오늘날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이고, 전 지구적이다. 이상 기후의 원인이 이산화탄소에 영향을 받고, 이러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대부분 도시공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당면해 있다.

안성시가 블루그린시티로 차별화를 통해 타 지역과 다른 정주도시로 거듭나야 하며, 수도권 일대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거주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다.

- 녹색공간 - 녹색 네트워크

먼저, 도로의 다이어트와 변화를 통한 가로수 식재의 증가, 도로 녹색구간의 증간, 자연토양의 회복을 통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중심의 도로가 아닌, 자연토양위의 녹색식물이 가득하게 퍼져나가는 도로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로수와 식재된 식물을 통한 녹색공간의 연속은 도시경관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무질서한 간판과 건축물들의 시각적 폭력을 감소시키고, 보행공간의 평온과 부드러움을 제공할 것이다.

- 녹색의 질서는 비봉산과 안성천으로 부터

도시경관의 질서는 전통도시구조가 살아있을수록, 그 질서는 반드시 산과 하천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도시구조가 풍수지리적 조건과 자연순응형으로 형성되어온 도시일수록, 그 질서는 역사속에 이미 답이 내재되어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수많은 도시들은 도시경관의 질서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많고, 질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수직적인 건축물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선조들의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의 도시질서는 지형의 순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다시 말해 도시질서의 대 원칙은 이미 오래된 도시속에 답이 들어 있다.

안성시의 경우,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남북축은 명백하게 풍수의 조건을 반영하고 있다. 아쉽지만 이미 서측의 아양지구의 도시구조가 기존의 구도심의 도시구조와 다른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도심이 갖는 도시구조는 비봉산의 질서와 안성천, 그리고 보체산의 언덕들이 안산을 형성하고, 안성천 주변의 논경작지의 들은 매우 훌륭한 도시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다. 구도심의 도시구조는 이미 훌륭한 도시경관 구조를 갖고 있고, 여기에 녹색의 질서가 확보된다면 산과 하천과 들과 모두 연결되는 천혜의 아름다운 녹색도시가 만들어 질것이라 기대한다. 질서는 산과 하천에 연결되어야 한다.

- 녹색의 네트워크에서 토양의 네트워크까지

최근에 화두처럼 제기되는 도시의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생물 다양성’이다. 근대시기를 거치면서 화학약품의 사용과 유전자를 통한 생물 변종을 도입하여 산업화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생물의 다양성은 감소되어왔고, 이상 기후나 이상 현상이 발생 했을 때 순식간에 생물들이 사라지는 것을 본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문제나, 조류독감의 문제 등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부재의 한 사례이다. 생물다양성이 감소되고, 종의 획일화와 생산량 위주의 개량종 생물의 확장으로 우리의 식생활이나 소비의 양은 늘어났지만, 그와 동일하게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변종의 등장 또한 동일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주동자는 그동안 ‘도시’였다. 그래서 최근 유럽의 도시들은 화학약품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모든 도시공간에서 생물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토양의 회복이고, 토양의 네트워크화다. 쉽게 말하면, 도시 내의 자연토양의 면적을 늘리고, 그 토양들이 서로 연결해서 자연미 생물들이 토양간 이동 영역을 넓혀주고, 고립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양들의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산이나 하천으로 연결되어 순수자연환경과 도시자연환경이 연결될 때, 도시의 토양과 생태계가 건강해 질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공간을 맨발로 걸어볼 수 있는 날이 올순 없는가?

- 블루네트워크

블루 네트워크란, 물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녹색식물의 네트워크와 토양의 네트워크와 더불어 물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도시의 근대화는 100년도 채 안되는 짧은 역사 속에 오픈되어있는 실개천과 하천들을 모두 땅속으로 묻어버렸다. 땅속에 묻혀버린 물은 물속의 생태계 또한 모두 사라지게 하였는데, 오늘날 친환경 도시를 위해 토양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물의 생태계 또한 주목을 하고 있다.

워터프론트[water fronte]의 개념을 통해 도시공간의 물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나 회복시키고, 이러한 물의 공간이 새로운 도시의 힐링과 여가의 중심지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청계천의 사례뿐만 아니라, 물이 갖고 있는 도시에서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도시공간의 성격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안성시는 낙원역사공원 중심으로 동서를 관통하던 실개천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방향의 [현 중앙로 371번길] 복개하천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동서남북 축으로 흐르는 이 두개의 하천이 복원되어 물길이 회복되고, 이 물길이 안성천과 연결되면서 구 시장일대를 연결하고, 안성천 남측의 넓은 논 경작지 또한 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의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물은 도시공간에 정서적으로 시각적으로 평화로움을 제공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요소로 사용된다. 녹색의 수목과 식물의 공간, 잔잔한 물결이 햇볕에 빛나는 물의 공간, 이 둘의 요소가 결합되어 도시공간 이곳저곳 흘러 퍼져가는 길은, 새로운 도시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거주자들에 자부심과 활력을 제공할 것이다.

남측 논 경작지 마을과 북측 도시화 지역과의 유기적 관계형성

북측의 도시화 영역과 남측의 자연발생 마을과 논 경작지를 북측의 도시화 영역과 연결하여 생

산과 소비가 일원화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도시화가 진행될 때 남측의 논 경작지와 도기동 일대 또한 도시화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남측의 논 경작지를 최대한 친환경 거점으로 보존하면서 다양한 도시농업 관련지역으로 경작을 유지해서 도시지역과 연결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측의 도시 블록단위 한 지역과 남측의 논 경작지 한 블록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그 블럭에서 필요한 농산물을 남측의 논 필지에서 생산해서 지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남측의 논 경작지와 마을이 북측의 도시에서 필요한 농산물을 직접적으로 지원 및 연결함으로써 농업지 및 자연경관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가 일원화되는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평택이 산업화와 수도권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대기업 위주의 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유통시설이 위치하여 상권이 형성된다면, 안성은 청정지역에서의 청정 농산물과 유기농관련 품목으로 차별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별화된 먹거리에 대한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시 내적으로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안성시 내에서의 내적 경제 순환과정을 통해 농산물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청정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안정적 관계를 토대로 수도권에서 필요로 하는 청정농산물의 메카 그리고 청정 농산물의 가공의 메카로 도시의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7. 결론

안성시 도시공간의 역사성은 기념비적인 건축물보다는 ‘풍부한 일상의 역사성’이다.

화려하거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어떤 건축물이나 장소보다도, 소소한 일상을 가진 시민이 만들어왔던 사실들이 공간에 그대로 담겨있는 도시인 것이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일부요소를 통해 도시를 브랜드화 하려는 꿈을 꾸지 않기를 바란다. 눈을 돌려 일상에 펴져있는 수많은 역사 속에 담아져온 스토리에 눈을 돌리자. 안성시는 충분하고 넘치도록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간의 형태를 통한 질문을 던지는 수준에서 머물렀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잠겨있는 수많은 세세한 이야기가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도시 건축분야 뿐만 아니라, 인류학적, 고고학적, 사회학적, 지리학적, 경제학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래된 구도심 거주자들의 경험과,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겨있다. 눈을 부럽게 하는 타 도시의 모습에 빠져있지 말고, 눈을 돌려 우리가 선 두발 밑을 보자. 옆의 이웃을 보자 그들에게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지혜와 답들이 있다.

평택시의 급격한 도시화를 바라보고 있는 안성시의 입장에서는 찬란한 조선시대로부터의 역사 를 떠올리면서 수많은 상황들이 교차될 수 있다. 산업단지와 주요 교통망과 아파트 단지들이 대거

화장되는 평택의 발전이 단순한 평택의 성장이 아닌 안성시의 도시적 상황까지도 흡수해가는 듯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안성시의 입장에서는 쓸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관점을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평택시가 산업중심의 도시를 지향한다면, 안성시는 거주중심의 도시로, 평택시가 아파트 중심의 주거라면 안성시는 마당과 텃밭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친환경 주택을, 평택시가 대규모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라면, 안성시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유기농산물과 손으로 만드는 공방위주의 도시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화된 접근과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급하게 도시를 변화시키려는 교만을 버리자. 우리가 모든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논의가 조금은 지체되더라도 더 생각하고, 더 공유하고, 더 찾아내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다.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고쳐 쓰는 역사를 잊어버린지 오래되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 과연 새것이 주는 의미와 가치, 고쳐 쓰는 것이 주는 의미와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도시가 성급하게 사라지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같이 알아야 하고, 같이 이야기 하여야 한다. 안성시 거주자들이 각 도시공간들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알 수 있도록 계획하고,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변화의 주체는 거주자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앙리 르페브르의 말처럼, 이제는 도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상이 작품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도시와 사회는 변한다. 그럴 때 도시는 힘을 갖게 된다.

안성지역 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가고찰

2019년 경기도 현대지역사회 기록화사업 ‘안성시’ 편은 인접해 있음에도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안성과 평택의 시군문화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집중개발이 빈번한 경기문화 차원에서 한곳만 키우는 개발로 균형감을 잃은 도시화가 주변문화들을 어떻게 재편하는지를 살펴보자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조사였다.

특히, 근현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공통문화를 만들어 온 안성과 평택의 최근 역변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와 산만한 과제들 중 일부라도 현대지역사회 기록화에 담아내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찾아야 했다.

우선,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역사뿐만 아니라 공간형태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역사민속학과 공간형태유형학 전공자가 조사연구를 담당했다. 연구자들은 개요적 특성과 함께 ‘테마’를 찾고자 노력했다. 또한 경기학연구센터의 타사업 협력 시군이었던 평택과의 인연으로 ‘개발격차’를 보이는 안성을 선택했듯이 조사지역의 선정도 평택과의 역전현상을 다르게 바라볼 가능성이 큰 안성 내부에 ‘시각차’를 찾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외부관찰자가 쉽게 밀하는 단순한 역전처럼, 실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도 같은지 살펴보기 위해 ‘전통과 새로운 가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적합한 공동체를 찾기 위해 안성문화원과 안성시청의 도움을 받아 정해진 지역이 안성시 도기동과 공도읍 진사리·중복리였다. 도기동은 안성장의 배후공동체로서 유서 깊은 안성의 읍내 지역이었고, 공도읍 진사리와 중복리는 양성현에 속해 있다가 안성시로 편입된 평택을 이웃으로 둔 개발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이었다.

사업 초기의 발상이었던 도시간의 ‘역전현상’도 돌이켜 생각하면 ‘성장한 평택과 쇠락한 안성’이라는 무의식적인 비교에서 나온 말인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인구수와 사회경제적인 수치에 불과한 것일 뿐, 모든 문화를 포함하는 의미로는 사용될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어쨌든, 문제가 되는 두 도시간의 역전현상에 대한 처음 질문에 대해서는

안성의 옛 읍내지역에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었다. “평택은 촌놈이고, 안성은 양반동네”, “서로를 상수 하수로 본다”, “체인점이 본점을 이겼네” 등의 말에는 이러한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에 반해 정작 평택과의 경계지점인 공도읍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었다라는 모범답안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이 같은 표면적인 성과 이외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안성장’에만 초점을 맞춰 생각하던 안성의 역사적 정체성을 배후공동체 도기동과 도시공간 형태의 역사성에서 새롭게 찾아냄으로 안성을 바라보는 시야를 ‘안성장 밖’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도시화되어가는 안성시 경계에 위치한 공도읍에서 안성의 사라져가는 전통과 문화를 기록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표현처럼 안성보다는 인접해 있는 평택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도읍과 안성의 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사결과들은 이미 앞장에 수록되어 있으니, 이 장은 추가적인 성과중에 서두에 언급했던 집중개발로 인한 지역문화 재편과정을 ‘문화고착화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별도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장이 앞으로 안성 문화연구에 참고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전조사를 통해 알게 된 안성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은 일반인이나 지역연구자들이나 큰 차이가 없었다. ‘안성장을 랜드마크로 하는 역사문화도시’, ‘텃새가 심하고 배타적인 도시’, ‘경부선 철도 부설이 취소된 때문에 쇠락한 도시’ 등이 그러한 통념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 문화적 자긍심과 더불어 실패와 아쉬움이 뒤섞여 있는 위와 같은 생각들에는 심각한 오류와 왜곡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성의 활황과 쇠락만을 상징하는 안성장과는 다르게 안성장의 배후공동체 도기동은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전환기마다 자기정체성을 변신하는 주체적 역량을 보여주었고, 인구 19만의 작은 도시 안성시의 외곽에 위치한 공도읍은 변화와 발전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안성시는 ‘배타성과 텃새의 도시’로 불리는 것일까? 안성장이야말로 안성의 번영을 가져다 준 중요한 문화소인 반면에 지금껏 안성전역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데 발목을 잡는 과거회귀적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검증과 성찰이 필요한 안성의 텃새와 배타성 문제

안성은 경기지역 시군 간의 텃새 배틀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개성, 수원과 함께 삼대 깍쟁이의 고장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개성사람도 울고 갈 정도였다는 구전설화도 다수 전한다. 그런데 이 텃새와 배타성의 진원은 옛 안성을 대표하던 ‘안성장’의 시장 정서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 구체적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어떤 지역연구자는 안성에 배타성이 생긴 시점을 중국이나 일본자본을 몰아내고 독립자본을 만들려고 했던 일제강점기로 보기도 한다.

안성시가 밀고 있는 안성장의 이미지는 상업과 수공업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 본래 취지이지만, 이와 달리 실제 유포되어 있는 배타성의 이미지는 금전의 추구나 상권의 독점처럼 현대 자본주의적 시장의 모습이 사후에 반영된 왜곡된 옛 안성장의 모습일 가능성이 같다.

20세기 막스베버는 이윤과 영리활동에 소극적인 가톨릭 계통의 수공업장인 집단과 적극적인 프로테스탄트 계통의 자본주의 집단의 차이를 통해 자본주의 기원을 설명한 바 있다. ‘안성맞춤’과 ‘트집을 잡다’라는 단어를 유래시킨 유기공과 갓수선공 등 솔씨 좋은 장인들이 즐비했을 20세기 초 활황기 안성장을 상상해 보면 금전과 이윤만 추구했을 장사꾼들만 차고 넘치는 모습은 웬지 어색하다.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지만, 1901년에 세워진 안성시 구포동 성당의 설립 계기와 지역 안에서의 교세확장, 지역민의 교화과정들을 연구해 보면, 당시 명예를 중시했던 장인집단들이 활약했을 안성장의 본원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안성과 평택의 지역발전사

안성의 쇠락과 평택의 성장을 평택역의 설립에서 찾으려는 단편적 사고는 고유한 지역성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 철도를 근대화의 상징처럼 배워온 학습결과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이는 근대화를 성장·발전과 등치시키는 보수적 국가결정론을 이어받은 지역버전인 셈인데, 이러한 관점의 특징은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준비된 지역으로서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실제 경부선 평택역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교통의 요충지·식민지수탈 용이 등 우월한 입지조건에 양념처럼 추가된 것이 바로 ‘타지역의 텃세’이다. 텃세는 상대의 개방성을 뒷받침하고 근대화 탄생의 극적효과를 높이는 적합한 소재인데, 이를 통해 성역화된 근대화 발상지는 곧바로 상식이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평택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가 안성의 배타적 지역성을 강화시키는 것 같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평택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배타적이라 인정하는 안성 옛 읍내 중심여론도 지역텃세 굳히기를 거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판단이 매순간 합리적일 수 없으며, 상식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기에 잘못된 고정관념화에 맞서야 하는 지역연구,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이 아쉬워지는 대목이다.

또한, 두 지역사이 철도건설을 둘러싼 진위여부를 떠나 일제강점기 철도건설 전반에 대한 한국민의 대응과 전반적 고찰을 통해 각 지역의 대응들이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보는 것도 근대 상징물을 소재로 삼는 지역연구의 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안성의 배타성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가상의 산물일 뿐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번조사에서 확인된 다음의 사실들을 직시하고 안성의 텃세와 배타성의 실체가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 ▶ 경부선이 평택으로 들어선 이유는 산지지형이었던 안성보다 평지지형인 평택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기술과 비용의 셈법에 따른 결정일 뿐이지 ‘안성의 텃세 텃’이 아니다.
- ▶ 안성장의 쇠락은 수원장의 급부상으로 인한 물류체계 전반의 변화 때문이지, 평택역의 직접적 영향은 아니다.
- ▶ 1925년 출간된 사설읍면지 『안성기략』을 보면, 1905년 경부선 부설 이후에도 안성장과 안성문화는 결코 쇠락하지 않고 진화했다. 또한 도기동의 사례를 통해 확인되듯이 안성은 1990년대까지도 농촌사회를 선도해나가던 지역이었다.
- ▶ 평택역의 급성장은 6·25 전쟁 당시 미공군의 주둔지가 된 것이 결정적 계기이지, 평택역이 향후 평택의 성장에 모든 공훈을 독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3) 쇠락과 배타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도시브랜드화의 문제점

안성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안성장’은 도시브랜드화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안성장은 역사와 전통, 번영했던 시절의 안성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명예로운 장인들이 주도하던 수공업시장이 아닌 금전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시장처럼 안성장을 떠올리는 것이 문제이다. 그 이유는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더 큰 가치작용 때문일 수 있다. 국가 또는 세계 단위로부터 습득된 가치기준들로 말미암아 안성시가 제공하려는 가치기준이 먹혀들지 않는 셈이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이미지란 주체의 경험과 가치부여로 생성되며, 이미지를 만드는 힘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라고 했다. 이성적 판단보다 상상의 세계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철학자의 률에서 본질은 늘 왜곡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원형이 잘 보존된 안성장은 낙후된 장소로서의 실체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왜곡된 본질과 영구불변할 것 같은 쇠락한 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오버랩 되면, 명예와 자긍심이 가득한 활황기의 시장이 아닌, 금전만 추구하다가 쇠락한 시장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브랜드화의 속성인 지속적인 마케팅은 잘못된 본질을 확장시키는 동력원이 되고 만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사람들의 왜곡된 편견을 잡아줄 역사적 공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정보인데, 과연 안성장은 충분한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인 것 같다. 현재의 상태로는 호황을 누렸던 시장으로서의 안성장만 내세울 때 생기는 부정적 열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안성기

략』등의 다양한 자료 분석과 안성장의 본원적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현장 조사를 통해 안성장의 역사성을 보강할 수 있는 입체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에 조사된 안성장의 배후공동체였던 도기동의 역사성과 안성장을 연결 짓고 서로의 차양분을 나누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고려·조선시대 읍치의 배후지, 양반의 집성촌, 사농공상이 혼재하는 수공업 장인마을, 전형적 농촌마을로 자기 정체성을 변신해 온 도기동의 주체성은 기존 안성장의 이미지와 변별되는 새로운 안성의 정체성을 조명하는 기반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도기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기산성의 사적지정을 둘러싼 소란은 도기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써내려 갈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도기동의 두터운 역사성을 이해했다면 지지부진한 논의과정을 단순한 재산권보호 주장이 아닌 ‘자기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투’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전통적인 공동체일수록 전래적 삶의 유지와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위한 선택과 결정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전래적 삶의 운영 일부를 관할 행정을 통해서 완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시대적 상황을 인정하는 전통마을의 품격을 통해 믿음과 신뢰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

4) 전통시절의 기억에 따른 양성 지역의 분리욕망에 대한 이해

안성 도기동과 공도읍은 조선시대 안성군, 양성현이라는 서로 다른 전통공간에 뿌리를 두고 안성이라는 단일한 개념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다. 특히 공도읍과 평택 일부지역은 조선시대 양성현이라는 전통공간에 한 뿌리를 두고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개념공간들은 대체로 전통시절의 기억을 따르고자 하는 ‘소지역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원한 분리욕망은 옛 안성 읍내였던 안성과 현재 행정구역인 안성과 평택으로 관할지만 나뉜 두 갈래 양성이 혼연일체성을 발휘하며 대결하는 국면을 만들어 내고 있다.

양성시절의 기억을 공유하는 공도읍의 진사리와 중복리가 평택과 생활권을 공유하면서 별 다른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단순히 생활상의 편의 말고도 평택에 편입된 인접지역과 양성시절의 추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물론 스타필드라는 변수가 있지만, 당분간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과 잘 지내는 공도읍의 생활패턴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지는 공도읍과 기존 안성지역의 개발성장 불균형은 상대지역에 대한 전통적 분리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총체적인 안성지역 공동체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성시가 전통공간들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시정을 펼쳐야 하는 이유이다. (윤소영)

각주

01 안성장의 번역과 쇠퇴에 따른

안성 지역의 변모 양상

- 1) 안성박물관은 대덕면의 중앙대학 안성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다.
- 2) 『조선후기 시장연구』, 김대길, 국학자료원, 1997.
- 3) 안성은 원래 총청도였다가 조선 태종 13년에 경기도로 예속되었다.
- 4) 지금은 평택에 속해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독립된 현이었다.
- 5) 『비변사등록』, 숙종 29년 3월 17일
- 6) 『승정원일기』, 영조 23년 12월.
- 7) 『편역 안성기략』, 김태영 원저, 안상정 편역, 새로운사람들, 2007, 62쪽. '경성보다 이종(二種)이 다출(多出) 한다.'고 하였다.
- 8) 『각사등록』
- 9) 『편역 안성기략』, 206~207쪽
- 10) 이러한 안성 중심지의 이동 과정은 다음 논문인 '도구 머리마을을 통해 본 안성의 어제와 오늘'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 11) 『안성군지』, 안성군지편찬위원회, 1990. 1476쪽.
- 12) 안성객사는 1908년 안성보통학교(안성초등학교)의 교사로 사용되다가 1931년 명륜여자중학교 자리를 거쳐 현재 보개면 양복리 안성문화원 앞으로 이전되었다.
- 13) 『안성군지』, 1474쪽.
- 14) 구 안성군청 건물은 현 안성1동주민센터는 2018년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709호로 지정된 바 있다.
- 15) 현재의 구포동 성당 건물은 1922년에 건립된 것으로 1985년 경기도기념물 제82호로 지정되었다.
- 16) 북리면은 사곡, 금석리, 보왕리, 당리의 4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었다.
- 17) 읍내면은 1931년 안성면을 거쳐 1937년 안성읍으로 승격하였다. 이후 안성읍은 1997년 보개면 가사리, 가현리와 대덕면 모산리, 건지리, 소현리 일부를 편입하며 약간의 행정구역 확장을 거친 후 1998년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되면서 안성1동, 안성2동, 안성3동으로 개편되었다.
- 18) 고삼면 역시 용인에 속해 있다가 안성에 편입된 지역이지만 이 글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1963년의 일이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 19) 서운면은 조선시대 기춘면·송죽면·덕곡면·입장면이었다가 1914년 이를 합쳐 서운면이라 하였다.
- 20) 『삼국사기』「지리지」에 “백성군(白城郡)은 본시 고구려의 내혜홀(奈兮忽)인데 경덕왕이 ‘백성’으로 개명하였다. 지금의 안성군이니 영현이 들이다.”라고 하여 관련 기록이 처음 등장한다.
- 21) 1995년 8월 7일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54호로 지정되었다.
- 22) 『삼국사기』「지리지」에 “적성현(赤城縣)은 본래 고구려의 사복홀인데, 신라 경덕왕이 적성이라 고쳤으니 지금의 양성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23) 『삼국사기』「지리지」에 “개산군(介山郡)은 본래 고구려의 개차산군(皆次山郡)이었는데 경덕왕이 개명하니 지금의 죽주(竹州)이다.”라고 하였다.
- 24) 「안성장의 발전과 쇠퇴」, 홍원희, 전조선 3대시장 안성 시장, 안성맞춤박물관, 2009.
- 25) 혼히들 말하는 안성의 5대 특산물은 유기, 갓, 꽃신, 인삼, 담뱃대이다.
- 26) 『편역 안성기략』, 206쪽.
- 27) 『경기도안내』, 경기도, 1915, 34쪽
- 28) 『편역 안성기략』, 209쪽.
- 29)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의 사설 철도였다.
- 30) 『편역 안성기략』, 207쪽.
- 31) 『편역 안성기략』, 209쪽. '대규모 설비로 각종 음식을 판매하고 고객이 기녀(생)를 껴안고 한담하는 음식점은 요리점이라 부른다. 간단한 설비로 술과 기타 음식을 판매하는 곳을 음식점이라 부른다. 요리점에는 중산급 이상, 음식점에는 중산급 이하의 계급이 출입한다.'
- 32) 『안성기략』에 기록된 내용이니 당시 안성시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일 뿐이다.
- 33) 일제의 경부철도 노선 계획은 애초에 안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설도 있다. 안성 북쪽에 발달된 산지가 도로를 내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영남 대로나 호남대로 역시 안성을 통과하지는 않았다.
- 34) 채선희 할머니(여, 89세, 군포거주)

02 도구머리마을을 통해 본

안성의 어제와 오늘

- 1) 7대 안성시장의 취임사 중에서

- 2) 용인의 인구는 100만, 평택은 50만, 안성은 19만 정도이다.
- 3) 동쪽으로 현수동·신흥동, 서쪽으로 미양면, 남쪽으로 계동, 북쪽으로 아양동과 접한다.
- 4) 안성2동주민센터, 2019년 5월 4일 현재의 세대 및 인구
- 5) 이와 달리 탑산 뒤로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 모퉁이에 마을이 있다하여 도구머리(石隅)라고 하였다는 설도 전해지지만 ‘독+모퉁이(모랑이)’가 도구머리로 변음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현상이다.
- 6) 이광희(남, 84세, 도기2동 거주)
- 7) 이광희 씨의 노력으로 당시 재판에서 승소한 분들의 명단으로, 이들이 송덕비를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8) 성안산, 마산, 탑산, 능안산, 동그락산의 다섯 개 산이 도기동에 위치하지만 그리 높지 않은 야산들이다.
- 9) 『안성 역사의 이해』, 홍원의, 안성시, 2017, 3쪽.
- 10) 『안성군지』, 지명편
- 11) 서원을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서원은 원장(院長), 강장(講長), 훈장(訓長) 등 교육을 담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원속(院屬)과 노비도 다수 필요로 하였다. 이를 위한 재정은 서원전(書院田) 등을 통해 마련되었는데, 『속대전(統大典)』에 의하면 사액서원에는 3결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밖에 도지방 유지들이 기증하는 원입전(願入錢), 지방관에 의하여 현물로 지급되는 어물식염 등이 있어 교육활동에 필요한 잡비를 충당하였다.
- 12) 『편역 안성기략』, 62쪽
- 13) <자치안성신문>, 2017. 1. 2. 왕족이, 양반이 양반구실 포기하고 장사로 돈 벌어 이웃에게 베풀 동네
- 14) 『편역 안성기략』, 213쪽. 흑철점이라 표기가 되어 있다. 한 곳은 건평 6평 규모에 자본금 750원, 종업원 5명에 생산품 가격은 221원이었고, 또 한 곳은 공장건평 3평에 자본금 500원 종업원 5명에 생산품가격 216원이었다.
- 15) 그의 손자인 정지한 씨(1941년 생)가 지금도 도구머리 마을에 살고 있다.
- 16) 『편역 안성기략』, 59쪽. 당시 안성 제일의 두레째는 읍내면 석정리였다. 석정리는 고종 2년(1898) 4월에 경복궁 개축 때 불려가 일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다른 마을의 농기들은 석정리의 농기에 경의를 표하였다.
- 17) 이후 이익훈과 그의 조카인 이봉구 사이에 재산분쟁이 일어나는 등 친척간에 일어난 재산쟁탈전이 당시 신문에도 보도되는 등 구설수에 오른 사실도 있다. 이봉구는 <명동백작>으로 유명한 문학가이다.
- 18) 『2006년 안성 뉴타운 지구 택지개발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에 도구머리마을 청년단가가 소개되어 있다.
- 19) 젊은 사람들은 총 한 자루씩 가지고 있었을 정도였고, 인근 동네에서 좌익들을 잡아다 문초했던 동네로 유명했다 한다. 한국전쟁 때 9.28 수복이 늦었으면 좌익의 보복으로 마을이 불바다가 될 뻔 하였다고 주민들은 회상한다.
- 20) 이에 반해 좌익세력이 많이 거주했던 마을은 대개 읍내 서쪽에 위치한 빈곤한 마을이었다.
- 21) 4H운동은 Head(두뇌), Heart(마음), Hand(손), Health(건강) 네 단어의 첫 글자를 따 부른 것이다.
- 22) 권영태(남, 1963년 생), 도기1통장
- 23) 당시 도기1통의 통장은 도구머리마을의 박용산 씨이다.
- 24) <자치안성신문>, 2005. 7. 19. 고향을 잊어버리는 자의 피눈물을 기억하라
- 25) <자치안성신문>, 2005. 7. 19. 스러지는 땅, 사라지는 시간 1 - 도구머리마을 일대의 옛 문화
- 26) 도기동의 경우는 아양동에 접해 있던 도기2동의 극히 일부 지역만이 개발지역에 포함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개발지구에서 해제된다.
- 27) 도구머리마을의 소방도로는 2018년 12월에 정비가 된다.
- 28) <자치안성신문>, 2016. 10. 18. 안성 도구머리마을 산성 사적 지정
- 29) <경향신문>, 1996년 10월 6일 기사. 『안성맞춤 박물관』 안성에 99년 개관
- 30)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15

03 도기동과 구 안성장의 문화자원 활용

- 1) 안동 사람.
- 2) 어질고 너그러운 도량과 재능이 있으며, 양순하고 인정이 두텁다.
- 3) 매우 정성스러워 아름다웠다
- 4)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관료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그러나 영귀정과 관련 있는 시가로 『안성기략』에 실려있음으로 본문

-
- 에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 5) 안성맞춤 시장 매니저가 시장역사를 조사하던 가운데 65세 노인이 자신이 중학교 시절에 이전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한다. 이로 역산해 추정하면 68년과 70년 사이에 이전한 것이 된다.
- 6)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 1권 - 경기도편』, 국립민속박물관, 1995, p.294 - 1967년 문화재관리국 설문 조사 자료 참조.
- 7) 1990년 발간된 『안성군지』에는 도기리 동제에 대해 조사된 바 없다.
- 8) 안성시편찬위원회, 『안성시지 4권 민속과 전통』, 안성시, 2011, p331 참조.
- 9) 피를 보는 부정.
- 10) 김태민, 「안성시 도기동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산신제」, 아시아문예일보, 2019년 2월 7일 기사 참조. ※ 2019년 9월 도기 1통 조사시 통장 권영태(57)와 인터뷰 내용을 보충하여 서술.
- 11) 실제 안성천은 배가 다닐만한 지류가 아니었고, 홍수가 나면 선원이 강배를 끌고 들어올 수 있기에 몇 번 들어왔던 수준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중국 상인들이 오갔다는 얘기는 과장일 가능성이 높다.
- 12) 해당 내용은 1999년 출간된 『안성군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 13) 안성시편찬위원회, 『안성시지 4권 민속과 전통』, 안성시, 2011, p442-443 참조.
- 04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의 현대적 급변과 경계면적 면모**
- 1) 『공도읍 발전사』, (공도읍 발전사 편찬위원회, 2012), 145-146쪽.
- 2) 자료출처 :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
- 3) 『공도읍 발전사』, 47쪽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 4) 안성포털 <https://www.anseong.go.kr/portal>
- 5) 해당 장의 본문은 『공도읍 발전사』의 375~379쪽; 665~706쪽에 정리된 진사리 개관 및 진사리의 각 마을에 대한 개요의 내용을 일부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 6) 안성포털 <https://www.anseong.go.kr/portal>
- 7) “안성시 인구현황-2019년 7월말 기준” 중 ‘연령별 인구 현황’ 자료를 재정리한 것임.
- 8) 해당 장에서 전개되는 각 마을에 대한 개황은 『공도읍 발전사』, 665~681쪽에 정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보완하거나 재정리한 것이다.
- 9) 2019년 7월 8일과 7월 17일에 진촌마을회관에서 만난 마을주민들의 증언을 재정리한 것이다.
- 10) 『안성시 통계연보』의 연도별 자료는 다음 년도에 자료집으로 발간된 것을 정리한 것임.
- 11) 안성포털 <https://www.anseong.go.kr/portal> “2018년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_안성시” 중 부록 2.
- 12) 해당 목록은 2019년 기준 인터넷에서 확인된 진사리 소재 어린이집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가정에서 운영하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몇몇의 경우는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리순은 무작위이다.
- 13) 공도읍 관내 각 학교별 홈페이지의 자료를 종합한 것임.
- 14) 안성시립도서관/도서관안내/진사도서관 <https://www.anseong.go.kr/library>
- 15) 평택시의 전통시장인 통복시장에 관해서는 『평택시사 제3권-정치·행정·경제』, (평택시시편찬위원회, 2014), 500쪽에서 확인된다.
- 16) 『평택시사 제3권-정치·행정·경제』, 502쪽
- 17) 『안성시 통계연보-1985년도』, 20쪽
- 18) 『안성시 통계연보』의 연도별 자료를 통해서 정리한 것임.
- 19) 나무위키에 정리된 내용 중에 평택과 안성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집한 것이다.
- 20) 평택시 홈페이지 <https://www.pyeongtaek.go.kr>
“00인구1.xls”, 2002.07.24., 기사 작성.
“02인구1.xls”, 2003.01.28., 기사 작성.
“12월말평택시인구현황.xls”, 2011.01.03., 기사 작성.
“2015년 12월말 평택시 인구현황.xls”, 2016.01.04., 기사 작성.
“2017년도 12월말 평택시 인구현황.xls”, 2018.01.02., 기사작성.
“2019년도 8월말 평택시 인구현황.xls”, 2019.09.02., 기사 작성.
- 21) 2019년 9월 30일자 기준으로 평택시의 비전2동과 용이동이 분동되면서, 9월 30일 기준으로 소사별초, 용죽초, 현촌초, 평택대학교는 용이동에 속한다.
- 22) 『공도읍 발전사』, 56쪽에서 발췌 정리한 것임.
- 23) 『공도읍 발전사』, 417쪽.
- 24) 아래의 세시풍속, 통과의례와 관련된 자료는 『공도읍 발전사』에서 확인된 진사리 주민들의 전통적인 삶의

모습을 담을 부분을 모은 것이다.

- 25) 2019년 7월 17일, 진사리 진촌노인정, 유종식(1941년생), 서광록(1941년생), 김유복(1946년생) 어른들과의 인터뷰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 26) 『공도읍 발전사』 中 253쪽.
- 27) 『공도읍 발전사』, 169~170쪽.
- 28) 안성포털 <https://www.anseong.go.kr/portal>, 안성시 통계연보 년도별 자료.
- 29) 출처 : 안성포털 <https://www.anseong.go.kr/portal> “안성시 통계연보-2018년도”, 16쪽.
- 30) 『공도읍 발전사』, 227쪽.
- 31) 『자치안성신문』, 인터넷 기사(2018.06.04.) <http://www.anseongnews.com>
- 32) 『안성시 민선 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안성시, 2019.02.)32쪽.
- 33) 안성포털, 『2019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성시, 2019. 01), 297쪽.
- 34) 안성포털, 공지. 『안성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 35) <스타필드 따른 문제 해결 고민하자 VS 스타필드 조기 착공 필요하다> 스타필드 안성 토론회”, 인터넷 『평택시민신문』, <http://www.pttimes.com>

05 안성천이 흐르는 중복리의

근대화와 마을전통

- 1) 이 장의 내용은 『공도읍 발전사』(공도읍 발전사 편찬위원회, 2012)에서 중복리 관련 내용, 'Daum Cafe 중복리 (<http://cafe.daum.net/jungbokri>)'의 내용 그리고 안성 시청 홈페이지에서 중복리 관련 내용을 종합하고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고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 2) 소방기구와 발동기에 대한 내용은 'Daum Cafe 중복리 (<http://cafe.daum.net/jungbokri>)' 참고.
 - 3) 1925.09.25. 동아일보 3면, 水災同情金(수재동정금) 명단 중 金時春(김시춘) 1926.11.07. 동아일보 5면, 抑鬱(억울) 하게 離婚當(이혼당)코: '김업인은... 그의 남편되는 충신동 십륙번디 김시춘(金時春)을 거려 얼마 전 경성디방법원 민사부에 위자료 일만 칠천원과 기타손해금 삼천원 함께 이만원의 청구소송을 데려야야...'
- 1933.11.02. 동아일보 2면, 富豪孫子假裝(부호손자가장) 人蔘鹿茸詐欺(인삼녹용사기): '부내 부호 김시춘(金時春)과 특별한 거래가 있는 것을 알고 자기가 김시춘의 손자

인 것 같아 꾸미고...'

- 1934.08.05. 동아일보 6면, 三南水災義捐金品(삼남수재 의연금품) 명단 중 金時春(김시춘).
- 4)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1920년대에 신문구독료가 월 1원, 쌀 한가마가 12~13원 정도 했다고 한다. 2018~2019년에 쌀 한가마 가격이 15만원~20만원 정도 한다고 하니, 당시 2만원이면 현재 화폐로 상당하다 할 수 있다.
- 5) 평택시사(<http://sisa.pyeongtaek.go.kr/>) 중 원평동 개관 중 일부.
- 6) 아산만 방조제에 관한 내용은 다음백과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요약·정리한 것이다.
- 7) 토지 구획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땅 일부가 공공 용지 따위로 편입되어 그 땅이 줄어드는 일.
- 8)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도로, 광장, 학교, 공원 등의 공공용지 등의 확보 및 공사의 재정자원 충당을 목적으로 토지를 공출받는 비율.
- 9) 『공도읍발전사』에 의하면 '(중복리의) 마을회관은 건평 30평, 5000만원을 지원받아 2000년에 건립했으며, 마을회관은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아 지었다. 당시 주민들이 모래를 싣고 와 직접 블록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 주민들의 진술과 조금 차이가 난다.
-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검색어 '망종' 내용 중.
- 11) 『공도읍발전사』에 중복리 마을의례로 '매년 정월 대보름날 아침 마을 입구의 버스 정류소 앞 안성천 제방에서 대동 제사를 올린다. 하천 제사로도 알려져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를 대동 제사로 부른다. 제관은 제관과 축관 2명이 맡으며 제사 비용은 마을 기금으로 모두 충당한다. 예전에는 제물로 쇠머리 올렸으나 요즘에는 돼지머리, 시루떡, 대추, 밤, 곶감, 사과, 배, 술 등을 올린다. 제물 준비는 노인회와 부녀회의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다. 제사를 지낸 후에는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 1960년 무렵 까지 정월 대보름에 줄다리기를 했는데, 당시 마을 의용 소방대에서 불끄는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는 내용을 주민들의 진술과 비교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 12) 네이버 블로그 '평택통복시장' (<http://blog.naver.com/tongbokmk>)
- 13) 초복·중복·말복 등 복(伏)날에 몸을 보하는 음식을 먹거나 시원한 물가 등을 찾아가 더위를 이기는 풍습.

경기마을기록사업 ⑨

수공업 장인도시, 도농복합도시

안성의 전통과 미래

안성시 도기동, 공도읍 진사리·중복리

집필진 김준기(민속학)

강호정(민속학)

김은희(민속학)

시지은(민속학)

장수아(도시형태유형학)

기획 및 진행 이지훈(경기학연구센터장)

윤소영(경기학연구센터 연구원)

발행일 2019.12.20.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16614)경기도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문의 경기학연구센터 031-231-8573

제작 한그래피

비매품

이 책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작자와 경기문화재단 양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마을기록사업 시리즈

①	아흔아홉 골과 논에 이름이 있는 마을
②	새마을운동의 산실 봉안 이상촌
③	다산이 그리워한 마을 마재
④	옛길을 품은 마을 오리골
⑤	달월 열두마을 이야기
⑥	2016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⑦	옛 관청을 품고 있는 마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마을
⑧	권돌고을 산신마을
⑨	파주 금촌마을의 회상과 기록
⑩	2017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⑪	고양의 아홉마을에 대한 기억+언어
⑫	고양시의 자연마을들_높은고을 작은마을의 역사와 문화
⑬	풍요와 천도의 땅, 교하 마을지
⑭	희망과 도약의 땅 월롱 마을지
⑮	2018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⑯	문화역사관광의 땅, 탄현마을지
⑰	파주의 동맥, 조리마을지
⑱	포천 가산마을지
⑲	수공업 장인도시, 도농복합도시 안성의 전통과 미래
⑳	2019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